

성남문화재단 자료집
Seongnam Cultural Foundation Report

성남문화통화 도입을 위한 일본 지역통화 연수집



Content

5 연수개요

9 **마치다 다이후쿠쵸**
마치다시의 상가와 연계한 지역통화 시범사업
지역통화 마치다 다이후쿠쵸
지역통화 다이후쿠쵸를 활용한 hana담보

33 **사와야키 복지재단의 타임달러**
사와야키 복지재단 소개
지역통화 타임달러 개요

41 **온라인을 통한 개인간의 지역통화 거래시스템**
WAT 시스템
i-WAT 시스템이란

51 **치바현의 지역통화 피너츠**
치바현의 지역통화 피너츠

별첨 : 사회시장 형성에 관한 조사연구(마치다시 기획부 정책심의실)

연수 개요

- 연수 개요
- 연수 일정

□ 연수 개요

- 연 수 명 : 성남문화통화 도입을 위한 일본 지역통화 연수

- 목 적
 - 문화통화를 준비하는 기관 단체 실무자의 안목을 넓히는 계기 마련
 - 성남시 문화통화 모델 창출을 위해 외국사례 벤치마킹
 - 일본 지역통화 센터와의 교류 확대

- 연수내용
 - 성남에서 실시할 통화시스템과 관련된 분야를 중심으로 주제를 선정
 - 유형별 사례지 견학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코스로 진행
 - 일본의 관련 모임과 상점 등 실제 진행 중인 곳과 간담회 진행

- 연수기간 : 2006. 8. 22(화)~8. 26(토) 4박 5일

- 연 수 국 : 일본 동경, 치바현, 요코하마

- 주요방문
 - 치바현-피너츠 지역통화(치바마을 가꾸기 센터)
 - 게이오 기류크 대학 디지털 미디어 콘텐츠 종합 연구소-WAT시스템
 - 마치다시 시청-정책심의실
 - 마치다시-다이후쿠쵸 지역통화
 - 사와야키복지재단-타임달러(후레아이티켓)

- 참 가 자 : 10명
 - 성남시의회(2), 성남시청(1), 성남예총(1), 성남문화원(1), 성남민예총(1), 성남시자원봉사센터(1), 성남문화재단(3)

□ 연수일정

일정	도착지	방문기관과 연수내용	비 고
제1일 8/22 (화)	동경 나리타	10:15 인천공항에서 출발 12:30 동경 나리타 공항 도착 13:00~15:00 숙소 이동(긴자캐피탈호텔) 15:00~16:00 연수 일정 공지 16:00~18:00 이동 및 저녁 식사 19:00~21:00 U-Port무역보험홀 뮤지컬 관람(시저한스)	
제2일 8/23 (수)	마치다시 (동경도)	마치다다이후쿠쵸(町田 : 통장과 지폐)방문 10:30 ~ 마치다(町田)시청 방문 10:30 ~ 12:00 : 마치다시의 지역통화 시범모델사업 설명(후르야) 12:00 ~ 13:00 : 점심식사 (마치다 시청) 오후 : 마치다 다이후쿠쵸에 대한 설명과 시범모델 상가 및 실시지역 순회 13:30 ~ 15:30 : 시민포럼회의실로 이동 및 마치다시의 지역통화 시범사업에 대한 질의응답과 마치다다이후쿠쵸에 대한 설명 16:00 ~ 18:00 : 유기농장 활성화를 위한 지역통화 사용사례(키무라) 18:30 ~ 회원들과 같이 저녁식사 20:00 ~ 21:00 : 토론	하다마쓰쵸(마치다시 공무원 경제진흥회), 후르야(마치다시 공무원 정책심의실), 모리노 에이치 (경제평론가, 계절연구회주재)
제3일 8/24 (목)	동 경 요코하마	10:00~12:00 [사와야카복지재단(프레아이티켓) : 타임달러] 동경 미나토구 시바공원 일본여자회관 복재분야에서 실행되고 있는 '타임달러' 방식의 지역통화 사례 설명(츠루야마) 13:30~17:00 [게이오대학 디지털 미디어 콘텐츠 종합연구소] 방문 온라인을 통한 개인과 개인간의 지역통화 거래시스템 - WAT, IWAT system 설명 20:00 ~ 21:30 : 토론	츠루야마 사이토겐지 (연구원)
제4일 8/25 (금)	니시치바 마을 (치바현)	니시치바(西千葉 :통장) 피너츠 방문 <단축체험학습과정> 13:00- 니시치바(西千葉)역 개찰구에서 대기 12:30~13:30 피너츠클럽에 가입한 상점 방문, 통장이용방법에 대한 설명. 13:30~15:00 '피너츠' 지역통화 활용 사례-상품 개발, 고평자 시설센터 등 15:00~16:00 고평자 시설센터 방문 카이호씨(Madoka미용실 사장, 유리노끼 상점가회장) 16:00~17:00 '피너츠' 지역통화 활용사례에 대한 질의응답 20:00 ~ 21:00 : 토론	무라야마 (도시건축가겸 계획가, 피너츠서포트센터 대표)
제5일 8/26 (토)	인 천	10:00~12:00 동경도청 방문 15:00 나리타공항 도착 17:00 나리타공항 출발 19:15 인천공항 도착	

마치다 다이후쿠초

- 마치다시의 상가와 연계한 지역통화 시범사업
 - 지역통화 마치다 다이후쿠초
 - 지역통화 다이후쿠초를 활용한 Hana담보



마치다 다이후쿠쵸

1. 마치다시의 상가와 연계된 지역통화 시범사업



<사진 1> 마치다시청 관계자의 시범사업 설명

마치다시청 시키야사마 기획부장입니다. 여러분이 마치다시청과 시민단체가 펼치고 있는 지역통화에 대한 연구활동을 하시는 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마치다시는 2007년이 5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중소기업으로써는 도쿄의 근교 도시 중에 최고의 도시입니다. 현재 마치다시가 가지고 있는 과제는 경제 글로벌화시대에 지역상인들의 활성화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지역발전을 위한 지역통화는 모리노 선생님을 중심으로 새롭게

연구개발되고 있으며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일본에서도 법정통화는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마치다시에서도 행정적으로 시민들과 교류하여 지역통화를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실질적으로 앞으로 전개될 과제들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발전해 나가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모리노에이치입니다. 수년 전에 광명시에서 마치다시를 방문하였습니다. 그 때와 비교해보면 일본의 지역통화는 안정기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도 같은 추세입니다. 가장 활성화 된 곳은 무척 잘되고 있고 반면 잘 안 되는 곳도 있습니다. 한국도 같은 상황이라고 들었습니다. 실패한 지역이라도 지역통화를 통해 얻는 효과는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역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사람이 나타났다는 것 일본에서는 그런 분들을 '사회적 프로듀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원봉사 분야에서도 마찬가지로 지역활성화 분야에서도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한 예를 이후부터 보실 수 있습니다. 행운이 아니면 그런 분들을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23일 오후의 일정과 25일 피너츠를 보시면 지역통화를 통해 키워진 인재를 직접 만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수요일이라 마치다시 지역통화에 참여하는 상인들이 쉬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신 25일에 서치바에서 상인들을 만나보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시민들과 농업에 종사하고 사회활동에 종사하는 분들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실은 일본에서 보여드리고 싶은 것이 무척 많습니다. 그러나 도쿄에서 가까운 지역으로 2곳을 선정하였습니다. 오늘 아주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여기저기 여러 곳을 방문하게 될 것입니다. 사회복지에 관련된 것은 사와야키복지재단을 방문해서 귀중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지역통화를 활성화시켜서 할 수 있는 것은 생각하고 있는 것을 달성하는 것입니다. 지역통화는 도구이기 때문에 다양한 형태의 도구들이 있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마치다시 지역통화와 피너츠 지역통화는 성공한 사례의 예가 되겠습니다. 이것으로 인사말을 마칠 것입니다. 마치다시의 하라마치다 상점지역에서 시범모델을 추진하신 마치다시청의 히다치씨입니다. 마치다시의 정책심의실에서 근무하는 후르야씨입니다. 시범모델에 참여한 시민단체 대표 이마이게이코씨입니다.

1) 마치다시 소개



지금 나눠드린 자료를 가지고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치다시 가이드를 먼저 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치다시는 가늘고 기다랗게 생긴 도시입니다. 이 책자를 보시면 영문으로도 마치다시를 소개하는 글이 있습니다. 일본의 제일 중

심이 되는 도쿄도가 옆으로 길게 있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도쿄도가 23개 구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23개 구가 일본의 중심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본의 총 행정지역은 47개로 나누어져 있고 47개 중 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서울에서도 남쪽 지역에서 해당하고 성남하고 같은 위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서울의 남쪽과 도쿄도의 남쪽이라는 친근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면적은 72만Km2입니다. 성남시의 반정도의 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남시가 100만정도이고 이곳은 40만 정도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마치다시가 작은 도시입니다. 북쪽지역은 산림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쥘르미가와라는 하천의 원류도 마치다시에 있습니다. 아주 도회지적인 지역과 농촌지역이 결합된 곳입니다. 성남도 역시 서울로 출퇴근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치다시도 물론 도쿄로 출퇴근 하는 사

람들이 많습니다. 마치다시에는 4~5층 정도의 주민아파트가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는 주로 단독 주택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치다시는 문화활동이 무척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성남시와 닮은 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지도를 보시면 왼쪽 2번에서 내려오는 철길이 있을 것입니다. 밑의 9번에서 요코하마라는 철도가 있습니다. 2개의 철길이 교차되는 부분에 하라마치다라는 상점가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곳이 작년에 지역통화를 실시한 곳입니다. 아래쪽에 있는 지도가 하라마치다를 확대한 지도가 될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한 가운데에 시청에 여러분들이 지금 계십니다. 2개의 전철이 교차하고 있는 부분 중 한가운데에 상업지역이 있습니다. 뒷면에 보시면 마치다시의 명소가 인쇄되어 있습니다. 그 나머지는 시간이 있을 때 참고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2) 마치다시청의 지역통화 시범사업 추진배경

마치다시청에서 추진한 지역통화 연구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책심의실은 중장기적 정책을 연구하는 곳으로 그 중 지역통화도 연구하고 있습니다. 2004년도 예전에 계신 부장님이 지역통화에 대한 연구를 하라고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전국적으로 봤을 때 행정에서 지역통화를 실시해서 성공한 예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혀 성공한 예가 없다는 것은 아니고 잘 진행되고 있는 곳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지역통화가 민간이 하는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행정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을 시민들에게 이런 식으로 하라고 하면 잘 안되기 때문입니다. 상관의 지시로 지역통화에 대한 전반적인 연구가 시작되었으며, 모리노 선생님의 조언과 시 직원 10명으로 구성된 TF팀이 연구를 시작하였습니다. 지역마다의 생활상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지역마다의 특색 있는 지역통화가 활성화 될 수 있을지 연구하였습니다. 본인은 지시를 받고 나서 세계의 지역통화 일본의 지역통화에 대해 다양한 면으로 연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모리노 선생님의 좋은 가르침을 받고 지역통화의 원리 등을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역통화를 통해 자원을 어떻게 활성화해 갈 것인지를 연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것을 정리한 것이 나뉘드린 책자입니다. 이 책자를 가지고 일본사람들에게 설명을 드려도 이해하기 힘듭니다. 이 책자를 읽은 분은 지구상에 10명 정도 있습니다. 짐이 되실지도 모르겠지만 꼭 한국어로 번역해 주시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책자를 만들어 내기는 했지만 시 직원으로써 시청에서 하고 있는 것은 아직 미흡합니다.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에는 예산도 없고, 아이디어만을 가지고 실행하는 일은 무척 어려운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 직원으로써 업무를 추진할 때는 조직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일을 하기가 더욱 힘이 듭니다. 히다치씨는 일반인들과는 조금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직의 원칙을 따르지 않는 분으로 유명합니다. 그러한 성격을 가지셨기 때문에 이마이씨와 연계하여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었습니다. 어떠한 일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이마이씨로부터 이야기를 듣기로 하겠습니다.

사람과 사람이 어우러져 만들어지는 새로운 가치인 지역통화

일본 경제가 세계적으로 잘 나가고 있다고는 하지만 출산율은 한국 다음으로 낮습니다. 그리고 적은 예산으로 많은 고령자들의 복지를 책임져야 하고 있습니다. 시장원리로써 빈부 의차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역의 자원을 새롭게 돌아볼 시기가 되었습니다. 지역의 자원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사람이고 사람과 사람이 어우러져 만들어지는 가치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에서 산출되는 농산물, 공 산품을 지역에서 소비하고 활성화시켜야 하는 시대가 온 것입니다. 이러한 면에서는 시의 행정이 할 수 있는 서비스가 한계에 달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지역의 자원을 개발하여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를 친밀하게 만들어서 새로운 자원을 얻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마치다시는 아무런 준비가 되어있지 않습니다. 선진국이라고 말하기도 어려울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한국이 앞서가고 있는 분야가 많아서 일본이 배우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반대로 마치다시에서 한국으로 배우러 가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역통화를 연구하면서 주민에게 제공되는 서비스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서비스의 종류와 성격에서 보면 복지 관련 서비스는 행정과 연계하거나 행정에서 지원을 받는 형태로 진행 되었는데 이제는 자조와 공조 등 세부적으로 나누었습니다.

a. 행정직영	서비스의 내용·방법의 결정, 실시 또한 행정이 한다.
b. 외부위탁	서비스의 내용·방법의 결정은 행정이 행하고 시설은 외부(기업이나 NPO 등의 민단업자)에 위탁한다. 지정 관리자제도를 포함한다.
c. 공민공동(公民共同)	서비스의 내용·방법의 결정, 실시를 행정과 민간이 공동으로 행한다. 사업주체의 공민공동(公民共同)설치나 PFI를 포함한다.
d. 공민공존(公民共存)	행정이 행하는 서비스를 보완하는 형태로, 민간 사업자도 동종의 서비스를 행한다.
e. 민간시설 (공적지원 있음)	서비스의 내용·방법의 결정, 실시 또한 민간사업자가 행하고, 행정이 지원기준을 세워 지원한다. 서비스를 받는 쪽의 바우처 지급도 포함한다.
f. 민간시설 (공적지원 없음)	서비스의 내용·방법의 결정, 실시 또한 민간사업자가 시행하고 행정의 지원은 받을 수 없다. 민영화해야하는 행정서비스도 포함한다.
g. 공조	커뮤니티내부에서 각 구성원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서로 제공한다.

<제공방법에 따른 행정 서비스 분류>

아래의 분류항목을 보시면 G의 공조에 대해 세부적으로 다시 나눈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개인이 해결할 문제(A), 가까운 사람들에게 도움 받는 부분(B), 지역주민들에게 도움을 받을 부분(C), 행정에서 협력할 분야(D), 행정이 해야 하는 분야(E)로 표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세세한 분야에 대해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a.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것	기본적으로 개인이 해결해야만 하는 과제에 관한 서비스
b.근린의 협력으로 할 수 있는 것	근린에서 해결해야하는 과제에 관한 서비스
c.지역의 협력으로 할 수 있는 것	근린만으로는 해결이 곤란하지만 많은 시민이 협력해서 해결해야하는 과제에 관한 서비스
d.행정과 협력해서 할 수 있는 것	시민의 협력만으로 해결이 곤란하지만 행정이 협력에 의해 해결해야하는 과제에 관한 서비스
e.행정이 없으면 할 수 없는 것	행정이 해결해야하는 과제에 관한 서비스

<서비스의 성격에 따른 공조형태 세분화>

지역교류의 관계를 만드는데 지역통화를 도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도표의 a, b, c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역통화가 활성화되면 활성화되는 만큼 행정당국에서 볼 때는 지역에 이바지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히타치선생은 경제진흥회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지역통화 시범모델을 8월부터 11월까지 진행하였고 잘 진행되었습니다. 이 책자는 모델사업을 참고하지 않고 진행되었으나 결과적으로는 책자의 내용과 일치하였습니다. 지역통화는 지역이 가지고 있는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실시하였는데 행정과 홍보가 아닌 구전을 통해 홍보가 되어 큰 효과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좋은 성과를 얻게 된 이유는 시민단체, 상점, 행정당국이 좋은 하모니를 이루어서 좋은 결과를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시범사업은 행정당국에서는 모험적인 부분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행정당국에서 좋게 받아들이지를 않았습니다. 올해는 모험심이 축소가 되어서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지역주민, 언론, 상점가에서는 평가가 아주 좋았습니다만 행정당국에서는 좋은 평가를 내고 있지 않습니다. 그 원인은 행정당국은 어떠한 결과를 한눈에 크게 볼 수 있기를 바랬던 것 같습니다. 예산이 크게 절감이 되었다던가 하는 큰 성과 말입니다. 순서를 밟지 않고 진행한 것도 행정당국에서는 좋게 보지 않는 이유입니다. 시범사업을 시작할 때 행정에서 보조역할을 했습니다 지역통화를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시민단체, 상점들이 지역통화를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몇 통씩의 메일을 주고 받으며 동지와 같은 관계를 맺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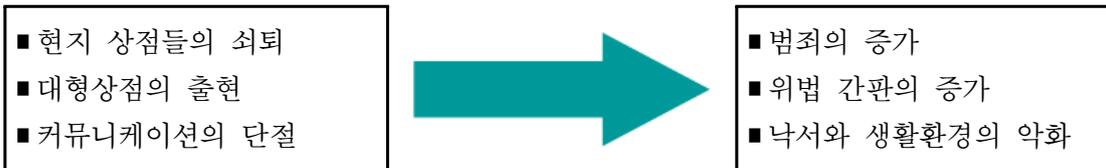
3) 지역통화를 활용한 상점 활성화 개발모델 시범

저는 다이후쿠초시민단체의 대표를 맡고 있는 이마이게이코입니다. 마치다시와 시민단체가 협력하여 지역통화를 적용한 마치다(상가)의 활성화로 연결되는 자원봉사 활동과 서로돕기 시범사업(이하 시범사업)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시범사업 개요

- 사업명 : 마치다(상가)의 활성화로 연결되는 자원봉사 활동과 서로돕기
- 주 최 : 마치다시 지역통화사업 협의회
- 주 관 : 마치다다후쿠초(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지역통화hana(花))
- 기 간 : 8월 1일 ~ 11월 15일
- 목 적 : 마을의 활성화를 위한 자원봉사 활동과 협력
- 대 상 : 시민, 시민단체, 시청, 상점
- 내 용 :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는 활동참가권인 지역통화 hana를 발행하고 사용하여 마치다에 사는 주민들의 생활을 풍요롭게 함

○ 시범사업의 배경



○ 시범사업의 목적

- 지역 통화 hana를 활용하여 주민과 상점이 참여하는 커뮤니티 생성
- 지역경제 활성화와 행정(예산)의 효율화
- 지역의 주민·상점·행정이 협력하여 좋은 결과를 도출
- 지역내의 교류와 지역 활성화를 위한 실험 사업

○ 지역통화 사용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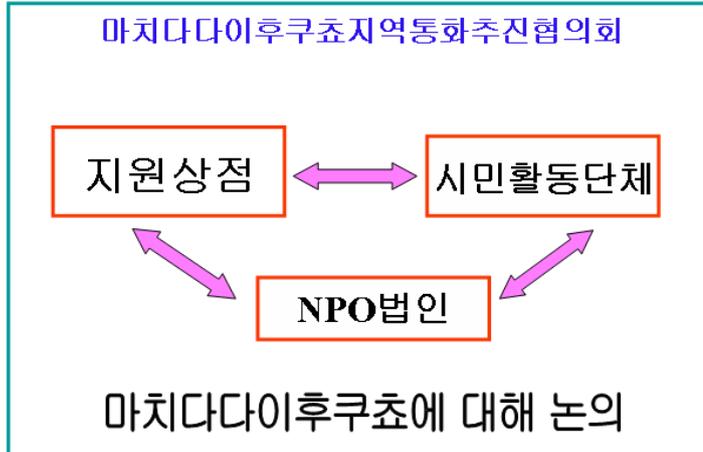
- 참가상점 : 하라마치다 지구 63개 상점,
츠틀가와와 지구 104개 상점
- 500hana권 : 자원봉사단체(60단체)와 각 상점에 한 장씩 배포
- 100hana권 : 자원봉사, 설문지 제출자, 에코쿠킹 참가

○ 시범사업에서 지역통화의 적용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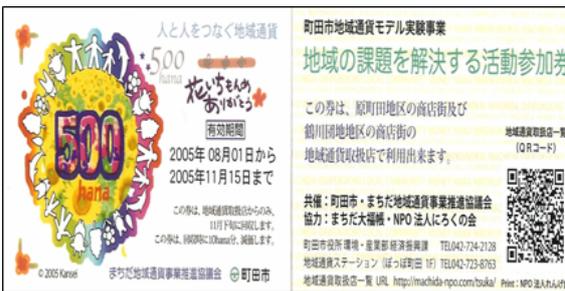


지역통화시범사업에 대한 협의

추진협의회 발족



○ 시범사업에서 사용된 지역통화



助成参加団体名:		助成参加団体名:	
日付	この参加券をもらった理由	日付	この参加券をもらった理由
8.14	防犯パトロール		
8.20	ランチ		
8.23	花壇の花植え		
8.27	お茶		
9.14	店舗電球の換え		

No. 21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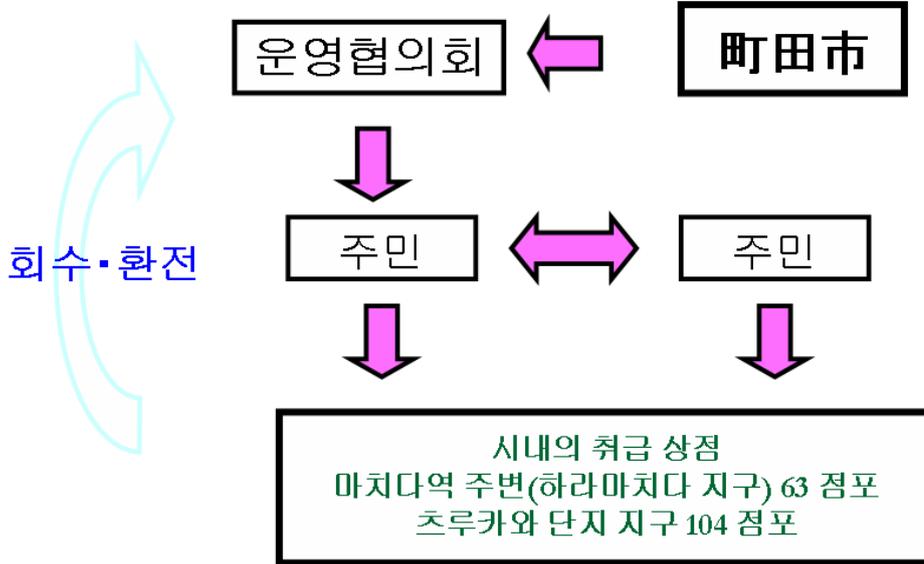
この花の券は、町田のまちづくりに寄与するために、まちだ大福帳が発行しています。		この花の券は、町田のまちづくりに寄与するために、まちだ大福帳が発行しています。	
日付	この花の券をもらった理由	日付	この花の券をもらった理由

No. 2293 「花の券」発行 まちだ大福帳

<500hana권과 100hana권의 앞면과 뒷면>

이번 시범사업에서 사용한 지역통화hana입니다. 뒷면에 받은 곳, 내용 등을 기록하게 되면 어떤 사람이 무엇을 해서 hana(花) 받고, 어디서 어떻게 사용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hana의 순환을 보여주는 도표입니다. 지역통화 hana(花를)를 이용하여 사람, 물건, 정보의 순환을 조사연구한 내용입니다. 얼굴과 얼굴이 보이는 관계이기 때문에 지혜, 친절

함 등을 얻을 수 있습니다.



<시범사업에서 사용된 지역통화의 흐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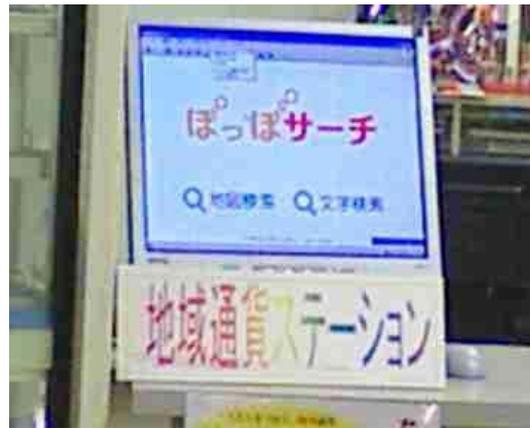
○ 시범사업을 통한 지역통화의 기대효과

지역 통화 hana를 도구로 이용하여 지역 내의 사람, 물건, 정보의 흐름을 조사 검증하는 것입니다.

○ 지역통화 hana의 취급점의 포스터와 지역통화 안내소



<시범사업 가맹점 포스터>



<지역통화 안내소>

○ 지역통화를 이용한 자원봉사

마치다시에서 가까운 공원에서 보물찾기 행사, 그림그리기, 자연자원을 활용한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하였습니다. 순찰활동, 낙서지우기 등의 활동으로 시범통화인 hana를 얻을 수 있었기 때문에 농촌의 자원봉사, 마을길 청소, 화단가꾸기 등 다양한 활동이 펼쳐졌습니다. 실험결과 지역통화는 마을만들기의 힌트를 주었습니다



공원에서 보물찾기



나뭇가지로 곤충만들기



방법 순찰소와 화단가꾸기

○ 성과와 문제점 앞으로의 방향

이번 시범사업의 성과로는 ①지역 경제 활성화의 통로를 만듦 ②지역통화를 통해 대화의 장을 마련함 ③서로 간에 친밀감을 느끼게 된 것 ④지역통화의 의미를 알게 된 사람이 늘어난 것입니다. 개선점으로는 ①협력사업장, 시민단체, 시민들에게 사전 설명의 부족 ②어떻게 하면 지역통화를 이해할 수 있을까 사전 설명회 참석, 지역통화사용법을 설명할 것 시민과 상점과의 협력관계, 할 수 있는 것을 리스트를 만들어 스테이션에 놓아둘 것 설명자가 있을 것 등 많은 프로세서들이 필요했습니다. 향후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도서관, 시청, 도서관, 농업, 게임센터 등 유아부터 고령자에게 도움을 주고, 마을 주변을 가꾸는 것 대형마트가 아닌 개인상점을 이용하는 것 등 즐거운 일상생활을 만들고 심신을 같이 상호교류하며 물건을 구입하고 복지시설을 이용 등 지역의 다양한 분야에서 지역통화가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4) 「지역통화를 활용한 상점 활성화 계발모델 시범사업」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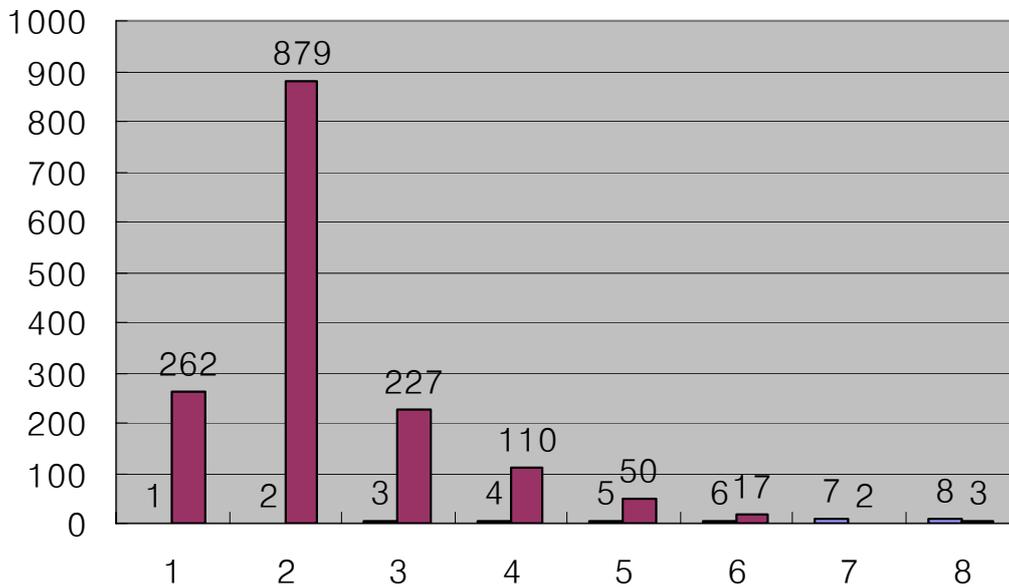
가. 지역통화 「500 hana권」의 뒷면표기 부분의 분석

(1) 지역통화의 회전수에 대해

2005년 8월 1일부터 11월 15일간에, 하라마치다 지구(59개 상점)에서, 1,550매의 「500 hana권」이 평균 2, 28회를 상점과 지역 주민 사이에서 유통되었다

3개월 반이라는 짧은 사업기간 때문에 2회 회전이라는 수치가 나왔고, 이 정도의 회전으로 본래의 지역통화의 참다운 즐거움을 경험할 수 없었을 것이다 향후 시범사업에서는 회전수를 늘릴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모색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번 시범사업에서 3회 이상 회전했던 것이 409매, 4회 이상 회전했던 것이 182매, 5회 이상 회전했던 것이 72매, 6회 이상 회전했던 것이 22매, 7회 이상 회전한 것이 5매, 8회 이상 회전한 것이 3매나 있다. 3회 이상의 회전한 409매는 전체의 25%를 넘는 것으로 이번 시범사업에서 지역통화의 효과를 입증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모델 실험 사업」은 주로 마치다시의 홍보로 참가자들에게 알려졌고, 여름방학과 휴가철이라는 시기적 어려움이 있었지만 2회전 이상이 1,550매중 1,288매나 있었다고 하는 것은 지역통화에 대한 관심이 많다고 말할 수 있다



시범사업에서 사용된 500hana권의 회전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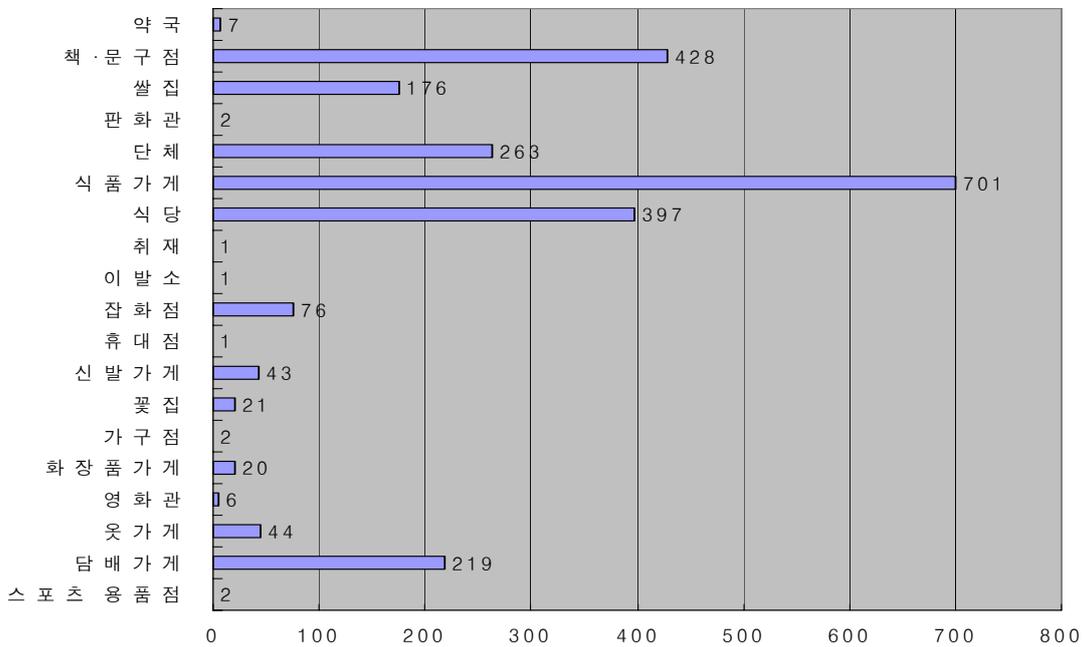
(2) hana권을 얻는 방법

hana권을 얻는 방법은 ①자원봉사(865건) ②방법 순찰(295건) ③일본어 지도나 외국인 지원 등의 국제 교류(103건) ④자원봉사 단체의 사무 보조(62건) ⑤자원봉사 단체의 모임

이나 준비회의 등의 참석(54건) ⑥논의 김매기나 야채의 수확기의 자원봉사 등의 원뿔(23건)의 순으로 자원봉사와 같은 선의의 교환 등 다양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3) hana권의 사용 현황

hana권을 사용할 수 있는 상점의 종류는 ①식료품점(701건) ②책·문구점(428건) ③음식점(397건) ④담배상점(219건) ⑤쌀집(176건) ⑥잡화점(76건) ⑦옷가게(44건) ⑧신발상점(43건)의 순으로 나타났다. 음식을 취급하는 상점에서 지역통화가 많이 이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식료품은 매일 필요한 것이므로 3개월 반이라고 하는 단기간에서도 이용되는 횟수가 많았다. 또 이용 가능한 점포수가 많은 것도 영향을 주었다. 책·문구상점을 많이 이용한 것은 적당한 가격의 상품의 종류가 많은 이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지역통화 hana의 사용처 내역

상점에서 hana권이 2,147건(61%) 이용된 것 이외에도 자원봉사 분야에서 1,384건(39%)이 이용되었다. 이것은 개인 사이의 서비스, 선의의 교환 수단으로 지역통화가 사용되기 편리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통해, 단지 법정화폐의 역할 뿐만이 아니라 선의의 교환의 수단으로 유통되고 있는 것이므로 시범사업은 성공적이었다고 할 수 있다

나. 하라마치다 지구에 있는 상점에서 조사한 설문지 통계

(1) 응답 상점 분석

설문을 돌린 59개 상점 중 34개 상점이 설문에 응답하였다.

(2) hana권의 이용자의 분석

「500 hana권」 이용자의 남녀비율은 여성 86%, 남성 14%로 여성의 비율이 높았고 이는

하라마치다에서 쇼핑을 하는 대부분이 여성인 것에 기인하였다. 지역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남성들이 지역에서 쇼핑을 하거나 자원봉사를 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연령대는 중노년층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3) 고객층 분석

단골고객 이외에 신규고객이 증가했다는 응답은 47%, 증가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44%로 증가했다는 응답이 조금 높게 나타났다. 이것은 지역통화를 통해 절반 이상의 상점에서 신규고객이 새롭게 개발되었다. 다만 신규 고객이 증가하지 않은 상점을 분석해 보면 홍보, 상품의 종류와 가격, 상점의 장소, 지역통화의 전단을 붙이는 방법 등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4) 이용자의 반응 분석

응답자 중 10명이 '익숙하지 않다', '망설여진다'라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지역통화를 사용하는 상점에서는 이용고객에게 지역통화를 충분히 설명할 필요가 있다.

(5) 팔린 상품의 가격 분석

상점에서 팔린 상품의 가격대를 보면 300엔 이하가 9%, 301엔에서 500엔이 20%, 501엔에서 1000엔이 46%, 1,001엔에서 3,000엔이 25%의 순으로 1,000엔 이하의 상품이 가장 많이 팔리고 있음을 알 수 있다.

(6) 상점이 받는 「500 hana권」의 사용분석

응답 상점 중 9상점은 「500 hana권」을 미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상점에서 받은 「500 hana권」은 결과적으로 1번 밖에 사용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진다. 「500 hana권」이 처음 받은 상점에서 유통이 되지 않은 상태로 있는 것은 전체 금액 중 일부가 감가한다고 해도 환전이 가능하게 한 조건 때문에 사용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 것이 아닌가 추측해 본다.

(7) 감가방식에 대한 응답분석

감가방식에 대해 찬성한 상점은 7점에서, 반대한 상점은 14점으로 나타났다. 감가방식의 취지는 지역통화의 회전율을 높여 활발히 유통되게 하기 위해서였다. 상점의 경우 유통이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 감가시스템에 대해 불만이 많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500 hana권」을 많이 이용한 상점에 반해 사용이 적은 상점에서는 가격인하의 의미로 사용하고 있었다. 그것은 「10엔 미만이라면 좋다」라든지 「500엔을 모두 환전해 주었으면 하지만 수수료로서는 어쩔 수 없다」라고 한 응답으로 알 수 있다.

(8) 회계상의 처리에 대한 분석

회계상 처리에 대해서는 다양한 응답이 나타났다. '현금 취급', '저축', '상품권 취급', '매상은 현금으로서 결산은 미처리', '가격인하 처리', '환금시 카드 입금 취급', '가불금의 소량 현금과 환전', '환전한 날의 매상', '개인의 돈과 교환', '사용하여 장부상의 처리 없음', '잡수입', '세무사와 상담 중' 등으로 확실히 회계상 처리하는 부분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9) 개선점

개선점으로는 홍보의 부족, 회계 처리의 어려움, 나머지 처리가 곤란하였다. 고액의 상품을 구입할 경우(1,500 원 이상) 모두 500 hana권을 사용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었다. 또 받은 hana권을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필요없는 지출(소비)이 많았고, '서점에서 받아도 자원봉사자에게 건네줄 기회가 없다'라는 지적이 있었다. 이용할 수 있는 상점의 종류가 한정되어 있는 경우 나타나는 문제로 보여진다. 생활 속에서, 상점 운영상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상점이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원봉사에 대해서는 상점에는 「도움을 받고 싶은 일」의 목록을 정리하고 자원봉사단체에서는 「도움 줄 수 있는 일」의 목록을 만들어 상호연결하는 것이 필요하다.

(10) 장점

장점은 '신규고객의 방문이 증가했다'는 응답이 가장 높았다. 그리고 '지역의식의 향상'이라는 응답도 많이 나타났다. 본래 지역통화의 목적은 말할 필요도 없이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이지만 상점의 경우는 새로운 고객의 확보가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보다 중요한 지점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역통화가 이용되는 지역의 구성원이나 특징에 맞게 적용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11) 2007년 참가의사

2007년에도 '참가하고 싶다'고 응답한 상점은 60%, '참가하고 싶지 않다'고 응답한 상점은 18%로 나타났다. 따라서 시범사업에 참여한 상점은 지역통화 사용에 있어 호의적인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하라마치다 지구에서 4년간 활동한 '마치다다이후쿠쵸'시민단체의 지역통화가 잠재적인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12) 활성화 대책

상점들의 활성화 대책에 대한 응답을 보면 ①오픈카페나 이벤트의 개최 ②대규모 마트와의 차별화 ③지역의 특성을 살리는 홍보 활동 ④유료 주차의 할인 등이 있었다. 향후 시범사업에서는 이러한 의견도 검토하여 반영할 계획이다.

다. 자원봉사 설문조사 결과분석

설문에 응답한 자원봉사자는 192명이었다. 먼저 응답자의 성별은 여성이 70%, 남성이 30%로 여성이 상점에서 쇼핑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는 10대가 1%, 20대가 6%, 30대가 13%, 40대가 8%, 50대가 27%, 60대가 33%, 70대가 11%, 80대가 1%로 나타났다.

(1) 응답자의 자원봉사의 활동 분석

자원봉사 활동은 '고령자 복지, 간호, 의료'가 15%, '어린이, 문화'가 13%, '국제 교류'가 12%, '장애인 복지'가 5%의 순으로 나타났다.

(2) 자원봉사자의 hana권의 사용 분석

설문에 응답한 자원봉사자는 '상점에서 쇼핑'이 80%, '아는 사람에게 답례' 20%로 나타

났다. '아는 사람에게 답례'를 준 이유는 승용차의 운전, 개의 산책, 학습 지원, 보육, 이벤트 참가 등 선물 답례, 자원봉사 단체에 기부 등으로 나타났다.

(3) 지역통화를 이용한 상점은 이전에 이용했던 상점인가

응답자 중 59%가 기존에 이용하던 상점이라고 응답했으며 '처음 이용한 상점'이라는 응답은 41%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용자 수가 많아지고 회전율이 높아지면 새로운 상점에서 이용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4) 상품에 대한 만족도

상품에 대한 만족도 응답은 '만족스럽다'가 72%, '불만스럽다'가 0%로 나타나 이용자의 상점에 대한 만족도가 높고, 상품의 질도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5)接客에 대한 만족도

응답자의 51%가 '만족한다'라고 응답하였다. '상품의 만족도'보다 '接客의 만족도'가 낮게 나타난 것은 상점의接客 태도가 개선될 여지가 있음을 말해준다. 이는 상점측의 지역통화에 대한 이해를 좀 더 높일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함을 말해준다.

(6) 지역통화의 인지도

지역통화를 알고 있느냐는 질문에 '알고 있다'가 73%, '모른다'가 27%로 나타났다. 이것은 지역통화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졌음을 알 수 있고 참가자 모두에게 지역통화를 알리기 위해 홍보활동을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

(8) 지역통화를 알게 된 경로

지역통화를 알게 된 경로에 대한 응답으로 신문 잡지가 41%, 텔레비전·라디오가 24%, 서적이 3%, 그 외 23%, 무응답 9% 순으로 나타났다.

(9) 개인 상점의 이용 현황

'평상시 개인상점을 이용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자주 이용한다'가 16%, '보통이다'가 64%, '거의 이용하지 않는다'가 20%를 차지하였다. 지역통화 활성화를 위해서 '거의 이용하지 않는다'라는 응답자를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 이용하지 않는 이유로는 「사고 싶은 것의 종류가 적다」, 「가까운 곳에 개인 상점이 없다」, 「마치다시에 살지 않았다」, 「대형상점이 근처에 있다」, 「개인 상점의 장소를 몰랐다」 등을 들 수 있다. 마치다시에 살지 않은 사람이라도 개인 상점의 정보가 전해져 이용할 수 있다면 지역통화의 목적을 달성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참가하는 상점의 수를 늘려 상점의 종류가 다양해지고 홍보가 되면 개인상점의 이용율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10) 엔화와 호환성이 없는 「지역통화」에 대한 관심

'엔화와 호환되지 않는 지역통화에 관심이 있다'라는 응답자가 전체 응답자의 39%를 차지하였다.

(11) 지역통화 시범 사업에 대한 의견

'500 hana권'을 받는 것에 대해 '자신이 한 자원봉사가 인정된 것 같아 기쁘다', '지역의 활성화 뿐만 아니라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 좋은 일이라고 생각한다', '확대를 기대합니다.', '좋은 기획이라고 생각합니다. 계속해 주세요.', '지역통화는 알고 있었지만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궁금했는데 우연히 장애자 복지의 자원봉사를 해 hana권을 받게 되고 「이게 지역통화인가? 이렇게 유통시키는지구나, 매우 좋고 의미 있다」 라고 생각해 만날 수 있어 좋았습니다. 「이번 사업으로 개인상점을 다시 보았다.」 「지역의 재생이 되므로 계속 사용했으면 좋겠다. 주민으로써 응원합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지역통화를 이용했지만 사용해 보니 정말로 인간관계가 넓어진 것 같다.」 등 이 시범사업의 성공과 지속적으로 사용했으면 좋겠다는 응답이 많았다.



지역통화를 활용한 상가활성화 시범사업 참가 상점

2. 마치다시의 상점지역에서 시범사업이 가능하도록 한 지역통화 다이후쿠쵸

1) 마치다 다이후쿠쵸 개요

지역통화 마치다 다이후쿠쵸는 2001년 9월에 준비를 시작해, 11월부터 다양한 분들과 지역통화를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지역통화의 역사는 아직 오래되지 않았지만 다양한 지역통화 방식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마치다 다이후쿠쵸 "hana(花)"를 사용하는 분들도 조금씩 늘어나고 있으며 서비스의 교환이나 쇼핑에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림 25 마치다시 시민포럼 방문

커뮤니케이션의 도구로 "hana(花)"가 도움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를 계기로 마을 조성, 복지, 육아, 자연환경, 인적 환경, 농업 등 다양한 분야로 관심이 깊어져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역통화 "hana(花)"가 지역에서 교육력의 도움이 되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지요.

지역통화는 한정된 지역마치다시 및 그 주변지역에서 사용할

수 있는 통화입니다. 지역에서 순환시키는 것으로, 지역을 활성화하여 새로운 커뮤니티를 만듭니다. 서로 돕기 위한 커뮤니케이션 도구로서 기능합니다.

지역통화는 레스토랑에서 식사, 아이스크림·햄·소세지·야채·야마가타 특산품을 사거나 찻집에서의 차, 책과 문구를, 한층 더 생태학적 상품·집의 설계도. 이런 일이, "hana(花)"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집에서 자고 있는 가구나 전기 제품, 손수 만든 음식, 장롱의 거름이 되어 있는 양복, 상점을 보는 사람, 가사 돕기, 영어·태극권·캐리커처 등 당신의 자신있는 기술을 "hana(花)"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엔」은 손에 넣을 수 없지만 "hana(花)"는 친밀한 곳에서 손에 넣을 수 있습니다.

당신이 "hana(花)"와 동료가 되시면 "hana(花)"동료라고 하는 새로운 고객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hana(花)"동료는 얼굴이 보이는 관계입니다. 지불의 일부를 "hana(花)"로 하는 것으로 얻을 수 있던 지역통화권은 상점의 광고지 배부 이벤트의 심부름, 상점의 주위의 청소로 자꾸자꾸 사용하세요 그 "hana(花)"가 당신의 상점에 "hana(花)"동료를 불러옵니다. 이렇게 계속 반복되면서 증가하게 됩니다.

- 가입 절차 : 「마치다다이후쿠쵸」에 가입을 원하는 분은, 가입신청서에 필요한 내용을 적은 후 사무국 직원에게 제출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연회비 1가구당 1200엔)
- 연회비 용도 : 1200엔은 사무국 운영비(마치다다이후쿠쵸의 뉴스나 이벤트 안내 광고지의 복사비용)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도중 입회의 경우는, 월 100엔을 분납하실 수 있습니다.)
- 거래 방법 : 가입신청서를 작성하여 사무국에 제출(FAX에서도 가능)해 주십시오. 가입신청서를 참고로 하여 누가 어떤 물품, 서비스를 제공·희망하고 있는지를 등록하여 회원에게 전달하게 됩니다. 내용을 새롭게 변경할 경우는 빨리 사무국에 알려 주세요
- 회원모임에 참가했을 경우, 서로 알게 되면 주소·전화 등을 교환해 주세요. 현재 회원등록현황을 공개하는 것을 고려중입니다. (희망하시는 분은 사무국에 연락해 주세요. 상대방에게 연락하는 것을 사무국에 일임하실 수 있습니다. 단, 당사자 사이에 발생하는 문제는 「마치다다이후쿠쵸 사무국」에서는 책임을 지지 않으므로 양해해 주십시오.)
- 상점의 통장에 서비스나 물건을 받는 측이 -(마이너스)에, 금액을 기입해 주세요. 서비스나 물건을 제공하는 사람(상점)이 +(플러스)에 금액을 기입해 주세요. 사람(상점)의 통장을 서로 교환하여 서명을 해주세요.
- 거래 후, 서로 웃는 얼굴로 악수하며 인사를 해주시면 됩니다.
- 「마치다 다이후쿠쵸」에서는 뉴스레터(신문)를 발행해 이벤트, 회원 소개, 회원모임회에 대한 소식을 전합니다. (현재는 FAX, 메일로 발송하고 있습니다.)
- 회원모임은 일정, 장소가 정해지면 연락드립니다.
- 「마치다다이후쿠쵸」에서 개최하는 프리마켓에 대해 연락합니다.
- 현재 「기획팀」, 「꽃클럽」, 「hana담보」, 「다큐멘터리 영화 상영회」 등의 동호회가 활동하고 있으며 원하시는 경우 동아리에 가입하여 활동할 수 있습니다.
- 「마치다다이후쿠쵸」 사무국 스태프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회의에 참석하는 분은 500hana(花)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회원 리스트를 작성해 배포한 후의 취급의 주의 : 회원 리스트는 어디까지나 「마치다다이후쿠쵸」의 교환을 목적으로 합니다. 종교·정치·영업활동에는 절대 사용할 수 없습니다. 만일 「마치다다이후쿠쵸」의 취지와 다른 일에 이용될 경우 즉시 「마치다다이후쿠쵸」를 탈퇴해 주십시오. 다른 분에게 폐가 되지 않게 회원리스트는 부디 신중하게 취급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2) 마치다다이후쿠쵸에 가입한 상점들

- 독일상점(안전하고 맛있는 손수만들기 독일 햄·소세지)
- 이시이 건축 설계실(자급 자족할 수 있는 집의 설계)
- 꿈의 아이 랜드(자연 소재의 아이스크림)

- 일만당(캐주얼 웨어&란제리)
- 와타나베 문구점(일반적 문구 뭐든지 갖추고)
- 분원(2층 온 세상의 차를 즐길 수 있습니다)
- 자연 이탈리아 레스토랑
- 야마가타 명산 사계의 삼림
- 당치료원(침·구)
- 완전 국산·유기 무농약의 등심초를 사용한 다다미를 제작하는 가게
- 세라피툼(60분 4,000엔+1, 000hana)
- 나폴나폴(손수만들기 빵) (300엔 이상 빵을 사면(자) 100hana 이용) 등

3. 지역통화 다이후쿠초를 활용한 hana담보

지금부터 'hana담보'와 방법순찰소를 견학하시기 전에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이후쿠초를 운영하는 목적은 사람과 사람이 얼굴을 보면서 기분 좋게 좋은 물건을 살 수 있도록 하는데 있습니다. 그러한 지속되게 하기 위해 엔텐의 유언 등 교육프로그램과 극장에서 상영하지 않은 반전영화를 상영하거나 헌법개정 관련 반대운동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으며 이러한 활동에 참여하기 위해서 회원은 hana를 지불하고 일반인들은 hana를 지급하게 됩니다. '세티부스'라는 것은 상점가에 있는 민간경찰 파출소 같은 것입니다. '세티부스'앞에 화단이 있는데 공공기관에서는 자금 때문에 선 듯 만들지 못하지만 지역통화를 사용하면 금방 만들 수 있습니다. hana담보는 자연농장입니다. 논을 한마지기를 빌려서 운영하는 곳으로 될 수 있으면 농약을 사용하지 않고 운영되는 곳으로 기무라선생이 농사짓는 법을 회원을 상대로 hana를 받고 교육시켜주고 있습니다.



오늘 hana담보에 대해 설명을 해주실 기무라씨입니다. 다이후쿠초 회원들은 기무라씨에게 농사짓는 방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지금 다이후쿠초에서 빌려서 사용하고 있는 곳은 일부입니다. 요쿠하마시에서 농촌풍경을 남기기 위해서 보호지역으로 논을 남겨두었고 건물을 지을 수 없게 하고 있습니다. 기무라씨가 운영하는 논만 농약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3년 전에 다이후쿠초하고 인연이 생겨서 계약을 맺고 아이들과 함께 농

사를 짓는 클럽을 만들었습니다. 농약을 쓰지 않음으로써 어린이들도 안전하게 농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농약을 전혀 사용하지 않아도 농약을 사용하는 논과 비교하여 수확의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농약을 사용하는 논은 벼와 벼 사이의 폭이 15cm정도인데 농약을 쓰지 않는 논은 30cm정도입니다. 이 벼 씨앗의 종자가 농약을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종자이며 15년 정도 되었습니다. 농약을 사용하는 논이 병충해가 넘어와도 번지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농약을 한번도 쓰지 않은 종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벌레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내성이 있습니다. 여기는 농약을 한번도 쓰지 않은 종자를 사용해서 농사를 계속 짓습니다. 종자를 받고 계속 뿌리는 일은 무척 번거로운 일입니다. 그러나 농약을 쓰는 곳은 손쉽게 종자를 얻어 수확할 수 있습니다. 이곳은 천수답인데 기무라씨가 개인적으로 하는 논인데 옛날 방식으로 연못이나 저수지 없이 벼를 키우는 논입니다. 기무라씨는 농사를 생업으로 하며 자연농업의 수확물은 다이후쿠초 회원들이 주로 구입을 합니다. 지역통화는 기무라씨의 자연농장의 취지와 뜻을 전달하는 도구입니다. 도시의 어린이들이 농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모르기 때문에 이러한 과정을 학습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지역통화를 이용합니다. 교육참여는 지역통화를 이용하고 쌀의 구입은 현금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기무라씨의 +포인트는 수확을 할 때 도와주는 자원활동가들에게 주게 됩니다. 다이후쿠초의 회원들이나 일반인들에게 hana를 지급하게 되며 이는 일반인들에게 지역통화를 홍보하는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1) 「hana담보」 개요

「hana담보」란, 단 한사람의 전문가와 눈에 밟을 디딘 경험도 없는 아마추어가 함께 용감하게도 「자연 농법」으로 벼농사를 짓는 농업 아마추어 집단입니다.

태양의 빛과 흙의 힘과 물의 은혜로 자라는 벼 사계절마다 풍요로움을 자연스럽게 접하는 벼농사는 어른에 있어서도 아이에 있어서도 즐겁고 신선한 체험입니다. 그리고 가을, 소중한 기쁜 벼를 수확하는 기쁨 또한 한층 더 합니다. 이 감격을 많은 사람과 나누고 싶은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이 2개의 논은 마치다의 지역통화그룹 「마치다다이후쿠초」의 회원의 호소로부터 시작되었으므로, 지역통화 “hana(花)”로부터 이름을 빌려 「hana담보」라고 명명했습니다. 이

「hana담보」의 활동은 지역 안에서 없어져 가는 자연이나 농업이 조금이라도 유지되면 좋겠다는 시민의 생각이 토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2004년 부터 현지의 자연 농법가의 지도를 받아 모두 개간, 파종, 모심기, 김매기, 벼베기까지 주로 수작업으로 월 1, 2회 활동하고 있습니다. 장소는 지케 고향마을과 마치다시 미와마치에 있습니다. 또, 자연이 풍요로운 장소의 특징을 살린 이벤트-꽃놀이, 반디의 어젯밤, 수확제(떡, 다과)를 농사와 함께 준비하고 있습니다.

1회만 참가도 할 수 있습니다만 가능하면 1년의 과정을 경험하는 것이 수확의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hana담보회원」 혜택

- 1년 동안 「hana담보」 에서 농사체험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hana담보」 의 이벤트(꽃놀이, 반디의 어젯밤, 수확제)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 지역통화그룹 마치다 다이후쿠초의 회원이 될 수 있습니다
- 수확한 쌀은, 1kg(1^{kg}約) 당 약 650엔으로, 서로 모두 나누어 모두 매입하기로 하고 있습니다.

「hana담보회원」 특전

- 참가 하신 분에게는 한사람 당 100hana(花)를 드립니다. (이용할 수 있는 상점가 있습니다.)
- 자연 농법자 키무라씨에게 마치다다이후쿠초 “hana(花)”로 감사의 마음을 선물 할 수 있습니다.



hana담보에서 씨를 뿌리는 회원들



회원들의 모심기



벼베기 하는 회원들



지역통화 연수단 hana담보 방문

질문 : 이번 시범사업에서 행정기관이 한 일은 무엇인가요?

지역통화 시범사업은 지역통화 티켓을 발행했는데 그 담보를 행정에서 보조를 했습니다 시행정에서 290만엔을 지원하였습니다. 시범사업 기간에 발행된 지역통화가 있는데 이것은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시범사업의 기간 이후에 현금화시켜줄 곳이 필요했고 현금화를 위한 예산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러한 방법을 쓴 이유는 상인들이 남은 지역통화를 현금화시키지 않았을 경우 상점들이 참여하기를 꺼려했기 때문입니다.

질문 : 시범사업에서 사용된 지역통화의 데이터들은 전부 집계가 되는가요?

사용하고 난 후 시범사업의 기간이 끝나고 난 후 데이터가 집계가 됩니다. 이유는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종이를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휴대폰이나 컴퓨터를 사용하면 바로 집계가 가능하지만 모두가 사용하는 종이를 사용하기 때문에 사용하고 난 후 집계가 됩니다.

질문 : 사용한 통장의 회수율은 어느 정도가 됩니까?

사용한 통장을 회수하면 사용한 정도를 알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60%가 회수되었습니다. 한국에 돌아가시면 다이후쿠초의 홈페이지에 자세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될 것입니다.

질문 : 시범사업의 지역통화 발행과 사용 시스템에 관해서 간략하게 부탁드립니다.

지역통화 hana의 발행은 시민단체에서 발행하여 상점과 자원봉사자들이 사용을 하였습니다. 자원봉사를 하면 지역통화를 받게 되고 이것을 상점에서 사용하였습니다. 시는 이에 관한 예산을 지원하였습니다. 제일 처음 500hana를 3,000천장을 발행했습니다. 처음부터 100hana를 발행하지는 않았습니다. 시범사업 중간에 필요성이 생겨서 발행을 하였습니다. 100hana는 3,000천장을 발행했습니다.

질문 : 전체 예산인 290만엔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290만엔 전체를 hana로 발행하지는 않았습니다. 그중 인쇄비, 강사비 등등 비용이 들어갔으며 hana로 발생한 것은 50% 정도입니다.

질문 : 시범 사업 중에서 도움을 많이 받아 (-)된 사람은 어떻게 정산을 하였습니다가?

시범사업에서는 자원활동에 참여를 해야 hana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이 통화를 발행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활동에 참여를 해야 사무국에서 hana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는 발생할 수 없습니다.

질문 : 500hana를 사용할 경우 잔액은 어떻게 처리를 하였습니다가?

기본적으로 500hana를 사용하는 것을 규칙으로 정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200hana를 사용해야 하는 경우 현금을 사용하는 것으로 정하였습니다. 그리고 100hana는 츠루가와에서

주로 사용을 하였습니다.

질문 : 시범사업을 마치신 후 추진협의회의 향후 계획은 어떤 것을 가지고 있습니까?

추진협의회의 이름은 남아있지만 현재 향후 계획에 대해서 아직 일정은 없습니다 이번 시범사업은 다이후쿠초라는 시민단체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다이후쿠초가 모델이 되어 실시된 시범사업이었기 때문입니다.

질문 : 시범사업의 경우 통화를 발행하는 사무국이 있어 지역통화의 개념인 개인이 발행하는 통화와는 다른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시의 시범사업과 다이쿠초와는 다릅니다 시민단체에서는 렛츠를 가지고 사용하는데 여기에는 한가지 큰 단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회원만 사용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단점을 장점으로 만들기 위해 회원을 늘리는 일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질문 : 시범사업의 경우 상점에 축척이 된 지역통화를 환전을 해주었는데 향후 환전개념을 도입하실 생각인지 궁금합니다.

지역통화는 hana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역통화는 매우 다양한 모델이 있는 것입니다 회원과 비회원간의 차별화가 생기게 되면 지역안에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범사업을 추진해본 것입니다. 다이후쿠초는 렛츠시스템을 따르고 있습니다. 렛츠시스템은 회원이 100명 정도일 때 가장 활발히 움직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안에 다양한 지역통화가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모델은 시범사업에만 적용한 것입니다. hana를 엔으로 환전하는 것을 찬성하는 사람도 있고 찬성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만약에 일반 개인 상점은 영세한 경우가 많습니다. 시에서 100만엔을 지원하면 한번 지원하고 없어지게 됩니다. 만약에 지역통화를 사용하게 되면 100만엔을 10번 사용하여 1,000만엔의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환전을 해준다고 하면 상점에서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되는 것입니다. 최종적으로 (+)를 환전해주는 것은 예산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어렵다. 그래서 물물교환방식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질문 : 자원활동에 참여할 경우 500hana라는 기준은 어떻게 결정hana요? 그리고 환전을 할 때의 단위는 어떻게 됩니까?

이번은 시범사업이었기 때문에 측정하기 편하게 1회 참석에 한하여 500hana를 지급하였습니다. 식당에서 사용할 때는 500hana가 500엔으로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환전을 할 경우 10엔을 제외한 490엔을 식당에 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10엔은 조직의 운영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이후쿠초의 경우도 운영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고민하고 있으며 가입할 경우 회비가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렛츠를 실시한 경우 실패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를 생각해볼 때 크게 2가

지가 있습니다. 실패한 이유중 hana는 (+)가 쌓이는 사람은 계속 +가 되고 -가 되는 사람은 계속 -가 됩니다. +가 된 사람은 그 +를 사용하게 될 때 의문점을 가지게 됩니다. 또 한가지의 문제점은 렛츠를 운영하는데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게 됩니다. 회원들의 통장을 정리하는데 인건비, 운영비가 많이 들게 됩니다. 우표 같은 형태의 렛츠의 경우가 계속 쌓이는 우편을 처리하지 못하여 시스템이 실패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컴퓨터를 사용하면 괜찮겠지라는 생각을 갖지만 그 또한 또 다른 비용을 발생시킵니다. IT정보화 쪽으로 하면 좋을까 하고 IC카드를 만들어 보았으나 고장도 많고 발급기가 가맹점의 카트리더기를 보급하는데 많은 비용이 들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앞으로 당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렛츠를 이용할 경우 운영비가 너무 많이 든다던지 마치다시의 시범모델의 경우에는 자금을 많이 준비해야 하는 등의 문제입니다. 이러한 2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사와야키 복지재단에서는 타임달러의 형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한가지 해결책이 될 것입니다. 단점은 복지라는 한 분야에서 사용할 수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렛츠가 운영비의 단점을 가지고 있지만은 인간과 인간을 연결해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운영비가 드는 것이 단점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와야키 복지재단의 타임달러

- 사와야키 복지재단
- 지역통화 타임달러



사와야키 복지재단의 타임달러

1. sawayaki 복지재단 소개



사와야키 복지재단은 1991년도 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이사장님은 호타이 씨입니다. 직원은 59명이 있으며 절반은 자원봉사자입니다. 기업을 퇴직한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sawayaki복지재단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와야키 복지재단의 이념

개성과 자긍심을 지켜주는 '새로운 만남의 사회를 창조'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활동개요와 조직개요설명

- 만남의 자원활동과 지역 간의 협력을 만드는 활동
- 자원봉사단체간의 네트워크를 확장

전국적으로 자원봉사자를 많이 늘리는 것과 지역과 협력하고 협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학생, 직장인이 참가하기 쉬운 조직을 만드는 것입니다. 또한 정치, 행정의 제언 활동과 새로운 생활방식에 대한 제안 등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방침

프로젝트팀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 20개 이상의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있으며 네트워크 방식을 이용하여 정보교환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통화 타임달러의 도입배경

일본의 경우 바로 옆집이라도 도움을 요청하기 어려운 사회입니다. 가벼운 마음으로 도움을 청하기 어려운 사회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인하여 서로간의 가벼운 마음으로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타임달러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지역사회 현황을 살펴보면 경제발전을 중시하는 사회이다 보니깐 지역공동체가 붕괴되었습니다. 그래서 도움을 청하기 어려운 사회가 되었습니다. 지역에서는 고독한 유아, 집에서만 생활하는 사람들, 정신적인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아이들도 점점 활발함이 없어지고 아이들 간의 살인사건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간과 인간과의 만남이 붕괴되어 가고 있습니다.

2. 지역통화 타임달러 개요



사와야키복지재단과 연계된 다양한 타임달러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가지고 있는 시간을 가지고 지역통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시간을 단위로 하기 때문에 장애인, 아이든, 성인이든 동등한 가치를 가지고 지역통화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쉽게 설명하면 어린이, 성인 모두를 똑같이 도와주자는 뜻입니다. 그래서 서로가 도울 수 있는 지역공동체를 만들자는 취지입니다. 지금 사와야키복지재단에서 사용하고 있는 지역통화는 40여개가 있습니다.

지역통화 타임달러의 효과

효과로써는 누구나 가지고 있는 개개인의 능력을 지역사회에 활용하게 된 것입니다. 고령자나 아이들에게 살려고 하는 의욕을 불러 일으키고 누구나 도움을 주고받으며 기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모든 연령을 통해 세대 간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서로의 친근함을 만들 수 있어 좋은 관계를 형성합니다. 결국 도움을 쉽게 청할 수 있는 사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림을 보시면 알 수 있듯이 지역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과 교환할 수 있는 품목을 가지고 서로 교환할 수 있습니다. 일본의 지역통화-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지역통화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1970 : 노력은행 - 일본에서 시간을 단위로 노력을 교환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것이 타임달러의 모태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1980 ; 시간예탁 조직이 전국적으로 알려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이 조직은 자신이 자원봉사로 저축한 시간을 다음에 다시 사용할 수 있는 제도였습니다. 시간저축, 점수예탁 등 동경을 중심으로 전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1990 : 고령화사회를 접어들면서 시간예탁의 필요성을 가진 사람이 늘어나면서 전국적으로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1992 : 1991년도에 시작이 되어 1992년도에는 후레아이(우표-만남의 우표) 연구회를 개최하였습니다.

2000년도부터 개호보험을 실시하였는데 그 때부터 정신적인 만남을 넓히자는 취지에서 시작하였습니다.

지역통화가 만들어진 배경

처음 지역통화를 시작했을 때는 행정당국의 지원을 먼저 받았습니다(재정적인 부분에서 한계가 있기 때문에). 경제지상주의 풍조가 만연하여 공동체가 붕괴되어 사람간의 만남이 사라졌기 때문에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고 자신이 자신을 돌보는 것도 한계가 부딪치게 되어 자조하고 자조가 모여 공조가 되었습니다. 공조의 하나의 방법으로써 지역통화를 실시하였습니다.

복지분야에서 자원봉사활동의 변화

2000년 개호보험을 시작하면서 변화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고령자를 도와주던 봉사자들이 2분류로 나누어지게 되었습니다.

1. 그중의 하나가 개호보험의 전문봉사자로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2. 하나는 정신적인 개호보험으로 만남의 활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의 활동이 정신적인 분야로도 확장되었습니다. (2000년부터 개호보험이 시작하였다. 고령자를 도와주는 봉사자가 가사를 도와주었다. 개호보험이 생겨나기 전에는 기존복지제도가 고령화 추세를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2000년도 개호보험이 생겨나면서 활발해졌다. 행정적으로 정신적으로 부족했던 부분을 추가하였습니다.) 어떠한 장소를 만들어 놓고 그 장소를 누구나가 이용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들었습니다. 꼭 고령자를 도와준다는 것 이외에도 세대 간의 연계와 서로 도움을 주는 관계가 형성되었습니다. 심리적 안정을 위해 타임달러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후레아이복지센터에서 하는 일은 젊었을 때 활동할 수 있을 때 일을 해서 시간을 저축하여 나중에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입니다.

여기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시민의 힘(능력)을 활용하여 공조를 통해 넓혀가는 일입니다. 서로간의 인사안부를 묻는다던지 가볍게 도움을 주고 받을수 있는 지역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지금부터 10년사이에 전후의 베이비붐 세대가 갑자기 늘어갈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으로는(자조와 공조)로는 그것을 지탱하기 어렵게 될 것입니다. 지역에서 자신의 능력을 살려서 공조하는 사회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몇가지 사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1) 후레아이티켓(만남의 우표)에 관한 사례

지금 만남의 우표를 쓰고 있는 단체가 388곳에 달합니다. 그중에서 우표를 잘 쓰고 있는 곳이 치바에 있는 유아이네트가 있습니다.사와야키, 아이즈 2곳은 개호보험을 서비스 하는 NPO를 가지고 있습니다. 개호보험서비스와 유상자원봉사에서 후레아이티켓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횡형의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도쿠시마사와야키 돌봄통화를 만들 때 시간과 개호를 동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90세가 넘는 암환자 할아버지가 개호보험서비스를 받아가면서 다도를 병실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병상에서도 누군가를 가르치면서 보람을 느끼면서 살려고 하는 의욕이 깊어졌습니다. 단지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는 것에서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마음을 누구나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것을 타임달러를 사용하여 실천할 수 있었습니다.



후레아이티켓(만남의 우표)

후레아이티켓을 가지고 다도를 배움

2)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만남의 집 - 주(周)

비영리단체에서 집을 빌려 누구나 와서 사용하면서 즐길 수 있도록 빌려드립니다. 매일 어
린이부터 노인까지 누구나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시간통화의 단위를 주(周)로 정



주의 타임달러 모습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집을 빌려서 사용하면아침부터 식사 포함 저녁까지 500엔입니다. 다른 곳에서 주를 모아오면 주를 가지고 이용하고 있습니다(1장-1주->20엔). 얼마의 시간을 봉사하면 얼마를 받는다는 개념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물을 한 그릇 떠왔으면 1장을 준다는 개념입니다. 봉사의 행위자체를 1장의 개념으로 사용합니다. 처음에 이용할 때는 주로 엔을 가지고 많이 이용합니다.

사례 2 호카이도의 꿈의 나무(삿보르 회원들만 사용할 수 있음)

장애를 가진 어린이를 도와주는 단체이며 장애인 아이들이 화장실 청소를 하거나, 봉사활동을 할 때 지역통화를 받게 되고 이것을 가지고 도움을 받게 됩니다. 자원봉사자는 모두 직장인들입니다. 직장인들은 봉사활동을 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지역통화(타임달러)는 비어있는 시간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직장인들도 쉽게 참여할 수 있습니다. 한 기회로서 아이들과 만남의 기회를 갖고 이를 계기로 다른 자원활동에도 참여하게 됩니다.



타임달러 억연권(億縁券)



온라인을 통한 개인간의 지역통화 거래시스템

- WAT시스템
- iWAT시스템



온라인을 통한 개인간의 지역통화 거래시스템

1. WAT시스템



케이오대학의 디지털 미디어 콘텐츠 종합연구소 방문

케이오대학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와 함께 일하는 사이토겐지 선생님입니다. 사전에 명단이 와서 여러분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소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모리노선생님께 말씀을 듣겠습니다. 지역통화를 실제 활용하고 있는 곳은 내일 견학하는 피너츠입니다. 오늘 오전에 사와야키복지재단을 방문하셨는데 그곳의 지역통화 역시 몇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전의 노력은행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노력은행은 30년간 잘 활용이 되었고 회원도 2,000여명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활동을 전부 중단한 상태입니다. 그 최대의 이유는 젊은이들의 참여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30년이 지나면 회원들 모두가 고령자가 되어버립니다. 노력은행을 운영진도 고령자가 되었고 회원들도 고령자가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각 지역에서 실행하고 있는 지역통화를 지속적으로 운영하면 대 성공을 거둘 것입니다. 노력은행을 중단하고 나서 사와야키복지재단이 같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지점입니다. 어떤 재단이건 간에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은 어떻게 하면 계속해서 지속할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각 지역에서 이후로도 지역통화는 계속 만들어 질 것입니다. 그렇게 많은 새로운 지역통화가 생겨나는 반면에 사라지는 곳도 많을 것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현장에

서 새롭게 지역통화를 대응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인터넷을 활용하는 것은 매우 수월할 것입니다.

지역통화와 인터넷을 사용하는 지역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횡렬사회입니다. 상하의 구분이 없는 사회인 것입니다. 지역통화를 사용하는 사회에서는 상하의 구분이 없는 횡렬사회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행정기관의 사람이라든지, 기업의 사람이라든지 똑같은 친구 사이가 되는 것입니다. 그 특징이 인터넷입니다. 인터넷 세계에서는 미국의 대통령이던 일본의 홋리스든 누구나 같은 사람입니다. 앞으로는 그러한 횡렬사회가 확대될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횡렬사회는 네트워크사회일 것입니다. 대등한 친구들이 넓혀지는 사회일 것입니다.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지역통화를 사용한다면 지역통화의 문제점을 해결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역통화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지속할 수 있는 운영팀이 필요하였습니다. 그 단체가 조직이 지원을 하던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를 하였습니다. 인터넷세계에서는 사무국을 서버라고 말합니다. 서버라는 것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뜻입니다. 서비스를 받는 쪽을 클라이언트라고 합니다. 손님이 되는 것이죠. 저희들 모두는 어떠한 조직에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국가, 시, 등등.. 그중에서는 지역통화에 속해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한 조직들은 회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중심은 조직이 되는 것입니다. 그 중심에 많은 회원들이 관계되어 있습니다. 인터넷과 네트워크의 차이를 아시나요? 인터넷의 경우에는 동시에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컴퓨터 사이에는 상하의 관계는 없습니다. 네트워크의 사회에서는 회원들이 같은 계급의 사회에서 동등한 사회가 되는 것입니다. 조직으로 돌아가면 상하가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을 이어줄 때는 동등한 입장이 되어야합니다. 그러한 사회가 새롭게 열리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지역통화를 실시할 때 네트워크를 형성하면 P2P 즉 동등한 입장이 될 것입니다. 그 사이에는 어떠한 조직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인터넷 사회에서는 서버와 클라이언트의 조직으로 형성이 됩니다. 23일 말씀드린 렛츠는 서버와 클라이언트로 될 수 있습니다. 운영단체가 있고 회원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렛츠의 경우에는 운영을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인터넷사회에서는 개인 대 개인의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인터넷사회에 있는 것이 어떻게 오프라인의 지역통화에는 없는가 하는 것인가?입니다. 그것은 운영단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조직이 없기 때문에 계속 지속이 된다던지 중단되는 면도 없습니다. 아마 그러한 서비스를 안해주고 서포트도 안해주는 조직이 지속된다는 것이 가능할까요? 하지만 가능합니다.

1) WAT시스템이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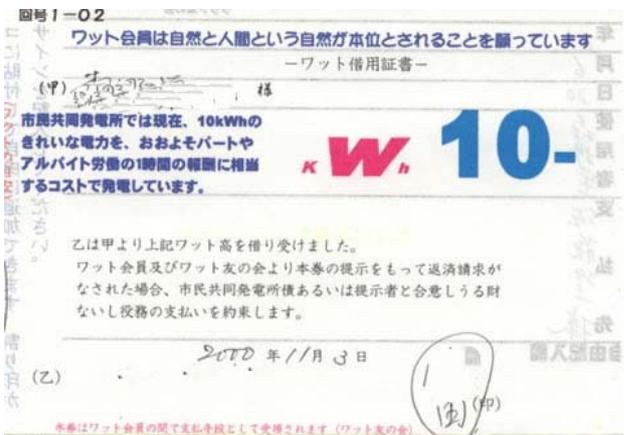
와트는 지역 통화의 하나입니다. 계절연구회를 운영하는 모리노 에이치씨가 중심이 되어 설계한 와트회원에 의해 여러 가지 형태의 와트권이 태어나고 있습니다. (여러가지 와트권) 지역 통화에서는 경제를 어렵게 배우는 것은 거의 필요 없습니다. 돈을 사용하고 있을 때는 돈에 대해 생각할 필요 없이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폐든지,

무엇든 나름대로 신뢰가 승인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빌려 주거나 빌리거나 하는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그 때 서로 신뢰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와트 시스템은 대차의 관계를 보다 알기 쉽고 순조롭게 하는 것입니다. 와트시스템은 개인이 약속어음과 같은 차용서를 먼저 발행하여 다른 사람의 가치(서비스나 물건)를 유통시키는 것입니다. 결제는 자신의 가치를 제공했을 때에 상대가 발행하는 차용서의 액면에 기록을 합니다.

2) WAT시스템을 통한 거래



WAT시스템에서 사용되는 지역통화_1



WAT시스템에서 사용되는 지역통화_2

6년 동안 WAT시스템이 일본사회에서 확대되고 있습니다. WAT시스템을 한마디로 말하면 옛날부터 인간사회에서 행해지던 것을 응용하는 방법입니다. 개인과 개인간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Alice와 Bob 사이에서 Alice가 Bob에게 사과를 구입하였습니다. Alice는 Bob에게 대금으로써 Alice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가치를 지불하겠다는 약속을 합니다. 그것을 받은 Bob은 Carole에게 밀감을 구입하였습니다. Bob이 Alice에게 받은 가치를 Carole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계속 이어져서 Zone에게 전달되게 되었습니다. Zone은 Alice가 지급하겠다는 것을 갖고 싶었습니다. 그렇다면 Zone은 Alice에게 그것을 구입하겠죠, 차용증이 되겠죠. 차용증이 Alice에게 돌아왔을 때 소멸하게 됩니다. Alice와 Zone은 무엇을 한 것일까요? Alice에서부터 Zone은 모두가 가지고 싶은

것을 가졌습니다. 이것은 서로에게 신뢰가 있으면 가능한 것입니다. 이것은 개개인의 신용이 있고 평등한 입장이 되면 가능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느끼셔야 할 것은 어디에서도 서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WAT시스템에서는 차용증을 인쇄하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방법은 누구나 지역통화에 손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개개인이 신용만 있으면 언제든지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제도는 인터넷에서 찾아보시면 손쉽게 알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설명드린 것을 인터넷에서 쓸 수 있게 만들 것을 설명하겠습니다. 인터넷상에서 설명이 끝나고 휴대폰을 사용한 방법도 설명하겠습니다.

이 방법은 지금까지 있던 지역통화를 폐지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까지의 지역통화를 보완하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 않고 지역통화를 사용하자는 것입니다. 전기의 단위인 와트를 사용합니다. 그것은 풍력발전소라던지 태양력발전소라던지 1Kw를 만드는데 들어가는 비용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도 바로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의 인터넷에 들어가면 많은 정보들이 있습니다.

2 i-WAT시스템이란?

오늘 설명하는 것은 잘 기억해두시면 미래에 유용하게 쓰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인터넷상에서 사용하는것을 i-WAT라고 합니다. 지금 현재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 사용자 중의 한 사람입니다. 이 i-WAT를 개발하신 사이트선생님에게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wija는 i-WAT를 사용하기 위해 만든 소프트웨어입니다. 사람들을 위해 네트워크 기술을 활용한 것을 말합니다. 사람을 위한 네트워크는 인터넷을 말하는 것입니다. 인터넷은 사람들이 사용하기 위해 만든 것입니다. 이미 만들어진 인터넷 상에 다른 것을 추가시키고 싶어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고도의 기술이 필요합니다. 저 같이 인터넷 상에 새로운 것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간단하게 만들기 위해 인터넷 위에 고도의 기술을 사용하여 인터넷을 만들었습니다. 그 위에서 i-WAT가 활용되고 있습니다. i-WAT라는 것은 개인과 개인이 주인이 되는 곳입니다.

인증국에서 부여되는 인터넷상에서의 신용

아까 저희들이 인터넷 상에서 만난 사람들이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는가 라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WAT에서 무엇을 사용하고자 할 때 브라우저의 열쇠모양이 있는 것을 아시는지요? 크레딧 카드를 이용할 때는 열쇠를 꼭 사용해야 합니다. 인증국이 있어서 그곳에서 인증서를 발행합니다. 그 신용을 확인할 때는 개개인이 주인공이 아닙니다. 인증국 없이도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wija하고 i-WAT는 인증없이 개개인이 신용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PGP(Pretty Good Pravacy)라고 합니다. 공개열쇠암호계와 공개열쇠, 그리고 비밀열쇠를 개인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공개열쇠는 다른 사람에게 넘겨줄 수도 있습니다. 공개열쇠를 가지고 상대방을 암호화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상대방의 비밀열쇠가 없으면 열수가 없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전자서명이 있습니다. 비밀열쇠로서 암호화된 것을 먼저 보냅니다. 그것은 공동열쇠로 밖에 열수 없기 때문에 상대방이 만든 것이라고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공개열쇠를 암호도 비밀이 잘 지켜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인터넷 상에서 데이터가 회손될 수도 있습니다. A의 열쇠를 B에게 보내더라도 그것은 실질적으로 C가 보내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D가 A의 열쇠라는 것을 증명해주고 전자서명을

통해 증명합니다. A의 열쇠라는 것을 D가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은 웹을 사용하는 것과 같습니다. 웹에서는 D라는 사람이 누구인지 모릅니다. D의 열쇠가 진짜가 아니면 A의 열쇠가 진짜라는 것을 증명할 수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D가 진짜라는 것을 증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PGP에서는 B와 C가 아는 사이라고 가정합니다. 그랬을 경우 C가 가지고 있는 열쇠가 진짜라는 것을 B가 알 수 있습니다. C가 다른 사람에게 서명을 할 경우 잘 조사한 경우 서명을 한 경우라고 알게 됩니다. B가 C를 그렇게 알고 있다면 B는 안심하고 인터넷을 할 수 있습니다. i-WAT는 지금과 같은 방법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모리노 선생님이 개발한 WAT를 PGP와 접목하여 인터넷 상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A와 B가 거래를 합니다. B가 A를 차로 대려다 줍니다. 그렇게 되면 i-WAT에서는 A가 B에게 WAT를 줍니다. 인터넷 상에서 거래를 하는 것은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 PGP를 사용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A가 B의 공개열쇠를 가질 수 있습니다.

서로간의 신용할 수 있는 확인이 될 경우 WAT를 줍니다. 그 다음에 C가 나타났습니다. C가 책을 B에게 받았습니. 그 WAT를 서명을 통해 C에게 넘겨주면 됩니다. 여기에는 약간의 문제가 있습니다. A와 B가 신용으로 거래가 이루어졌을 때 정말 B가 D에게 똑같은 것을 했을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디지털이기 때문에 여러번 쓸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제 3자에게 WAT를 줄 경우 제일 처음 발행한 A에게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 과정을 통해 여러번 사용하는 것을 방지합니다. C라는 사람이 사용한 WAT가 A에게 돌아가면 정산을 하게 됩니다.

질문 : A가 왓츠를 받을 경우 확인을 하지 않습니까?

일단 메시지가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확인은 필요합니다. wija는 인터넷상에서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게 한 것입니다. wija는 이러한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메일방식하고 같습니다. 메일을 할 때 메일 서버를 빌려 사용하고 있습니다. 중계를 하고 있는 서버가 중간 중간에 들어있습니다. i-WAT에서 하고 싶은 것은 P2P입니다. 장래에는 중간 서버를 없앨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는 중간서버는 중계를 하고 있습니다. i-WAT를 이용하기 위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데모버전에서는 Alice, Bob, Carole이 등장합니다. 처음에 Alice가 유저를 사용했다고 가정합니다. 그러면은 먼저 열쇠를 2개를 만들어 달라는 메시지가 나옵니다. Alice의 메일과 이름을 넣습니다. 그것은 메일을 쓰기 위해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공개열쇠는 많은 자리의 숫자가 필요합니다. 지금은 설명하는 동안 열쇠방이 만들어졌습니다. 중계서버와 연결하기 위해 로그인을 합니다. 보통 메신저와 틀린 것은 공개열쇠를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인터넷이 할 수 있는 일은 메신저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는 것입니다. 메신저에게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를 추가할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새로운 일을 금방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처음 참가했지만 벌써 이전의 신용참가자들이 있습니다. 먼저 메신저에 자신의 공개열쇠를 연결시킵니다. 자바에다 메일주소를 넣고 공개열쇠를 연결시킵니다. 그 밑의 사람들은 Alice가 알고 지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가 붙어있습니다. 커서를 갖다 놓으면 '공개열쇠가 없

습니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렇게 표기가 되면 지금부터 공개열쇠를 받습니다. 먼저 Bob에게 공개열쇠를 받습니다. 공개 열쇠에 대한 지문(비밀번호)을 압축해서 보기 쉽게 만드는데 그것을 핑커프린터라고 말합니다. 지문이 이렇게 기호로 나타납니다. 컴퓨터에서는 주로 이것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진짜인지를 Bob에게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니면 위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컴퓨터에서 Bob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쉽게 이야기 하면 Alice와 Bob가 옆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가까이 있을 경우는 Bob에게 지문을 보여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Bob이 Alice에게 핑커프린터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것을 확인한 Alice는 받은 지문을 가지고 서명 확인을 합니다. 그 때 패스워드를 넣습니다. 그것은 비밀열쇠를 사용할 때 사용합니다. 그렇게 되면 Bob상의 공개열쇠를 바르게 받았다는 것이 확인될 수 있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Alice의 것을 받습니다. 유저는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공개열쇠를 받습니다. 그 아까 그림과 같이 Alice가 Bob에게 차를 태워줬기 때문에 티켓을 발생합니다. 상대방의 사진이 나올 수 있도록 설정을 한다고 합니다. 누가 누구에게서 열쇠를 보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사진을 보여줍니다. 차를 태워줬을 때 내역을 씁니다. 1와츠 Bob은 차를 태워줬다고 고맙다는 메시지가 오면 식사를 대접하겠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의 약속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새로운 티켓이 만들어집니다. Alice가 보내 티켓을 Bob가 받습니다. 비밀번호를 넣어서 보면 i-WAT를 사용한 책자(리스트, 목록)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Alice에게는 Bob이 티켓을 받았다는 메시지가 옵니다. Alice는 저 메시지를 받고 성립되었다는 것을 승인하게 됩니다. Alice가 가지고 있는 목록에는 Bob의 것을 썼다는 것이 쓰여집니다. Bob라는 사람은 Alice에게 받은 티켓을 Carole에게 보내고 싶어합니다. 책을 빌렸기 때문입니다. Carole를 선택하고 내용을 넣고 식사를 넣은 것을(그것을 변경할수 는 없습니다) 그 내용을 Carole에게 보냅니다. Carole은 그 메시지를 받고 Carole은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 상세한 내용을 보냅니다. 그 티켓을 Alice에게 보내면 티켓을 사용하겠다는 내용을 보냅니다. 그 내용을 승낙하면 그 내용이 Bob에게 내용이 갑니다. 이 확인은 자동으로 할 수 있지만 현재는 사람이 직접 확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정확한 메시지가 정확히 전달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현재 이 티켓을 가진 사람은 Carole입니다. Bob에게 거래가 이루어졌다는 메시지와 Bob의 목록에서 지워지게 됩니다. 그러나 기록에서는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Carole가 Alice에게 식사를 대접받으려 합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티켓에서 거래를 선택합니다. 이것이 i-WAT의 거래를 설명드린 것입니다. 3년 전에 개발했고 현재까지의 거래실적이 있습니다.

WAT를 휴대폰을 활용하여 방법을 실험적으로 하였습니다. 실험이지만 무선으로 직접 통신을 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진 것이었습니다. 중개인이 필요없이 단말기 대 단말기로 거래를 하였습니다. 그것을 실용화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좀더 필요할 것입니다. 올 가을에는 실험을 거친 것을 현실에 가깝게 실시해볼 계획입니다. 그것은 인터넷하고 연결될 수 있는 휴대폰이면 어떤 것이든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i-WAT와 웹이 제휴하면서 가능한 것입니다. P2P는 아니지만은 사람과 사람이 어떻게 활용될 것인지 실현될 것입니다 그 실험

은 올가을에 합니다 도쿄의 중심인 오테마치에서 할 계획입니다. 휴대폰을 가진 사람은 누구나 참여가 가능합니다. 선정이유는 오피스텔지역이여서 모르는 사람들이 서로 알아가는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험결과는 인터넷에 올릴 예정입니다. 흥미를 가지고 지켜봐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 개발기간, 실적 등의 현황을 알고 싶습니다.

개발기간은 3주 걸렸습니다. 다운로드 한 건수가 1,500건 정도입니다. 개인 간의 거래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활용되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유럽쪽으로 확산되고 있는데 그 정도는 어느 정도인지? 조사를 하러 온 사람이 왔습니다. 활용하기 위해서는 메일이나 서버를 활용해야 하는지요, 프로그램의 내용을 한글로 고치는 것입니다. 유저와 아이와트하고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질문 : 인터넷의 경우 익명성이 큰 문제가 되고 있으며 지역통화는 신뢰를 만들기 위한 도구인데 신뢰를 전제한 WAT시스템은 전후가 바뀌게 되는 것 같다.

한번이라도 만난 사람들이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WAT시스템은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렛츠를 보완하는 시스템입니다. 지역통화를 써서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것이 신뢰감의 구축이었습니다. 지역통화를 통해서 오랜 시간이 걸리는데 유저를 사용해서는 빨리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시스템의 문제가 아닌 활용의 문제입니다.

치바현의 지역통화 피너츠

- 치바현의 지역통화 피너츠



치바현의 지역통화 피너츠

1. 치바현의 지역통화 피너츠



치바현 니시치바 상가거리의 피너츠가맹점

피너츠 클럽회원점이라는 가맹점 표시가 상점의 문에 붙어있습니다. 피너츠클럽의 가맹점은 이렇게 홍보물을 가게 앞에 붙여놓게 되어있습니다. 지금 소개시켜 드리는 카이호씨(유리노끼 상점가 회장)는 미용실을 운영하고 있는 피너츠 회원이십니다. 피너츠 회원 중에서 가장 유명한 분이요 이분을 중심으로 고풍자를 돕는 모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피너츠클럽의 회원은 1,200여명 정도입니다. 가맹점은 입구에 있는 메

뉴판을 보시면 만약에 이 가맹점에서 650엔의 식사를 했을 경우 600엔은 현금으로 50엔은 지역통화로 지불할 수 있다는 것을 메뉴판을 통해 알려주고 있습니다.

피너츠클럽 가입과 통장 이용 방법

여러분들은 지역통화를 연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피너츠는 지역통화 중 lets(local exchange trading system)시스템을 사용합니다

처음 주민이 피너츠에 가입하면 종이로 만들어진 피너츠통장을 이용하여 피너츠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 그러나 피너츠를 거래하기 시작하면 대부분 인터넷상의 통장을 사용하게 됩니다. 회원이 현재 1200여명 정도이며 이중 800여명은 인터넷 통장을 사용하고 있으며, 400여명 정도는 종이로 된 피너츠통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피너츠 클럽에 가입을 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입비나 연회비가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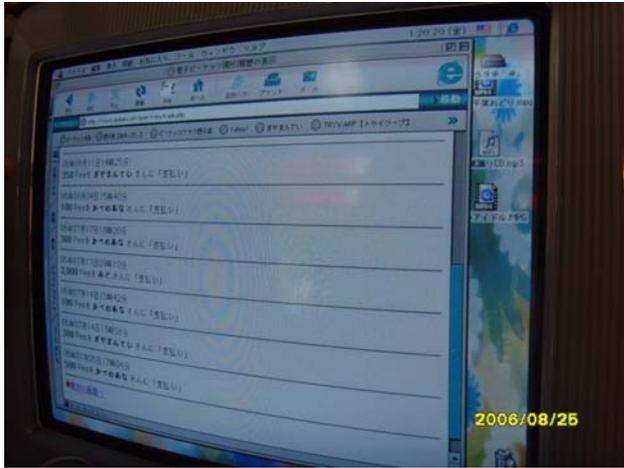
피너츠 클럽에 가입을 하면 종이로 만들어진 피너츠통장을 지급받거나 인터넷상의 통장

(계정)을 만들게 됩니다. 피너츠에 가입을 할 수 있는 자격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단지 치바현에서 생활하는 사람은 누구나 가입할 수 있습니다. 상점을 운영하거나 농사를 짓거나 회사를 다니거나 하는 모든 사람들은 치바현에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그것은 치바현을 활성화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치바현에서 상품을 판매를 하지만 회사가 없는 경우에는 피너츠에 가입을 할 수 없습니다. 피너츠 역시 치바현을 활성화하기 위한 시스템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간장제조회사가 있는데 치바현에 본사를 가지고 있거나 회사를 가지고 있어야만 피너츠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신용을 중심으로 한 피너츠 거래

처음 가입했을 경우 통장금액은 '0'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처음 거래를 하게 될 경우 '-'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무라야마 선생님도 3만8천엔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 라면전문점의 경우는 10만8천엔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통장에서는 매월 전체금액의 1%씩 감소됩니다. 그 감소된 1%는 피너츠은행이 받게 됩니다. 피너츠은행에서 모든 회원들의 거래의 상태를 모으게 되면 '0'이 됩니다. '+'통장에서 1%를 빼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 질문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피너츠를 빨리 사용하지 않으면 줄어든다는 의미입니다. 만약 술에 취한 두사람이 거래를 한다고 가정합시다 상대방이 -1,000을 가지고 있었고 종이 통장이었을 경우 술에 취해서 -10,000엔이라고 10배를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거래가 끝나면 '아미고'라고 인사를 하였습니다. 보통의 경우 일반은행에서는 큰일이 생긴 것입니다. 그렇지만 피너츠에서는 15년 후에는 1엔이 됩니다. 매달 1%씩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통장을 잃어버렸을 경우에도 컴퓨터 보다 상대방을 더 신용하기 때문에 새로운 통장을 발급해 줍니다. 통장을 잃어버렸을 경우에 만약 통장에 +2,000엔이 있다고 했을 때 +2,000엔이 들어있는 통장을 발급해 드립니다. 잘못 기입된 통장이 15년이 지나면 '0'가 됩니다. 시간이 사람들이 잘못 했던 일을 정리해 줍니다. 언뜻 듣게 되면 대충하는 것 같지만 이것은 사람을 신용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하는 일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1피너츠는 1엔하고 같습니다. 만약 +1,000피너츠를 만들어 이것을 현금으로 바꾸려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1,000피너츠를 가진 사람에게도 가지고 있으시라고 말을 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신용을 가지고 이어지게 되기 때문에 피너츠는 영원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줄어들게 됩니다.

인터넷 통장 사용법



컴퓨터 화면을 보시면 상점이름, 지불할 사항, 금액, 패스워드를 입력할 수 있는 간단한 화면이 있습니다. 상점에 와서 650엔의 라면을 먹고 그중 50엔을 피너츠를 지불하려면 상점이름, 지불할 사항에 라면이라고 입력하고 -50피너츠를 입력하고 패스워드를 넣습니다.

피너츠의 향후 계획

앞으로 회원을 50만명까지 늘릴 계획입니다. 치바현민의 10%입니다. 50만명 정도가 되면 피너츠를 가지고 웬만한 생활이 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치바현의 인건비가 낮아지게 됩니다.

렛츠가 성공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의 시스템이 아닙니다. 렛츠를 운영하는 노하우와 운영하는 사람의 신용과 관계가 있습니다. 쉽게 생각하시면 렛츠는 자동차입니다. 아주 훌륭한 운전사가 있으면 이 차는 아주 잘 달릴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못 달릴 것입니다. 세계에서 렛츠를 가장 잘 이용하고 있는 곳이 스위스에 비아라는(WIR-‘우리나라’라는 뜻) 지역통화가 있습니다. 7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치바현을 스위스처럼 만들고 싶습니다. 스위스의 중소기업의 2%인 5만 회사가 지역통화인 WIR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래 금액 또한 큼니다. 토지세의 50% 정도가 WIR로 들어옵니다. 공업사의 경우는 거진 100%가 참여합니다. 집을 잡고 싶을 때도 WIR를 가지고 지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wir에는 이자가 붙지 않습니다. 법으로 WIR에는 이자를 붙일 수 없게 되어있습니다. 스위스 프랑을 빌렸을 경우에는 빨리 갚지 않으면 망하게 됩니다. WIR를 빌려쓰면 천천히 갚아도 됩니다. 지금 피너츠는 그 단계까지 가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단계까지 가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WIR의 은행이 따로 있었는데 현재에는 일반은행에서도 WIR를 사용하고 일반 화폐도 취급하도록 법으로 정해졌습니다. 1WIR가 1프랑이 됩니다. 그리고 세금을 낼 경우에는 WIR를 프랑으로 환전을 하여 세금을 냅니다. 세금을 낼 경우 프랑과 비어를 합친 것에 대한 세금을 냅니다. 그때 비어에 대한 세금 금액은 비어를 가지고 프랑으로 환전을 하여 세금을 냅니다.

질문 : 상점에서 피너츠를 받게 되면 어디에 사용할 수 있습니까?

이 상점의 메뉴에는 야채 볶음 관련된 것이 많은데 모여진 피너츠의 일부를 가지고 유기

농 야채를 구입하는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손님들이 많지 않으면 의욕을 잃게 됩니다. 그럴때 누군가 와서 대화를 해주면 힘이 됩니다. 현 사회에서는 서로가 서로를 신용하지 못하는 사회인데 피너츠를 통해 서로가 서로를 신용하고 그 정도가 두텁게 되었습니다. 일본의 모든 집에는 다다미방이 있는데 요즘 새롭게 신축하는 건물에는 다다미방을 빼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돗자리로 메뉴판을 만들거나 다다미방을 홍보하는 홍보물을 부착하고 서로에게 도움을 주고 받습니다.

질문 : 상점이 피너츠를 받는 경우 금액은 어떻게 결정하게 됩니까?

각각의 상점마다 부가가치가 다릅니다. 부가가치가 높은 상점은 피너츠의 비율을 높게 하고 낮은 상점은 낮게 책정을 하게 합니다. 특히 편의점 같은 부가가치가 낮은 상점은 피너츠를 사용하기 어렵습니다. 자본과 노하우, 노동이 필요한 상점들이 피너츠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피너츠를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피너츠클럽 가맹점이 ‘-’가 되는 것은 좋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상점은 지역에 봉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질문 : 피너츠를 운영하기 위한 운영비의 규모와 운영비는 어떻게 조달합니까?

처음에는 무라야마씨가 자비를 들여 운영하였습니다. 1년에 약 100만엔씩 운영비가 들었습니다. 피너츠가 99년부터 시작했는데 개인의 자비가 들어간 이유는 지역통화를 전혀 모르는 시기였기 때문에 민주적으로 시작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시작하기 했습니다. 본인 자비로 피너츠를 운영하기 시작하기까 회원들이 혼자서는 힘들다는 의견들이 나오기 시작했고 회원들이 화장품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화장품을 2,800엔에 팔기 시작하고 600엔을 광고비 대신 받아 운영비로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화장품을 개발한 이유를 좀 더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피너츠의 활동이 점점 넓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지역통화를 사용하기 때문에 돈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홈페이지를 제작하려고 했는데 돈도 없고 기술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홈페이지 제작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지역통화의 활동영역을 넓히기 위해서는 자금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필요했습니다. 피너츠의 회원 중 한명이 화장품 회사의 사장님이 있었습니다. 치바대학의 회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함께 ‘화장품을 만들자’라고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만약에 식당에서 화장품을 팔게 되면 이 가게에 700엔이 돌아가게 됩니다. 피너츠 회원은 200엔 가량의 피너츠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미고재팬(화장품 판매회사)에서 판매를 하고 2005년 12월 14일부터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약 8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450개 정도가 판매되었습니다. 우리들은 이 화장품을 많은 사람들에게 판매해서 마을만들기의 운영비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질문 : 점심을 먹은 상점에서 피너츠를 사용하는 인원이 얼마나 되나요?

보통 하루에 2-3명 정도이고 모임을 하는 경우에는 20-30여명이 됩니다.

질문 : 지금 있는 피너츠는 얼마동안 모은 것인가요?

약 2년 정도인 것 같습니다.

질문 : 어떻게 상점들을 가맹점으로 가입을 유도하셨나요?

단지 이것은 수익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는 사람들끼리 서로 권유하여 가입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 가게의 경우 카이호씨가 자주 이용하였고 자연스럽게 피너츠를 설명하게 되었습니다. 치바대학에도 회원들이 있는데 그 학생들을 이곳으로 유도하기 위해서이기도 합니다.

질문 : 사무국 운영비는 얼마 정도 인가요?

현재는 자체적인 사무국 운영비는 들지않습니다. 화장품을 팔거나 강의를 나가서 강사료를 받거나 하는 외부에서 벌어들이는 돈을 가지고 지역에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질문 : +나 -가 많은 사람이 있을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그대로 놓아둡니다. 왜그러냐면 +를 가진 사람이 시간이 지날수록 줄어들기 때문에 결국에는 같아집니다.

질문 : 벽에 그림들이 많이 걸려 있는 그림들은 피너츠와 관계가 있습니까?

관계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전시회도 열리고 작은 공연도 열립니다. 치바대학의 학생들의 전시를 하고 피너츠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매월 3째주 토요일날 고령자보호센터에서 노래를 가르치시는 분이 오셔서 공연도 합니다.

질문 : 매월 1%가 빠져나가는 것이지요 아님은 년 1%가 빠져나가는 것인가요? 그리고 종이통장의 경우는 어떻게 정리를 하는지요?

자동적으로 월 1%가 빠져나갑니다. 그리고 종이통장을 사용했을 경우도 1%씩을 줄여나갑니다. 통장의 경우는 사무실에서 수작업으로 처리합니다. 통장은 매달 매달 정리를 하지는 않습니다. 사용하던 통장이 칸들이 꽉 찬 경우 자기를 소개시켜준 상점에 통장을 갖다 주거나 직접 사무국을 방문하여 정리를 하기도 합니다. 처음에는 40명 정도의 통장만 처리하면 되었는데 600명까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을 사용하게 되었고 종이통장을 사용하는 사람이 400명으로 줄었습니다. 400명까지는 1명이 처리할 수 있는 분량입니다.

질문 : 이렇게 피너츠를 관리하는 매뉴얼이 있습니까?

피너츠의 원칙은 원칙을 만들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돈을 사용할 때 원칙을 사용하고 쓰지 않습니다. 원칙을 정하고 사용하면 그것은 통화가 아닙니다. 사용을 하다 보면 특정한 패턴이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통장이 모이는 상점이 몇몇 상점으로 압축이 됩니다. 그러면 그 상점들만 방문을 하면 됩니다.

질문 : 지금까지 피너츠가 1회 거래에 가장 많이 사용된 경우는 얼마까지 거래가 되었습니까?

100만 피너츠입니다. 이 사진이 100만 피너츠를 지불하고 그린 벽화사진입니다. 6개의 상점 셔터에 그림을 그려주었습니다. 이 작업을 할때 재료비는 별도로 400만엔이 들었고 작업을 한 학생들에게 100만엔을 주었습니다. 디자인은 치바대학의 연극과 학생들이 하였고 그림을 그린 학생들은 건축과 학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림을 완성한 후 축하파티를 노래를 불러주시는 분이 열어주셨습니다. 이 때 100만 피너츠는 대학생 중에서도 중심이 되는 학생이 있어서 그 학생이 다른 학생들에게 나누어주었습니다. 제일 처음에 100피너츠를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너츠은행에서 100만 피너츠를 빌려갔습니다.

질문 : 개인이 얼마까지 빌려갈 수 있습니까?

회원이라면 누구든지 100만 피너츠까지는 자동적으로 빌려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상이 되면 상담을 하게 됩니다.

별첨

마치다시 기획부 정책심의실

《시정 기본시책에 관한 조사연구》

사회시장 형성에 관한 조사연구

머리말

본 보고서는 마치다시(市) 기획부정책심의실이 ‘시정 기본시책에 관한 조사연구’사업의 일환으로 2004년에 실시한 ‘사회시장형성에 관한 조사연구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2004년도부터 시작된 새로운 마치다시 기본구상에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존중되고 희망으로 빛나는 마을’, ‘지역의 자원(財)을 살려 풍족함을 느낄 수 있는 마을’, ‘서로의 신뢰를 토대로 함께 만들어 가는 마을’이라는 이념을 바탕으로 ‘사람과 지역이 주체가 되는 마을’, ‘사람이 모여 풍족하게 살아갈 수 있는 매력적인 마을’, ‘활동하는 사람을 양성하는 마을’을 도시의 모습으로 내걸었다. 그 실현을 위해서 기본계획에서는 커뮤니티의 활성화 누구나 지역과 사회에서 활동할 수 있는 환경 만들기 ‘마치다다움’의 창출, 생활의 질 향상 등을 목표로 내걸고 있다. 기본구상을 바탕으로 목표를 종합적으로 달성해 나가기 위해서 지역에 뿌리를 둔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펼쳐나가는 것이 빠져서는 안된다. 그 활동의 장으로써 ‘사회시장’의 밑그림을 그리는 것이 이번 조사연구의 과제인 것이다.

조사연구를 위해 지역통화에 정통한 경제평론가 모리노 에이치씨를 전문위원으로 모시고 지도·조언을 얻었다. 또, 2004년 7월부터 2005년 1월까지 지역 내에 사업팀을 설치하고 직원 13명이 사회시장에서 서비스전개의 가능성에 대하여 ‘행정의 연계’와 ‘지역 내 자원의 관계’의 양면에서 검토·정리하였다.

이 보고서는 5개 장으로 구성되었다. 서론에서는 사회시장을 구상하는 의의에 대하여 제1장에서는 사회시장의 개념과 필요성에 대하여 논하였다. 제2장에서는 거래와 정보교환의 장으로써 공통기반 모델을 제안하고 있다.

더욱이 보고서의 작성은 모리노씨의 협력이 없었다면 곤란했을 것이다. 제2장은 모리노씨의 조언에 힘입은 점이 많고, 제3장의 정리방법 등에 대해서도 자문을 받았다. 또, 제4장에서 제시한 ‘사회시장의 공통기반에 대한 최초 모델은 모리노씨의 제안으로 이루어졌다. 또 한 번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본 보고서가 하나의 계기가 되어 마치다라는 지역과 관계된 많은 단체와 개인이 사회시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시장형성을 위한 활발한 논의와 노력이 꽃피운다면 그 이상의 기쁨은 없을 것이다.

2005년 3월

마치다시 기획부 정책심의실

목 차

서 론	6
제1장 사회시장의 필요성과 조건	9
1. 지역공공경영에 요구되는 새로운 공동경제	9
(2) 거버넌스와 시민의 재정	11
(3) 지역거버넌스의 과제	12
2. 시장과 공공성	15
(1) 시장의 공공성이란 무엇인가	15
(2) 정부와 시장... 밀월의 끝	18
(3) 시장은 어디까지 공정할 수 있는가	21
3. 사회자본 발현의 장으로써 사회시장	26
(1) 재화의 분배방법과 사회구조	27
(2) 사회자본과 시장	28
(3) 사회시장의 전망	33
제 2장 사회시장형성의 수단으로서 지역통화	38
1. 지역통화의 기본적 사항	38
(1) 지역통화란 무엇인가?	38
(2) 지역통화의 종류와 현황	45
(3) 지역통화의 활용방안	52
2. 지역통화의 관련사항과 전망	68
(1) 지역통화와 법제도와의 관계	68
(2) 지역통화에 관련하는 교환미디어	73
(3) 지역통화 전개의 방향성	75

제3장	마치다의 경우 사회시장형성의 가능성	77
1.	머리말	77
2.	행정과 연계된 서비스 전개의 가능성	77
	(1) WT작업의 개요	77
	(2) 행정서비스의 외부화에 의한 서비스 전개의 가능성	78
	(3) 민간사업주체에 대한 지원에 따른 신규서비스의 가능성	83
	(4) 바우처(voucher) 지급에 따른 효과가 기대할 수 있는 것	86
	(5) 지역통화 지급에 따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	87
	(6) 보조금의 지역통화에 대한 전환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	88
3.	지역 내의 자원 관련에 의한 서비스 전개 가능성	88
	(1) WT 작업의 개요	88
	(2) 지역 내의 자원관련도	91
4.	사회시장 형성의 과제와 구조의 방향성	108
	(1) 서비스의 유형과 정리	108
	(2) 사회시장 형성에 대한 행정의 관여	119
	(3) 지역통화의 활용	122
	(4) 민관협동에 의한 구조의 방향성	125
제4장	사회시장의 공통기반을 생각한다	129
1.	공통기반의 기본적인 사항	129
	(1) 지역 내 공통기반의 정의와 역할	129
	(2) 공통기반의 기본적인 윤곽	131
2.	공통기반 모델의 제안	133
	(1) 커뮤니티 주도형 모델	133
	(2) 유통 확대형 모델	137
	(3) 모델을 실현하기 위한 제언	146

서 론

‘사회시장’이라는 친숙하지 않은 용어를 조사연구의 주제로 채택한 것은 시장 본래의 의미를 다시 짚어 보고 싶었기 때문이다. 사회시장을 한마디로 말하면 ‘풍요로운 사회를 만드는 시장’이라고 할 수 있을까?

시장경제를 움직이는 것은 ‘돈’이다. 돈이 있으면 무엇이든 살 수 있다. 돈은 우리들의 생활을 풍족하게 해준다. 하지만 ‘정말로 가치 있는 것은 돈으로 살 수 없다.’ ‘진정한 의미의 ‘풍족함’은 돈으로 실현할 수 없다.’고 한다. ‘소장된 자원(財)보다도 신체의 자원이 훌륭하고 신체의 자원보다 마음의 자원이 풍요로움의 으뜸이다’라고 일연은 말했다. 소장된 자원이란 축적할 수 있는 것 또는 자신의 생활을 풍족하게 해주는 재화를 말한다. 신체의 자원은 건강한 신체, 혹은 몸에 익은 지식과 기능이며, 마음의 자원은 내면의 풍요로움을 말한다.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은 고작 소장된 자원까지다. 그럼에도 신체의 자원과 마음의 자원조차 돈으로 손에 넣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현대사회일 것이다.

현대의 시장구조는 돈을 모으기 위한 시스템으로 되어있다. 시장에서 활동하는 참가자는 다른 참가자를 앞지르거나 밀어내서 많은 이익을 올리기 위한 경쟁으로 세차게 돌진한다. 월등하게 남을 앞지른 자만이 거액의 부를 얻고 밀리면 패자가 된다. 그 모습은 마치 거대한 게임에 열중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래서 레비스트로스는 근대사회를 ‘뜨거운 사회’¹⁾라고 불렀다. 뜨거운 사회란 지금 전 세계를 뒤덮은 지역사회의 자연과 문화 전통, 습관이라고 하는 생활 기반뿐 아니라 우리들 인류에 의해 유지되는 지구까지도 죄다 태우려고 하고 있다는 의미다.

시장은 상품의 가치와 가격(화폐량)이 일치하는 교환방식(등가교환)으로 성립된다. 개인이 가지고 있는 재화를 각각 동등한 가치의 것으로 교환하는 것이 기본이다. 이와이 카츠 히토는 자본주의는 이윤획득 뿐만 아니라 ‘돈’을 증식시키기 위한 경제시스템이며 ‘이윤이란 차이로부터 생겨난 것’이라고 말한다. 등가교환의 기초로 이윤을 얻는 유일한 방법은 싸게 산 물건을 비싸게 파는 것이다. 이것을 가능하기 위해 다른 가치체계를 갖는 ‘외부’가 존재해야 한다. ‘외부’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이윤을 얻기 위해 새로운 ‘외부’를 만들어야 한다. 끊임없이 빈부의 격차와 승자와 패자가 생겨나는 것이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특징이다. 우리들이 손에 넣는 ‘돈’은 이윤을 동기로 차이와 경쟁 안에서 만들어 내는 것이다. 그리고 돈으로 시장에서 얻을 수 있는 자원과 서비스 또한 마찬가지이다.

관계성 안에서 살아가는 인간은 본래 물건이나 노동을 교환하는 일은 언어에 의한 이루어지는 아주 근원적인 의사소통행위일 것이다. 그러나 근원적인 의사소통행위가 심정적인 관계성을 잃어버린 상태에서 ‘외부’와 교환이 이루는 장소가 시장의 본질일지도 모른다. 결국 시장시스템에 ‘정(情)’이 파고들 여유가 없기 때문에 공리성과 합리성이 철저히 가능한

1) 뜨거운 사회 : 프랑스의 문화인류학자 레비스트로스는 미개사회를 ‘차가운’ 사회, 근대사회를 ‘뜨거운’ 사회라고 부르며 구분했다. 전자는 시계와 같이 공학적인 기계에 비유하여 처음 상태(질서) 안에서 자신을 지키려고 하는 것에 대해, 후자는 증기기관과 같이 열역학적인 기계에 비유하여 끊임없이 내부에 차이와 불균형을 창출하여 그것을 에너지로 하여 난잡함과 불규칙을 만들어내면서 전환하여 간다.

것이다. 그러나 세계화된 사회에 '외부'는 존재하는가? 예를 들어 열대우림의 파괴는 우리들의 생활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을까

벌써 우리들은 시장이라는 시스템의 편리성과 효율성을 버릴 수 없다 그러나 '뜨거운 사회'로 변화되는 것을 방관한다면 지구는 타버린 찌꺼기가 되어버릴지 모른다 시장도 인간이 만들어 낸 것이며 우리들의 손으로 바꾸어갈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미래를 창조하는 활력과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 넘치는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온난습윤한 사회'를 원하고 있다. 인간이 생활하는데 보다 적합한 장소로써 발전하기 위한 경제시스템이 있는 시장 상대를 알지르기보다 서로가 신뢰하며 거래할 수 있는 시장 돈 벌기가 목적이 아닌 서로에게 필요한 것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시장이 있는 사회를 만들 수 있을까.

'돈'이 많아지면 돈으로 살 수 있는 부도 늘어난다. 그러나 J.K. 갈브레이스는 부가 증가하여도 풍요로운 사회는 실현될 수 없다고 한다 욕망은 생존하기 위해 생성되는 물리적인 근거에 기초한 욕망 이외에 광고 등에 영향을 받아 생겨나(의존효과) 욕망이 있기 때문에 '생산의 증대는 어떤 관점을 넘으면 욕망을 육성하고 생산의 증가에 따라 수요도 증가하기 때문에 생산의 증대는 사회 진보의 척도라고 할 수 없다

그러면 '돈'으로 살 수 없는 가치란 무엇일까 예를 들어 '친구'는 어떨까? 어려울 때 도와주고 격려해 주는 친구, 서로의 개성을 인정하면서 즐거움을 나눌 수 있는 친구 목적과 가치관을 공유하고 함께 충실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친구 이런 친구가 있다면 그것은 세상에 둘도 없는 가치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닌가. 친구를 얻는데 '돈'이 아닌 상대에 대한 관심, 성실함 그리고 상대를 신뢰하며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약간의 용기가 있으면 된다.

소장한 자원을 측정하는 척도가 돈이라면 신체의 자원을 측정하는 것은 인간의 능력 마음의 자원을 측정하는 것은 개인의 실감(實感)이라고 할 수 있다. 실감할 수 있는 '풍족함'이란 무엇인가. 살아가는 가운데 느끼는 가까운 자연, 공기, 물, 사람들이 긴 시간에 걸쳐 만들어 온 좋은 전통을 접하는 것, 누군가의 얼굴을 떠올릴 수 있는 물건 자신의 작은 행동에 상대가 기쁨을 표현해 주는 것, 친구나 동료들과 보내는 즐거운 시간 등에서 느끼는 것은 모두 타인과 관계에서 생기는 체험과 연결되어 있다 그 체험은 언어와 행위, 물건의 교환인 것이다. 그리고 교환되는 것은 소장된 자원과 신체의 자원에 연계된 것이다.

소장된 자원과 신체의 자원이 마음의 자원을 풍요롭게 하는데 사용되는 것이 필요하다 풍요로운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서 지역사회에 존재하는 자원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잠재능력을 충분히 발휘하여 각자의 풍요로움을 느낄 수 있는 체험과 연결하여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 사회시장이란 풍요로움을 최대한 경험할 수 있는 구조인 것이다

마음의 자원을 풍요롭게 하는 사회시장을 형성하는 일은 생각만큼 쉽지 않다 첫째, 우리들의 사회는 너무 '의존효과'에 의한 욕망으로 가득 차있기 때문에 상업적으로 만들어진 욕망을 충족시키는 일이 '풍족함'의 실체이라고 생각하게 된다. 확실히 질 높은 상업서비스

는 얻기 어려운 체험과 추억을 심어준다. 그러나 만들어진 욕망을 채우기 위한 상업서비스는 체험과 추억의 바탕이 되기는 어렵다. 마음의 자원을 풍요롭게 하는 사회시장은 체험과 추억의 바탕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다.

둘째, 우리들은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사회시장이 지향하는 상호성과 신뢰관계를 기본으로 한 서비스는 성가시다 인간관계는 ‘감사’, ‘은혜에 보답하기’, ‘배려’ 등과 같은 감정이 동반한다. ‘참여’와 ‘역할’을 요구하고 ‘이야기 나누기’와 ‘조정’이 빈번하게 발생한다. 그것이 ‘풍요로운 사회’의 비료가 되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귀찮아서 이겨내지 못하는 것이다. 무엇보다 상호 신뢰관계 자체가 신뢰할 수 없다는 경우도 있다.

모든 질 좋은 공공재가 그러하듯이 사회시장도 지역주민들의 손으로 시간을 들여 차별하게 만들어 가는 수밖에 없다. ‘풍요로운 사회’를 스스로 만들어가는 강한 의지와 비전을 공유하는 사람들이 먼저 길을 개척하고 사회시장의 좋은 사례를 제시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주위에 ‘풍요로운 사회’가 메시지로 전해져서 서서히 파급되어 나갈 것이다.

다행히 마치다시는 좋은 자질과 사례에 혜택 받은 지역이라고 할 수 있다 ‘자산운용’이 가능한 지역의 장점을 살려가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사회시장 형성을 촉진하고 시장형성의 선구자들을 응원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온난습윤한 사회’의 성공사례를 제시하여 전국으로 세계로 파급시키면 좋겠다 아마도 그것이 마치다시의 사명일지도 모르겠다.

제1장 사회시장의 필요성과 조건

이 장에서는 조사연구의 주제인 ‘사회시장’이란 무엇인가, 왜 필요한가, 또 사회시장에 요구되는 조건은 무엇인가에 대해 검토하겠다.

우선 사회시장을 ‘지역의 다양한 주체가 열린 참여와 상호관계에 기초하여 자원서비스를 교환하며 새로운 공공가치의 창출과 분배를 실현하는 경제구조로 정의하겠다.

1. 지역공공경영에 요구되는 새로운 공동경제

사회시장을 위와 같이 정의하면 사회시장형성은 지역적 관점에서 공공의 존재를 다시 정의하는 것 즉, 지역사회의 자율적인 이해조정과 경영을 실현해 가는 방법과 밀접하게 관련된다. 오히려 공공의 윤곽에 대한 전환이 강요되는 상황이 사회시장을 필요로 한다고 할 수 있다. 자치단체정책으로 사회시장형성을 논하는 것은 자치단체가 스스로 변화와 혁신을 해야 한다. 그렇게 때문에 지역에서 공공경영과 사회시장의 관계를 생각해 보겠다

(1) 지역공공경영의 의미

1) 지자체에 요구되는 경영

최근 도시경영, 지자체경영, 행정경영 등 공적부문에 ‘경영’이라는 용어를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것을 총칭하여 ‘공공경영’이라고도 한다. 경영이란 ‘방침을 정하여 조직을 정비하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일을 실시하는 것이며, 영어로 말하자면 ‘매니지먼트’이다. 특히 영리사업 분야에서 많이 사용하지만 행정조직과 사업에서도 ‘경영’은 존재한다. 그것은 지방자치법(제2조)이 ‘주민의 복지 증진’이라는 목적을 ‘최소의 경비로 최대의 효과’를 올리면서 달성해가는 것을 지방자치운영의 기본원칙으로 하는 것에서 명확하게 알 수 있다.

행정(정부)은 ‘관리운영’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것은 ‘기존의 규정과 방침에 따라 일을 실시한다는 의미가 강하다. 그것은 행정서비스가 공권력을 가지고 자원을 재분배하기 위해 규정과 방침에 근거한 엄밀한 제도운영을 수행하는 성질을 갖기 때문이다.

지금 굳이 ‘경영’이라고 말하는 것은 나름대로 의도가 있다. 즉,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일본이 인구감소사회로 접어들면서 경제규모가 축소되는 시대를 맞고 있다. 예전과 달리 세수(稅收)가 해를 거듭할수록 축소될 것이며 의료, 보건, 복지 등의 분야를 중심으로 공적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한다. 이 때문에 제한된 자원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최적으로 적합한 정책선택을 어떻게 실시할 것인가를 위한 ‘전략’을 고민해야 한다. 여기에는 ‘기

업적'인 경영의 발상과 기법을 도입해야 한다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다 특히 미래의 불투명한 삼위일체식의 지방분권개혁)의 소용돌이 속에서 지자체는 스스로 지역의 공공경영의 비전과 방침을 내걸고 책임을 갖고 주체적으로 노력하는 자세를 제시해야 한다

2) 공공경영의 개념 (NPP와 PPP)

공공경영의 개념은 두개의 기본적인 사고로 구성된다 하나는 신공공경영(New Public Management)이며, 다른 하나는 민관제휴(Public Private Partnership)이다.

NPM이론은 '관에서 민으로'를 기본사상으로 하며, 공적부문에 민간적인 경영기법을 도입하여 효율적인 작은 정부를 지향한 것이다 영국³⁾의 대처정부시대 행정개혁에 사용된 이후 미국 등 영어권의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도입되었다 일본정부와 지자체에서도 도입행정법인, 공회계의 재검토, 행정평가제도, PFI⁴⁾, 지정관리자제도⁵⁾, 시장화테스트⁶⁾ 등, NPM에 기초한 경영기법 도입되고 있다.

시장주의 색채를 강하게 띠는 영국과 미국은 NPM에 의한 행정개혁으로 정부의 재정재건에 효과를 발휘했지만 한편으로 공적 서비스의 축소와 질 저하 및 사회적 격차 확대를 초래했다. 그것은 공적 서비스의 제공방식과 존재의미를 재차 묻게 되는 계기가 되며 또 하나의 사고로 PPP로 연결된다.

PPP는 영국 브레이어정부에서 사용한 공공경영의 이론이며 행정(정부), 민간(기업 등)

-
- 2) 삼위일체개혁 : 2003년 6월에 내각 의결된 기본방침에 기초한 지방의 자립을 지향하여 2004년도부터 2006년까지 ① 국고보조부담금의 개혁 ② 세원이양을 포함한 세원배분의 재검토 ③ 지방교부세의 개혁 등 세 가지를 일체화하여 추진한다는 것. 그러나 현재 상황에서는 국고보조부담금의 폐지·축소에 맞는 세원이양이 되지 않고 정부에 권한을 남겨둔 채로 교부금화와 단일의 슬림화도 포함하는 등 지방의 재량확대와 세제원의 충실을 위해 연결되지 않는 불충분한 개혁이 되고 있다.
 - 3) 'PHP정책연구레포트'에서는 NPM의 기본적인 사고로써 다음 4가지를 들고 있다. ① 행정조직 내의 재량권과 책임을 가능한 한 서비스 제공의 현장에 위양하는 것으로 민간으로부터의 자원투입을 가능하게 하는 한편, 업적과 성과에 의한 감독·통제, 의사결정의 합리성을 확보한다. ② 시장원리와 경쟁원리를 활용하여 업무의 민영화, 외부화를 추진함과 동시에 행정조직의 시장에 대한 대응력을 높인다. ③ 조직의 통제기준을 종래의 '규정에 의한 통제'에서 정책목표의 달성에 책임을 갖는 '사명에 의한 통제'로 전환한다. ④ 조직개혁에 의해 의사결정의 합리성과 집행과정의 투명성을 높인다.
 - 4) PFI(Private Finance Initiative) : 공공서비스에 민간자금을 도입하는 방법. 2000년 9월 'PFI추진법'의 시행과 함께 자국에서도 도입이 진행되고 있다. 공공서비스를 민간에서 조달하는 것에 의해 경쟁성, 재산성, 비용 대비 효과, 고객만족 등을 담보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원칙으로 공공서비스에 관련된 시설의 설계·건설, 자금조달, 운영에 걸친 사업의 라이프스타일을 민간사업자가 일괄하여 수주한다. 또한 예상외의 사태에 대해서 부담이 증가하는 경우 부담처리에 대해서 관민에서 사전에 리스크를 분석하여 결정한다.
 - 5) 지정관리자제도 : 2003년 9월의 지방자치법개정에 의해 창설되었던 지방자치체의 공(公)의 시설관리에 관한 제도. 종래에는 공의 시설관리는 지방자치체의 출자법인 등에 의해 위탁하는 '관리위탁제도'가 실시되었지만, 지방자치체가 지정하는 출자법인 이외의 민간 사업자를 포함한 단체에 관리를 대행시키는 '지정관리자제도'로 제도가 전환됨에 따라 공의 시설관리운영에 민간의 활력을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
 - 6) 시장화테스트 : 관민경쟁입찰제도. 이미 구미의 많은 국가에서는 상하수도, 긴급환자수송, 형무소운영 등에 도입되어 있고, 자국에서도 시험적인 도입이 계획되고 있다. 공공서비스의 청부입찰에 관과 민이 대등한 입장으로 참가하여 우수한 제안을 한 쪽이 사업을 낙찰하는 구조이며, 공무원을 줄이면서 공공서비스를 충실하게 하는 방법이다. 입찰 때에는 관은 민과 동등한 비용계산을 제출해야하기 때문에 공공서비스의 비용이 제삼자에게 명확해지며 서비스의 질을 떨어트리지 않고 비용을 삭감하려는 역학이 탄생된다고 기대하고 있다. 또한 공공서비스를 입찰이라는 시장에 드러내는 것으로 공권력행사는 공무원 밖에 행사할 수 없다는 사고방식을 깨트리려는 의도도 있다.

및 NPO(비영리민간단체)가 병렬적으로 연대·협력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공적 수요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 단순히 민영화를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 기업, NPO 등이 연대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과 사업내용의 다양성을 확보하여 질을 높여가는 것을 목표로 한다.⁷⁾

NPM이 행정조직의 경영에 목표를 두는 것에 대해 PPP에서는 국가와 지역이라고 하는 사회총체적 경영에 목표를 둔다는 것이 맞을 것이다. 지방자치의 관점에서 말하자면 지자체의 행정조직경영에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있는 것은 시장과 의장이지만 지역사회는 공공경영은 행정 외에 기업, NPO, 그 외의 각종 조직과 개인이 주체가 되어 연대해 나가는 것이다. 즉, 전자는 후자의 일환으로써 실시된다는 도식이 되는 것이다.

(2) 거버넌스와 시민의 재정

1) 지역거버넌스의 중요성

지역공공경영에 관련하여 ‘지역거버넌스’라는 개념도 최근 자주 사용되어 그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거버넌스(governance)란 일반적으로는 ‘자기통치=조직이 스스로를 능숙하게 통치하는 것’이라는 의미지만, 행정학에서는 정부가 행하는 강제력을 전제로 한 통치형태인 ‘거버먼트(government)’에 대비하여 조직과 사회에 관여하는 사람들이 주체적으로 참가하여 공익성에 기초한 의사결정과 합의형성을 하는 구조라는 의미로 사용된다. 즉, PPP는 거버넌스에 의해 성립되는 것으로 지역공공경영의 열쇠는 지역거버넌스가 쥐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최근 ‘행정과 시민의 협동’이라는 말이 슬로건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은데 단순한 역할 분담론의 문맥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많고 거버먼트(정부)가 담당할 수 없게 된 서비스를 하청으로 기업과 시민활동에 부여하는 것이 흡사 거버넌스(governance)라는 식으로 전도된 경우도 적지 않다. 그러나 지역거버넌스는 사회의 모든 통치의 기본이며 인간생활을 유지하는 기반을 만드는 구조라고 파악되어야 한다.

거버넌스를 유지하는 원리는 ‘권력’이 아닌 ‘대화’와 ‘조정’이다. 지역사회의 공동과제의 해결과 주민들의 생활에 필요한 자원의 배분은 본래 거버넌스에 기초하여 실행되는 것임에 틀림이 없으며, 민·관의 역할분담을 결정하는 것도 거버넌스에 의하지 않으면 안 된다. 지자체행정은 지역거버넌스를 지키고 유지하는 기능이라고 해도 좋을 것이다.

7) 영국 PPP위원회의 최종보고에서는 PPP이론실천의 어프로치에 관하여 다음의 4가지 단계를 보이고 있다. ① 공적자금을 통해 질을 높여야 하는 서비스의 의의를 각 주체가 공유함으로써 사회정의, 경제효율, 민주적인 설명책임을 부여한다. ② 공적부문은 설득력이 부족한 관계로 협력하여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를 규제하지 않는다. ③ 서비스의 위탁에 책임을 부여하는 공공기관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명확하게 구분한다. ④ 서비스가 시민의 수요에 부응하고 있는가, 효율적으로 고품질의 서비스가 실현되고 있는가, 설명책임과 시정책임이 서비스 전체에 침투하고 있는가의 명확한 평가기준을 만든다.

2) 공공경제가 지원하는 거버넌스

‘통치되는 자=민(民)’이 ‘통치하는 자=주(主)’라는 민주의 의미에 비춰보면 ‘공공’의 영역이란 사회의 구성원인 ‘민’이 지배하는 영역이며 그리고 거버넌스를 유지하는 것은 ‘재정’이다. ‘시민이 지배하는 시민 공공의 가계인 재정으로 인간생활의 ‘장’인 지속가능한 도시를 만들 수 있다. ‘공동의 부담에 기초한 공동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재정상의 자기결정권’이 있기 때문에 ‘시민의 공동사업으로써의 도시재생이 실시되고 ‘대지위에는 인간생활이 구축되는 것’이다.

지방분권의 기초는 ‘공공부문이 부담해야 할 책무는 원칙적으로 시민의 가장 가까운 공공단체가 우선적으로 집행하고 그렇지 않는 경우에만 쌍방의 합의를 기초로 순차적으로 광역을 관할하는 정부에게 위임한다고 하는 ‘보완성의 원칙’의 사상이다. 그것에 기초하면 인간생활이 영위되는 지역 커뮤니티의 재정적 기초가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은 당연하다 이와 같은 재정책의 경제관을 대표하는 것이 와그너의 세 개의 조직화원리에 의한 경제즉 ‘개인주의적 경제조직(시장경제)’, ‘공동경제조직’, ‘자선적 경제조직(가족이나 비공식적인 공조커뮤니티)’이다. 공동경제는 ‘자유섹터에 의한 자유공동경제와 ‘공공섹터에 의한 강제공동경제’로 나뉜다. 그리고 지역사회는 공동경제의 기초가 된다

즉, 시민이 지배하는 공동재정은 자유섹터와 공공섹터로 구성된다 이것은 지역거버넌스의 중심적인 영역과 겹치는 것이다 두개의 공동경제 가운데 종래에는 강제공동경제가 우세였고, 게다가 쌍방간의 경계는 명확했다. 지역공공경영은 두개의 공동경제 사이에 있는 담을 낮추고 쌍방 상호작용적인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공동경제의 영역전체를 활성화하려는 시도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공권력에 기초한 강제공동경제보다 자유도가 높은 자유섹터의 공동경제가 보다 큰 관계형성의 잠재력과 주도권이 있다는 것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또한 ‘지역경제는 지역의 시장경제와 지역재정이 자동차의 양 바퀴처럼 굴러가지 않으면 발전하지 않는다.’ 바꾸어 말하면, 공동경제가 시장경제와 효과적으로 상호작용하는 것을 통해 지역발전의 전망을 기대할 수 있다. 그때 강제공동경제가 직접 시장경제와 결합하면 재정이 시장시스템에 의해 외부에 유출되어 버려 위험요소(risk)를 갖게 된다. 예를 들어, 행정 서비스를 지역 외의 영리기업에 위탁한다면 고용 구매 등의 비용과 이윤으로써 자금이 지역 내에서 사용되지 않고 외부에 나가게 될 가능성이 크다. 지역에 뿌리를 둔 자유섹터가 그 유연성을 발휘하여 강제공동경제와 시장경제를 잘 결합시켜 지역에 필요한 고용과 서비스를 창출하는 역할을 한다면 자동차의 양 바퀴가 기능하게 되는 것이다

위와 같이 지역거버넌스에 의한 자유공동경제(자유로운 경제)의 구축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다. 사회시장형성을 구축하는 의미는 틀림없이 거기에 있다고 할 수 있다

(3) 지역거버넌스의 과제

1) 지역사회쇠퇴의 구도

지역거버넌스가 요구되는 배경에는 지역사회의 쇠퇴라는 문제가 있다. 사회의 쇠퇴란 사

회의 생산력이 떨어져 활력을 잃게 되고 그 결과 사회를 유지하던 모든 제도의 유지가 어렵게 되거나 와해되는 과정을 말한다. 현재 일본의 많은 지역사회에서는 심각한 쇠퇴현상을 보이고 있다. 그 원인은 생산토양의 요소가 되는 자금, 설비, 기술, 지식, 노동력의 열등화와 유출일 것이다. 소자고령화에 따른 인구감소가 그것에 추격을 가하고 있다.

지역에서 생산토양을 뺏는 것이 시장시스템이라고 보는 견해가 가능하다. 근대국가체제가 성립하기 이전에는 일본의 지역사회는 자립성을 갖춘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었다. 토지, 노동, 자본의 생산요소를 확보하여 어느 정도의 자급력을 기반으로 하면서 지역자원을 살려 특산물을 키우고 타 지역과 교역하면서 부를 얻어 풍족하게 되려고 하였다.

그러나 개방 이후 산업혁명을 거쳐 강국이 된 유럽과 미국을 모방하여 근대자본주의 국가의 길을 서두르게 되었다. 국제적인 시장시스템 안에서 경쟁력을 높이고 '풍요로운 국가'를 건설하기 위해 중앙집권적인 체제에서 국가경제를 육성하였다. 국내 시장의 확대와 대규모자본의 축적을 목표로 통합적 통화금융시스템을 만들고, 공업사회에 필요한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표준화된 교육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대규모자본력에 의해, 각 지역에 산재한 인재와 자원은 공업생산력을 높이는 것을 최우선으로 수탈 집중화, 재배치되어 지역은 국토전체의 산업입지구조의 안에서 위치를 부여받게 된다. 그 결과 지역경제는 자율적인 통합성을 잃게 되고 게다가 생활유지를 위해 기반이 되는 지역의 상호부조적인 기능도 약해지게 되었다. 또한 지역간 경제격차가 확대되었다.

국가경제가 국제시장에서 경쟁을 통해 획득한 부는 그것을 매우기 위해서 사용되었다. 그 하나가 전국단위의 민간자본을 시장시스템을 통해 지역사회에 자원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국토종합개발의 일환으로써 정부재정지출에 의한 공공사업을 실시하는 것이다. 이로 인해 시장경쟁력이 떨어지는 지역의 상업과 서비스업은 더욱 쇠퇴하고 지역격차를 매우기 위해 정부로부터 더 많은 예산을 쟁취하는 것이 정치의 최대역할이 되었다. 결국 지역경제는 자립성을 잃은 공공사업 형태가 되었다.

그러나 1980년대 후반 정보통신기술의 고도성장이 산업의 질적 전환과 경제활동의 글로벌화를 초래하였다. 정보화와 글로벌시장화를 배경으로 물건인 제품보다도 그것을 매개로 얻을 수 있는 정보 등 소프트웨어인 내용물을 중시하여 생산설비보다 사람에게 부여하는 지식과 지적능력에 보다 큰 가치를 두는 지식사회로 전환이 촉진되었다. 또 개발도상국의 기술력이 높아져 국제적인 분업체제가 크게 변화되었다. 국내제조업의 생산초점은 아시아 신흥공업국 등 해외로 이전되어 국가의 산업입지구조는 크게 붕괴되고 지역경제의 공동화가 급속하게 진행되었다. 한편, 국가산업의 중심은 공업에서 상업·서비스업으로 전환되어 대규모자본의 상업 진출이 지방으로 한층 확대되었다. 그 영향으로 동네의 상점이 사라져 가는 현상도 나타났다. 그 위에 버블경제붕괴 이후 전국으로 과도하게 점포를 늘린 기업이 점포를 철거하였고 때문에 경제에 치명적인 타격을 받은 지역도 적지 않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소자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 노동인구의 감소와 더불어 지역에 산업기반이 없기 때문에 노동력이 외부로 유출된다. 정부는 지역산업을 유지하기 위해 다액의 적자국책을 발행하여 공공사업을 실시하는 한편 고령화에 따른 후생 관련 공적지출은 계속 증가하여 공적부문의 재정은 팽박받고 있으며, 지역경제는 생산토양을 잃고 공공사업

과 공공서비스에 의지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음에도 이미 의지하는 것은 어렵다는 딜레마에 빠져있다.

지금 지역사회는 통치의 주체로써 스스로의 기능을 회복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 지역을 구성하는 사람, 조직, 활동, 다양한 자원 가운데 인간생활을 유지하는 기반을 다시 구축해야 한다. 지역사회의 쇠퇴는 거버넌스의 확립 없이는 극복할 수 없다.

2) 마치다시의 공공경영전략

동경권에 있는 거주지로써 비교적 양호한 입지조건에 있는 마치다시는 지방의 많은 시정촌(市町村)이 안고 있는 정도의 심각한 상황에는 미치지 않았다. 그러나 인구감소사회로 접어든 가운데 지자체로써 직면한 문제는 기본적으로 같은 형태이다.

2004년도부터 새로운 마치다시의 기본구상기본계획은 지역공공경영을 목표로 수립되었다. 행정조직인 시(市)가 무엇을 실시할 것인가를 제시한 종래의 계획으로부터 시가 시민기업, NPO 등과 협력하여 무엇을 실현할 것인가를 제시한 '목표명시형'으로 계획으로 전환한 것이다. 기본구상에서는 마치다시에서 생활하는 '사람'을 주체로 두고 목표로 해야 할 사람과 사회의 존재로써 도시의 비전(도시상)을 표현하였다. 게다가 기본계획에서는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전략적인 목표로써 '기본목표'를 내걸고 그것을 달성하기 위한 하위목표(중점목표→개별목표)를 설정하였다. 각각 목표의 성과를 측정하여 시책의 효과를 평가하기 위한 성과지표를 부여하였다. 성과지표를 통해 시민들에게 목표의 달성상황과 시책의 효과를 보이게끔 한 것이다. 행정과 시민을 비롯한 이해관계자가 목표달성을 위해 대화하며 협력하는 지역공공경영의 발판을 만들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지역공공경영의 효과를 십분 발휘하기 위한 조직체제를 만들기까지는 아직 얼마간의 시간이 필요한 실정이다.

새로운 마치다시 기본구상을 통한 만들려는 도시의 모습은 '사람과 지역이 주체가 되는 마을', '사람이 모이고 풍족하게 살 수 있는 매력적인 마을', '활동하는 사람을 키우는 마을'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이것에 위한 기본계획으로 커뮤니티의 활성화, 누구나 지역과 사회에서 활동할 수 있는 환경 만들기, '마치다다움'의 창출, 생활 질감의 향상 등의 목표를 내걸었다. 여기에서 읽을 수 있는 것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전략이다.

- ① 지역사회에서 주체상호 간의 관계구축
- ② 지역자원의 유효활용
- ③ 지역의 사람들이 사회에 참여하는 능력개발

두말할 필요 없이 위의 3가지는 노력 속에서 상호 보완·관련하는 성질의 것이기 때문에 종합적인 효과를 노린 복합적인 시책전개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사회시장형성은 위의 3항목을 동시에 추진하는 전략적인 방법에 따라 가능한 것이며 시책개발을 효과적으로 시행하는 중요한 위치를 점한다고 할 수 있다.

2. 시장과 공공성

지역거버넌스 과제의 배경 속에서 우리는 시장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그러면 시장이란 공공성과 양립하지 않는 것일까. 사회시장의 견해에서는 열려있는 교환구조인 시장은 오히려 본질적으로 공공성과 밀접하게 관계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시장과 공공성과의 관계를 살펴보기로 하겠다.

(1) 시장의 공공성이란 무엇인가

1) 시장의 의미

우선 ‘시장’이라는 말의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자. 시장이란 일반적으로 ①상품 판매가 현실로 이루어지는 장소 ②자원과 서비스가 교환거래되는 장에 대한 추상적인 개념 ③상품의 판매경로와 매매의 범위라는 의미가 있다. 여기서 말하는 시장은 ②의 의미이지만 그 개념은 말할 것도 없이 ①의 구체적인 모습에서 시작된 것이다.

역사가인 아미노 요시히코에 의하면 일본사회에서 ‘시장’이라는 말의 본래 발음은 ‘이찌바’이고 ‘시장(市場)’으로 표기하고 있다. 고대로부터 중세에 걸쳐 ‘정(庭)’은 ‘사람들이 공동으로 작업이나 생산 혹은 예능을 행하는 장소’를 의미하고 있었다고 한다. 더욱이 ‘조정(朝廷)’도 본래는 ‘조정(朝庭)’이라고 하여 친황이 말로써 소송을 판결하여 명령을 전달하는 광장이었듯이 공권력이 상징적으로 발현되는 장소를 의미했다. 이와 같이 ‘정(庭)’은 원래 사적인 관계를 넘어 특이한 공간을 의미하며, ‘시정(市庭)’도 ‘공동체를 넘어서 교역이 이루어진 장소’였다. ‘시정(市庭)’이라는 말의 의미 속에는 이미 공공성의 세가지 주요한 의미를 모두 요소로 포함하고 있음을 주목하고 싶다.

또한 아미노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시(市)가 열리는 장소는 ‘인간의 힘을 초월한 성스러운 세계’와 경계에서 ‘세속의 연이 끊어지는 장소’ = ‘무연(無緣)’의 장소이며, 거기서는 ‘사람도 물건도 신불의 세계, 성스러운 세계에 속하며, 누구의 것도 아니다.’ 물건과 물건을 상품으로 교환하기 위해서는 물건을 ‘무연의 장소’에 던져 놓아야만 한다. 한편, 세속의 생활 안에서는 ‘사람이 갖는 것에는 그 사람의 마음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물건을 교환하는 것은 자신의 마음을 건네고 상대의 마음을 받는 증여답례이며,

상품의 교환과는 별개였다. 시장은 ‘사람의 힘을 초월한 세계에 물건을 던져 넣는 것으로, 사람은 물건을 신의 손에 맡긴다고 생각하여 ‘인간이 시장을 스스로의 의지와 생각으로 거느리고 제어할 수 있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라고 믿었다. 현대의 우리들이 직면한 문제는 사실 인류가 그 출발점에서부터 쪽 안고 있던 것은 아닐까. 이와 같은 견해는 공공적인 성격을 가지면서도 거느려서 통제하기가 곤란한 시장이라고 하는 불가사의한 존재를 생각하는데 매우 시사적이다.

2) 공공성의 개념과 시장

공공성이란 무엇인가. 그 개념을 정리하여 서술하는 것은 어렵다. 공공성은 법률, 정치, 경제, 사회, 철학 등의 모든 학문영역과 환경, 복지, 의료, 교육 등의 수많은 정책영역과 관련되고, 동기와 배경에 따라 파악되는 관점도 다양하다. 그렇기 때문에 극히 많은 쟁점도 있다. 시장과의 관계에서 특히 경제적인 관점에서 공공성을 파악하면 부의 공정한 분배와 이익의 최적의 실현 등이 문제가 되는 것이다.

사이토우 준이치는 ‘공공성’이라는 말이 사용될 때 갖는 주요 의미로써 다음의 세 가지를 들고 있다. ①국가에 관한 공적인 것(official)이라는 의미 ②특정의 누군가가 아닌 모든 사람들에게 관계하는 공통의 것(common)이라는 의미 ③누구에게 대해서도 열려있다(open)는 의미로 우선 이 세 가지를 기준으로 시장의 공공성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것으로 하겠다.

시장의 공공성이라는 것은 시장경제에 있어서 정부가 관여하는 것은 있어도 시장시스템 자체가 정부로부터 직접 통제되지 않기 때문에 ①의 의미는 없다. 누구나 시장에서 자원과 서비스의 교환에 참여할 수 있으며 시장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②와 ③의 의미에서 시장은 충분히 공공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①의 의미의 공공성 즉, 정부=공권력이 시장에 관여하는 것은 어떤 경우인가. 두 가지 경우가 상정된다. 하나는 시장 본래의 공공성인 ②와 ③의 의미를 잃게 되는 상황의 발생을 방지하거나 발생 후 시정하는 것이다 ②로 말하자면 누군가 시장거래에서 자유로운 경쟁을 방해하여 특정인이 유리하도록 시장을 컨트롤하는 상태 ③에서는 누군가 시장에 참여하는 기회를 부당하게 빼앗기는 듯한 상태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시장은 결과로 사회에 불평등이 생겨나고 그것을 시장회복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 경우일 것이다. 시장과 공공성에 관한 논점은 이 두 개념에 관련된 것이라고 해도 좋다.

3) 시장주의의 ‘공정(公正)’이란

시장의 공공성이 추구하는 것은 수요에 적합한 자원을 공급하여 ‘분배의 공정’을 실현하는 것이다. 제품을 생산하는 입장에서 ‘정부를 사이에 두고 시장과 제품의 생산시스템을 비교해 보면 시장이 공공적이라고 할 수 있다. 시장에서는 제품의 종류를 생산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기 보다 원칙적으로 수요에 따라 생산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생각을 진행시켜, 시장에 자유로운 경쟁체계를 만들어 놓으면 자원의 분배를 최적화할 수 있기 때문에 국가(정부)는 분배에 최소한 개입해야 한다(또는 일절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는 입장이다. 이러한 입장을 여기에서는 ‘시장주의’라고 불러 두겠다. 영국 대처정권과 미국의 레이건 정권의 정책에 큰 영향을 끼친 시장주의의 대표적인 이론가로 꼽히는 프리드리히 하이에크의 생각을 보도록 하자.

하이에크는 ‘사회적 정의에 적합한 시장은 ‘도덕적인 돌’과 같이 무의미한 용어라고 말하였다. 하이에크에 의하면 시장은 ‘자생적 질서’에 따라야 한다고 한다. 자생적 질서란,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닌 성공에 연결된 실천에서 발전한 추상적이고 일반적인 규칙에 의해 형성된 것이며, 인간의 행동으로 나타난 결과이긴 하지만 인간이 기획한 결과는

아니다. 자기증식적인 진화과정에 있는 질서이다.

하이에크에 의하면 인간이 갖는 이성과 지식은 한정되어있기 때문에 정부의 관료기구가 모든 정보를 집중시켜 가공하고 통제하여 사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오히려 특정한 의도를 갖고 모든 정보를 집중시켜 가공통제하는 것이 전체주의에 연결되는 위험한 시도이다. 시장에 참가하는 각 개인은 시장에 부여된 가격시스템과 일반적인 규칙에 따라서 얻어진 가치가 있는 정보(현장지식과 가격정보 등)를 가지고 자신이 놓인 환경과 상황을 분석하고 최선의 결과를 얻기 위한 행동에 도움이 되도록 사용해야 한다. '자생적 질서' 의해 사회전체에 분산되어 있는 지식은 활동목적에 따라 자유롭게 활용되어 결과적으로 사회전체를 보더라도 원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특정한 목적을 가진 조직이 인위적인 질서를 만들어 조직을 통제한다면 각 구성원의 기능분담을 통해 목적달성을 위한 하나의 통합시스템은 실현되지만 시장질서에서는 개인의 자유가 규제받지 않기 때문에 개개인이 무한한 창조성을 발휘할 수 있고 복잡성의 정도가 높은 중층적인 시스템을 창출한다. 그렇게 때문에 다양한 의도가 달성되는 것이다.

또한 가격시스템은 경쟁이라는 원동력을 가지고 정보전달시스템으로써 기능한다. 시장에서의 경쟁은 의견형성의 과정이며 경쟁을 통해 사람들은 자신에게 무엇이 이로운가를 알 수 있다.

하이에크는 '국가'와 '사회'를 동일시해서는 안 된다고 한다. '사회는 태어나지만 국가는 만들어진다'는 것이다. 사회란 '무언가 자유를 갖는 인간이 만들고 성장시킨 다양한 자기증식적 구조'이며, '사회를 구성하는 것은 개인과 개인이 창출하는 다양한 조직 속에서 자생적으로 성장한 관계망이다.' 국가는 자유사회에서 많은 조직 가운데 하나에 지나지 않는다. 국가의 임무는 개인과 집단이 각각의 목적을 잘 추구할 수 있는 체제를 창출하고 시장이 공급할 수 없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자금을 조달이며 '자유로운 개인 활동을 결정하지 않는 조직'이어야만 한다. 따라서 강제 권력에 기초한 조직은 자유를 구속하는 경향이 있고, 불가결한 추상적인 행동규칙을 넘어 사회를 형성하기 위해 그 권력을 행사하게 될 때 국가는 유해로운 것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각 개인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하며, 시장에서 일어나는 각 개인의 행동에 대한 특정의도를 가진 강제(사회주의와 케인즈주의 등)는 '이성의 남용'이며, 배제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이에크는 주장하는 것이다.

위와 같이 권력을 배경으로 한 모든 특정의도(사회정의)가 개입하는 것을 배제하고 자생적인 규칙에 기초한 자유로운 인생이 형성하는 경제사회를 지향하려는 하이에크의 생각은 실은 앞서 논했던 사회시장의 정의와 다른 것은 아니다. 특히, 사회에 분산된 '현장지식'을 유효하게 활용하여 원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시스템으로 시장을 파악한 접 시장 활동을 통해 각 개인이 자발적으로 형성할 수 있는 사회를 논하고 있는 점, 국가와 사회관계에 대한 언급 등에 주목하고 싶다. 통화에 관한 하이에크의 다음 지적은 지금부터 논할 테마와 관련하여 매우 흥미롭다.

'만약 통화발행에 대한 독점권이 정부로부터 거둬들어지지 않는다면 자유경제시스템이 또다시 생각만큼 움직이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며, 우리들이 그 중요한 결함을 제거하는

일도 정부의 끊임없는 성장을 저지하는 일도 결코 없을 것이다 이미 어떤 엄격한 규칙을 갖고 있는 정부가 통화 공급을 정당한 통화수요로 채우더라도 안정적인 통화가치를 유지하는 일을 보증하기는 불가능하다. 현재 사기업이 공급하는 다양한 경쟁통화를 이용하여 국민통화로 바꾸어 놓는 것 밖에는 통화가치를 유지할 방법은 없을 것 같다 그렇기에 민중은 자신들의 거래에 훨씬 도움이 되는 통화를 자유롭게 고를 수 있어야 한다

(2) 정부와 시장... 밀월의 끝

1) 시장주의에 대한 비판과 시장의 실패

시장주의자에 의하면, 가격경쟁에 의해 분배가 결정되는 '시장의 원리'가 지배하는 시장 사회는 공정하며 희망하는 사회일 것이다. 그러나 시장시스템이 초래하는 심각한 현실도 있고, 시장주의에 대한 비판도 이루어지고 있다. 그 주요한 논점은 다음과 같은 것이다.

- ① 시장시스템은 경쟁의 결과로써 '승자'와 '패자'를 만들고 중대한 사회적 불평등이 나타난다. 그 배경에는 다음의 두 가지 면이 있다. 하나는 시장원리에 맡겨두면 사람들은 불합리하고 무엇을 하고자 하는 생각이 약하기 때문에 자신을 위한 최선의 이익을 실현할 수 없는 면, 또 하나는 오늘날 시장경제는 각 개인의 노력만으로 대처할 수 없는 위험요소와 불안정성을 창출하는 면이다. → 시장에 개입하여 생활의 안전보장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
- ② 시장시스템은 경제적 격차, 빈부의 격차를 초래한다. 시장주의는 사회 전체적인 이익에만 관심을 기울이고 사회내부 사람들 간의 부와 복리의 불평등에는 무관심하다. 각 개인은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상황으로 인해 다른 사람들과 생활수준의 격차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같은 사회에 사는 사람들 간에 불평등이 존재하는 것은 정의에 어긋난다. → 시장에 개입하여 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
- ③ 글로벌 시장경제는 세계적으로 표준화된 가치가 석권하여 지역 공동체가 가진 고유 가치를 잃게 하는 상황을 창출하였다. 그 결과 가치공유로 유지되었던 공동체문화의 존재를 상실하여 본래 의미를 불확실하게 하게 된다. → 시장에 개입하여 사회 속에서 문화적 일관성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
- ④ 시장경제는 현대인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막대한 자연자원을 소비하고 심각한 규모에서 전 지구적 환경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기본적으로 시장의 공공성은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의 이해밖에 고려하지 않는다. 공공성은 먼 미래에 미칠 영향도 함께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아직 태어나지 않은 사람들에게 대한 이해도 고려해야만 한다. 또한 환경과 생태계 자체의 가치도 고려해야 한다. → 시장에 개입하여 사회(지구)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이 가운데 ①, ②, ④는 시장시스템의 결과로써 초래되는 불평등에 대한 문제점을 이야기하고 있으며 ③, ④의 마지막 부분은 시장시스템이 시장가치를 갖기 못하는 것을 구축해

버리는 문제점을 말하고 있다. 시장과 공공성에 대해 두 가지 명제, 즉 '시장이 초래하는 결과인 불평등은 어디까지 허용해야 할 것인가와 '시장가치를 갖지 못하는 것의 가치를 얼마나 보유했 것인가'가 있다는 것을 확인해 두자.

또한 시장이 원래 가지고 있는 공공성(common, open)을 잃어버리거나 시장메커니즘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는 상태에 빠져서 사회가 타격과 손실을 받는 상태를 경제학에서는 '시장의 실패'라고 표현한다. 시장의 실패란 '시장에서의 자원배분의 비효율성을 말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그 원인은 다음과 같은 것이 거론된다.

- ① 독점 및 자연독점 : 독점이란 어떤 상품이나 서비스에 연관되는 시장에서 공급자(개인 혹은 기업)가 1인이 되는 상태이다. 독점기업은 자신의 이익을 최대화하기 위해 가격을 설정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시장원리의 장해요인이 된다. 자연독점이란 인위적인 요인이 아닌 경제적인 요인에 의해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독점이다. 자연독점은 규모를 크게 하면 할수록 경쟁에 유리한 시장상황(규모의 경제)에서 쉽게 생긴다. 생산량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일정하게 변하지 않는 막대한 고정비용(토지나 공장 등)이 발생하는 산업분야에서는 동종 기업 간에 규모의 확대경쟁을 하고 최후에는 단 한 회사만이 살아 남게 된다. 자연독점에 미치는 경쟁과정은 막대한 고정비용의 낭비가 발생한다. 그것을 막기 위해 정부가 시장을 규제하여 독점상태를 인정하는 경우(전력, 철도 등)가 있다.
- ② 공공재 : 어떤 사람의 소비가 다른 사람의 소비를 방해하지 않는 재화나 서비스를 공공재라고 하며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사람을 배제할 수 없다. 일반적으로 시장메커니즘에서 공공재를 제공하면 편익은 향유하는데도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사람이 나오기 때문에 잘 유지되지 않는다. 그래서 공공재는 일반적으로 정부가 세금 징수라는 형태로 공급비용을 일괄하여 징수하고 정부가 제공한다. 외교, 국방, 소방·경찰, 공원·일반도로 등이 공공재에 해당된다. 한 경제주체의 생산·소비 또는 분배행위가 시장교환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다른 소비자 또는 생산자에게 유리 또는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말한다.
- ③ 외부성의 존재 : 한 경제주체의 생산·소비, 합의, 계약 등의 시장교환에 참여하지 않는 다른 경제주체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을 외부성이라고 한다. 다른 경제주체에 의해 유리하게 작용하는 것을 '외부경제(外部經濟)'라고 하고, 역으로 불리하게 작용하는 것을 '외부불경제(外部不經濟)'라고 한다. 공해(公害)로 대표되는 외부불경제는 어떤 경제주체가 자기가 부담하는 비용 이외에 다른 경제주체에게 부담시키는 비용(공해의 방지대책 등, '외부비용'이라고 한다)을 발생시킨다. 시장메커니즘에 맡겨두면 시장은 외부비용을 무시하여 가격을 결정하기 때문에 시장은 실패한다.
- ④ 정보의 비대칭성 : 판매자와 수요자가 보유한 정보가 대등하지 않아 한편의 정보가 우위에 있어 다른 편이 불리해지는 상황을 정보의 비대칭성이라고 한다. 최적의 시장결과를 초래하기 위해서는 시장교환에 참여하는 경제주체가 서로 완벽하게 정보를 공유할 필요가 있다. 정보가 한편으로 치우친 상황에서 일어나는 거래는 불평등한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시장거래의 감소로 연결되어 시장의 실패를 부른다.

시장이 실패할 경우 제3자(통상은 공권력인 정부)의 조정이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의 실패는 정부의 경제활동에 대한 근거논리에 이용된다

이상과 같이 시장과 연관된 명제나 시장이 실패하는 이유는 시장시스템에 결함이 있기 때문에 발생하며 그 원인을 제거하기 위해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고 또 직접적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것을 정당화한다.

2) 복지국가로 가는 길과 정부의 실패

근대자본주의국가는 20세기에 경험했던 세계공황에 대한 반성과 새롭게 등장한 사회주의국가체제의 대항으로부터 시장경제가 가지고 있는 자유경쟁시스템을 유지하는 한편 정부는 규제와 재정투입을 통해 경제를 제어하면서 정부에 의해 제공되는 공공부문서비스를 충실히 하는 '복지국가로 방향을 전환하였다.

한편 '결함이 있는'시장은 그 자체로써 공공성이 있다고 인정받지 못하여 시장경제는 복지국가라는 형태로 정부(공권력)의 공공성(정의)을 유지할 수 있는 것으로 자리매김 되었다. 시장은 공공성을 국가에게 떠맡기며 동시에 시장에 대한 국가의 개입을 수용하면서 사회에 적당한 격차와 불평등을 만들며 큰 부가가치를 얻게 되었다. 재분배기능을 맡게 된 국가는 부가가치의 일부를 세(稅)로 거둬 국가를 유지한다. 국가는 국내사회의 시장에 의해 초래된 왜곡과 불평등을 공공사업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해소해 간다. 이러한 국민국가와 국가경제는 복지국가=큰 정부)와 경제성장 지상주의로써 양립한다.

그러나 시장의 실패를 이유로 국가가 경제에 개입하면 역으로 중대한 '정부의 실패'를 초래하기 쉽다. 경제학에서 '정부의 실패'란 정부주도의 경제정책이 의도한대로 성과를 올리지 못하고 오히려 경제활동은 비효율적이 된다고 생각한다. 다음과 같은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 ① 국책발행으로 자금을 조달하여 공공사업에 투자하는 방식으로 국내경제의 활성화와 고용확보를 해온 복지국가는 고도성장이 끝나면서 막대한 재정적자를 안게 되었다
- ② 노동인구가 감소하여 세수가 줄어들고, 고령인구는 증가하여 복지분야의 서비스 수요가 증가되고 저출산·고령화 사회는 결국 재정수지의 균형을 파괴하고 이전에 시행하던 공공서비스마저 유지하기 어렵게 만들었다.
- ③ 국가재정의 비대화와 국민부담의 증가에 따른 적합한 행정서비스 수준효율성과 만족도)과 제공의 필요성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고 비효율적인 정부의 재배분(너무나 번거로운 수속, 기동성·유연성의 상실, 낭비를 배제할 수 없이 축적되어 가는 경향)가 문제되었다.
- ④ 정부의 경제활동에 대한 개입과 규제가 민간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저해함과 동시에 기득권익을 낳고, 소비자의 수요가 충분히 채워지지 않아 값이 비싼 상품과 서비스가 되어 소비자에게 청구서를 돌리게 된 상황이 지적되게 되었다.
- ⑤ 정보통신기술의 고도화로 국가의 벽을 넘어서는 글로벌경제시장이 출현하고 세계화시대에 활동하는 기업이 경제를 통제하는 영향력이 확대된 것에 비해 국가의 능력은 저하되었다.

‘정부의 실패’가 일어나는 원인과 시장에 의한 분배의 장점에 대해서 주로 시장주의의 입장에서 비판적인 지적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모리무라 스무는 그 논점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

- ① 시장은 당사자 모두에게 유리한 부등가교환에 의해 가치를 만들어낸다 한편, 정치는 역으로 강제적인 재분배의 장이며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 내지 않으며, 강제성에 따른 다양한 비용이 들기 때문에 비생산적이다.
- ② 공공재의 공급은 강력한 정치이권과 연결되어 있다 정치이권 세력은 효율성과는 관계 없이 공공재를 과다하게 공급시키려고 한다. 자유시장에서 공급된 재화나 서비스(수요에 대해 공급되기 때문에) 생산이 너무 적거나 혹은 너무 많게 되는 경우에 제동이 걸린다.
- ③ 민간부문은 시장을 포함하여 협력과 상호의존의 장이다 그리고 여기서의 협력과 상호의존은 자발적인 것으로 정부에 의해 떠넘겨진 협력은 아니다.
- ④ 시장에서 사람들은 자기이익추구를 통해 타인에게 이익을 주지만 정치과정에서 사람들은 공익을 실현한다는 원칙 아래서 타인에게서 이익을 빼앗고 있다

그러면 복지국가는 정부의 실패였던 것일까 복지국가의 역할에 대해서 진노 나오히코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대량생산, 대량소비를 실현한 공업사회가 종말을 고한 ‘신시대’는 1980년부터 시작되었다. (중략) 국민국가가 경쟁원리에 근거하여 시장경제와 복지국가를 형성하고 통제하는 방식으로 실현했던 대량생산대량소비의 공업사회가 막을 내렸기 때문에 실패하였다는 것’이 아니라, ‘성공했기 때문에 역사적 사명이 끝났다고 할 수 있다’

산업구조나 인구구성의 변화 등의 원인에 의해 정부와 시장이 서로 지원하고 시장의 실패와 정부의 실패가 동거하고 보완하는 형태를 유지할 수 없게 된 것이다. 그렇다면 ‘작은 정부’로 시장의 실패를 참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큰 정부’의 부담을 참을 각오를 해야 되는가. 아마도 문제는 정부일까 시장일까 하는 양자택일은 아니다. ‘큰 정부’가 시장의 실패를 막을 수 없다는 것보다도 오히려 큰 정부가 시장의 실패를 덮어서 감추는 본질적 해결을 방해한 측면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

(3) 시장은 어디까지 공정할 수 있는가

1) 시장원리의 효율성

큰 정부가 개입하지 않고 시장이 공정한 분배를 실현하는 것은 가능한가 자원의 배분 메커니즘을 연구하는 마이크로경제학⁸⁾의 사회적 선택이론⁹⁾의 성과를 간략하게 살펴보자.

8) 마이크로 경제학 : 가계의 소비활동이나 생산 활동이라는 개개의 경제주체의 행동 및 그것들이 상호 조절되는 시장기구의 움직임을 분석하는 경제학. 가격의 작용에서 자원배분과 소득분배를 세밀하게 분석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미시적 경제학이라고도 한다.

9) 사회적 선택이론 : 사회적 선택이란 집단적 의사결정이며, 그를 위한 합리적, 민주적인 규칙의 존재를 연구해

1950년대 케네스 애로우¹⁰⁾와 제럴드 도브류는 사적소유제를 바탕으로 완전경쟁이 실현된 경제는 팔레트효율성¹¹⁾ 즉, 누구도 불만이 없고 전혀 낭비 없고 누구나 바라는 자원분배가 자동적으로 이뤄진다는 ‘후생경제학의 제1정리’¹²⁾를 수학적으로 증명하였다. 이 정리에 의하면 당사자 간의 자발적 교섭에 맡겨두면 수급법칙에 기초한 가격메커니즘을 통해 원하는 대로 자원분배를 실현시킬 수 있다는 것이 증명되었다. 또한 ‘후생경제학의 제2정리’¹³⁾에서는 정부가 정책적으로 관여하여 기회균등화를 실시함에 따라 공정성이 기초한 균등분배의 경제를 달성하는 것이 가능함을 증명하였다¹⁴⁾ 이것을 간단히 말하면 만약 시장의 실패가 없다면 자원은 시장을 통해 낭비 없이 배분되어 누구도 손해를 보지 않는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 처음부터 있던 불평등은 해소되지 않기 때문에 정부가 개입하여 기회의 균등을 꾀해야 한다는 것이 된다.

팔레트효율성은 ‘어떤 변화가 다른 사람의 효용을 악화시키지 않고 적어도 한사람의 효용(배분)을 높인다면 누구도 이 변화를 부정할 수 없다는 사고방식을 기초에 두고 그 점에서 민주적인 규칙에 친숙하게 된다. 그러나 현실의 시장에서 그러한 경우는 드물다

마이크로경제학에서는 완전경쟁¹⁵⁾에 필요한 조건이 만족되지 않고 팔레트효율성을 달성할 수 없는(자원이 사장·손실되는) 시장시스템의 상태를 ‘시장의 실패’라고 한다. 그래서 그 문제로 시장의 실패메커니즘을 밝히는 것이다.

2) 시장의 실패메커니즘

마로 한다.

- 10) 케네스 애로우(Kenneth Arrow 1921~) : 미국의 경제학자. 정보의 경제학 등 광범위하게 걸친 경제이론으로 업적을 올린다. ‘사회적 선택과 개인적 평가’(1951년)에서 개인의 합리적 판단을 집계하여 사회적 판단을 형성할 때, 어떤 민주적 규칙에 의한 집계라도 순환적 모순을 낳을 가능성을 피할 수 없다는 ‘일반 불가능성 정리’를 증명하여 사회적 선택이론의 선구적 연구가 되었다. 본문에서 설명한 일반균형의 존재증명의 업적으로 1972년 노벨경제학상 수상.
- 11) 팔레트 효율성(Pareto efficiency) : 이탈리아의 경제학자 빌프레드 팔레트(Vilfredo Pareto)가 제창한 자원배분에 관한 경제학 개념의 하나. 어떤 자원을 어떤 집단에게 배분할 때, 그 집단 안의 누군가의 효용(만족)을 희생하지 않으면 다른 누군가의 효용을 높일 수 없는 상태 즉, 집단 내에서 자원의 전혀 낭비가 없는 이용 상태를 표현하는 것이다. 팔레트효율성이 문제로 하는 것은 자원의 유효활용이라는 의미의 효율성만으로 공정성을 고려되지 않는다.
- 12) 후생경제학의 제1정리 : 완전경쟁, 시장의 보편성(모든 재·서비스에 명확한 소유권과 거래시장이 있는)등의 토대로 ‘경쟁균형(=가격메커니즘에 의해 달성된 균형)이 존재하면 그 균형에의 배분은 반드시 팔레트 효율성이다’라는 것.
- 13) 후생경제학의 제2정리 : ‘임의의 팔레트효율성 배분은 일괄조정세·일괄보조금에 의해 경쟁균형배분으로써 실현 가능하다’고 하는 것. 팔레트효율성에서 경쟁균형배분이 어디로 결정될까?는 집단의 각 구성원의 초기보유에 크게 의존하기 때문에 초기보유에 격차가 있을 경우, 불공평한 배분이 실현될 공산이 크다. 제2정리에서는 정부의 관여에 의해 공정성의 관점에서도 시인 가능한 배분을 달성할 수 있는 것을 수리적으로 보였다.
- 14) 사와 타카미츠는 반시장주의의 입장에서 후생경제학의 정리를 비판하며 ‘이런 명제가 수학적으로 증명되었다고 해서 현실의 시장이 ‘만능’이라고 하는 것은 과언의 비난을 피할 수 없다. 왜냐하면, 기본정리를 증명할 때 소여의 수자모델에 관련된 다양한 가정이 편의적으로 들어오지만 그것들의 현실적 타당성에 대해서는 경험적으로 확인할 방법이 없다’고 말하고 있다. (‘시장주의의 종언’)
- 15) 완전경쟁 : 경제학에서의 이론상의 시장상황. 단독으로는 가격 등의 결정에 영향력을 가질 수 없을 정도로 시장참가자가 많고 시장에의 참가가 자유롭고 각 개인이 거래조건에 대해서 완전한 지식을 갖는다는 상태. 한 물건에 한 가격의 법칙이 성립하여 경제에 자유경쟁에 의해 바라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한다.

‘시장의 실패’의 메커니즘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힌트를 주는 것이 게임이론¹⁶⁾이다. 일반 시장이론에서는 완전한 합리성을 가진 주체가 독자적으로 자신의 이익을 최대화하는 위해 행동하는 것을 전제하지만, 게임이론에서는 시장에 참가한 주체의 관계성을 전제로 한다. 즉, 어떤 상황에서 행동의 주체는 이익을 얻기 위해 ‘전략’을 선택하지만, 그때 주체의 행동은 항상 다른 주체의 행동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행동의 귀결(이익을 얻은 상태)은 다른 주체의 행동에 의존한다고 가정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주체와 이해가 상반되는 경우 상대를 속이거나 앞지르는 행동(이것을 ‘기회주의적 행동’이라고 함)이 발생할 수 있다. 이 기회주의적 행동을 제외할 수 없는 것이 ‘시장의 실패’의 주요한 원인으로 보는 것이다.

기회주의적 행동을 낳게 하는 구조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죄인의 딜레마’라는 모델이 있다. ‘죄인의 딜레마’ 모델은 게임이론에 있어서 각각의 주체가 최대한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한 선택이더라도 사회전체에는 최적의 결과를 가져오지 않는다는 상황모델로써 이야기된다.

《죄인의 딜레마》

어떤 사건에서 공범혐의를 받는 두 명의 죄인(피의자)이 있다. 두 사람은 각각 독방에 가두어지고 다음과 같은 조건이 주어진다.

- ① 만약 당신은 상대가 했다고 진술하고 상대는 당신이 안했다고 진술하면 당신은 무죄로 석방된다.
- ② 만약 당신은 안했다고 진술하고 상대는 당신이 했다고 진술하면 당신은 더욱 무거운 형을 받게 될 것이다.
- ③ 만약 둘 다 상대가 안했다고 진술하다면 둘 다 가벼운 형을 받게 될 것이다.

물론 ③이 서로에게 최선(팔레트효율성)의 결과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미리 협력해서 이야기의 줄거리를 맞추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상대가 배신하든 하지 않던 자신은 상대를 배신하는 것이 합리적인(보다 이익을 얻게 되는) 전략이 된다. 따라서 양쪽 모두 ‘배신전략’을 선택한 결과 모두 ‘보통’형을 받게 된다. 즉, 이 모델은 상황에 따라서 개인의 합리적(최적)인 행동과 당사자 모두의 합리적인 결과가 양립하지 않는다는 딜레마를 보이고 있다.¹⁷⁾

16) 게임이론 : 20세기중반에 확립되었던 학문분야로 수리경제학과 밀접하게 관련된다. 일반적으로 1944년의 폰 노이먼과 모르겐슈테른에 의해 저서‘게임이론과 경제행동’이 판서되었다. 현실의 문제와 현황을 추상적인 모델로써 표현하고, 결과예측과 최적의 전략 분석·연구를 시행한다. 게임이론에서 모델은 ① 복수의 행위주체가 존재한다. ② 각 주체는 특정한 상황 하에서 각자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행동을 선택한다. ③ 행동이 상황과 상대에게 영향을 준다. ④ 각 주체의 목적, 행동의 종류, 상황 등은 수학적으로 기술되었다. 등의 특징을 가진다. ‘죄인의 딜레마’는 게임이론의 도입개념으로써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17) 죄인의 딜레마는 형량의 중량을 형기 등의 수치로 바꾸어 놀음에 의해 수학적인 기술이 가능하다. 죄인의 선택은 [협력·협력] [협력·배신] [배신·협력] [배신·배신]의 4가지의 조합으로 표현할 수 있고, 앞의 삼자가 팔레트효율성인 것에 대해 최후의 것은 낫수균형(참가자의 누구나가 자신으로부터 전략을 변경하는 동기가 없어지는 듯한 전략의 배합)이라는 것이 된다. 낫수균형에 도달하는 것이 게임의 ‘해결’이다. 반복되는 죄인의 딜레마게임에 대해서도 최종적으로는 전체가 하나의 전략에 귀착하는(낫수균형) 경우는 변하지 않는다.

사회적 선택이론에서는 앞서 말한 '시장의 실패'의 원인(공공재나 정보의 비대칭성 등)에 죄인의 딜레마의 구조가 공통으로 편입되어 있다고 판단한다 그 구조를 개선하여 팔레트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정부의 개입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죄인의 딜레마가 반복되는 게임을 하게 되면 조건에 따라서는 다른 전략단순한 배신이 아닌 상대의 선택에 따라 자신의 전략을 선택하는 처음에 잘 되면 다음에도 같은 전략을 취하게 된다는 등)을 선택하는 것이 알 수 있다. 이것은 행위의 반복으로 구축된 관계성에 의해 기회주의적 행동이 억제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즉, 제3자가 직접적으로 개입하지 않아도 거래시스템 안에서 관계성 구축을 촉진하는 조건을 찾게 된다면 시장의 실패를 피할 수 있음을 일러주는 것이다

3) 평등과 불평등의 균형

공정한 분배가 실현된 사회란 어떤 상태를 말하는 것일까 정부가 개입하여 시장에 의한 분배를 왜곡시켜야 한다고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일까 이와 같은 주제에 대해서 생각할 경우 존 롤스¹⁸⁾의 '정의론'은 피해갈 수 없다. 여기서 말하는 '정의'란 '권리와 이익에 따른 분배'와 거의 같은 의미이다. 앞서 나왔던 팔레트 효율성에서 보는 것처럼 사회적 선택이론에서는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을 추구하는 공리주의적인 경향이 있다. 롤스는 그 흐름을 따르면서도 중립성을 중시하는 리베라리즘을 배경으로 정의의 보편적 원리를 제시하고자 시도했다.

루소의 사회계약설에서 힌트를 얻은 롤스는 각 개인이 '원초적 입장'에 처해 있다고 가정한다. 원초적 입장이란 ①자신의 이익에 관심이 있다 ②자신의 이익이 증가하도록 합리적(이성적)으로 판단한다 ③인간성, 사회, 정치, 경제 등에 관련된 일반적 사실을 잘 알고 있다 ④자신이 처해있는 상황에 대해서 '무지의 베일'에 가려져 있다. 즉, 사회에서 자신의 지위, 신분뿐만 아니라 자신이 혜택 받은 자원과 능력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상태이다. 그것을 전제로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계약을 체결한다면 누구라도 합의할 것이라는 '정의의 제2원리'를 제시했다.

제1원리는 '각 개인은 기본적인 자유에 대한 평등의 권리를 가져야 한다 그것은 다른 사람들의 자유와 양립할 수 있는 한 최대한 광범위하게 자유로워야 된다'고 표현하였다. 즉, 인간에게 가장 기본적인 자원인 정치적 자유, 언론·집회의 자유, 사상·양심의 자유는 평등하게 분배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제2원리는 '사회적·경제적 불평등은 다음의 두 조건을 만족해야 된다. ① 기본적 자유를 평등하게 나누어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② 사회의 직위·직책은 모든 사람에게 개방되고 사회경제적 불평등은 최소 수혜자의 입장을 개선시키는 한도 내에서 정당화될 수 있다는 차등 원칙(the difference principle)이 그것이다.

'평등과 불평등을 배합하여 정의의 기본원리를 표현하는 동시에 불평등의 한계를 정의했다'고 할 수 있다. 시장의 실패를 바로잡는 사고방식을 치밀하게 증명하려는 시도였지만 많은 반론이 쏟아져 결국 성공하지 못했다. 그러나 자유와 평등의 균형과 사회에서 공정한 분배의 존재에 대해서 사고방식의 모형을 제시하고 다양한 논의를 불러 일으켰다는 점에

18) 존 롤스(John Rawls 1921~2002) : 미국의 정치철학자.

서 중요하다.

4) 시장의 실패를 극복할 수 있는 이타행동

아마르티아 센¹⁹⁾은 독자개발로 사회적 선택이론을 발전시켰다. 종래의 경제학이 전제로 하는 ‘자기이익의 최대화를 목표로 하는 것을 동기로 하는 인간상을 ‘합리적인 어리석은’라고 부르며 비판하며 ‘타인의 존재에 도덕적인 관심을 갖고 타인과 상호관계를 자기의 가치관에 반영시켜 행동한다 = 사회적 커밋먼트²⁰⁾가 가능한 인간상을 설정²¹⁾했다.

센은 ‘자유주의 패러독스’²²⁾을 제시하며 개인의 경제활동이 사회후생의 최대화를 목적으로 한 후생경제학이 의존하던 자유주의의 가치관에 대해 만장일치원리(팔레트원리=아무도 싫다고 하지 않게 결정해야한다)와 개인의 자유에 대한 승인이라는 전혀 양립하지 않는 두개의 원리가 있다는 것을 제시했다. 이것은 롤스의 ‘정의의 제1원리’와 같이 개인의 자유의사를 중시하는 사회적 결정 규칙이 존재할 수 없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그리고 자유주의 패러독스의 해결책으로 ‘타인의 권리를 고려하여 타인을 위해 행동한다는 것을 제안한다.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기 전에 타인에게 어떠한 권리가 있는지를 생각해야 한다

또한 롤스의 평등론이 재화의 분배를 중심으로 재화가 그 사람을 위해서 무엇을 해 줄까, 즉 인간이나 수요의 다양성이라는 관점이 없다고 지적하고 그 수요 가운데 가장 기본적인 것으로 ‘기본적 잠재능력’인 평등을 제안했다. 잠재능력이란 ‘사람이 좋은 생활과 좋은 인생을 살기 위해 어떠한 상태에 있길 원하는가, 그리고 어떤 행동을 하고 싶은 것일까를 결합하는 일에서 생기는 기능의 집합’이라는 것이다.

센은 생활의 질을 공리주의의 가치개념인 소득과 효용이 아닌 인간존재에 속한 잠재 능력과 기능이라는 가치에 따라 평가하는 관점을 제시했다 ‘행복의 척도’를 바꾼 것이다.

물론 센은 시장시스템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시장메커니즘을 통해 사람들이 서로 교류하며 상호이익에 연결되는 활동의 기초가 되는 제도이며, 그 폭넓은 효용을 합리적으로 비판하는 것은 쉽지 않다. ‘문제가 일어나게 되면 대개의 경우는 시장의 외부에서 원인이 발견된다’ 단, ‘시장메커니즘이 큰 성공을 거둘 수 있는 것은 시장에 따라 제공된 기회를 모든 사람이 합리적으로 서로 나누는 조건이 정비되어 있는 경우에만’이다. 그렇기 때문에

19) 아마르티아 센(Amartya Sen 1933~) : 인도의 경제학자. 1998년 노벨경제학상수상

20) 센은 커밋먼트를 ‘현실참가를 시행한다, 약속, 의무, 책임을 다한다’ 등의 의미로 사용하여, 자신의 이익을 도외시키고 타인의 권리의 침해를 중지시키기 위하여 무언가의 행동으로 나오는 결심을 하는 것을 커밋먼트라고 부르고 있다.

21) 아마르티아 센 ‘빈곤의 극복’ 역자의 의한 설명으로 인용. 이하, 센의 이론에 관한 기술은 이 해설에 근거하고 있다. 또한 센의 인용은 모두 본서에 의한다.

22) 자유주의 패러독스 : 센은 다음과 같은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다. ‘문학’인지 ‘외설’인지로 논쟁인 책이 한권, 근엄하고 성실한 인물 A, 호기심 왕성한 인물 B가 있어, 책을 x=A가 읽고, y=B가 읽는다. z=두 사람 모두 읽지 않는다. 라는 세 선택지가 있다. 여기서 A, B 각각 선호하는 순서를 보면, A는 z>x>y(아무도 그 책을 읽지 않는 것이 가장 좋지만, B가 그것을 읽어 추락하는 것보다는 내가 읽어서 상처받으면 좋다)이며, B는 x>y>z(고지식한 A에게 있어 이 책은 좋은 책이 될 것이다. 자신이 읽어도 즐길 수 있겠지만, 아무도 읽지 않는 것은 아깝다)이다. 따라서 팔레트원리에서는 x가 선택되었다. 그러나 개인의 자유의 존중이라는 근거에 기초하면 y>z>x(읽고 싶은 B는 읽고, 읽고 싶지 않은 A는 읽지 않는다)가 되어 팔레트원리와 양립하지 않는다. 자세한 내용은 아마르티아 센 ‘합리적인 어리석은 자’참조.

사회적 기회를 만드는 공공정책을 추진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사회적 기회를 균등하게 서로 나누는 것이 가능하다면 많은 사람들이 경제를 확대하는 과정에 직접 참가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공공정책의 궁극적인 목적은 풍요로운 인생과 자유의 확대’이며, 그렇기 위해서는 인간의 기본적인 잠재능력을 확대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해야만 한다.

기회균등에 의한 시장메커니즘은 성공한다. 그리고 인간이 사회와 경제에 참가하는 기본적인 능력은 기회균등에서 매우 중요한 것이다.

센의 이론은 종래 시장시스템을 지배하고 있던 공리주의적인 가치관을 전환시켜 인간성에 기초한 경제의 존재를 제시했다는 점에 큰 의미가 있다. 첫째는 ‘기회’를 표준화된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를 구성하는 개개인에게 생활의 필요성이나 좋은 생활의 이미지에 다가서서 원하는 인생을 스스로 실현해 갈 수 있는 능력을 획득하는 것을 ‘기회’라고 판단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고방식은 사회시장에 깔려 있다고 볼 수 있다. 센은 주로 개발도상국에서 ‘인간개발’을 상정하여 ‘잠재능력’의 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분배의 수단으로서 공공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지역사회에 뿌리를 둔 경제활동의 재생과 활성화는 사회를 구성하는 개개인의 가치를 창출하는 힘을 증진하는데 달려 있다는 점에서 개발도상국과 선진국은 어떤 차이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리고 사회 구성원이 일정 정도의 시장감가능력을 획득하고 있는 듯한 사회에서는 재자(정부 등 공권력)의 개입에 의존하지 않더라도 상호협력관계와 시장적 수단에 의해 ‘잠재능력’의 평등이 어느 정도 실현될 수 있는 것은 아닐까.

또 하나 주목해야 할 점은 ‘커밋먼트’라는 사회적 과제해결을 위한 주체적인 행동을 경제활동의 중요한 요소로써 취한 점이다. ‘커밋먼트’는 바로 사회시장에서 활동을 동기부여한다. 이윤추구가 주요동기가 되는 시장경제에서 ‘커밋먼트’를 발휘하는 것은 실제로는 어렵게 생각되지만 사회시장적인 구조가 관여된 상태에서 ‘커밋먼트’가 유효하게 발휘될 가능성은 충분하다. ‘타인의 권리를 고려하여 타인을 위해 행동한다는 것을 시장 구조 안에서 얼마나 이뤄질까가 숙제가 되는 것이다.

3. 사회자본 발현의 장으로써 사회시장

시장의 공공성을 확보하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공공성을 만드는 것, 즉, 사회에서 인간관계성(서로 상호작용하고 관련되어 있는 상태²³⁾)에 지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시장에서 교환가치(상품)를 생산하는 3요소는 노동, 토지, 자본(자금이거나 생산수단의 재고)이다. 자본주의 경제사회에서 생산요소인 노동과 토지를 돈으로 환원할 수 있는 상품으로 취급함으로써 거대한 자본을 축적해온 측면이 있다. 그리고 자본을 지배하

23) 여기서 말하는 ‘관계성’이란 행위주체를 연결함에 따라 상호작용하게 되어 서로의 활동을 연대시켜 서로가 가진 자원을 쌍방을 위해 활용시키는 활동이다. 간단한 거래 등의 관계와는 다르다.

는 것은 국가나 대기업이라는 거대기구였다. 그 결과 사회에서 가치를 갖는 것은 상품뿐이며 그 가치는 모두 가격이라는 표준화된 척도로 결정되는 상황이 벌어져 가치를 창출하는 근본적인 요소가 상실되었다.

근본적인 요소란 서로의 수요에 맞추기 위해 재화를 협력하여 창출하는 사람들의 관계성이다. 노동이나 토지의 상품화에 맞춰 본래 지역사회와 공동체가 가지고 있던 이러한 관계성을 잃게 되어 거대기구의 일부로 편입되어 갔다. 이때 가치를 창출하는 요소로써 관계성은 거대기구의 논리에 따른 상품을 개발·공급하는 기능이 되고 ‘고객’ 또는 ‘수익자’는 관계성 밖에 놓이게 된다. 그리고 수평적 협력관계는 상하 공급·수급관계로 변화된 것이다.

그러나 IT를 기반으로 한 글로벌 경제사회의 출현으로 돈 자체가 최대의 상품이 되고 통제의 이익이 없는 카지노적인 돈거래로 인해 국가나 대기업조차 위협받는 상황이 발생되고, 거대자본=거대기구의 위험이 드러나게 되었다. 앞에서 말한 시장의 실패나 정부의 실패의 측면에서도 거대시스템에 의존하는 것에 대한 다양한 의문이 제시되고 드디어 지역사회와 공동체가 갖는 근원적인 요소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높아졌다

여기서 가치를 창출하는 근원적 요소인 관계성을 ‘사회자본’²⁴⁾이라 하며 관계성의 회복·구축할 수 있는 시장의 조건을 검토하고 정리해 보고자 한다

(1) 재화의 분배방법과 사회구조

1) 재화와 사람의 이동형태와 사회구조

지역에서 가치를 창출하는 관계성의 존재를 가지고 재화의 분배방법을 생각해 볼 때 칼 폴라니²⁵⁾의 경제관은 많은 시사점을 준다. 폴라니는 시장경제를 특징짓는 합리적인 경제활동을 ‘형식적’인 것으로 판단하여 인간은 욕구를 채우기 위해 자신의 노동을 통해 자연과 다른 사람에게 압력을 가한다. 인간과 자연, 자연과 인간 사이에 교환과정이야말로 ‘실제적’인 경제활동이라고 생각했다.

폴라니는 사회와 경제활동의 과정이 서로 관계됨을 보여주기 위해 경제에서 재화나 사람이 이동할 경우 서로 의존하도록 제도화된 것에 주목하였다. 그 이동형태로 답례, 재분배, 교환의 세 패턴을 제시하였다. ‘답례란 대칭축 양측에 배치된 모든 점 사이에서 대칭축을 타 넘는 재화서비스의 이동’, ‘재분배란 중심점 주위에 배치된 모든 점에서 중심으로 향하고 중심점에서 다시 모든 점으로 돌아가는 재화서비스의 이동’, ‘교환이란 임의로 배치된 다수의 점 사이에서 재화서비스의 자유로운 이동’이다.

이런 이동형태는 ‘사회 안에 명확한 구조를 필요’로 하여 답례는 복수이며 대칭적으로

24) 사회자본(social capital) : 사회학자 제무즈 콜만 등이 1980년대의 말경부터 사용하기 시작한 개념용어. 자본이란 가치를 창출하는 힘의 근원, 주력요소이며, 통상, 행동력의 근원으로써 건강체나 경제활동의 근원이 되는 금전·물품 등을 말하지만, 사회자본은 사회에서의 관계성을 자본으로 판단한 개념이다. 일본어로는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사회자본’은 ‘social infrastructure’의 번역한 말로, 도로·상하수도·공원·병원·학교 등 산업과 생활의 기반이 되는 공공시설(사회적 간접자본, 사회공공자본)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고, 이것과 구별하기 위해 ‘social capital’이라고 하는 경우도 있다.

25) 칼 폴라니(Karl Polanyi 1886 ~ 1964) : 헝가리 출생의 경제인류학자·역사학자

배치된 집단 구조 재분배는 견고한 중앙 집권적인 구조 교환은 제도화된 시장구조가 각각 대응한다. 플라니는 이동형태를 유지하는 사회적 구조가 없으면 답례, 재분배, 교환 등의 형태는 존재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완만한 상호의존이나 교환무역을 위한 개개인의 행위는 유효성과 접속이 부족하다. 교환무역이라는 구조 없이는 답례도 교환도 가능한 것은 없다.’ 즉, 경제시스템은 개인적인 활동의 결과 스스로 생기는 것이 아니고 ‘사회적 영역에서’ 창출되는 것이라고 한다.

2) 복합적인 이동형태를 가능하게 하는 사회

플라니가 제시한 재화의 이동형태에 따른 분류와 사회구조와 관계에 대한 판단은 사회 시장을 형성하기 위한 생각으로는 매우 시사적이다 특히 답례라는 형태에 주목하고 싶다. 답례에 대해서 플라니의 경우, 대칭축은 개인 사이에 끌리는 것이 아니라 집단의 사이에 끌려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공동체 사회의 내부에서 재화의 이동이나 자발적인 증여와 상호부조라는 관성으로 연결된 사회구조를 생각할 경우, 대칭축이 개인 간에 끌리는 새로운 답례패턴을 상정해야 한다. 또한 증여나 상호부조가 공동체 구성원 간에 임의로 실시되는 경우, 재화와 서비스의 이동형태는 교환에 가깝다 (이렇게 상품이 판매가 아닌 상호부조를 동기로 이루어지는 교환을 ‘답례적 교환’이라고 한다.) 일본의 공동체에서 시행되어 온 강(講)과 결(結)²⁶⁾같은 제도가 재분배의 패턴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자발적인 증여나 상호부조라는 관계성이 구조화된 사회는 재화와 서비스의 이동형태가 다양하고 복잡적으로 되어가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위와 같이 생각하면 현대사회의 지역공공경영에서 경제시스템도 ‘정부’, ‘시장’이라는 트레이드오프의 도식이 아닌 답례의 재화서비스의 이동형태가 재분배나 교환과 유기적인 관계성을 갖는 다양성, 유연성을 갖는 시스템을 전망할 수 있다

또한, 플라니의 생각에 덧붙여 설명하면, 재화·서비스의 새로운 이동형태를 지원하는 구조를 이미 그 사회가 간직하고 있다면 ‘완만한 상호의존이나 교환무역의 개별적인 행위에서는 유효성과 지속성이 모자라기 때문에 사회구성원이 협동하여 주체적으로 자신들에게 적합한 경제시스템을 창출해나가야 한다

또 시스템을 유지하는 구조를 창출하는 것도 사회 그 자체이다 ‘지자체는 주민참여를 전제하여 지역사회가 어떻게 스스로 존재할지를 적극적으로 그려낼 필요가 있다 이 경우에 지역내부의 자원, 자금, 인재의 순환구조를 어떻게 창조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전개되어야만 한다’는 마루야마 마키코의 지적은 중요하다

(2) 사회자본과 시장

1) 사회자본이란 무엇인가

26) 강(講)이란 저축이나 돈의 유통을 위해 조직한 상호부조단체. ‘회전신용조합’에 해당한다. 결(結)이란 모심기나 지붕교체 등 일시적으로 많은 노동력을 요구하는 일을 할 때 서로 수고를 빌려주는 노동관행.

시장의 실패를 낳는 기회주의적 행동을 제외하고 자기의 이익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이익을 동기로 시장의 활동이 이루어지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이미 말한 것처럼 그것은 사회의 인간관계성이라고 생각한다

로버트 퍼트넘²⁷⁾은 이탈리아의 주정부가 시행하는 정책실효효과가 지역에 따라 분명한 격차가 발생한다는 것에 발견하고 상세히 조사한 결과 ‘사회자본’의 성숙이 공공정책의 성패에 결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을 밝혔다²⁸⁾ 퍼트넘이 말하길 사회자본이란 ‘정리된 모든 활동을 활발하게 하는 것에 의해 사회의 효율성을 개선할 수 있는 신뢰 규범, 네트워크라는 사회조직의 특징’인 것이다.

퍼트넘은 ‘죄인의 딜레마’와 ‘공유지의 비극’²⁹⁾ 등 기회주의에 의해 생기는 사회상황을 ‘집단행위의 딜레마’라고 총칭한다. 그리고 이것을 극복하는 것은 사회자본을 축적한 공동체의 ‘자발적인 협력’이다. 사회자본의 본질은 개인적인 신뢰를 넘은 ‘사회적인 신뢰’이며, 그것은 ‘답례의 규범’과 ‘시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네트워크’라는 서로 관련있는 두 가지의 원천에서부터 나타난다고 한다.

‘답례의 규범’이란 서로 교환약속을 지키는 것으로 특히 ‘지금 부여된 편의는 장래에 되돌려 받을 수 있다는 서로의 기대를 동반하는 교환의 지속적인 관계(일반화된 답례의 규범)가 중요하다. 예를 들면 친구관계와 같다. 그리고 ‘신뢰하면 되돌려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이 많은 공동체에서 신뢰의 교환이 발생하기 쉽다. 다르게 말하면 장기간에 걸쳐 교환을 반복하면 일반화된 답례의 규범은 강하게 형성되는 경향이 있다’

‘시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네트워크’란 상호성이란 특징을 가지고 수평적인 활발한 교류를 나타내는 사회자본의 본질적인 형태이다. 이런 형태의 네트워크가 밀접해질수록 다음과 같은 유익한 결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시민은 서로간의 이익을 위해 더욱 협력할 수 있게 된다.

- ① 커뮤니케이션을 촉진하여 모든 개인의 신뢰성에 관한 정보가 잘 전달이 되면 잠재적인 파트너(거래 상대)에 관한 확실한 정보가 전해져 평판에 의한 신뢰와 협력이 늘어난다.
- ② 평판이 확립된 모든 관계의 네트워크로 인해 답례의 규범이 강화된다
- ③ 발견된 ‘썩은 사과’가 간단히 처리되는 상황에서는 배신이 일어나기 어렵고 기회주의의 리스크에 대응하는 비용이 감소된다.
- ④ 시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네트워크가 있다는 것 자체가 협력이 잘 진행된다는 증

27) 로버트 퍼트넘 (Robert. D. Putnam 1941 ~) : 미국의 정치학자. 정치문화론, 민주주의론, 비교정치학 등의 분야에서 활약

28) 이탈리아에서는 1970년대 초기에 시행되었던 지방분권개혁에 의한 지역행정주체가 새로운 주정부로 전환하였다. 퍼트넘은 주제도의 시작이 같지만 주정부의 제도퍼포먼스(실효율)에 왜 큰 격차가 생길까, 성공한 주와 실패한 주에 대해서 지표를 세워 상세하게 비교 연구하였다. 그 결과 퍼포먼스의 차이를 시민도의 차이로 구하여, 차이를 일으키는 배경으로써 시민공동체의 성격과 전통을 조사하여 퍼포먼스의 차이를 낳는 메커니즘을 규명했다.

29) 공유지의 비극 : 공유지(마을에서 공유하는 목초지 등)에 대한 각 경제주체가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을 경우, 모두가 ‘자기 한 명 정도는’이라고 공유지의 자원을 과잉으로 소비할 경우, 모두의 재산인 그 공유지의 자원은 고갈되어 버린다.

거이며, 미래의 협력을 위한 문화적인 토대가 된다

이와 같은 수평적 네트워크의 조직적인 존재에 대하여 퍼트남은 다음과 같은 지적을 하고 있다. ‘특정 집단내부에 고정 돼 버리는 경향이 강한 결합보다 결합이 약한 쪽이 다양한 소그룹의 멤버를 결합시키는 경향이 있다’ ‘인간관계는 농밀하지만 대피호화된 수평적 네트워크는 각 그룹 내에서의 협력은 지속시키지만 사회적 파열을 횡단하는 시민의 적극 참가 네트워크는 보다 더 폭넓은 공동체에서 제도의 성공을 확실히 촉진시킬 것이다.’

각각의 회원의 자유도가 높은 유연한 결합 지역이나 문제를 횡단한 협력의 관계형성 소그룹이 클러스터(군집)를 구성하면서 확대되는 네트워크, 이런 구조와 성격을 갖는 ‘시민의 적극적인 네트워크’가 사회자본 축적의 핵심인 것이다.

더욱이 이것과 정반대인 것이 ‘종속성을 특징으로 하는 비호주의적인 관계에 의한 수직적 네트워크이다’라고 퍼트남은 말한다. 거기서 교환은 세로형으로 의무도 비대칭적이다. 상호협력에 의해 ‘일반화된 답례제의 규범’을 발달시키는 기회와 근거가 된 역사도 갖지 않는다. 기회주의는 비호자(착취)와 고객(태업)의 쌍방에게 존재하고 죄인의 딜레마에 의한 ‘배신’전략으로 안정적 균형을 이룬다.(‘큰 정부’와 시민과의 관계도 최악의 경우 이러한 형태가 될 것이다.)

그런 사회에서는 기회주의적인 행동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여 집합행위에 대한 딜레마를 해소하기 위해 제3자(공권력 등)에게 집행을 위임하며 그로인해 신뢰에 의해 지속된 사회보다 비효율, 고비용, 불쾌감을 갖게 된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같은 딜레마구조를 안고 있는 공평한 집행 그 자체가 ‘공공재’이며, 제3자의 집행이 신뢰할 수 있다고 누가 보증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를 내포하게 된다.

그리고 ‘사회가 어느 한쪽을 환경으로 하여 일단 움직이기 시작하면 합리적인 모든 사람은 자신들이 속한 사회의 법칙에 맞추어 행동하려는 동기를 갖게 되기 때문에 지역에 의한 사회자본의 축적에 큰 교차가 생겨나는 것이다.

2) 사회자본을 유지하는 시장의 존재

퍼트남의 분석은 신뢰에 기초한 사람들의 네트워크를 통해 재화가 활발히 교환거래되는 강력한 공동체사회의 시장이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앞에서 논한 답례의 교환과 같은 거래 방식은 이와 같은 시장에서 효과를 발휘하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여기서는 하이에크가 말한 분석된 ‘현장지식’의 유효활용을 가격정보보다도 평판정보에 의해 이루었다. 또한 상호성에 의해 성립된 시장은 깰브레이스가 말하는 ‘광고 등에 영향을 받는 의존효과에 의한 욕망’에 영향을 받는 요인도 적을 것이다 이보다 서로의 필요성을 채우는 것이 동기가 되기 쉽고, 셴이 말하는 사람들의 ‘잠재능력의 확대’에 기여하는 거래가 많아질 것이 틀림없다. 사회자본을 경제적 측면에서 살펴보면 ‘사회시장’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한다.

‘돈’이라는 자본만이 아닌 ‘신뢰’나 ‘규범’ 그리고 ‘네트워크’라는 자본에 의해서도 경제는 활력을 얻어 돌아가는 것이다. 퍼트남은 사회자본의 성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일반적인 자본의 경우와 같이 사회자본에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보다 많은 사회자본을 축적할 경향이 있다.’ ‘신뢰라는 사회자본의 대부분의 형태는 자본이 공급되어 사용된

만큼 확대되고, 만약 사용되지 않으면 고갈되는 자원이다. ‘사회규범이나 네트워크라는 다른 형태의 사회자본도 사용하면 늘고 사용하지 않으면 줄어든다 아무튼 사회자본의 창조와 소멸은 선순환과 악순환에 의해 특징되는 것이다.’

사용을 계속하는 만큼 늘어나는 자본에는 저축한다는 동기가 없다. 저축하지 않고 사용하기 때문에 축적되는 것이다. 끊임없이 시장에 가치를 제공하여 담보를 거둬가는 ‘불순한’ 요소가 없다. 이와 같은 시장에서는 ‘돈’이 주인이 되는 것은 아니고 항상 ‘신뢰’의 추종자에 머무는 것이다.

그런데 퍼트넘은 다음과 같은 중요한 점을 지적하고 있다 즉 보통자본에는 사적재인 경우가 많지만 사회자본의 특징은 사회구조에 매장된 속성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이익을 얻는 누구의 사적재도 아닌 ‘공공재’이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공공재와 같이 사적행위주체로부터 경시되거나 충분히 공급되지 않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사회자본은 자주 다른 사회적 모든 활동의 부산물로서 창출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한다.

사회자본을 창출하는 것 그 자체가 목적이 되기는 좀처럼 어렵다. 네트워크나 신뢰 또는 자발성에 근거하여 공유된 법칙은 무언가 공통의 목적과 활동에 의해 동기가 부여되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자본의 축적은 공동체나 사회의 수요에 응하기 위한 공동사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지역과 공동체가 사회적 수요나 과제를 공유하고 협력하여 문제를 해결해 가기 위한 사업을 스스로 활발하게 일으켜 실천해 갈 수 있는 것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경제적인 관점에서 말하자면 이러한 사업이 재화서비스의 교환이나 자원순환을 활성화시켜 사회시장이 형성되는 것을 촉진시킨다

3) 공동체에 의한 과제해결활동의 실천

사회자본의 구축과 연결되는 공통적인 사회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활동을 어떻게 일으키면 좋을까. 카네코 이쿠요우는 실천이론으로 자유코몬즈³⁰⁾에 의한 커뮤니티 솔루션을 제창한다. 커뮤니티 솔루션이란 코몬즈가 ‘기존의 조직이나 기구가 대응할 수 없는 다양한 문제를 정보의 공유와 공동자원화라는 혁신적인 방법으로 해결해 가는 것이다.

카네코에 의하면 코몬즈란 ‘문제해결에 기초가 되는 당사자들의 커뮤니티와 같은 정보와 관계를 공유하는 장’이며, 그 기본은 ‘자발성, 상호성, 관계성 그리고 상호편집성이다.’ 코몬즈에서는 다음의 일들이 연속적으로 일어나고 사이클이 되어 회전하고 있다.

- ①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정보, 기술, 문제 등을 가지고 온다
- ② 공유된 정보를 편집하여 얻은 변화를 통해 커뮤니티는 새로운 관계와 의미를 발생한다
- ③ 정보와 변화의 경험이 축적되고 공유자원이 된다
- ④ 구체적인 성과가 오르고 각자가 과실을 가지고 돌아간다(이것으로 유인되어 ①로)

계층조직이 지위, 책임, 권한, 명령계통 등에 따라 운영되고 기능하는 것에 반해 코몬즈는 ①법칙(자생한 규칙성) ②규칙(자발적으로 배분된 역할성) ③도구(의사소통을 위한 도구성) ④약점의 강점 ⑤상호편집 과정과 편집자 등 5가지의 핵심요소로 형성되고 운영

30) 코몬즈 : 카네코씨는 ‘어떤 일정 성질을 가진 여러 분야에서 존재하는 커뮤니티를 하나로 합쳐서 코몬즈라고 부르는 경우가 많다’고 말하고 있다.

된다.

코몬즈의 큰 특징은 ‘약점의 강점’이라고 한다. 강력한 조직을 배경으로 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행동할 때 상처받고 허점을 이용당하기 쉬운 사람이 다른 사람과 ‘연계’를 만드는 기회를 낳는다. 코몬즈는 ‘힘과 새로운 가치는 그 약점을 상호 가공하는 곳에서 나온다. 즉, 권력이나 강제력에 기초하지 않는 유연한 힘이 생긴다는 것이다.

카네코는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치(공권력)는 상층부에 권한을 위양하고, 시장은 수요를 절대시하고, 개인은 문제와 관계를 끊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유효한 해결에 이르지 않는 상황을 지적한다. 이것에 대해 커뮤니티 솔루션은 ‘적극적으로 관계를 맺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관계성의 성공패턴에 대한 공동체험을 커뮤니티의 윤택한 관계(사회자본)이며 공동자산’으로 인식하는 것이다.

4) 시장에서의 편집기능

이러한 문제해결활동을 시장에서 전개할 때 중요한 것은 ‘상호편집’이라는 개념이다. 편집이란 흩어져있는 재료나 정보에 질서와 관계성을 부여하여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조해가는 행위라고 생각된다. 지역사회나 공동체는 생활에 기초한 다양한 수요가 존재하며 또한 많은 수의 인재(지식, 기술, 경험)나 자연, 문화의 자원이 있다. 이것은 모두 ‘현장의 지식’으로서 흩어져 있다. 수요가 채워지지 않는 상태를 ‘문제’라고 하면 흩어져 있는 사회의 모든 정보 가운데 문제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고, 해결을 위한 당사자들의 상호협력과 관계성을 창출하기 위한 네트워크구축을 구축하는 것이 편집의 역할이다.

카네코에 의하면 자유경제는 ‘상호편집시장’이라고 한다. 거기에는 ‘코몬즈의 시(市)’가 다수 성립해 두어, 각 코몬즈가 그 자체 자발적·상호적인 존재로 있으면서 상호 코몬즈간의 관계를 저장하여 편집한다. 이것에 의해 가치를 창조개발촉적하여, ‘공동지’로서 이용 가능해져 간다. 보통 경제학에서 상정되는 ‘하나의 통일적인 시장에서는 표준화된 하나의 논리로 ‘편집’이 이루어지는데 상호편집시장에서는 다양한 편집자가 다양한 논리로 상호간에 편집이 이루어진다. 즉, 참가자는 시장의 상황에 따라 편집되거나 스스로 편집자가 되거나 하기 때문이다.

평등실현을 목적으로 공권력에 근거한 행정조직에서는 사회적 문제해결을 위해 상세한 기준과 통제적인 규칙이 지배하기 때문에 유연한 편집을 할 수가 없다. 사회가 다양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커뮤니티가 참여하여 ‘상호편집’이 가능한 시장이 어떻게든 필요하게 된다.

이와 같은 시장을 형성하기 위한 불가결한 기능으로 ①시장의 네트워크로서의 편집자, ② 네트워크를 만들기 위한 교환매체(돈) ③편집이 이루어지는 공유의 장으로써의 플랫폼 등 3가지를 생각할 수 있다(②에 대해서는 제2장, ③에 대해서는 제4장에서 서술한다). 이 가운데 ①의 편집자로서 ‘사회기업가(Social Entrepreneurs)나 ‘시장기업가(Civic Entrepreneurs)’라는 존재에 주목하고 싶다.

사이토우 마키에 의하면 사회기업가라는 개념은 1980년대 초두에 이탈리아에서 태어나서 복지국가를 대신하여 자립형 복지시스템을 구축하여사회서비스사업을 통해 정체인

사회를 활성화할 존재로서 주목되고 넓혀가고 있다.³¹⁾ 시대의 변천에 따라 다양한 사회기업가가 태어나 의미개념이 확대되었지만 ‘인생의 의미를 발견한다’는 것과 ‘사회를 좋게 한다’는 것을 병행하려고 하는 점이 공통적이다. 사회기업가는 시민의 입장에서 사업에 거두어들이면서 시민사회의 모습을 제시하고 있는 사람이다. 정부와 기업과 NPO의 울타리를 제거하여 관계있는 조직을 협력자로 만들고, 협동사업을 장려하여 상승효과를 높이고, 효율적으로 목표를 달성해 간다. 조직에 대한 충성심보다도 목적달성에 대한 충성심을 중심으로 행동한다. 또한, 새로운 라이프스타일의 제창이며, 사업을 통해 자기 자신을 숨김없이 드러내어 그 가치관을 세상에 주입하려는 사람이기도 하다. 사회기업가는 반드시 독립하여 사회를 일으키는 사람뿐만 아니라 그 정신을 갖고 조직 안에서 새로운 일에 도전하는 사람도 포함한다.

한편, 시민기업가는 1980년대 후반부터 활약하여 지역수준의 시장 정부, 비영리의 3개 섹터의 코디네이터로서 역할을 다하며, 미국의 경제재생을 유지한 경제커뮤니티의 그들의 주인공이 된 사람들이다. 시민기업가는 기업, 정부, 교육 외에도 지역의 어떤 섹터에서도 출현하여 세대도 제각기 모두 다르다. 다음의 5가지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면 누구나 시민기업가이다.

- ① 지역에서 기회와 수요를 출발점으로 성공을 향한 관계와 자원의 구축을 시행한다
- ② 가능성을 현실의 기초로 하기위해 창조적이고 끈기 있게 활동한다
- ③ 경제와 커뮤니티를 결합한 협업작업을 추진하기 위해 리더십을 발휘한다
- ④ 경제와 커뮤니티의 건전성을 연결한 장기적인 이익을 위해 동기를 부여시킨다
- ⑤ 팀에 의해 행동하여 각각 다른 역할을 부여하면서 보완해 간다

이와 같은 ‘시장 편집자’를 발견하여 육성해 가는 것이 시장형성에서 극히 중요한 것이다.

(3) 사회시장의 전망

1) 사회시장이란 어떤 시장일까

이상의 고찰을 근거로 하여 사회자본과 관련지어 사회시장을 분석해보면 ‘사회자본을 기본으로 사회자본을 더욱 축적하기 위한 경제활동이 전개하는 시장이라고 할 수 있다. 사회자본 그 자체는 눈으로 보기 어렵지만 사회자본에 기초한 경제활동은 사회시장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사회시장은 사회자본의 발전의 장이라고도 할 수 있다

이번 장에서는 몇 가지 지식에 통해 사회시장의 개념과 모습을 추적해보았고 사회시장

31) 사회기업가에 대해서 사이토우 마키의 ‘사회기업가’(2004년)에 근거하여 기술하였다. 사이토우는 사회기업가의 특징으로 다음을 들고 있다. ① 지역커뮤니티나 세계의 다양한 수요에 응하는 사회적인 사명감을 바탕으로 가지고 사업을 실천하는 과정에서는 적절하게 비즈니스-테크닉을 응용하여 간다. ② 자본력은 약하면서도 시대를 날카롭게 판단한 아이디어와 창조성에 넘친 조직을 만든다. ③ 파트너십을 중시한다. 같은 가치관을 공유하는 조직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상승효과를 생각하면서 목적을 달성하기위한 네트워크를 실현해 간다. ④ 노동을 수입의 수단으로만이 아닌 자기실현의 수단으로도 사용한다고 생각한다. ⑤ (주주가 아닌) 지역주민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개발도상국의 국민까지를 이해관계자로 간주하여 그들의 가치관에 뿌리를 둔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한다. ⑥ 장기적인 효과를 중요시한다. 예를 들어 단기적인 이익의 희생이 있다고 하더라도, 장기적인 은혜를 선택하는 것으로 최종적으로는 이해관계자의 만족을 얻을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다.

이란 어떤 시장인지 꽤 명확하게 보여주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지금까지 확인해 본 것을 정리하면서 사회시장의 모습을 그려보도록 하자.

① 사회시장에서 경제활동은 여러 가지 경제영역을 결합시켜 유연하게 전개된다.

사회시장에서 경제활동은 - 와그너에 의한 경제구분에 따르면 - 사업형의 NPO가 중심이 된 자유공동경제의 영역을 흠포지선으로써 행정조직이 중심인 강제공동경제의 영역 가족이나 자원봉사활동이 중심인 자선적 경제영역 기업이 중심인 개인주의적(시장)경제의 영역으로 전개된다. 자유공동경제영역이 결론이 되어 다른 3개의 경제영역을 지역거버넌스의 논리로 연계해 간다. 사회시장에서 자유공동경제는 단지 행정서비스(강제공동경제)를 외부화(위탁 등)하기 위한 보증자가 될 뿐만 아니라 기업(시장경제)과 자원봉사자(자선적 경제)등 지역자원을 효과적으로 연결시켜 지역의 수요에 따른 부가가치를 형성해 간다. 또한, 사회시장의 주요 선수들은 자유공동경제를 핵으로 다른 3개의 경제영역을 융합한 협동에 의한 사업을 제안실시하고 있다.

② 사회시장에서는 의사소통에 의해 신뢰·신용이 형성된다.

사회시장은 활발한 의사소통으로 연결되는 시장이다 의사소통이 촉진되어 지역사회에 분산된 수요나 자원 등에 대한 '현장의 지식과 정보'가 유용하게 활용된다. 그리고 활발한 의사소통에 따라 시장에 참여하는 모든 주체의 신뢰성에 대한 정보가 겹쳐져 '정보에 대한 정보'인 신용³²⁾이 시장에 확대된 평판이 평판을 부르고 시장거래의 신뢰성이 높아진다. 평판이란 수요에 얼마큼 대응했는가에 대한 평가이다. 평판정보의 가치는 가격정보보다 높고, 평판을 획득하기 위한 경쟁이 이루어진다. 경쟁은 시장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의견형성의 과정이며, 시장의 경쟁을 통해 사람들은 사회 속에서 자신의 존재의미를 알 수 있게 된다.

③ 사회시장은 복합적인 시장형태와 다양한 교환·거래수단을 가진다.

사회시장은 복합적인 시장이라는 특징을 갖는다 그룹이나 공동체가 어떤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어떤 때에는 그 시장 안에 다른 그룹이나 공동체가 참가한다. 또한 공동체에 의해 시장이 다수가 되고 더욱 큰 시장을 형성한다 행정, 기업, NPO 등 성격이나 구조가 다른 경제활동을 연결하는 형태의 시장도 존재한다 그렇기 때문에 재화의 이동형태(교환·거래수단)도 각각의 시장에 맞는 것을 사용하게 된다. 법정통화(엔)를 이용한 교환 이외에 각 공동체의 독자적인 교환매체(돈)나 공동체상호 교환매체 등도 생각할 수 있다. 이것에 재분배나 답례의 요소가 첨가되어 다양하고 복합적인 재화의 이동형태를 보이게 된다. 따라서 이것들의 이동형태를 시장참여자나 상황에 맞게 선택하거나, 여러 형태를 병행하여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32) 카네코 이쿠요는 인터넷사회에서 신용이란 '정보의 정보'라고 하여, '무언가의 정보에 대하여 그것이 신용할 수 있는지, 신빙성이 있는 것일까, 평판은 어떤가, 라는 정보를 부여하는 것이 '신용'이다'라고 말하였다.

④ **사회시장은 참가자가 ‘시장에 재화를 제공하는 능력’(인간적인 생산력)을 육성한다.**

사회시장은 ‘이익을 얻고 싶다’는 동기보다 ‘보다 잘 살고 싶다’는 동기에 의해 응할 수 있다. 사람의 요구에 응하면서 시장참여자 자신이 사회에서 활약하는 기회 능력, 가능성도 열린다. 시장의 참가자가 ‘자신이 좋은 생활과 좋은 인생을 살기위해 어떠한 상태에 있기를 원하는가. 그리고 어떤 행동을 하고 싶은가’를 가지고 모여 ‘자신은 다른 참가자를 위해 무언가를 하고 싶은가 무엇이 가능한가’라고 연관시킨다. 이것에 따라 시장 참가자가 관계성이나 상호성의 안에서 자신의 잠재능력을 발견하고 키워가는 것이 가능하다. 그리고 각 개인이 시장에서 받는 것만이 아닌 재화를 제공할 수 있게 되어 간다

⑤ **사회시장은 지역자원을 축적하면서 최대한으로 활용하여 지역의 자립성을 높인다.**

사회시장은 지역의 자원이 최대한으로 활용되는 시장 환경을 만든다 지역의 수요에 최적의 형태로 대응해 가기 때문에 지역민, 물건, 정보 간에 관계성을 만들어내고 그것을 넓혀감에 따라 지역자원의 순환을 구조화한다 자원순환은 자원을 소모하는 것이 아니라 축적하는 것처럼 시행된다. 지역에서 창출된 가치가 지역 안에서 소비활용되는 듯한 거래관계를 만들고 또 사람의 손이 더해져 가치가 올라간다 (따라서 사회자본과의 관련이 강해진다) 지역의 자연이나 문화에 관한 자원 활용과 축적을 촉진한다 더욱이 시장에 참가하는 사람들은 시장에 재화의 제공하는 능력이 최대한으로 발휘되는 것을 지향한다 그 결과 지역사회의 자립성과 지속가능성이 높아진다

⑥ **사회시장은 주체적인 시민의 네트워크를 만드는 지역거버넌스 능력을 높인다.**

사회시장에서 경제활동은 지역과 공동체에서 자주적인 과제해결을 동기로 하는 것이 특징이다. 사회시장을 유지하는 것은 사람들의 기존 조직과 체제에 의존하지 않고 자신의 문제의식에 근거하여 스스로 과제를 해결하려는 주체적 자세와 스스로 새로운 라이프스타일과 사고방식 등을 알리려는 적극적 태도이다 그래서 협력자를 요구하고 자신을 숨김없이 드러내는 ‘용기’를 가진 사람이 시장의 주체자가 된다. 그러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되어 상호거래 안에서 눈앞의 이해를 넘어 과제해결을 위한 협력관계와 사업이 발생된다. 또한 스스로 책임진 역할과 자발적인 규칙규범이 발생된다. 이러한 관계성이 네트워크로써 사회시장으로 넓혀가 지역과 공동체의 거버넌스의 능력을 높인다

⑦ **사회시장을 견인하는 것은 다양한 ‘시장편집자’들이다.**

사회시장에서 시장편집자들은 다양한 사회기업가(‘시민기업가’도 포함)로 활약한다. 각각의 입장이나 전문성에 기초한 사회기업가는 시장에 연계된 정부 기업, NPO 등 임의의 섹터에 의존하여 시장에서 네트워크 구축에 기여한다. 사회기업가는 시장에 흩어져 있는 현장 정보에서 수요와 기회를 표출하여 자원 간에 관계성을 갖게 된 시장의 참가자는 창조적인 사업을 제안실시함으로써 사회에 새로운 가치를 창조해 간다. 사회기업가는 사회의 건전성을 중시하여 눈앞의 이익이 아닌 지역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주목한 장기적인 이익을 위해 행동한다.

2) 마치다에서 사회시장형성의 가능성

마치다시는 사회자본을 형성함에 있어 매우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다 우선 40만 명이 나 되는 시민을 지닌 도시이다. 70평방킬로미터가 넘는 지역에 광역상권을 가진 집객력이 큰 상업 집약지역과 다찰지역 안에는 1,500 헥타르가 넘는 비교적 많은 농지와 구릉의 수림지 등의 자연환경도 존재한다 75년을 넘은 주택개발의 역사를 지닌 주택지역은 대부분이 베드타운이지만 다양한 형태의 주택가가 존재한다 그것은 다양한 지역 커뮤니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마치다치는 교외형 도시로써는 다양성을 가지면서 전체로써 균형 있는 도시라고 할 수 있다. 지역 안에 다양한 자원을 발견하여 활용해 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일본이 인구감소사회로 이동해 가는 가운데 마치다시의 인구는 조금씩 지속적으로 늘어가고 있다. 주변 지자체를 포함한 인구의 사회이동상황을 보면 지금부터 약 10년 이상은 인구가 계속 늘어난다고 예측한다. 한편 마치다치의 2005년 1월 1일 현재 65세 이상의 노년인구는 약 17%이지만 10년 후에는 약 25%로 증가할 것이라고 예측한다. 그러나 전국과 비교하면 고령화율과 고령화 속도는 낮은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시간이 걸리는 사회자본형성에 있어 아주 유리한 재료이다. 더욱이 인구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25~34세의 일본의 베이비붐세대인 단카이유니버세대로 지금부터 사회증가가 예측되며 앞으로의 마치다시의 사회 활력을 지원할 핵심이 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또한, 단카이세대(베이비붐)의 구성율도 비교적 높아 금후 수년간 퇴직하여 지역으로 돌아올 인재의 공급이 계속될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이 사람들이 사회자본형성에 관여하게 되면 계산할 수 없는 지역의 재산을 축적할 수 있을 것이다

2001년에 실시한 ‘행정서비스에 대한 시민의식조사에 의하면 ‘주민참가 효과를 스스로 인정하여 행정에 대한 관여를 가능한 한 적게 하려고 지향한다는 시민이 52.5%로 늘었다. 이 경향은 40~60세의 비교적 소득이 높은 남성이나 사무직의 사람에게 많이 나타났다 이러한 사람들 가운데는 지식사회에서 활약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도 많다고 생각되며 지역사회에서 가치의 공급력을 높이는 것에 공헌할 가능성이 크다 또한 시내에 많이 존재하는 대학이나 연구소 등 지적자산의 활용도 기대할 수 있다.

그리고 마치다시에는 이미 많은 시민활동이 축적되어 있다. 현재에도 3,000여명이 넘는 시민활동그룹이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소년축구·야구로 대표되는 시민 스포츠활동도 활발해지고 있다. 역사적으로는 자연보호, 복지자원봉사, Normalization, 쓰레기감량활동, 소비자보호, 마을만들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국적으로 앞서는 활동을 전개하였다 아마도 틀림없이 상당한 사회자본이 축적되어 있다고 생각된다.

카네코 이쿠요는 커뮤니티에서 사회자본이 형성되어 가는 과정에 대해서 마치다 시내 민영 고령자서비스센터인 ‘간호센터 나루세’를 중심으로 한 커뮤니티를 상세하게 조사하여 최적의 실례로써 높이 평가하고 있다. 마치다시 나루세다이지구의 20년간의 행보는 우리들에게 지역관계의 기억으로써 사회자본이 어떤 것인지를 알기 쉽게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나 전시(全市)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들 활동은 개별적으로 따로따로 진행되고, 상

호관련성이 그다지 보이지 않는다. 경제활동으로써 재화와 서비스가 회전하는 형태가 별로 이루어 지지 않는다는 것이 현상이라고 생각한다 이미 말했듯이 사회자본은 그 자체를 목적으로 형성되는 것이 어려우며 사용되지 않으면 감소해버린다. 마치다시에 많이 흩어져있는 시민활동을 잘 연결시킬 목적성을 가진 사업을 사회시장의 구조를 통해 계속적으로 일으키는 것이 앞으로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한편으로는 사회자본을 잃게 된다고 생각되는 지역도 존재한다 예를 들면 중심시가지에서는 외부로부터 자본지출이 눈에 띄게 많이 된 곳으로 상업적 커뮤니티의 힘이 상대적으로 약해지고, 심야까지 영업하는 향락 관련 업종도 늘고 치안의 불안이 확대되고 있다 지역상점가의 쇠퇴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사회자본이 계속 감소하면 지역상점가도 점점 심하게 쇠퇴될 것이다. 그것을 억제하기 위해서라도 사회시장의 형성이 요구되는 것이다. 어쨌든 사회시장의 형성에서 마치다라는 도시는 세계의 규범이 될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제 2장 사회시장형성의 수단으로서 지역통화

1. 지역통화의 기본적 사항

(1) 지역통화란 무엇인가?

교환의 장(場)인 시장의 성질은 사용되는 교환매체와 방식에 관련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사회시장의 형성에 있어서 바람직한 교환매체는 지역의 자원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재화를 생산하는 잠재력과 가능성을 이끌어내, 커뮤니티와 지역사회가 안고 있는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람들 간의 우호적인 관계나 사람과 지역과의 연결고리를 만들어 내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러한 기능을 갖춘 교환매체로서 지역통화가 갖은 가능성은 크다고 할 수 있다.

1) 통화의 본질과 기능

지역통화에 대해서 서술하기 전에 「돈(화폐)」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보자. 화폐에는 ① 상품의 교환가치를 나타낸다 ② 상품을 교환할 때의 매개물이 된다 ③ 가치의 저장수단이 된다 ④ 이식(이익, 이자)의 수단이 된다 등 대략 4가지의 기능이 있다. 교환, 유통, 지불 수단으로서 기능하는 화폐를 일반적으로 「통화」라고 하고, 그 중 ①과 ②가 시장의 경우 교환을 주선하는 화폐의 본래적인 기능이다

<통화는 공동체의 「결정체」>

베르나르도 리에타는 「돈이라는 것은 커뮤니티에 있어서 「무언가」를 교환하는 매체로서 사용되는 것이며 하나의 약속이자 결정체³³⁾라고 정의하고 있다. 결국, 화폐는 구체적인 것이기 보다는 사람들 간의 약속 없이 결정되어 있거나 항상 어떤 공동체의 내부에서만 유효한 것이다. 때문에 교환매체가 무엇인가는 문제가 아니라, 귀금속이든지 종이조각이든 전자파동이든지 무엇이든 좋으며, 공동체가 그것을 「교환매체」로 인정한 순간 「무언가」는 통화가 되는 것이다. 이와이 요시히토도 「화폐라는 것은 언어와 법과 같이 순수하게 『공동체』 적인 존재」이며, 「화폐를 화폐로서 취급하는 인간의 집단에서 분리해버린다면 그 순간에 그 손에 있는 화폐는 화폐가 아니며, 정말 어떠한 물건에 귀속되지도 않는 것이 되어 버린다³⁴⁾」라고 말하고 있다. 이와이 요시히토에 따르면, 이러한 공동체는 어떠한 사회적 계약도 정관(定款)도 뒷받침되지 않으며 「다만 단순히 사람들이 화폐를 화폐로서 사용하고 있는 사실」에 따라서만 성립되어 있어, 공동체가 「미래의 긴 세월에 걸쳐 계속해서 존재하는 기대³⁵⁾」에 의해 유지되고 있다. 그러한 기대가 생겨난 것은 사람들이 「『자신 이

33) 베르나르도 리에타 『MONEY 붕괴』(小林一紀·福元初男譯, 일본경제평론사, 2000년) p.57.

34) 이와이 요시히토(岩井克人) 『재화론』(학예문고, 1998년) p210~211.

외에 누군가가 그 돈에 가치가 있다고 믿고 있다」는 것을 믿고 있다」³⁶⁾는 것이지만, 「타인이 믿고 있는 것을 믿는 것은 「실제로 파손되기 쉬워 부끄러운 것」은 국가가 발행하는 통화조차 종종 신용을 잃을 위기에 빠지는 경우를 보면 확실해진다

그렇다면, 통화유통의 기본은 유통자체에 대한 「신용」이라고 이해된다. 그러나 스스로가 받은 통화는 반드시 다른 상대도 받아준다고 믿는 사람들을 제외하고 교환의 매체인 통화는 사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어쨌든 명확히 해두고 싶다.

< 통화발행은 채무반제(返濟)의 약속 >

그럼, 통화가 교환매체로서 신뢰받는 본래의 근거는 어디에 있는 것일까 이론적으로 통화는 통화의 사용을 결정한 공동체이하, 「통화 공동체」라고 한다)의 구성원이 시장에서 거래하고 재화를 받을 때에 발생하는 통화 공동체에 대한 채무라고 생각 할 수 있다 따라서 통화를 발행하는 것은 시장에서 재화를 받은 통화 공동체의 구성원이다 통화를 발행했기 때문에 반드시 받은 재화와 같은 가격의 재화를 통화 공동체인 시장에 내는 것으로 채무를 갚는다(발행한 것과 같은 금액의 통화를 받는다)고 약속하고 있다. 제공될 것이라는 재화 자체의 가치와 제공 약속을 보장하는 것에 대한 「신용」을 통해 통화 공동체가 성립하고 있다고 일단은 생각할 수 있다. 확실히 통화가 유통한다면 유통하고 있다는 사실과 앞으로도 유통할 것이라는 기대로 통화 공동체가 지탱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공동체에 대한 구성원의 약속을 기본으로 발행되어 유통한다는 통화의 기본적 성질이다

통화의 발행 방식은 다음 3가지로 크게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다.

- ① 상호발행: 통화 공동체의 시장에서 거래가 발생하는 경우 각 구성원이 상호 발생한다 재화와 서비스를 받는 구성원이 자신이 시장에 내놓을 수 있는 재화와 서비스를 기본으로 거래 상대방에게 발행한다. 거래 할 때 통화의 발행내용을 상호 확인한다
- ② 대행발행: 상호발행의 한 형태로, 각 구성원이 거래의 장에서 통화를 발행하는 것이 아니라 통화 공동체가 통화발행의 대행기관을 만들어 각 구성원은 재화와 서비스의 제공 능력(반제능력)을 토대로 대행기관을 통해 통화를 발행한다 대행기관은 형식적으로 통화를 작성하고 건네는 것일 뿐 명목이 무엇이든 실질적으로 「발행」하는 것은 구성원이다. 각 구성원은 미리 발행한 통화에 따라 거래를 한다 더욱 교환매체로서 갖는 통화의 이로움과 편리함을 증가시켜 상호발행보다 광범위한 유통을 가능하게 된다
- ③ 특정자 발행 : 많은 재화를 가지고 있는 특정자(정부, 기업, 단체, 개인 누구라도 좋음)가 통화 공동체의 구성원으로부터 재화와 서비스제공을 받은 담보로 자기가 소유한 재화를 「인환증(引換證)」의 형태의 통화로 발행한다 통화를 받은 구성원은 그것을 다른 형식으로 바꾸어 발행자의 재화와 교환하지 않고 통화 공동체의 시장에서 거래 할 때 사용한다. 특정자는 통화 공동체와의 연관방법에 따라 통화 공동체의 강력한 구성원으로 간주 되어 통화 발행권을 독점하는 시장의 지배자로 볼 수 있을 것이다

35) 이와이 요시히토(岩井克人), 前掲書, p212-213.

36) 베르나르도 리에타, 前掲書, p54.

사실, 국가가 발행하는 통화도 예외는 아니다. 근대국가들은 각 나라의 중앙은행이 통화를 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일본에서도 통화라는 것은 정부가 발행하는 화폐와 일본은행이 발행하는 은행권이라는 것, 일본은행권은 「法貨-법정통화」로서 무제한으로 유통하는 것을 법률로 인정하고 있다). 간단히 말하면, 중앙은행은 민간은행의 요청에 따라 통화를 제공하고, 민간은행은 중앙은행에서 공급된 통화와 예금을 기초로 일반인에게 필요와 값을 수 있는 능력에 따라 통화를 빌려준다. 결국, 기본적인 부분은 대항발행 없이 특정자 발행의 도식이 되어버린다고 할 수 있다. 다만, 통화 발행권을 국가가 독점하기 때문에 통화 공동체가 국가의 틀에 편입된 형태로 통화를 발행하고, 구성원의 채무는 국가의 통화시스템을 담당하는 기관인 은행이 책임지게 된다.

근대국가에 의한 독점적인 통화 발행과 그 유통 조직은 각 지역에 자립적으로 존재한 통화 공동체를 국가수준으로 통합확대시켜 지역경제의 틀을 넘어선 국가수준의 자원집약과 전개를 가능하게 하고 국가 경제를 발전시켰다. 더불어 생활기반인 공동체의 이미지도 지역에서 국가로 확대되어 국가에 대한 귀속감과 국민의식을 키워 국가를 기준으로 한 공공의 틀의 형성에 강한 영향을 준 측면도 간과할 수 없다.

그러나, 현재에 이르는 자본주의 경제발전은 다음에서 말하는 화폐의 또 다른 역할이 맡은 책임이 크다.

< 2종류의 돈 >

앞에서 말한 화폐의 4가지 기능 중에 「가치저장의 수단」과 「이자」의 수단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자. 화폐가 가치저장 수단이 되는 것은 화폐가 평상시에 상품과 다르게 상품가치의 척도나 교환매체라는 추상성의해 시간이 경과하여도 품질이나 성능 등의 열화(劣化)와 가격의 하락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기 때문이다.

저장된 화폐에는 2가지의 의미와 가능성이 함축되어 있다. 하나는 다가올 앞날을 대비한 교환(상품의 구입 등)에 준비하는 것, 또 다른 하나는 이식(이익, 이자)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이다. 그리고 주의해야 할 것은 교환의 매체로서 사용될 때와 이식의 수단으로서 사용될 때는 화폐의 성질이 전혀 다르다는 것이다.

말할 필요도 없이 시장에서의 경제활동(교환)의 주된 동기는 이윤을 얻기 위한 것이다. 이윤이라는 것은 시장에서 재화를 팔 때에 얻는 수입으로서 그 재화를 생산(형성)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을 제외하고 남은 금액으로 시장의 참가자는 이윤을 얻어 자신이 부족한 재화를 시장으로부터 조달하려는 것이다. 이에 반해, 이식이라는 것은 자신의 자금을 잘 운용하여 이자와 배당금 등의 이익을 통해 재산을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구체적으로는 통화 보유자가 재화와 교환하지 않고 다른 통화 공동체의 구성원이 시장에 내놓은 재화를 형성하기 위해 자금을 융자하여 이자를 얻거나, 일부 구성원에 대해 투자와 투기를 하는 것보다 담보로서 이윤의 일부를 얻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재화의 교환 없이 돈으로 돈을 만들어 내는 것이 이식의 본질이다. 그리고 자본주의 경제에서 국가의 통화시스템은 이식의 수단으로서 재화의 기능에 근거하고 있다. 그 상징적인 존재가 「이자」라 할 수 있다.

< 이자의 효용 >

시장의 경우 이자는 경쟁을 격화시켜 경제성장을 계속 가속화시키는 기능을 한다. 시장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시장에 나온 재화를 형성하기 위한 자금이 필요하며 일반적으로 은행에서 용자를 얻어 자금을 조달한다. 은행에서 법정통화를 빌려주는 것은 일정한 이자를 부과시키는 것이다. 따라서 용자를 얻은 사람은 시장거래에서 이자지불분 만큼 이윤을 더 획득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는 거래를 통해 시장에 나온 통화보다도 시장에서 얻은 통화의 경우가 많게 되는 것이며, 그러기 위해서는 다른 시장 참가자(통화 공동체의 구성원)와 통화를 획득하기 위한 경쟁에서 이기지 않으면 안 된다. 시장경쟁력인 재화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많은 자금투입이 필요하고, 게다가 이자는 시간의 경과와 함께 증가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서둘러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러한 시장의 경쟁을 마구 부추기면서 이자의 증식은 제한 없이 계속 이어지는 구도가 완성된다. 시장 전체를 보고 실질적인 교환이 일어나면 수지균형이 이루어지겠지만 이자분의 통화가 시장에서 채택되고 이자분이 재화의 거래가격에 반영되면 교환에 사용되는 통화가 부족하게 된다.

통화시스템에 채택된 이자분의 통화는 투자라는 형태로 시장에 되돌아오지만 이식이 목적이기 때문에 시장거래에 있어서 상당한 이윤을 얻으려는 구성원들이 집중적인 관심을 보인다. 그리고 이식에 동기 부여된 돈은 거대자본이 되어 대규모투자에 의해 자원을 집중시켜 막대한 부가가치³⁷⁾를 제한 없이 산출한다.

남보다 앞서서 근대국가체제를 구축한 나라들은 이러한 국내에 거대금융자본을 형성하고 충실한 설비투자에 의해 기술을 발전시켜 훌륭한 제품과 서비스를 생산해 교환하는 무역을 통해서 풍부한 자원과 소비재를 얻어 선진국으로서 높은 생활수준을 누리게 되었다.

< 요구되는 통화의 본래 기능 >

한편, 자본투입에 따라 부가가치의 형성에 도움이 안되는 재화나 가치형성에 장시간이 걸리는 재화에 대해서는 거래에 이용되는 통화가 모이지 않기 때문에 시장에서 사라질 수밖에 없다. 예를 들면, 누군가가 필요로 해서 사람들의 생활을 기초부터 지원하는 복지 의료, 환경, 교육 등에 관련하는 재화와 서비스가 있고 거리의 환경과 지역의 문화 전통, 풍토를 지키고 유지시키는 재화 등이 있다. 따라서 그 조달은 국가에 의한 재화의 재분배 기능에 근거하는 공적자금을 이용할 수밖에 없으며, 국가가 정한 「공정」의 기준에 따라서 서비스, 혹은 자원 봉사에 의해 제공된다. 경제성장을 이룩하면서 사람들이 여유로움을 실감할 수 없는 배경에는 자본투입에 의한 고부가가치를 낳는 재화가 자기 주변에 증가해도 본래의 시장거래에서 제공할 수 있는 것만 거래될 뿐 생활에 밀접한 재화와 서비스의 실태는 결핍되고 제공체제가 취약하게 되었다는 현실이다. 그리고 저출산·고령화 사회를 향해가는 지금, 공적자금에 의지해서 제공되는 서비스에도 한계가 보이기 시작했다.

서장에서 서술한대로 화폐의 이식기능에 의지한 경제시스템도 정체상태에 빠지는 현상

37) 부가가치: 생산과정에서 새롭게 첨가된 가치로서, 총생산액에서 원재료비와 설비 등의 감가상각비를 뺀 것으로 인건비, 이자, 이윤의 합계가 된다.

을 볼 수 있다. 국제경제의 경우는 70년대 초 금본위제(金本位制)에서 변동 상장제로 이동, 80년대의 미국과 영국의 경우 대규모적인 금융규제완화 및 정보통신기술의 진보에 동반되는 전자거래의 활발화를 배경으로 화폐 자체를 거래의 대상으로 하는 통화시장이 극도로 확대되어 국가의 통제를 넘어선 글로벌화폐의 도량에 휘둘리는 상황이 나타난다. 막대한 통화투기의 기복은 재화거래에 근거하여 실질적인 경제활동뿐 아니라 시장시스템 자체를 불안정하게 만든다. 통화의 기능 안에 이식의 수단이라는 단면만을 비대화시켜버린 것에 대한 반성에서 신뢰와 약속에 근거하는 교환의 매체로 통화본래의 기능을 재평가하여 원래상태로 되돌리려는 필요성이 강하게 인식되어졌다.

2) 지역통화의 성질과 이념

교환매체로서 통화본래의 기능을 회복하는 지역통화는 사람들의 생활 기반인 지역사회에 자본이 가져오는 재화의 효과와 위협에서 벗어나 지역이 갖은 자원에 정착한 실질적인 경제활동과 협동 그리고 협력에 근거하는 사회활동을 촉진시킨다. 지역통화는 다음과 같은 기본성질을 갖는다.

- ① 이자를 갖지 않는다. 이식의 수단이 되지 않고 교환과 유통을 위해 사용된다
- ② 일정한 지역(또는 범위)에서만 유통된다.
- ③ 지역의(또는 과제를 공유하는)사람들이 만들어서 운영한다.

이러한 성질을 갖고 있는 지역통화는 시장경제에서는 평가되지 않는 재화와 서비스의 가치를 지역관점에서 재검토하고 거래대상으로 바꾸어 내고 이를 통해 지역사회에 잠재되어 있는 재화와 서비스를 산출하는 힘을 이끌어내어 사람들의 생활에 여유로움을 가져다 주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이식 때문에 돈을 돌리게 된 사회 서비스 등의 거래를 위해 부족한 통화를 지역의 필요에 따라 스스로 발행하여 거래에 이용하는 것이다. 또, 지역의 사람들에 의한 통화의 공유는 공공성의 재구축에도 연관된다. 생활기반을 공유하는 사람들이 이식을 배제한 통화라는 공통의 교환매체를 스스로 만들어 사용할 때 비로써 시장은 새로운 통화를 유통하는 새로운 공공의 장소가 된다. 사람들은 단순히 이윤을 추구하기 위해 물건을 교환하는 것뿐만 아니라, 생활 전반에 관련 있는 자세한 정보를 교환과 공유를 권유하여, 협동, 협력의 관계 만들기에 노력하려는 것이다. 이전에 국가통화가 근대민족국가라는 「공공(公共)」을 형성하는 것에 공헌한 것처럼 지역통화는 국가의 형식과 틀에는 기준화된 모양뿐인 「공공(公共)」의 형태를 지역의 사회 자분을 기반으로 다시 재기해가는 구조로서 역할을 완수해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앞서 말한 대로 통화유통의 기본은 「신용」이다. 이 신용이 법정통화(法貨)에서는 법률로 수령이 의무화 되어 확보되는 반면에, 지역통화에서는 유통하는 범위가 한정된 그룹과 지역 내부에서 형성된 사람들의 신뢰관계가 토대가 된다.

결국, 지역통화는 법정통화와 달리 신뢰관계로 사람들이 연결되지 않으면 유통되지 않는

다. 이것은 바꿔 말하면, 지역통화가 유통되는 사회는 신뢰에 근거하여 긴밀한 관계를 가진다고 할 수 있고, 지역통화가 유통될수록 그 사회는 신뢰가 구축되어 긴밀한 관계성을 가질 수 있다. 지역통화의 발행은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고 이에 부응하는 지역사회체계의 가치 공급능력이 있어야 된다. 통화발행의 근거는 통화 공동체의 구성원이 시장에 제공하는 재화자체의 가치와 재화제공의 약속이 지켜지는「신용」이라고 이미 기술하였다. 지역통화는 다른 사람이 필요한 재화와 서비스를 공급하는 것을 약속하고 스스로 책임지며 발행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따라서 서로가 제공하는 재화와 서비스의 내용과 서로의 약속을 수행하는 능력에 대한 신뢰의 구축이야말로 성공여부의 열쇠가 된다. 필요에 응하지 않는 서비스를 토대로 통화를 발행했다면 받을 수 없다. 지역통화도 통화인 이상 당연히 시장에 의한 선별이 수반되고 엄격하게 참가자의 자립과 책임능력을 묻는 것이다. 결국, 지역통화라는 것은 지역의 사람들의「신용」을 키워가는 구조이며, 「지역통화의 기본이념은 지역 사람들에게 자신이 공급하는 물건과 서비스를 기본으로 스스로의 돈을 발행할 힘을 주는 것」인 것이다.³⁸⁾

3) 지역통화의 이론배경과 역사

지역통화의 이론적 기초를 제공한 것은 Silvio Gesell³⁹⁾이라고 할 수 있다. Gesell은 자본주의의 화폐시스템이 부의 불균형의 원인이 되고 화폐에 플러스금리가 있다는 것이 재화를 모으며, 부의 집중을 낳게 하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재화가 시간과 더불어 노화되는 것처럼 화폐도 노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또한, 화폐가 노화하는(마이너스 금리가 생긴다) 시장경제의 구축을 목표로 한 자유 화폐시스템(화폐, 소멸화폐)을 제창했다.

Gesell은 저서 「자연적 경제 질서」에서 기본적인 생각은 시장주의에 가깝다고 말하고 있다. 「자연적 경제 질서는 그 자신에 입각하여 관리인이 없어도 생활할 능력을 가지고 있어 국가와 같은 모든 성질의 감독 그 자체를 무용한 것이 된다. 그것은 우리들의 존재를 담당하는 자연도태의 법칙을 존중하고, 만민에게 스스로 완전한 발전가능성을 부여하는 것이다. 이 이념은 자기 자신이 책임을 지고, 다른 사람의 지배에서 해방된 인격의 이념이다」⁴⁰⁾. 분업에 근거한 시장경제의 발전의 방해가 되었던 것이 화폐제도와 토지제도여서 이것을 제거함으로써 보다 안정적이며 효율적인 시장의 유통이 실현한다고 설명한 것이다. 자연적 경제 질서는 자유화폐가 가져온 「자유롭고 공정한, 그리고 번영하는 경제 질서」이고, 「이자로부터 해방된 시장경제가 자본주의를 대신 한다⁴¹⁾」는 것이 Gesell의 목표였다.

자본주의 위기인 1930년대, 자유방임주의의 경제를 비판하고 수정자본주의 이론을 전개한 케인즈는 Gesell의 사고방식을 평가하면서 「우리들은 장래의 인간이 마르크스의 사상보다는 Gesell의 사상에서 한층 더 많은 것을 배우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예언했다.

38) 토마스그레코 『지역통화르네상스』(大沼安史訳, 本の泉社, 2001년) p296.

39) Silvio Gesell(1862~1930): 독일, 아르헨티나에서 활약한 사업가로 경제학자.

40) 森野栄一 「잊혀진 사상가 Silvio Gesell」(河邑厚徳외의 『엔데의 유언』 제 3장, NHK출판, 2000년)p99.

41) 森野栄一, 前掲書.

Gesell이 제창한 자유화폐 중 가장 잘 알려진 방식은 「스탬프화폐」로 다음과 같다.

대용통화(스탬프화폐)의 발행자(지방자치체 등)는 일정한 유통기간 지난 후 같은 금액의 법정통화에 환금(소멸)하는 것을 보증하고 발행한다. 대용통화가 유통하려면 주 1회, 발행자로부터 스탬프를 사서 소정의 요일까지 부쳐야 하며 부치지 않은 것은 수취할 수 없게 된다. 1년경과 후에 발행자는 스탬프대금의 수입에 따라 대용통화발행분의 금액을 회수하기 위해 환금에 응할 수 있다.

스탬프 대금은 일종의 화폐세금이라고 볼 수 있다. 거래횟수에 상관없이 일정기간의 스탬프대금은 갚기 때문에 기간 내에 가능한 한 많은 거래를 하려고 한다. 게다가 스탬프대금의 부담을 피하기 위해 빨리 손을 떼려는 의욕도 작용하기 때문에 통화의 유통속도가 빨라 경제가 활성화된다는 계획과 스탬프 대금을 타인보다 많이 부담하는 것은 그것만으로 벌이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저항감도 적다.

Gesell의 자유 화폐 이론은 대공황기가 되자 독일 오스트레일리아, 아메리카를 비롯하여 세계 많은 지역에서 실천으로 옮겨졌다. 특히 1932년 오스트레일리아의 베르크르크에서 발행한 노동증명서가 유명하다. 당시, 도시는 세계 공황이 가져온 불황에 의해 생산이 정체되고 실업자가 넘쳐 세금수입도 거의 없는 상황에 처해있었다. 도시는 공공사업을 개시하여 인구 4,300명 중 1,500명을 고용, 대금대신에 노동증명서라는 스탬프화폐를 발행하였다. 그 효과는 바로 나타났으며 소비가 살아나 유통이 확대되고 세금수입이 증가해 실업이 해소되었다. 노동증명서는 세계공황에서 힘든 베르크르크에 기적의 경제회복을 가져다주어 다른 지자체도 같은 방법을 시도했지만 당시의 오스트레일리아 중앙은행은 국가 화폐 대권(화폐발행은 국가가 독점한다)을 범하는 것이라며 공격하여 호주정부는 노동증명서를 금지하기에 이르렀다. 도시는 노동증명서는 채권이며, 화폐는 아니라고 재판에서 싸웠지만 들어주지 않아 이 실험은 1년 몇 개월에 종지부를 찍게 되었다.

아메리카에서도 1930년대에 400개 이상의 도시와 수천의 커뮤니티들이 자유화폐의 사상에 바탕을 둔 긴급통화를 발행하여 그 경제효과를 확인하였다. 그러나 국가는 중앙집권적인 문제해결 방향에 중점을 두고 뉴딜정책을 진행시킴과 동시에 긴급통화를 금지하였다.

겨우 살아남은 스위스의 WIR(뒤에 기술함)를 제외하고 Gesell의 자유 화폐는 국가의 대권 전에 패해서 사라졌다. 리에타는 이러한 역사적 사실에서 배울 수 있는 것으로 「개인과 단체가 사회문제에 대처하는 것을 정부가 억압해버리면 사람들은 문제를 단순히 해결할 수 있는 강한 『구세주』의 출현을 희망할 수밖에 없다. 역사적으로는 심각한 구조적 실업에 대한 효과적인 중앙집권적 접근은 단 하나 『전쟁의 준비』 이다」⁴²⁾라고 기술하고 있다. 그러나 모두 보았듯이 거대한 시스템인 정부와 시장의 위태로움과 한계가 명확하게 되어 Gesell의 사상은 다양한 지역통화의 뭉쳐가기라는 형태로 부활하는 중이다.

베르크르크의 예에서 보듯이 자유화폐의 사회실험은 통화의 본래적 기능을 아는 상태에서 중요한 사례와 함께 자치체가 통화를 발행하는 경우의 기능성과 효과를 추측하는데 참고

42) 베르나르도 리에타, 前掲書, p179.

가 된다. 다만, 이것들은 「정규 통화」가 가망 없다고 단념되어져서 통화의 기능을 못하는 특수상황의 기인하여 대체물과 위치를 판단하는 점에서는 유의할 필요가 있다 지역 통화가 지속가능한 사회를 구축할 항구성이 있는 구조가 될 수 있을지 어떨지는 모두 이러한 문제에 대처하는 방법에 달려 있다.

오늘날도 제정상황의 악화에 고심하는 지자체 입장에 있어서 지역 내 경제 자극효과를 가져오면서 행정당국이 재정 부담 없이 경제정책을 수행할 수 있는 화폐세의 수법을 고려할만하다. 화폐발행권 없는 지자체에는 어려운 점이 있지만 화폐용도에 사용할 수 있는 채권(그러기 위해서는 지방세의 납입에 사용하면 안 된다)으로 공부할 여지는 남겨 두자.

(2) 지역통화의 종류와 현황

1) 해외의 지역통화의 분류와 사례

일본에서 말하는 「지역통화」는 해외에서는 그 성질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결국, 「지역통화」는 이러한 것을 포함한 넓은 일반적인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처리하려고 하는 지역통화의 성질을 생각했을 때 다음과 같은 분류는 참고가 된다

① LETS: (Local Exchange Trading System의 약자)

지역통화 커뮤니티를 만들어 지폐를 발행하지 않고 참가자가 잔고 0에서 시작하는 구좌(통장 등)를 가지고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했다면 플러스 제공해 받았다면 마이너스를 기장하는 것으로 거래의 결제를 행하는 시스템이다³⁾. 운영의 간편함에서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보급되고 있는 방식으로 프랑스에서는 SEL(System d'exchange Local), 독일에서는 Tauschring, 오스트레일리아에서는 Tauschkreis라고 불리고 있다. 일본에는 「대복장(大福帳)」등이라고 일컬어진다.

② Local money (currency)

독자적인 화폐(종이, 칩, 전자머니 등)를 발행하여 도시의 행정구역 등 비교적 광역에서 유통하는 것을 말한다.

③ Community currency

독자적인 화폐(종이, 칩, 전자머니 등)를 발행하지만 Local money와 달리 어떤 커뮤니티의 범위에서의 유통을 상정하는 것을 말한다 세계적인 범위를 갖는 테마형태의 커뮤니티에 있어서 사용되는 것도 포함된다.

43) 이 조직은, 19세기 프랑스의 무역업자 G. 마도르가 제안한 다각간 청산(多角間 清算)시스템에 근원을 갖는다. 또 화폐사용을 회피하는 신용기구로서 상호청산시스템은 우리나라에서는 가마쿠라시대부터 볼 수 있다. 다만, 상호청산시스템과 LETS가 다른 것은, 전자가 어디까지 사적인 대금지불을 사용하여 상호청산이 실시되어 미제부분(清算尻)은 넘어가게 되지만, 국민통화에 의한 청산이 실행되는 것에 반해, 후자에서는 회원이 갖은 구좌도 큰 전체의 제로 밸런스를 담당하는 부분으로 하나하나의 회원의 구좌상의 마이너스와 플러스(채무와 채권)는 전체적으로 제로가 된다는 전제가 된다. 이 의미에서 공적인 성격을 갖은 조직이 사적인 회원들을 만드는 집단에 따라 운영된다고도 할 수 있다.

④ Parallel currency

「병행(並行)통화」라고도 한다. 법정통화와 병행해서 사용하며 법정통화에서는 취급하기 어려운 사회적 목적을 달성하는 것을 말한다

⑤ Complementary currency

「보완통화」라고도 한다. 시장경제에서 유통하는 법정통화뿐만이 아니라 달성하기 어려운 사회자본의 형성과 협동사회의 건설에 법정통화를 보완하는 통화로서 이용되는 것을 말한다.

해외의 경우 지역통화의 대표적인 사례로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 이사카아와

Local money의 대표적인 예이다. 1991년 뉴욕 주 토프킨스군 이사카의 생협조합의 슈퍼마켓에서 폴그로바에 의해 제창되어 탄생했다. 당시에는 실업, 고용대책을 위해 자신들의 통화로 자신들을 고용하는 구조로서 제안되었지만 지역경제의 활성화, 환경보호 등의 목적으로 확대되었다. 1이사카아와는 지역의 1시간 당 평균자금(10달러)에 대등하며, 지폐 형식으로 2, 1, 1/2, 1/4, 1/8 등 5종류를 발행했다. 시민은 신청서에 제공할 수 있는 재화 서비스를 기입하고 사무국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참가한다. 입회금에 대해서 아와가 발행된다. 통화 발행에 대해서는 주민이 선택한 위원인 이사카아와 관리위원회에서 결정된다. 특정 은행에서 이사카아와의 loan도 편성할 수 있다. 또 관리위원회에 의해 이사카아와를 사용한 유기농법지원의 프로젝트도 실행되고 있다. 400개가 넘는 점포와 수천 명이 참가하였고 1998년 말에는 연간 40만 달러의 경제효과를 가져왔다고 한다

▶ 타임달러

1986년에 미국의 변호사 에드가 칸이 창시한 시간예탁제도로 미국의 빈민층 등의 상호부조 수단으로서 보급하여 약 200단체, 5만 여명이 참가하고 있다. 보육, 가사도우미, 간호 등 사생활과 밀접하게 관계있는 서비스를 이행하면 1시간= 1타임달러로 각자의 구좌에 기록되고 자신이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기부하거나 한다. 비과세와 인가된 것이 보급의 요인이 되었다. 일본에서도 에히메현 세키젠마을(愛媛県関前村)의 「동근 모양」이 같은 예로 유명하다. 또, 「마음이 통하는 티켓」도 유사시스템이다.⁴⁴⁾

▶ WIR

1930년대에 시작한 지역통화로 가장 긴 역사를 가지며 성공사례로서 현재 스위스경제를 지탱하고 있다. 교환 고리(LETS와 같음)를 처리하는 협동조합을 설립하여 1936년에 스위스 은행법에 근거한 은행이 되었다. 중소기업과 상점 등의 8만인 이상의 사업자가 참

44) 자원봉사노력네트워크의 L카드시스템도 같다고 볼 수 있지만, 별도의 시스템이 있어 1973년에 시작한 같은 네트워크의 상호공조의 구조는 오늘날 유지하는 형태의 지역통화에 있어서 선구자라 할 수 있다.

가하고 있다. 스위스 프랑과의 병행이 전제되어 있어, 수표 형태의 지폐로 지불을 하는 구좌로 결제 되어 결제 할 때마다 수수료가 부가된다. WIR에 의해 저금과 용자도 처리된다.

▶ 토론토 달러

캐나다 토론토시에서 지역의 사업자들이 협동해서 설립한 NPO에 의해 1998년에 개시되었다. 상업과 비즈니스에서 활용을 촉진시키기 위해 법정통화와 태환(兌換)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법정통화를 토론토 달러로 교환할 때 1할이 커뮤니티기금에 기부되어 지역을 위해 사용된다. 비즈니스 참가자가 토론토 달러를 법정통화에 교환할 경우는 액면의 9할이 된다. 지역 내 유통촉진과 지역공헌이 결합된 시스템이라 할 수 있다. 토론토 달러는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무효가 된다.

2) 일본의 지역통화의 현상과 주된 사례

현재, 일본의 지역통화의 종류는 500을 넘는다⁴⁵⁾. 1998년까지 그 수는 미약하였지만 1999년 5월 NHK의 프로그램 「엔데의 유언」⁴⁶⁾의 방송을 계기로 급격하게 확대되었다. 그 때문에 일본에서 거의 지역통화는 활동기간이 5년이 채 못 된 새로운 것이다. 122개의 새로운 지역통화가 확인되었던 2002년 이후 증가속도는 느려졌지만, 현재도 종류는 계속 증가하고 있어 세계적으로 주목받을 정도의 선전을 보이고 있다.

지역별로는 다소 차이가 있겠지만, 일본 전국각지에서 대처를 볼 수 있다. 특히 두드러진 것은 수도권(동경, 가나가와, 치바, 사이타마를 포함한 78건), 북해도(43건), 효고현(42건), 나가노현(28건)등이다. 또, 지역통화에 대한 보조와 지원제도가 있는 효고 에히메켄, 후쿠오카, 시즈오카의 각 현에서는 모두 10건을 넘고 있어, 행정측면적 지원효과도 엿볼 수 있다.

지역통화의 발행 운영단체의 구분은 임의 단체가 52%로 가장 많고, 소규모의 커뮤니티에 의한 운영이 많다고 짐작된다. 게다가 NPO법인이 19%로 임의 단체와 합친 비영리단체에 의한 운영이 7할을 넘는다. 또, 상공회, 상공회의소, 상점가조합 등 상업관계가 13%, 자치체가 6% 정도가 된다. 운영단체의 종류는 학교, 회사, 사회복지법인, 자치회, 청년회의소, 생협, 농협, 재단, 사원 등 매우 다양하다. 특히 최근(2002~2004년)에 주목받는 것은 광범위하게 유통될 수 있는 상공회(38건)와 지자체(22건)의 지역통화가 증가하는 추세라는 것이다.

통화의 형태는 지권형(紙券型)이 64%로 가장 많고 통장형이 22%, 기타가 14%이다. 2001년까지는 지권형과 통장형이 대체로 반반이었지만 2002년부터 지권(紙券)형이 빠르게 늘었다. 같은 해부터 카드형도 선보이게 되어 광범위한 유통이 가능한 형태가 증가하고

45) 徳留佳之씨의 조사에 의하면 2005년 1월22일 현재로 519건의 지역통화의 활동이 실행되고 있다. 이하의 기술은 徳留氏의 자료에 의한 것이다. 또한 徳留氏의 홈페이지 「지역통화전리스트」(www.cc-pr.net/list)는 일본의 지역통화의 현황을 아는 정보자료로서 지극히 유용성이 높은 것이다.

46) 독일 유명한 동화작가 미하에르 엔데가 남긴 「문제의 근원은 돈에 있다」라는 물음에 답하고자 지역통화의 사고방식과 가능성, 해외사례를 소개한 프로그램.

있다.

위와 같이 일본의 경우 지역통화는 전반적으로 아직 매매의 약정 역사가 오래지 않지만 그 종류가 증가하면서 유통의 범위도 넓어지고 점차적으로 확대되는 상황에 있어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또 최근 몇 년 행정주도로 지역통화가 등장해온 점이 일본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더욱, 위와 같은 지역통화와는 별개로 「후레아이티켓」⁴⁷⁾과 그 밖의 시간 예약제도의 종류는 전국에서 500개 이상이 사용되고 있으며, 이를 전부 합친다면 일본의 지역통화는 1,000종류가 넘는다. 일본의 시간예약제도는 1980년대에 타마지역을 중심으로 사업지원서비스 제도의 일환으로서 실행된 것이 최초의 사례이다.

일본의 경우 지역통화의 대표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 피너츠 클럽

지역경제의 활성화,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서로 화합하는 공동체 만들기를 목적으로

1999년 2월에 NPO법인 「치바거리만들기 서포트센터」의 설립과 동시에 운영을 시작하였다. 그 후, 2000년 4월경부터 서쪽 지방의 치바상점가를 중심으로 서서히 확대되어 갔다. 이웃한 치바대학과의 연계와 지역의 자원봉사활동 농업과의 연계가 이어져, 현재는 회원수가 1,000명을 넘을 정도이다. 현과 치바시 및 치바 상공회의소의 협력도 얻고 있다. 업서크기의 大福帳을 이용하여 통장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지만 휴대 전화를 사용한 전자머니에 의한 거래도 실시된다. 거래액의 표준은 1시간의 활동에 1000pea. 1pea는 1엔이며 감가(減価)방식을 채용하고 있다.

▶ 크렁

북해도 유우바리군의 인구 1만 5천명의 栗山(쿠리야마)시에서 NPO법인이 운영하고 있는 합동형태의 지역통화. 2000년 2월에 운영을 시작하여 현재 700명의 회원이 있다. 모의통화를 반복하면서 시스템의 충실화를 진행하고 있다. 코디네이터를 통해 서비스 등을 거래하고 있으며, 현재 행정지원으로부터 자립을 모색 중이다.

3) 마치다시의 지역통화 사례

마치다(町田)시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다음과 같은 지역통화의 매매의 약정이다

▶ 마치다(町田) 다이후쿠초(大福帳)⁴⁸⁾

「엔데의 유언」에 촉발되어 마치다(町田)시 및 마치다(町田)주변에서 사는 사람들을

47) 사와야키 복지재단에서는 가사 원조 등의 자원봉사활동을 한 시간(또는 점수)을 저축해 두었다가 자신이나 가족들이 서비스를 필요로 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시간저축, 점수예약, 노력예약, 시간저장 등이라고 부르는 각종시스템)을 총칭해서 「이심전심 티켓제도」라고 부른다. 이심전심 티켓의 패용형태는 크게 다음 3가지 타입으로 구분된다. ①100% 예약형: 전원이 시간예약을 한 현금은 일절 돌려받지 않는다. ②본인선택형: 시간에 저장 하던가 현금으로 받던가의 선택을 본인에게 일임한다. ③정비율병용형: 일정비율을 자동적으로 시간 예약화하여, 남은 것을 자동적으로 현금으로 받게 한다.

48) 「마치다大福帳」의 今井啓子대표 외 2명에게 사회시장형성 워킹팀의 학습모임에서 활동 상황 등을 보고 받았다.

대상으로 지역의 연계를 회복하기 위해 2001년 9월에 발족한 통장(LETS)방식의 지역통화이다. 연회비는 1,200엔으로 사무국에 「자신이 할 수 있는 일」과 「하고 싶은 일」을 등록하여 통화인 hana「(花)」를 사용하여 다른 회원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1hana는 1엔 또는 2초의 서비스에 해당한다. hana「花」는 시내의 약 10개의 음식점과 상점에서 이용이 가능하며, 모임은 뉴스발행, 교류회, 영화상영회, 베타농사지원 이벤트 등을 실시하고 있다. 현재 약 160명이 등록되어 있다. 「마치다(町田)大福帳」의 활동이념은 「우리들은 한 사람 한 사람의 선의와 신뢰인 씨가 싹을 피워 잎이 되고 줄기가 자라 각각의 생활 속에서 꽃으로 피어 향기를 마음에 품고 자립한 지역사회라는 아름다운 꽃의 세계를 만들어 나갈 것이다」이다. 그리고 통화 hana「花」를 주고받으면서 「지역인과의 연결고리를 넓혀 풍요로운 마음과 기분 좋은 생활을 위한 커뮤니케이션(도구)」이며, 「지역재산인 자연 문화, 물산, 다양한 사람들의 오리지널 서비스(지식, 기술, 친절함)를 나타내는 단위」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멤버의 확대와 사무국을 담당하는 인재의 발굴 육성이 과제이다.

▶ UPA

사업형 NPO의 비즈니스모델의 실현을 보완하는 커뮤니티통화로서 실험적으로 실행되는 전자지역통화이다. NPO법인 CCCNET에서는 여성의 직능(職能)개발 사업을 스스로 실행하는 다른 사업과 효과적으로 연계하여 실시하기 위해 지역통화「UPA」를 발행한다. NPO 법인은 양육지원, IT강습, 인재육성서비스를 주고 받은 회원에게 UPA를 지급하여 회원은 직능개발 강습을 UPA에서 수강할 수 있다는 구조이다. 현재, 게이오대학 등의 협력을 얻어 실행하기 위한 서비스이용지원시스템의 모델 구축과 실증실험을 진행하고 있다

▶ 시간예탁제도(마치다시(町田) 복지 서비스협회)

1986년 4월, 마치다시(町田)가 설립한 마치다시(町田) 재택복지서비스 공사(현, 사회복지법인 마치다시(町田)복지서비스협회)가 시민 스스로 서로 돕자는 정신을 살린 회원제의 사업으로서 개시한 「가사도우미 서비스사업(현, 가사간호이송도우미서비스)」은 시간예탁제도로써 무사시노(武蔵野)시에 이어 일본의 우수사례라 할 수 있다. 서비스의 이용회원인 고령자세대와 서비스 실시자인 정회원으로 구성되어 이용회원은 1시간에 이용요금을 지불하여 정회원으로부터 서비스를 받게 되는 구조지만, 정회원은 요금을 받는 대신에 서비스를 실시한 시간을 예탁하고 향후 자신이 이용회원이 되어 예탁한 시간만큼 서비스를 무료로 받을 수도 있다.

설립 당초의 정회원수는 306명, 이용회원세대수는 95세대로 연간 가사도우미서비스는 10,451시간이었다. 이후, 이용자가 서서히 증가해 1990년대에는 연간 총 활동시간이 20,000시간 이상을 넘게 되었다. 활동의 절정은 1999년도에 정회원수 378명, 이용회원세대수 385, 총 활동시간 수 24,252시간으로 되어있다⁴⁹⁾. 그러나 2000년도 이후는 가사도우미서비스를 포함한 간호보협제도의 발족의 영향으로 서비스 활동이 줄어들어 2004년도의 총 활동시간 수는 4,000시간 정도였다. 현재 회원 수는 정회원 220명, 활동협력자로는

49) 당시 연도의 활동시간을 1시간의 요금 800엔으로 환산하면, 1,940엔 분의 경제효과를 낳은 것이 된다.

찬조회원 150명, 이용회원세대는 320이다. 서비스 활동 시간수의 감소와 관계없이 회원 수가 줄지 않은 것은 회원들 간의 서클활동이 활발하게 되기 때문이다. 회원 간의 관계가 단순히 서비스를 받는 사람과 주는 사람이라는 관계에서 사는 보람을 공유하며 즐겁게 긍정적인 생각을 하며 살아가는 동료의 관계로 발전하면서 그 안에서 가깝게 사는 회원 동료의 자발적인 공조 생활도 나타나게 되었다.

시간예탁을 이용하는 정회원은 반드시 많진 않고, 실행한 서비스 활동시간 중에서 시간예탁된 것은 1할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 게다가, 제도발족 후 15년이 경과해도 예탁된 시간은 전혀 사용되지 않으며, 누적예탁시간 수는 25,000시간을 넘어 유통되지 않고 멈춰버린 상태이다. 그러나 회원으로부터 요구가 있으면 현금으로 청산할 수 있기 때문에 협회는 상당액의 현금을 준비해두어야 한다. 이렇듯이 시간예탁제도는 현 단계에서는 잘 기능하고 있다고 말할 수 없다. 협회에서는 현재까지 양성한 협력구조를 더욱더 확대하기 위해 시간예탁제도를 계속하면서도 지역통화 등 서로 도울 수 있는 서비스가 순환하도록 하는 구조와의 연계를 모색하고 있다.

4) 지역통화에 대한 정부의 관여

지역통화가 일본각지로 넓혀감에 따라 나라의 관청에서도 지역사회의 재생과 지역경제의 진흥을 위한 방법으로 지역통화의 가능성에 착안하게 되었다. 내각부 국민생활국 발행의 평성 16년판 국민생활백서에서는 제 2장의 부론에서 「지역의 활동을 촉진시키는 수단으로서 지역통화의 가능성에 대해 기술하며, 지역통화의 기대되는 역할 순환을 위한 방법 등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다. 게다가 지역통화를 활용하여 지역진흥을 위한 모델적인 시범사업 등을 지자체의 시책으로 직접 관여하는 경우도 나타났다. 주된 사례로서는 다음과 같다.

① 지역통화를 활용한 지역상업 등의 활성화에 관한 모델조사 사업

경제산업부 중소기업청에서는 2001년도에 「지역통화를 활용한 상점가등의 활성화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근거로 2002년도 「지역통화를 활용한 지역상업 등의 활성화에 관한 모델조사사업⁵⁰⁾」을 실시하였고, 보다 실천적인 지역통화의 활용방책을 검토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5지역을 모델 지역으로 선정해 그 고장의 시 읍, 면 등의 협력을 얻어 상업 진흥에 연계된 지역통화의 모델계획구축의 조사를 실행하였다.

- ◆ 山形(야마가타)현 高畠(타다하타)시: 도시와 농촌지역의 교류를 활용한 농촌지역의 활성화모델
- ◆ 神奈川(가나가와) 大和(다이와)시: 시민 IC카드를 활용한 모델
- ◆ 神奈川 湘南(쇼난)지역(平塚-히라츠카시, 가마쿠라시, 藤沢-후지사와시, 逗子-즈시시): 해안 미화활동, 환경 보전활동 등의 시민활동을 활용한 모델
- ◆ 神奈川 西湘지역(小田原-오다와라시, 箱根-하고네 마을, 真鶴-마나츠루마을 및 湯

50) 자세한 것은 2002년도 경제산업청 중소기업청 위탁조사사업 「지역통화를 활용한 지역상업 등의 활성화에 관한 모델조사사업」 조사보고서(일본총합연구소, 2004년 3월 발행)참조.

河原- 유가와라마을): 관광자원을 활용한 지역 활성화 모델

- ◆ 山梨(야마나시)현 甲府(코후)시: TMO를 중심으로 한 중심시가지활성화 모델

② 주민기본 대장(台帳)카드를 활용한 지역통화 모델시스템의 실증실험

총무성에서는 3개의 도시에서 지역재생지원의 일환으로서 2004년 11월부터 주민 기본 대장카드⁵¹⁾, 공적 개인 인증서비스를 활용한 지역통화모델시스템의 실증실험을 실시했다. 시스템의 기본은 이용자가 포인트(지역통화)를 저축하고, 특정 지역에서 특정한 용도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방자체체가 시스템을 운영하여 개개인의 포인트를 일괄 관리한다. 이용자는 공적개인인증서 서비스를 이용하고 컴퓨터나 휴대전화에서 시스템에 연결해 자신의 포인트를 증감시켜 지불하는 등의 용도로 쓰인다. 총무성은 실험종료 후 2005년도에 희망하는 지방자치체에 시스템의 소프트웨어를 무상 배포한다.

- ◆ 치바현 : 커뮤니티서비스사업으로서 실시. 포인트는 자녀양육과 간호 등, 지정된 지역 봉사활동 등에 참가하면 증가하고 누적된 포인트는 주차장과 홀 등 공적기관의 이용요금과 상점에서 쇼핑 시에 사용할 수 있다. 또 주민, 동료 협조에 사용되는 것도 상정한다.
- ◆ 후쿠호카현 : 환경패스포트사업으로 실시. 청소와 헌종이 재활용 등의 환경활동에 참가한 시민에게 상점, 유희시설, 호텔 등에서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를 준다. 포인트는 상품봉투를 절약하는 마이백운동, 里山(사토야마)보전활동과 환경가계부라고 하는 환경활동에 참가해도 제공한다.
- ◆ 구마모토현 : 농촌, 어촌에서의 생활체험을 목적으로 한 관광 사업으로서 실시. 도회지에서 방문한 사람에게 포인트를 부여하여 토속 명산품의 구입과 시 운영시설 등에서 이용이 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같은 시에서 농촌, 어촌에서의 생활체험을 목적으로 관광축진을 꾀한다.

오히려, 지역통화 시스템의 주기(住基)카드의 사용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의 지적이 있다.⁵²⁾

- ▷ 일본국적을 취득하지 않는 사람의 경우 영주권을 얻었다 해도 시스템에 참가할 수 없다.
- ▷ 현재 민간에서 이용이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어 일반 상거래에서 결제도구로 주기카드를 사용할 수 없다.
- ▷ 가령 민간에서 이용이 인정되었다 해도 IC카드의 해독기의 설치비용이 막대하다.
- ▷ 법인은 대상외이기 때문에 기업 간의 거래에는 사용할 수 없다.

51) 주민기본대장카드: 주민 기본 대장네트워크시스템의 서비스의 하나로서 2003년 8월 25일부터 일부를 제외한 시읍면이 희망자에 한해 교부하고 있는 IC카드, 주기시스템의 경우 본인 확인수단 뿐만 아니라 IC카드의 결제 영역을 활용한 시읍면이 조례로 정한 각종 서비스제공, 공적인 신분증명서, 공적 개인인증서비스(인터넷에 의해 행정수속 등의 경우 전자서명도 가능)의 전자증명서와 비밀 키의 보존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이용자가 적어 보급이 진행되지 않는 것이 과제이다.

52) 広田裕之씨의 사이트 「보완통화 연구소」 (www.olccjp.net/wiki/index.php?Frontpage)에서 인용.

이상과 같이 정부주도의 지역통화시스템은 모든 자치체의 시책에 관련하는 대규모의 구조이다. 이 경우, 행정이 초기에 자금과 지식(지혜)도 지원하였기 때문에 지역통화시스템을 사용하는 당사자가 「손님」이 되어 버릴 우려가 있다. 당사자들이 자신들에게 있어서 필요한 지역통화의 시스템을 확인하며 행정의 힘을 잘 이용하면서 주체적으로 만들어 가지 않으면 성공은 의심스러울 것이다.

(3) 지역통화의 활용방안

위와 같은 사례로 보듯이 지역통화는 다양한 형태를 가지고 있다. 지역통화를 활용한 사회시장형성을 생각한 다음에 그 특징을 파악하고 실천하여 활용하기 위한 이론구축을 실행하는 것이 중요하게 생각된다. 그런 까닭으로 지역통화의 전개기법과 효과에 대해서 개론적 정리를 시도하게 된다.

오히려 여기에는 어떤 지역통화를 거래에 사용할 의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의 집합체를「통화단체」라고 부른다. 통화단체에 따라서 그 구성원이 반드시 통화를 발행 운영할 단체에 가입하고 있다는 것을 요구하지 않는 사례도 있다. 따라서 어떤 사람이 통화를 받고 그것을 사용하려는 의사가 있다면 통화단체의 일원으로 본다.

1) 통화단체의 규모와 목적

통화단체의 가장 적당한 규모는 통화발행의 주된 목적에 따라 다르다. 통화발행의 목적에는 ① 지역커뮤니티의 재생 ② 지역경제의 재생 ③ 공유과제의 해결의 세 가지가 있다.

① 지역 커뮤니티의 재생

지역커뮤니티의 재생은 공조관계와 커뮤니케이션의 회복이며 서로 얼굴을 볼 수 있을 정도의 관계구축이다. 원래 법정통화시장에서 별로 친해지지 않는 커뮤니케이션과 협조로서의 서비스가 주된 거래의 대상이 된다⁵³⁾. 그 때문에 단체의 규모는 비교적 작다. 그러나 소규모집단이 다수 생기면서 포도송이처럼 전체적으로 규모를 확대하고 있는 사례도 있다.

통화단체는 구성원이 명확하고 확고한 그룹의 성격이 된다. 지역 특성에 따라 일괄적으로 적정규모는 정하지 않지만, 전국 사례에서는 대략 200명을 넘지 않는 정도가 일반적이다. 라는 것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1,000명을 넘는 경우도 순조롭게 기능을 하고 있는 사례(피넛)도 있다⁵⁴⁾.

53) 그러나, 그러면서 지역 경제 진흥에 효과를 올리고 있는 사례도 있다. 지역의 인간관계의 재건에 지역통화가 효과를 발휘하고 그 관계 속에 지역의 사업자가 참가하는 것으로 결과적으로 사업관계의 거래의 활성화가 연관된다는 구도이다. 이러한 경우는 지역통화와 법화를 병용한 거래가 실행되고 있는 것이 보통이다. 지역통화가 수요를 지역 내에 가두는 효과가 있어 법화도 함께 지역 내에서 순환하게 되는 것이다.

54) 규모 확대의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통화의 구조자체보다도 참가자, 운영자의 운영 노하우이다. 이것이 부족한 경우 기능이 제대로 되지 않을 우려가 있다.

② 지역경제의 재생

지역경제의 재생은 경제권역내의 재화와 서비스의 거래 활성화이다따라서 그 규모는 경제권역에 대응한다. 그 권역은 좁게 보면 이웃상점가의 상권정도가 되고, 넓게 보면 지방의 중핵도시를 중심으로 다수의 지자체에 걸치는 지방경제권으로 생각할 수 있다. 통화단체는 경제권역에 속하는 개인과 사업자로 구성되며 기본적으로 구성원 수는 많을수록 좋다. 또, 구성원을 명확하게 할 그룹일 필요는 없으며, 불특정 다수에게 유통이 확대되어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역통화는 법정통화시장의 경우 거래에서는 충분히 유통하지 않는(상품가치를 갖기 힘들) 재화와 서비스를 발굴하여 그 유통을 계획하는 것과 동시에 법정통화에 의한 유통을 보완하고, 법정통화의 순환을 지역화하려는 의미가 강하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법정통화와 병행을 생각한다.

③ 공유과제의 해결

공유과제의 해결은 사람들이 공유하는 특정의 생활상의 과제와 사회적 과제에 대해서 협력하고 해결해 가는 것이다. 과제는 복지, 환경, 교육 등에 관련 있는 구체적인 문제해결을 목표로 삼고 있다. 과제의 해결을 위해 통화단체가 실행하는 것은 협력관계의 구축 확대, 사회계발, 해결을 위한 사업실시 등에 대한 지역통화의 활용이다 또 통화단체 안에는 각종 지역공유과제에 해당하는 그룹이 생겨나기 쉽고, 이러한 활동의 활성화가 지역통화 그 자체 침투에 관여하는 구도도 간파할 수 있다.

과제의 성질, 내용에 따라 통화단체의 규모와 지역통화의 상황은 다양하다. 단체는 반드시 지리적 영역에 규정되어 있지 않고, 목적, 과제에 따라 다양한 지역통화의 스타일을 선택할 수 있다. 따라서 그 규모와 영역은 수많은 그룹들의 이름으로 될 수 있다.

이 다양성에 의해 ①과 ②를 연계하여 실행하기 쉽다. 과제해결을 위해 사람들의 협력관계의 구축을 주목적으로 하는 통화단체와 지역 커뮤니티 재생을 목적으로 하는 통화단체는 같은 성질을 갖기 때문에 협동의 관계를 구축하기 쉽다고 생각할 수 있다. 한편 특정과제해결을 위한 사업지원과 사업자금조달을 지역통화발행의 주목적으로 하는 것은 토속 상점가에서 지역통화를 사용하는 등 지역경제의 재생과 관련 있는 경우가 많다.

2) 통화의 발행방식

앞서서 말한 대로 통화발행의 방식에는 세 가지로 구분(①상호발행 ②대행발행 ③특정자 발행)지어 생각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구분은 서로에게 배타적인 것이 아니라 지역통화의 전개를 생각한 뒤에 편의적인 것으로 채무반제의 약속이라는 통화발행의 기본 원리는 공통적인 것이다. 아래에서 이것을 설명하겠다.

① 상호발행에 의한 통화

현재 실행되고 있는 지역통화의 다수가 상호발행방식에 속하는 것이다. 상호발행의 지역통화는 통화 단체 구성원 누구라도 통화 발행자가 된다. 구성원이 서로 거래를 실시할 때에 재화와 서비스의 제공을 받는 측이 상대에 대해서 지역통화를 발행한다. 그것은 통화단

체의 구성원 전체에 대해서 채무를 짊어지는 것과 동시에 결국은 자신이 통화단체의 누군가에 대해서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것으로 채무를 상환한다고 약속한 것을 의미한다. 결국, 통화단체의 각 구성원이 발행한 지역통화의 금액이 마이너스 포인트가 되기도 하고, 받은 지역통화의 금액이 플러스 포인트가 되기도 한다 원칙적으로는 통화단체의 각 구성원은 자신의 통화발행 잔고가 제로에 가깝도록 지역통화를 가지고 재화와 서비스의 교환을 행한다. 이론적으로 각 구성원의 개인적인 채무상황에 관계없이 통화단체 전체에서 플러스와 마이너스의 계산총합은 제로라는 것이다

이것의 첫 번째 의미는 공조적인 관계와 구조를 만드는 것을 의도한 발행방식이다 공조적인 관계를 통해 맺어진 그룹을 결성하는 것이 전제가 되어 기본적으로 외부사회에 대해서는 폐쇄된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다. 또, 구조의 원리상 지역통화와 법정통화와 교환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법정통화시장의 경우 경제상황의 영향을 받기 힘들다

모든 참가자가 통화의 발행책임을 지기 때문에 통화단체의 구성원과 발행 거래의 상황을 명확하게 해두지 않으면 성립하기 어렵다. 따라서 단체에 참가수속(운영조직에 의한 인정, 등록 등)과 구성원의 계좌관리 등이 필요하다. 또 통화의 성공여부는 구성원 상호간의 수요와 공급의 일치와 관련되기 때문에 정보제공교환대상이 되는 재화와 서비스의 리스트작성 등)과 중개 등도 요구되는 것이다. 통화단체는 운영사무국 기능을 담당해야하며 단체운영경비를 모으기 위해 참가자로부터 회비 등의 비용을 징수해야 한다 이것은 나중에 설명 할 「발행의 근거」와는 별도로 구성원으로부터 평등하게 징수해야 하는 것이다.

LETS와 「大福帳」 등에 따라 여러 가지가 지역통화가 있으며 그 차이는 주로 통화단체 참가자와 거래되는 재화, 서비스의 성질에서 나타난다. 지역 커뮤니티 재생을 위해 거래되는 것은 이른바 「상호간의 서비스」가 주가 된다. 지역경제 재생 때문에 비즈니스 거래의 요소가 짙어지고 거래대상에는 법정통화시장의 경우 상품도 포함된다 사업자가 많이 참가할수록 통화단체의 규모가 확대되는 경향이 있고 해외에서는 WIR와 이사카야와 등의 사례를 볼 수 있지만, 일본에서는 커뮤니티와 이웃상점가 등이 주체가 된 소규모 통화단체가 주류이다.

구조와 성질에 의해 실시하는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주된 문제로서는 다음 2가지를 들 수 있다.

< 제공능력의 불균형 >

이 방식은 통화단체의 구성원이 어느 정도 재화와 서비스의 제공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따라서 그 능력의 낮은 구성원이 있는 경우, 거래의 불균형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결국, 항상 서비스의 수급과 공급을 상회하거나 또는 수급만 하려는 사람이 생겨나고 그 결과 그 반대의 상황의 사람이 나타난다는 문제이다

불균형을 피하기 위해서 가장 직접적인 대책으로서는 제공능력이 낮은 사람을 통화단체에서 배제하는 방법이 있다. 일방적으로 봉사를 받을 필요가 있는 사람은 공적인 지원과 구제에 맡긴다는 생각이다. 또 훗날 봉사를 받을 것에 대비한 지역통화의 저축을 가능하게 하여 통화단체에 가족단위의 구성원이 되어 가족의 누군가가 포인트를 쌓아서 다른 누군

가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등의 방책도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통화단체의 주된 목적이 사람과 사람의 마음이 통한다는 것과 커뮤니케이션의 확립 등에 있어 서비스의 공급, 수급에 불균형이 나타나도 통화단체의 목적달성에 방해받는다든 공통된 인식이 없는 한 봉사능력의 불균형은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또 커뮤니티로서 통화단체 내에서 이러한 문제를 서로 의논하고 해결해 가는 자체로 의의가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 무임승차 >

지역통화를 발행만 하고 부담하지 않는다 결국, 재화와 서비스의 제공능력의 유무와 관계없이 의도적으로 재화와 서비스를 수급할 뿐 공급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무임승차」라는 문제가 초래할 수 있다. 이것을 방지하면, 채무의 편재가 일상화되어 유통의 정체가 생겨 모델 해저드(moral hazard)가 침투되어 결국 통화단체의 운영을 위협하게 될지도 모른다. 대책으로서는 다음과 같은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

- 미리 채무(마이너스 포인트)의 발행한도와 상환(재화와 서비스의 제공)기한을 세워 구성원에게 주시시켜 준수를 재촉한다
- 통화단체 탈퇴 시에는 채무를 상환하는 것을 규칙으로 정해 지키지 않는 경우는 법정 통화에 의해 마이너스 포인트 분을 청산한다
- 위와 같은 규칙을 지키지 않는 사람에게는 제명 재가입의 금지 등의 제재를 취한다

② 대행발행에 의한 통화

앞에서 말한 대로 통화발행의 사고방식은 상호발행이지만 각 구성원이 거래의 장에서 발행하는 대신에 통화단체의 운영조직이 통화발행을 대행한다 그 때문에 통화가 지폐 등의 형태로 넓게 통용되어 통화를 사용하는 이로움과 편의성이 증가되고 상호발행보다 광범위한 유통이 실현되는 가능성이 있다. 불특정다수자도 포함해 통화단체의 범위를 확대하려고 하는 경우에 유효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각 구성원에게 발행이 허락되는 금액을 미리 통화로서 받기 때문에 상호발행에서 나타나는 문제가 생길 우려는 적다. 다만, 나중에 기술할 미디어형태에 어울리는 리스크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더욱, 운영조직이 통화발행을 대행할 뿐만 아니라 스스로 거액의 통화를 발행하려 하는 경우(운영조직이 사업을 실행하기 위해 채무로서 발행하는 등), 또는 일부의 유력한 구성원이 대량으로 통화를 발행하려는 상황은 특정자발행의 경우와 유사한 양상을 나타내게 된다. 다음에서 기술할 통화발행의 근거에 관해서도 특정자발행과 같은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

③ 특정자 발행에 의한 통화

특정자 발행에 의한 지역통화는 어떤 조직과 단체가 어떤 의도와 목적을 근거로 사회적 효과를 노리고 특정회원이나 불특정다수의 사람에 대해 발행하는 것이다 특정자이외의 통

화사용자가 발행하는 것은 상정되어있지 않다.

지역통화의 발행주체로서 생각할 수 있는 지역의 기업 지자체(또는 지자체가 공적목적으로 설립한 기관), 토속상점회, 커뮤니티와 사회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진 NPO 등이다. 지역통화 발행의 대상은 독려하고 싶은 행동(공적봉사활동, 사회적 사업에 대한 투자, 토속상점에서의 구매 등)을 취한 사람들이 상정된다.

형태로는 나중에 설명하는 상점가진홍 등을 위한 포인트와 쿠폰의 구조를 발전시킨 것 사회적으로 의의 있는 사업에 대한 출자의 대가로서 발행되는 것 행정이 정책 목적을 가져 발행하는 것(대공황의 시대에 구미의 도시에서 발행되었던 지역통화의 다수는 이것에 해당한다) 등이 있다.

지역통화와 비교해 볼 때 이용할 의사가 있다면 누구라도 지역통화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여기저기 옮겨 다니며 유통에 관련된 요소를 갖고 상호발행에 따라 사회에 개발되어 있었던 통화단체를 형성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상호간의 신뢰를 근거로 한 상호발행의 통화와 달리 통화에 의한 거래를 행하는 사람들에게 주체적인 동기가 나타나기 힘들기 때문에 발행주체의 조직과 단체가 지역통화발행이라는 공적기능을 담당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신용을 담보할 수 있을지 어떨지가 통화유통의 관건이 된다 또, 통화발행의 의의와 목적 및 효과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 이해되며 지지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게다가, 통화발행만으로 그치지 않고, 수급의 조율과 새로운 재화, 서비스의 창출도 시야에 두고 유통환경 만들기를 실행하는 것이 불가결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단독으로 주체가 되어 발행하는 것보다도 지역의 유력한 관계주체가 연계해서 운영조직을 만들고 통화를 발행, 운영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본다. 해외에서는 토론토 달러가 성공사례가 된다.

3) 통화발행의 근거

① 상호발행, 대행발행의 경우

통화 단체의 모든 구성원이 통화발행자가 되는 상호발행방식의 경우 각각의 구성원이 통화단체의 커뮤니티에 제공할 수 있는 재화와 서비스의 성질이 발행의 근거가 된다 따라서 각 구성원이 발행할 수 있는 통화의 금액은 각각의 재화와 서비스의 제공능력에 따라서 반드시 되돌아온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지역통화에 따라 본격적으로 통화거래 활동을 실행하려고 한다면 과잉 통화의 발행과 통화의 인수가 과대하게 되지 않도록 하나하나 구성원에 대해서 미리 통화단체의 커뮤니티에 제공할 수 있는 재화와 서비스의 양과 사업 활동 중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지역통화의 금액을 예상하여 거래의 상황에 따라 그것들을 조정해 갈 필요가 있다. 그러나 통화단체의 목적이 공조적인 커뮤니티의 관계구축 등이면 엄밀한 취급은 오히려 마이너스 효과가 될지도 모른다 결국, 통화발행에 따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운영조직에 따라 적정한 규칙 만들기과 구성원에 대한 조언 개발 등이 필요할 것이다.

더욱, 통화단체의 운영조직은 스스로 통화의 발행채무)자가 되지 않은 것이 원칙이다. 통화 단체 가입 시에 구성원이 운영조직에서 지역통화를 인수하는 대행발행 같은 경우 운영조직이 통화를 발행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 지지만 그것은 구성원이 통화단체의 거래에

참가하기 위한 동기부여로서 구성원이 스스로 빌린 것으로 받은 포인트 분의 통화단체의 채무가 나타난다는 것이다⁵⁵⁾. 따라서 탈퇴 시에는 같은 금액의 포인트를 통화단체에 반환해야 하며, 사용한 포인트 분의 재화와 서비스도 통화단체의 커뮤니티에 제공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렇지만, 통화단체의 운영조직이 구성원에게 법정 통화와 교환으로 동액상당분의 지역통화를 건네야하는 경우가 있다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면 좋을까? 이대로는 통화단체 내에 플러스 포인트가 초과한 상태에서 상호발행에서는 일어나지 않는 수급의 불균형이 생길 것이다. 구성원이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하는 동기가 나타나기 어려워지고 그 때문에 통화를 사용할 기회도 적어진다

한 가지는 운영조직자체가 법정통화를 받는 것으로 채무자가 된다는 사고방식이다 이 경우, 지역통화를 법정통화로 교환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그 대신에 운영조직은 수급(需給)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때문에 받은 법정통화를 자본으로 구성원에게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스스로 실행하는 책임이 있을 것이다⁶⁾. 이러한 대응을 실시하지 않은 결과 상점 등의 일부 구성원이 지역통화를 사용할 기회를 얻지 못하고 운영조직이 지역통화를 법정통화로 교환할 수 없는 상황도 나타난다⁷⁾.

다른 한 가지는 운영조직이 구성원에게 예탁한 법정통화를 근거로 통화를 발행하는 사고 방식이다. 이 경우, 통화의 형태가 지폐로써 불특정다수에게 유통을 의도한 점들이 많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구성원이 제공하는 재화를 근거로 하지 않는 이상 통화에 따라 활발한 시장거래가 실행된다고는 생각하기 힘들다. 이러한 통화단체는 운영형태가 상호발행방식처럼 보여도 오히려 자원을 근거로 한 특정자 발행방식에 준한 것이다 따라서 운영조직은 지역통화를 법정통화로 교환하지 않으면 안 된다

운영조직이 받은 법정통화를 통화단체 탈퇴 시 구성원의 마이너스 포인트를 법정통화에서 청산하기 위해 담보금과 교환하려는 사고방식도 있을 수 있지만 통화단체 내에 일상적인 수급의 불균형을 창출해내기 때문에 그다지 생산적이라고는 할 수 없다

② 특정자 발행의 경우

특정자 발행의 지역통화는 발행자의 채무에 토대로 한 채권이라는 성격을 갖는다 따라서 통화발행의 근거는 채무의 반제수단으로서 발행자가 준비한 재화이하 여기에서는 「원자(原資-재정 투융자의 바탕이 되는 자금)」이라 한다)이다. 원자의 부담자가 발행한 통화가 지역 내에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의 거래에 사용되면서 여기저기 옮겨 다니며 유통되어, 최종적으로 발행자의 것으로 되돌아와 역할을 끝맺는 것으로 기대된다. 최후로 원자와 교환 가능하다는 것이 통화에 신용을 부여하고 유통을 담보하는 것이다 원자를 단독의 출자자가 부담하는 것과 다수의 주체가 부담하는 것이 있다. 원자로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55) 지폐에서 운영되고 있는 통화단체에서는 양도된 지역통화의 포인트가 구성원에게 인정되었던 채무한도액이 된다. 이 이상의 지역통화를 사용하고 싶을 때는 스스로 통화를 모으지 않으면 안 된다.

56) 극단적인 구도를 그리면 빠징코 점처럼 운영조직(가게)대 구성원(손님)의 거래관계가 되어버리는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통화가 단체 내에서 순환적으로 유통하듯이 사업을 디자인할 필요가 있다.

57) 大和시의 NPO법인에 의한 지역통화 「성황하는 러브」에서는 상점, 사업자에게 최고로 모은 지역통화를 엔으로 교환할 수 있게 하였다.

기업과 상점회 등의 잉여재산, 행정의 재산 등이다. 또 원자를 부담하는 방식으로 발행된 지역통화의 최종적인 수익의 부담자를 미리 명확하게 해두는 방법이 있다. 최종적인 수취인으로 상정된 것은 예를 들면, 지역통화의 발행취지에 찬동하는 지역 사업자 또는 자치체 등이다. 최종적인 인수인이 거래에서 얻은 지역통화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원자를 부담(결국, 받은 지역통화분의 발행에 수반되는 채무를 반제한 것이 된다).

원자는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것이라면 기본적으로 무엇이든지 상관없지만 법정통화의 경우와 이 이외의 재화의 경우를 생각해 보자

법정통화를 원자로 할 경우, 지역통화는 법정통화의 대체라는 성질을 가진다. 법정통화와의 대비가 쉬워 알기 쉽고, 신뢰를 얻게 되어 받아들이기 쉽다는 장점이 있어 지역 내의 유통을 촉진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지역 내에서 재화와 서비스를 양성해가는 요소와 동기부여가 적어 최종적으로 법정통화와 교환되기 때문에 지역 내의 순환의 고리를 벗어나 지역의 부가 외부에 유출할 가능성도 크다.

또 지역통화는 법정통화와 교환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일반적으로 지역통화보다도 제약이 적어 널리 사용되는 법정통화의 경우를 선호하기 때문에 법정통화와의 교환을 인정한다면 지역통화가 사용되지 않는다. 지역통화발행의 원자가 법정통화인 경우 이 원칙을 기준으로 삼는다는 문제를 안게 된다. 특히 발행한 지역통화를 자유롭게 같은 가격으로 법정통화와 교환할 수 있게 한다면 지역통화는 유통되지 않고 바로 발행처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따라서 지역통화를 법정통화와 교환할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지나지 않으면 교환할 수 없다, 교환비율을 법정통화에서 지역통화로 교환하는 경우보다 낮게 한다, 교환수수료를 부과 한다 등의 어느 정도의 제한과 유도방책을 세울 필요가 있다.

게다가, 지역통화와 법정통화와의 교환을 실시할 경우비율이 존재하게 된다. 비율이 변동되든 고정되든 상관없이 가격변동 등 외부경제의 영향을 크게 받는 것은 피할 수 없다는 점을 상정해두어야 한다.

지역사회의 부를 창출하는 힘과 자립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자원은 법정통화보다도 지역의 노동과 자원에 근거하여 산출되는 재화와 서비스인 것이 바람직하다. 성질은 시장에 받아들이기 쉬워 구분 없이 사용한다는 점이 용이하다. 원자가 지역에서 생산해낸 상품과 서비스라면 외부경제의 영향을 받을 경우는 적어 지역 내의 자원순환을 만들기 쉽다. 자원은 단하나의 재료로 한정할 필요는 없고, 가능하면 복수(複數)의 재화를 조합시켜도 좋을 것이다.

한편, 원자가 법정통화인 경우에 비해 지역통화의 가치가 구체적 상품으로 규정되는 것으로 유통동기 부여가 약해질 가능성이 있다. 시장에 흡수되기 쉬운 재화를 지역 내에서 발굴하고 또는 창출하는 것은 결코 쉽지만은 않다.

또 원자가 법정통화이외의 재화였어도 지역통화가 유통하지 않고 발행처로 돌아가게 되어 버리는(결국, 곧 원자인 상품과 서비스와 교환되어버림) 가능성이 상정된다. 따라서 원자가 법정통화인 경우와 같이 교환 제한을 세우는 등의 대응방책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하여간, 통화의 유통을 확대한 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원자에만 의지하지 말고 상호

발행방식과 같은 통화사용자가 서로에게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환경을 구축해야 한다(통화발행자는 그 책무를 부담하지 않으면 안 된다⁸⁾).

<원자(原資)없는 지역통화>

발행자가 원자를 준비하지 않고 지역통화를 발행하는 경우이다 이것은 지역통화의 시장에 입구가 있어도 출구가 없는 상황, 결국, 지역통화의 최종적인 수취인이 상정되어있지 않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어떤 공익을 목적으로 한 사업에 출자(기부)를 더해 그 담보로 지역통화를 발행하는 경우 모은 자금은 원자가 되지 않는다 별도 원자를 확보하지 않으면 「출구 없다」는 지역통화발행이라고 한다 이 경우, 누군가가 지역통화의 최종수취인이 되지 않으면 통화에 신뢰가 생기지 않고 통화시스템이 성립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원자 없는 지역통화의 경우 지역의 상점 등이 지역통화에 의해 상품의 판매를 받아들이는 것으로 사실상 지역통화의 최종인수자가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할 수 있다 결국, 상점이 결과적으로 원자의 부담자라는 것이다. 다만 누군가가 지역통화의 최종인수자가 되기에는 그것 나름의 장점 또는 동기가 없어서는 안 되며, 이러한 것들이 결핍된다면 통화의 유통 확대는 기대할 수 없게 된다.

그러나, 통화단체가 영속적으로 통화가 장래에 걸쳐 반드시 거래에 사용된다는 광범위한 신뢰가 있다면 발행의 근거가 없어도 통화는 유통가능하다 원자와 교환하는 동기와 의미가 소멸되기 때문이다. 그 조건으로는 현재 그 지역통화에 의해 거래가 안정적으로 실행되는 경우, 통화단체의 이념과 목적이 지역에서 널리 지지되고 있는 경우 지역통화에 의한 거래에서 입수가능 할 재화와 서비스의 가치와 품질이 신뢰할 수 있는 경우 등이다 발행 주체로서 신뢰도 중요한 요건이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예를 들면 신뢰도가 높은 공적기관(자치체 등)이 공공사업에 기부와 자원봉사의 「사례」로서 발행한 지역통화가 법정 통화와 교환될 수 없어 행정 서비스 수급에도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경우 이 지역통화가 무조건으로 유통한다는 기대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통화단체의 구성원에는 공통적인 사명감이 있어 발행근거가 없는 지역통화를 유통시키려고 하는 강한 의사가 있는 경우에는, 일정한 범위에서 유통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광범위한 통화단체를 형성하여 유통을 일반적으로 확대하는 것은 곤란할 것이다

지역통화를 발행하는 당초에는 우선은 확실한 자원에 근거해서 적정하게 발행하고 지역통화에 대한 신뢰의 확립에 노력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 발행한 지역통화가 모두 자원과 교환되는 것은 끝이 없다. 지역통화의 목적은 자원과의 교환이 아니라 거래의 매체가 되는 것이다. 지역통화가 본래의 목적에서 사용되게 된다면 원자와의 교환율은 감소한다 통화에 대한 신뢰가 높아져 통화에 따라 거래가 확대되고 계속적으로 실행된다면 원자를 뛰어넘는 통화 발행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통화의 공급량조정>

58) 꼭 지역통화의 유통을 주목적이 아닌 경우도 있다. 예를 들면 상점가의 고객확보와 환경 부하경감활동의 계발 등을 목적으로 발행하는 지역통화 등에서는 바로 상품구입에 사용되는 것을 상정하는 것도 있다.

지역통화의 유통이 어느 정도 확보 된다면 통화 공급량의 조절이 문제가 된다 통화 공급량이 지역통화시장의 허용한도지역통화에 의한 재화와 서비스의 거래량을 넘으면, 「통화여분」의 상태가 된다. 법적강제력이 있는 법정통화와 달리 지역통화에 의한 인플레이재화와 서비스의 상품가치의 고등(高騰))는 생각하기 어렵지만⁵⁹⁾, 지역통화에 의한 거래의 거부와 지역통화자체의 거래가치의 상대적인 저하재화와 서비스를 얻기 위해 많은 지역통화의 지분을 요구할 수 있다가 나타날 수 있다. 시장의 가격조정기능에 의해 어떠한 통화여분은 해소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⁶⁰⁾, 극도의 통화여분은 지역통화에 신뢰를 잃게 하는 요인이 되며, 지역사회의 신용을 잃으면 통화의 유통은 멈추고 만다 그 때문에 통화발행자에게는 통화의 과잉발행을 피하는 것과 동시에 지역통화시장의 동향을 항상 감시하고 통화 공급량의 적정관리를 실시하는 것을 요구한다 특히, 발행의 근거(原資)를 뛰어넘은 원자에 토대를 두지 않는 통화의 발행은 주의를 요한다

그러나 과잉한 통화 공급이 되지 않는 한 공급량조정은 어느 정도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지역통화시장에서도 실제로 공급이 한정되어 있는 상품은 적어 지역 내의 시장에서 수급균형이 붕괴되면 이것을 교정할 시장의 힘이 효과를 내게 된다 또 법정통화와 그 밖의 통화 공존이라는 통화시스템의 문제와 재화와 서비스의 수급과 가격의 결정 메카니즘은 구별해서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지역통화가 광범위하게 대량으로 유통해도 지역 내 경제의 자기 완결성을 증가하는 결과가 있으면서 일반적인 경제에 마이너스 영향은 생각하기 어렵다.

4) 통화의 형태

지역통화의 발행목적과 어떠한 유통을 목표로 하는가에 따라 지역통화는 몇 가지의 다른 미디어(수단, 매체)의 형태를 갖는다. 이하, 지역통화의 형태와 특징과 성질에 대해서 살펴보자.

① 통장

통화단체의 참가자가 상호간의 지역통화를 발행하는 경우의 형태이다 참가자 전원이 같은 통장을 소지하고, 거래성립 시에 날짜, 상태, 거래내용, 액수, 잔고를 서로의 통장에 기입하는 다각적인 결산방식이다.

다음과 같은 특징, 효과를 생각할 수 있다.

- ◆ 거래에 따라 대화내용이 깊어진다.
- ◆ 통장에 거래기록이 남기 때문에 통화의 유통경로를 보충하기 쉬워 부정이 일어나기 어렵다.
- ◆ 통화의 발행액을 참가자가 자유롭게 설정가능하다.
- ◆ 발족시의 비용과 시간이 그다지 걸리지 않고 같은 모임에서 손쉽게 시작할 수 있다.

59) 법정 통화화로 시장에서 수급균형을 취하고 있는 상품의 거래에 지역통화가 사용되게 되었어도 법정 통화와 시장자체는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가격의 고등(高騰)을 초래할 가능성은 적다.

60) 지역통화의 거래가치 저하에 따라 사용을 자제하거나, 지역통화 자원과의 교환이 촉진되거나 하는 결과, 통화여분의 상태가 저절로 해소된다는 시장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한편, 다음과 같은 단점이 있다.

- ◆ 거래 시의 통화기입과 잔고의 합계관리가 번잡하여 기입시의 기입실수가 생기기 쉽다
- ◆ 통장을 고의로 고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문제는 공동체의 규모가 크면 클수록 증가한다 이 형태에서는 저절로 공동체의 규모는 서로의 얼굴을 볼 수 있을 정도의 범위로 한정된다고 본다

② 지폐, 코인, 칩

대행발행과 특정자 발행에 따라 지역통화의 경우에 이용되는 형태이다 독자적으로 지폐, 코인, 칩 등을 인쇄하여 작성하고 통화로서 발행한다 이것들이 불특정다수의 사람들의 거래에 이용되어 여기저기 옮겨 다니며 유통하는 것이다.

다음과 같은 장점, 효과를 생각할 수 있다.

- ◆ 법정통화와 같이 거래가 간편하여 무기명으로 누구라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불특정다수가 이용할 수 있다.
- ◆ 지폐에 인쇄된 메시지와 코인 등의 형태 소재에 따라 발행목적을 넓게 어필할 가능성이 있다.
- ◆ 잔고관리의 필요가 없어, 발행한 후에 시간이 비교적 걸리지 않는다

한편, 다음과 같은 단점이 있다.

- ◆ 유통경로를 보충하기 힘들다.
- ◆ 위조될 가능성이 있다.
- ◆ 다른 형식의 통화보다도 분실 및 저장될 기회가 많다.
- ◆ 발행량의 조절, 관리가 곤란하다.
- ◆ 발행에 관한 법률상의 문제가 깨끗하지 않아 법률에 위반할 가능성이 있다

③ 어음(채무증서)

통화단체의 참가자가 상호간의 발행하는 경우의 형식이다 거래성립 시에 재화와 서비스의 수령자가 새로운 어음(채무증서)을 발행 하던가, 이전에 받았던 어음으로 이서를 해서 지불한다. 어음은 이서를 되풀이 하여 유통해서 발행자에게 되돌아 왔을 때에 청산된다.

지폐와 통장의 양쪽 성질을 구비하여 다음과 같은 특징 효과를 생각할 수 있다.

- ◆ 통장에 비해 집계 등의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
- ◆ 통장과 같이 통화의 발행액을 참가자가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다
- ◆ 이서의 시간이 있지만 상대가 동의하면 지폐처럼 간편하게 누구라도 사용 가능하다

한편, 다음과 같은 단점이 있다.

- ◆ 발행할 때에 시간이 걸린다.
- ◆ 일본에서는 그다지 친숙하지 않아 받을 때에 거부감이 생기기 쉽다.

채권채무의 관계는 명확해서 최후에는 발행자가 받는다. 발행, 유통의 관리는 곤란하기 때문에 과잉발행 등의 문제가 나타날지 어떨지는 발행자의 책임능력에 달려있다

④ 전자머니

어느 발행방식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형태이다. 발행된 통화와 거래정보는 컴퓨터 데이터베이스상의 구조에 전자정보로서 기록되어 개인 컴퓨터, 휴대전화 등에 의해 인터넷의 통신과 IC카드 등을 사용해서 거래결제를 실행한다

다음과 같은 특징, 효과를 생각해 볼 수 있다.

- ◆ 지폐와 통장 등의 인쇄비용이 들지 않는다
- ◆ 상호발행방식의 경우, 기장과 잔고의 집계, 관리의 시간을 절약하여 통화단체의 규모의 확대가 가능하게 된다.
- ◆ 익명성이 없어 유통경로의 보충도 하기 쉽다
- ◆ 지역을 초월하여 먼 곳과의 거래가 손쉽게 실행할 수 있다
- ◆ IC카드의 활용에 따라 통화를 코인처럼 손쉽게 취급하는 것이 가능하다
- ◆ IT의 활용으로 법정통화와의 병용의 거래를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한편, 다음과 같은 단점이 있다.

- ◆ 잔고를 소유한 돈으로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관리조직에 조회할 필요가 있다
- ◆ 시스템과 설비의 구축에 많은 금액의 투자가 필요하고 운영비용도 걸린다.
- ◆ 데이터베이스에서 정보 관리되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의 대책이 필요하다
- ◆ 현 상태에서는 기기의 조작 등의 이유 때문에 결제가 번잡하다.

전자머니는 다른 통화형태와 병용과 통화운영상의 과제해결 운영주체의 다른 통화간의 연계를 가능하게 하고, 각종통화의 기능을 통합 공유화 등, 지역통화의 가능성을 확대시킬 요소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중앙집권적인 정보관리시스템에 연결된 요소도 겸비하고 있다. 지역통화가 사회시장의 유연한 미디어로서 기능하기 위해서는 단독의 운영구구에 기능과 권한을 집중하여 관리하게 하는 방식보다도, 다수의 관계주체가 네트워크를 구축하면서 운영하는 전자머니의 가능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5) 가치의 참조기준

지역통화가 교환가치의 측정기능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가격기준을 가져야 한다. 일반적으로 지역통화의 가치 참조 기준은 ① 노동시간, ② 법정통화, ③ 그 이외의 특정 재화로 어느 것이든 설치되어있다. 어떤 것을 채용하는지는 지역통화에 따라 거래 시스템에 의해 대략 결정된다. 꼭, 통화발행의 근거에 대응할 필요는 없다

① 노동시간

상호발행방식의 대다수의 지역통화가 노동시간을 가치 참조기준으로서 삼고 있다. 서비

스는 소요시간으로 일률적으로 평가하는 사례가 많다. 어떠한 서비스라도 단위시간(1시간 30분정도)당 얼마라고 하는 설정이다. 서비스의 질과 전문성을 평가에 포함하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 이것은 공조적 거래의 성격을 중시하기 때문이다. 법정통화와 연결되지 않지만 외부경제의 호황 불황 등에 따라 노동시장의 경우 자금수준의 동향에 영향을 받게 된다. 거래의 대상으로 상품 등의 물건을 포함하지 않고 서비스에 제한하는 사례도 있다. 그러나 거래내용의 규제 유무에 상관없이 통화시스템 자체는 기능하기 때문에 제한이 지켜지지 않는 경우도 많다.

② 법정통화

발행방식에 상관없이 지역통화에 따라 거래의 대상을 제한하지 않는 경우는 참조기준을 법정통화에 두는 사례가 많다. 이 경우, 거래대상이 되는 재화와 서비스의 법정통화에 따라 가격을 참고하여 당사자 간의 교섭에서 가격이 설정되는 경우가 많다. 이 방법은 거래의 대상을 확대하고 가격설정의 자유도를 높이기 위해 유효하다. 또, 법정통화와의 병용과 교환이 실행되기 쉽다. 한편, 외부경제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기 쉽다.

③ 특정의 재화

특정자발행의 지역통화에서 원자라는 재화가 있는 경우 그것이 가치의 참조기준이 되는 경우가 많다. 또, 통화발행의 근거 없는 재화에서도 지역의 특산물과 가격의 안정된 토속품의 재화가 참조기준이 되기도 한다. 지역의 참조기준이 될 수 있는 재화가 존재한다면 경제에 의한 가격변동의 영향을 받기 힘들게 하기 때문에 많은 재화를 SET로 하여 가치의 참조기준으로 하는 방법도 있다.

6) 법정통화의 병용(併用)

법정통화의 병용은 법정통화에 따라 가격이 설정된 상품과 비즈니스로서 서비스 대금의 일부를 지역통화에 의해 지불하는 것이다. 가치의 참조기준이 법정통화가 되는 지역통화라면 법정통화와의 병용이 실행되기 쉽다.

지역통화를 받아들이는 비율은 상품과 서비스에 따라 미리 기준을 설정해둔 경우와 거래 때마다 교섭하여 결정하는 경우가 있다. 상호발행방식에서는 통화단체의 각 구성원이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 기본이다. 그 경우, 일정기간에 자신이 지역통화에서 구입할 수 있는 예정의 재화와 서비스의 가격과 그 기간에 있어서의 자신이 제공할 예정의 재화와 서비스의 가격총액과를 대비시켜서 지역통화를 받아들이는 비율을 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지역통화와 병용되는 것에 의해 법정통화는 지역통화의 유통범위 내에서 유통하게 된다.

지역통화와 법정통화와의 병용거래가 진행할수록 권역(圏域)내에서 가치의 순환이 촉진되어 지역경제가 활성화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법정통화와의 병용의 확대는 통화단체의 사업자 참가 증가와 지역통화에 의한 거래의 일반화(지역통화에 익숙한 사람이 증가

한다)에 관련 있는 지역통화의 유통을 더욱 촉진한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지역자원의 순환확대를 목표로 한 지역통화의 운용에 적중해 법정통화와 병용을 적극적으로 진행시켜야 할 것이다.

외부경제의 영향(호황, 불황 등)은, 지역통화 수급비율을 조정하는 것보다 어느 정도 완화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면, 불황 때문에 평소의 가격에서 팔리지 않는 상품이 지역통화의 수급비율을 높이기 위해서 팔리는 등의 효과를 생각 할 수 있다

7) 통화의 용자

통화 단체의 규모가 상당히 어느 정도인 경우는 지역통화에 의해 용자도 실행 된다).

일반적으로 용자의 대상으로서 상정된 것은 사업자이고 용자하는 것은 사업자금이다. 당연히 사업에 필요한 자재 등이 지역통화에 의해 조달할 수 있는 것이 전제가 된다

상호발행과 대행발행의 지역통화의 경우 스스로 통화를 발행하기 위해 「용자」라는 개념은 생기기 어렵다. 그러나 통화단체의 구성원이 사업자금등에 충당하기 위해 통상 받아들였던 발행한도액을 넘어선 다액의 지역통화를 일시적으로 발행하고 싶을 때에 통화단체가 구성원에게 한도액을 넘은 통화의 발행을 특별하게 인정하는 경우는 용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그 때는 미리 반제(마이너스 포인트의 해소)계획을 세워, 반제기간 내에 정기적으로 일정량과 재화와 서비스를 통화단체지역통화시장에 제공하여 지속하는 것을 요구할 것이다.

특정발행자의 경우, 용자와는 채무를 발행자에게 부담 받는 형태에서 지역통화의 발행을 받게 되는 것이다. 용자를 받은 사람은 통화발행자가 독려할 활동에 참가하던지 지역통화시장에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따라 지역통화를 누적해 통화발행자에 반제한다

결국은 지역통화의 발행은 시장에 나오는 재화와 서비스가 기본이어야 한다 많은 액수의 지역통화를 발행하여 통화시장에 흘러 넣는 일은 일종의 신용창조²⁾에 관련될 가능성이 있다. 단기적인 목적으로 용자를 확대하는 것은 지역통화의 원칙에 위반되지만 이자 없는 지역통화도 법정통화와의 병용에 따라 투기적거래토지와 주식 구입 등)에 이용될 가능성이 없다고는 할 수 없다. 따라서 용자의 경우에는 필요한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기 위해 실질적인 투자가 되도록 엄밀한 심사가 필요하다. 또 용자의 가부는 사업자체의 사회적 의의와 사업성립의 전망에 따라 판단해야하며 생활자산을 담보로 한 용자는 사용해서는 안 된다.

지역통화에서는 이자를 징수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수수료 징수는 할 수 있다)이기 때문에, 지역통화에 의해 자재 등이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다면 이자 있는 법정통화에 의한 용자보다도 사업자에게 있어 유리하다. 또 반제능력이 있는 사업자에게 지역통화의 용자는 지역통화에서의 거래를 증가하게 하고 지역시장을 활성화시키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지역의 경우 재화와 서비스의 공급량과 지역의 고용을 증가하여 사람들의 생활기반

61) 해외에서는 이사카야와 WIR 등의 사례가 있다.

62) 신용창조: 은행 등의 금융기관이 예금을 고객에게 대출하고, 그 대출금이 또 예금된다는 과정이 반복되어 원래의 예금의 몇 배가 되는 예금통화를 창조하는 일.

을 단단히 하는 것과 관련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사업자육성의 시점에서 적극적으로 용자의 의의를 파악해야 할 것이다.

한편 용자의 실패는 통화운영전체에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충분한 리스크대응이 필요하다. 통화단체의 운영조직에는 사업자에게 반제능력이 있는지 어떤지를 확인하여 사업계획, 반제계획을 심사, 조언할 수 있는 전문성이 요구된다. 또 기본적으로 장기에 걸친 용자는 실행하지 않도록 한다. 만일 반제가 불가능하게 되었을 경우의 대응도 충분히 강구해 둘 필요가 있다.

8) 통화상호의 교환

지역통화를 운용하여 유통시키기 위해 통화상호의 교환을 실시하는 것은 통화의 용도와 가능성을 증가하여 유통의 확대에 관련된 요소를 갖는다. 교환의 대상으로서는 ① 법정통화, ② 기업통화, ③ 다른 지역통화를 생각할 수 있다. 이하, 그 가능성과 과제에 대해서 설명하자.

① 법정통화와 교환

앞서서 말한 대로 지역통화와 법정통화와의 교환은 원칙으로서 실행되지 않는 것이 된다. 특히 상호발행의 지역통화의 경우, 법정통화와의 교환은 공조로 성립한 구조 자체와 서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경제활동에 있어서는 지역 내에서 조달할 수 없는 재화와 서비스를 지역외부로부터 구입하는 모습은 많아 다음에서 말하는 것처럼 통화단체의 구조의 외측에서 자발적인 지역통화와 법정통화와의 교환이 실행될 가능성이 있다.

특정자발행의 지역통화에서 원자가 법정통화인 경우의 문제와 대응에 대해서는「통화발행의 근거」의 항목에서 기술한대로다.

② 기업통화와의 교환

기업통화란 기업이 고객확보를 위해 발행하는 할인 포인트 용도를 확대하여 제휴하는 타사가 제공하는 상품과 서비스의 구입에도 사용하도록 한 것이다. 사례로서 항공회사가 발행하는 마일리지⁶³⁾ 등이다.

기업통화를 기업의 고객에서 구성하는 특정자발행형통장단체의 Community currency라고 파악되면 지역통화의 일종이라고 할 수도 있다(거꾸로 지역의 상점회 등이 발행하는 지역통화에서 고객확보를 노리는 것은 기업통화의 일종이라고 간주할 수 있지만 여기에서는 상점가 진흥도 지역생활화의 일환으로 지역통화라고 파악한다) 일반적으로 지역통화가 일정의 지역 내에 재화와 서비스의 순환을 생산하는 실험이 있었던 것에 반해 기업통화는 제휴기업간의 서비스 네트워크 내에 고객의 소비행동의 순환을 창출해내는 시험이라고 할 수 있고, 기본적인 구조는 같지만 대상과 노리는 것에 있어서 위상의 차이가 있다.

63) 마일리지: 각 항공회사가 고객을 유치할 목적으로 도입한 제도로 승객의 탑승거리에 따라 포인트를 발행하여 일정한 포인트가 쌓이면 항공권과 교환한다고 하는 포인트 프로그램이 발전하고, 특약점에서의 쇼핑에 이용할 수 있거나, 역으로 항공기에 탑승하지 않아도 제휴회사와 특약점에서 상품 구입으로 포인트를 가산되거나 하는 방법으로 진화하여 일종의 기업통화로서 기능을 하고 있다. 최근에는 은행과 가전양판점이 발행하는 포인트와의 교환이 가능하게 되는 시스템도 등장했다.

특정자발행의 지역통화와 기업통화가 같이 법정통화를 원자로 하고 가치의 참조기준을 법정통화에 놓고 있다면 원리적으로 교환은 가능하다. 구체적으로는 교환에 관한 발행자간의 합의와 운용약속이 근거로 창구를 만들어서 교환에 응하게 되는 것이다.

가령, 기업통화에서 지역통화에 교환을 지역통화발행자의 창구에서 행해져 지역통화발행자가 입수한 기업통화의 법정통화에 교환으로 기업통화발행자가 응한다면 지역통화의 유통촉진으로서 바람직한 사태이다. 기업통화발행자가 지역통화의 간접적인 자원출자비가 되기 때문이다.

반대로 지역통화에서 기업통화로 교환은 지역통화발행의 원자가 외부의 기업에 유출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지역통화의 유통촉진에 있어서 바람직하지 않다. 교환된 기업통화가 지역통화의 권역에서 사용되는 것도 그다지 기대할 수 없다. 따라서 지역통화발행자로서는 기업통화에서 지역통화로 교환이 진행하려는 조건에서 기업통화발행자와 교환해야 할 것이다.

기업통화발행자에게 있어서는 교환에 의해 발생하는 직접적인 장점 특히 지역통화를 입수하는 것의 장점은 생각하기 어렵고, 그것이 지역통화와의 교환에 응하는 유인이 되기에 상정하기 어렵다. 오히려, 지역통화의 유통권역내의 경우 기업통화의 이로움과 편리성(기업통화로서 뿐만 아니라 지역통화로서도 사용할 수 있다)을 높이는 일이 기업이미지의 향상과 고객확보에 관련될지 어떨지의 판단이 큰 요인이 될 것이다.

③ 다른 통화와의 교환

많은 지역통화가 실천된다면 다수의 지역통화의 유통권역이 중복할경우가 늘게 될 것이다. 그러면 지역의 사람들에게 선택지가 생겨나고 어떤 지역통화에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와 별도의 지역통화에서는 내용이 다르다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기본적으로는 지역통화이용자로서 다수의 통화가 사용되면 이로움과 편리성이 증가하기 때문에 지역통화의 교환문제가 생긴다.

그중 내에서 통용하는 상호발행의 지역통화는 그 조직상의 다른 지역통화와의 교환은 있을 수 없다(나중에 설명하겠지만, 통화 간 결제의 조직을 만드는 것은 가능하다). 특정자발행의 지역통화끼리의 교환은 원자와 가치의 참조기준에 따라 대응관계를 명확하게 할 수 있지만, 원리적으로 가능하다. 실제로 교환을 실시하기에는 지역통화발행자상호간에서 교환을 실시할 기관을 설치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 경우, 다음의 경우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를테면, 복수의 지역통화의 유통권역이 중복하는 경우 유통력이 강한 지역통화가 통화에 교환이 진행되고 그것이 한층 촉진될 가능성이 있다. 지역통화의 발행에는 각각의 목적과 이념이 있어 유통력이 강하기 때문에 구축되는 것이 반드시 좋지만은 않다. 또 발행목적의 점에서 교환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지역통화의 상호 교환에 대해서는 그 결과도 확인하고 신중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

더욱, 지역통화의 형태가 지폐 등이라면 상기①~③의 모두에 있어서도 지역통화의 이용자끼리의 자발적인 교환이 실행될 가능성이 있다. 그것은 통화발행자의 의도에 상관없이 통화의 이용자 측의 동기에 바탕을 두어 실행되고 발행자가 제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지역통화의 자발적인 교환은 통화자체의 교환가치에 바탕을 두고 있어 지역통화에 유통력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의 증거라고 할 수 있다. 지역통화시장이 이만큼 성숙했다고 보일 수도 있다. 만약, 지역통화의 가치의 참조기준을 벗어난 통화 간의 거래가 제멋대로인 상황이 된다면 지역통화에 대한 신뢰가 없어져 운영의 위기에 빠질 수 있지만 지역통화에 따라 실질적인 재화와 서비스의 거래가 건재하다면 이러한 일종의 머니게임이 생길 여지는 적다.

9) 통화의 할인된 가격(減價)

지역 내의 자원순환을 촉진하는 수단으로 지역통화는 저장되지 않고 항상 유통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 방법으로 지역통화에 마이너스 이자를 붙여 결국 시간의 경과에 따라 지역통화의 할인가를 적용하는 것이다. 통화의 할인가는 통화사용의 동기를 증진하지만 한편으로는 통화수취의 동기를 감퇴시킨다.

지역통화의 할인가는 벨그르의 노동증명서의 예에서 보듯이 그것이 사실상 지역경제의 경우 지배적인 통화인 경우에 최대효과를 볼 수 있다. 지역통화 이외의 거래매체가 아닌 경우는 할인가에 따라 지역통화에서의 거래 촉진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오히려 지역통화는 거래매체로서 선택되지 않게 되어 유통이 방해될 가능성이 있다.

상호발행에 의해 단한 통화단체에 있어서는 거래 촉진효과가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같은 지역에 별도의 상호발행에 의한 통화단체가 존재하는 경우 다른 통화단체가 선호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지역통화의 할인가는 그 통화의 성질과 목적 지역의 사회특성과 경제 상황, 다른 통화의 유통 상황 등을 근거로 삼아 지역통화의 이용자가 거래의욕을 잃지 않도록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10) 통화단체의 운영조직

통화단체를 소수의 무리와 그룹으로 운영하는 경우는 사무국적 업무는 멤버간의 역할분담과 중심멤버의 개인적인 노력으로 일을 처리하기 때문에 특단의 운영조직을 생각할 필요는 없다고 보지만, 단체가 수십 명을 넘는 규모가 되면 다음과 같은 업무를 위해 규모에 따른 운영조직을 만들어 인원, 경비, 설비 등을 확보할 필요가 생긴다. 그 경우, 조직의 운영경비를 얻기 위해 스폰서의 참가비와 입회금, 회비의 징수를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 지역통화의 유통 상황에 따라서는 운영업무자체를 통화단체내의 서비스로 파악하고 지역통화를 운영통화를 운영경비에 충당하는 것도 불가능하지 않지만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법정통화에 의한 회비 등의 징수가 타당하다.

- ◆ 포인트 잔고의 집계, 정리(상호발행의 경우)
- ◆ 통장, 지폐 등 미디어의 작성
- ◆ 회원의 등록, 정보관리
- ◆ 회원 간의 수급의 대조
- ◆ 회원의 상담접수, 트러블에 대한 대응
- ◆ 계발, 교류이벤트의 개최

- ◆ 회원획득을 위한 권유, 마케팅활동
- ◆ 회원 간의 거래, 결제시스템의 개발과 운영IT활동의 경우)

조직의 설립방법과 형태는 통화단체의 상황과 성질에 따라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지만 지역통화유통을 위해서는 운영조직의 신뢰성의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개인정보보호의 만전한 대응, 거래, 서비스정보와 조직운영정보의 철저개시, 멤버의 규칙준수의 확보 등이 운영조직에 따라 실행되지 않으면 안 된다 운영조직은 통화단체의 멤버상호간의 신뢰의 네트워크에 바탕을 두어 설립된 것이 바람직하지만 시(市) 레벨의 광범위한 유통을 목표로 하는 것은 행정이 어느 정도의 뒷받침이 되는 것이 신뢰확보에 관련 있는 경우도 생각할 수 있다.

11) 지역통화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의 가치

지역통화에 따라 공급되는 재화와 서비스에 높은 품질을 기대할 수 있을까 지역통화에 의한 거래대상이 되는 상품을 한정하는 조직을 채용하고 있는 경우도 있지만 실효성은 없다. 법정통화시장에서는 팔리지 않는 상품과 서비스는 지역통화를 사용해도 팔기 힘들다는 점이 변하지 않기 때문이다. 오히려, 지역통화를 갖은 인간관계를 만들어 의사소통을 활발하게 하는 효과가 판로를 개척하는 가능성을 가져 지역 내의 자원 유통이 촉진된다. 지역통화에 따라 질이 떨어지는 재화와 서비스까지 유통시키지 않으면 안 되는가에 대한 걱정은 통화 단체참가자의 합리적인 판단에 따라 회피된다 지역통화는 어디까지나 통화의 조직이고, 사람의 수급의 중미와 결단에 소개할 수 있는 것은 없기 때문이다 오히려 공공성 높은 서비스정도 질이 좋은 서비스제공을 유인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공공성 있는 서비스의 가격의 설정에 대해서는 덧붙여 말하고 싶다. 시장의 경우 경쟁의 결과는 상품의 가격에 반영된다. 수요가 공급을 상회하면 가격이 상승하는 사정은 법정통화를 포함한 어느 통화 시스템에도 볼 수 있는 것이다 지역통화의 도입은 개정되어 가격결정과 경쟁조건에 대해서 재고시켜 경쟁수단의 다양화에 공헌한다 지역 내의 사업자는 지역통화의 인수를 경쟁수단으로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2 지역통화의 관련사항과 전망

(1) 지역통화와 법제도와의 관계

지역통화의 발행 운용에 맞는 관련 하는 각종법제도 등의 내용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특히, 넓게 유통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특정자발행의 지역통화의 경우 유통, 과세, 노무 등의 현행법제도를 충분히 근거로 삼아 조직과 운용을 검토하지 않으면 안 된다

더욱, 법제도의 목적은 기본적으로 지역의 경제 진흥을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의 보호하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따라서 사회에 새로운 조직과 시스템이 출현한다면 그것에 대처하는 법이 뒤이어 제정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면, 선불카드법도 선불카드라는

조직의 뒤에서 이용자보호를 위해 제정되었다. 현행의 법제도는 최근 각지에서 열심히 몰두하여 지역통화를 상징해서 제정되었던 것은 아니다. 지역통화라는 새로운 조직을 적절하게 발전시켜간다는 관점에서 법제도의 재검토가 지금 이후로 실행될 공산(公算)은 크다.

지역통화의 조직을 실천적으로 구축해 가기에는 무리를 하면서 법규제로 얽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선 조직과 실적을 만든 후에 법제도와 의 맞춤을 도모해 갈 자세도 요구되는 것은 아닐까? 실시와 효과를 다면적으로 예측하고, 시민, 이용자가 이익을 얻으며 피해를 줄이는 지역통화의 구조를 만들어 가는 것이 법 규제를 깨끗이 하는 방향일 것이다

이하, 지역 통화에 관련하는 법제도 등을 정리했다

1) 지역통화의 유통에 관한 법률

① 통화의 단위 및 발행에 관한 법률

통화의 단위 및 화폐의 발행 등에 관한 법률(쇼와 62년 6월 1일 법률 제 42호)

(통화의 액면가격의 단위 등)

제 2조 통화의 액면가격의 단위는 엔으로 하며, 그 액면가격은 1엔의 정부배로 한다.

제 3조 1항에 규정하는 통화로는 지폐 및 일본은행법(헤이세이 9년 법률 제 89호) 제 46조 제 1항의 규정에 따라 일본은행이 발행하는 은행권을 말한다.

(화폐의 제조 및 발행)

제 4조 지폐의 제조 및 발행의 권한은 정부에 있다.

(법정통화로서의 통용한도)

제 7조 지폐는 액면가격의 20배까지를 한정하고, 법정통화로서 통용한다.

※ 통화는 화폐와 일본은행에서 발행하는 은행권에 한정하고, 화폐의 발행권은 정부에 속하는 것으로 한다. 또, 화폐가 한도액까지의 강제 통용력을 갖는 것을 허가한다

② 일본은행법

일본은행법(헤이세이 9년 6월 18일 법률 제 89호)

(목적)

제 1조 일본은행은 우리나라의 중앙은행으로서 은행권을 발행하는 것과 함께 통화 및 금융의 조절을 실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일본은행권의 발행)

제 46조 일본은행은 은행권을 발행한다.

2 앞의 조항의 규정에 따라 일본은행이 발행하는 은행권(이하 「일본은행권」이라 한다.)은 법정통화로서 무제한으로 통용한다.

※ 일본은행권이 법정통화로서 무제한으로 통용하는 것을 허가한다

※ 위와 같이 지역통화는 법률상의 통화가 아니라 강제 통용력이 없다

③ 지폐유사증권 단속법

지폐유사증권 단속법(메이지 39년 5월 8일 법률 제 51호)

제 1조 같은 형식을 수단으로 하나하나 거래에 토대로서 금액을 정해 다수 발행하는 증권으로서 지폐와 유사한 작용을 하는 것과 허가하는 경우 재무대신에게서 기초 발행 및 유통을 금지하는 것을 얻음.

2 전항에서의 규정은 같은 종류 가격을 표시하여 물품의 급부(給付)를 약속하는 증권에 준용함

※ 국가가 발행하는 통화와 기능이 유사하지만 발행 유통을 금지하는 것으로 국가의 통화 발행권을 보호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것은 국가 경제 질서의 밑바탕을 이루는 통화질서를 지키기 위함이다.

※ 「지폐유사의 작용을 실행 한다 는 것은 일반적으로 「어디에서, 누구라도, 무엇이든, 지불하지 않는 결제의 수단으로서 이용할 수 있다」 경우를 말하는 재무성의 견해가 나타나 있다(헤이세이 원년 2월).

※ 한정적인 유통을 특징화 하는 지역통화는 「어디에서, 누구라도, 무엇으로라도」의 어떤 것이 결여되기 때문에 동법(同法)의 관리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해석된다.
현재 많은 지역통화가 존재하지만 아직 이 법이 적용된 사례는 없다.

※ 지역통화를 발행한 경우, 지폐의 요건인 ① 어디에서도, ② 누구에게나, ③ 무엇이든, 만족한다면 동법에 저촉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①과 ②에 관해서는 지역통화단체와 등록사업자, 보통 개인이 받을 수 있지만 등록회원과 사업자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게 해둘 필요가 있다. 단순히 마치고 외에는 사용불가로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한정 한 것으로는 한정하고 있는 것에 해당되지 않는다. ③에 관해서는 조세 지불, 공공요금 납부에는 사용할 수 없다. 등록가게, 등록회원만 생각한다면 저촉할 가능성은 없다.

※ 자치체발행의 지역통화의 지폐유사증권 단속법의 적용대상에서의 제외에 대해서(재무성견해). 북해도 留辺薬(루베시베)시 발행의 지역상품권은 구조개혁특구에 인정 되지 않았지만, 지역상품권을 지역통화로서 사용하는 것이 적합하고 재무성은 다음의 요건을 만족하는 것은 인정하였다. ●여기저기 유통하는 것은 등록사업자간인 것 ● 환금은 등록사업자가 지정금융기관에서 처리하는 것.

④ 선불식 증표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선불식 증표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평성 원년 12월 22일 법률 92호)

[개요]

◆ 목적

「선불식 증표의 발행자에 대해 등록 기타의 필요한 규정을 실행 그 발행 등 사무에 적정한 운영을 확보함에 따라 선불식 증표의 구입자 등의 이익을 보호함과 동시에 선불식 증표에 관계되는 신용의 유지에 도움이 되는 것

◆ 선불식 증표란?

흔히 말하는 선불카드와 상품권이다. 대가를 얻어 발행되는 증표 등에서 금액 또는 물품, 노동이 기재, 기록되어 있어 발행자와 지정된 사람에게 제시 등을 해서 그 금액에 해당하는 물품 등의 구입 및 기재된 물품 등의 지급을 받게 된다는 것 물리적으로 증표 등의 형태를 가질 필요는 없다.

◆ 적용제외

다음의 내용은 적용제외가 된다.

-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 등이 발행한 것
- 발행자의 종업원에 대해서 발행되는 「자가 발행형(自家發行型)선불증표」 및 이와 유사한 것

다만, 「자가 발행형(自家發行型)선불증표」는 유통 잔고가 700만 엔 이상의 경우에 신고가 필요하게 되고, 1000만 엔을 넘으면 보증금의 공탁이 필요하다.

◆ 규제내용

위의 내용 이외의 「제 3자 발행형 선불식 증표」의 발행은 내각총리대신의 등록을 받은 법인이외는 실행할 수 없게 되어 있어, 국가의 감독을 받게 된다. 다만, 유효기간이 6개월 이내의 것은 신고 할 필요는 없다.

- ※ 상점 등이 발행한 쿠폰권(서비스권)은 이 법률에 해당하지 않는다.
- ※ 지역통화의 형태가 상품권과 선불카드에 준하는 것이라고 판단되면 적용을 받게 된다. 현금과 교환에 지역통화를 발행하는 방식을 취할 경우는 동법의 적용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
- ※ 적용을 피하기 위해 유효기한을 6개월간 이내로 하는 지역통화의 사례도 있다
- ※ 금융청은 특정의 지역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통화」의 발행을 촉진하기 위해 반년 이상 사용할 수 있는 지역통화를 발행할 경우의 최저자본금규제현행 1000만 엔 이상)를 철폐하고, 비영리 조직 등이 발행하기 쉽도록 방향을 명확히 하고 있다. 2005년도부터 정부가 구조개혁특구에 인정한 오사카부 寝屋川시와 기타 규슈시에서 실시하고 상황을 검토한 뒤에 완화조치와 지역의 확대를 검토한다

⑤ 출자(出資)의 인수, 수탁금 및 금리의 관리에 관한 법률 (출자법)

출자의 인수, 수탁금 및 금리 등의 단속에 관한 법률(쇼와 29년 6월 23일 법률 제 190호)

(출자금의 인수제한)

제 1조 몇 명이나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에 대해서 후일 출자 지불 상환하여 전액 또는 넘는 금액에 상당하는 금전을 지불해야한다는 뜻을 명시하고 말없이 출자금을 인수해서는 안 된다.

(수탁금의 금지)

제 2조 업무로서 수탁금으로 인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사람을 제외하고 어느 누구도 업무로서 수탁금을 해서는 안 된다.

2 전 항목에서 「수탁금」은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으로부터 금전 인수에 해당되며 다음에 게재하는 것을 말한다.

- ① 예금, 저금 또는 정기적금의 인수
- ② 사채, 차입금 그 밖의 아무런 명목에 대해서 묻지 않고 앞서 게재된 것과 같은 경제적 성질을 갖는 것

※ 불특정다수자의 보호와 신용질서의 유지의 관점에서 은행법에 근거로 한 은행 등 다른 법률에 있어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 「수탁금」을 금지하고 있다.

※ 동법의 출자금은 사업의 자본에 이용되는 자금의 것이기에 사업의 성공여부에 상관없이 자본을 보증하는 것은 출자금 본래의 형태에 반대한다는 취지이다

※ 후일의 자본 반제를 조건으로 현금의 제공을 받아 지역통화를 발행하는 경우 동법에 저촉할 가능성이 있다. 자본 금액분의 환금은 하지 않고, 환금의 조건을 한정하는 등 환금의 처리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2) 세제(稅制)상의 처리

우선, 과세의 기본적 사고방식을 확인한다 세제는 국가의 통화시스템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법적인 부채의 반제와 세금의 지불은 법정통화로 실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 또, 「어떤 거래가 과세대상이 되는지 어떤지는 통화의 종류가 아니라 거래의 성질에 따라 결정된다. 「그 거래에 관계된 활동이 직업으로서 실행되었을 때, 그 거래는 과세대상이 된다.」가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도와준 정도의 거래는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타당하다⁶⁴⁾. 지역통화의 과세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한 규제와 기준은 존재하지 않지만 각각의 지역통화의 목적 운용방법, 유통현황에 따라 판단되게 된다⁵⁾.

① 소비세

64) 베르나르도 리에타, 前掲書, p228.

65) 이하, 과세에 관한 기술은(財)지역 활용 센터 『새로운 지역활 동을 동반하는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관한 연구 보고서』 p40~43을 참고했다.

간접세인 소비세는 사업자가 사업으로서 실행하는 거래에 있어서 물품 서비스의 대가에 대해 과세를 부과한다. 사업자가 아닌 개인은 과세대상외이다. 또, 사업자에게 있어서도 할인과 무상서비스에 대해서는 비과세이다.

② 소득세

지역통화를 소득이라고 간주할지 어떨지에 관련되어 있다. 지역통화의 용도가 자원봉사에 한정되어 있거나, 할인에 의해 축재성이 현저하게 낮은 경우는 소득이라고 간주하지 않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또 가구나 의류 등의 「생활용 동산」의 양도를 통해서 지역통화를 입수한 경우도 비과세가 된다. 다음의 경우는 비과세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

- 자원봉사의 사례로서 받은 지역통화를 사용해서 서비스와 상품을 구입한다
- 대금으로서 받은 지역통화를 사용해서 매입을 행한다

(2) 지역통화에 관한하는 교환미디어

사회시장형성을 위해 지역통화와 관련지어 전개하는 것이 유효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교환미디어는 Voucher와 포인트 시스템이다. 이러한 성질과 유효성에 대해서 지역통화와 의 관련에 대해 살펴보자.

1) 바우처(voucher)

바우처(voucher)는 일반적으로 「재화, 서비스와의 인환권(상품 인환권, 할인권, 쿠폰 등)」의 의미이지만, 여기에서 말하는 「바우처(voucher)」는 공공정책으로서 실행하는 「개인을 대상으로 한 용도제한 있는 보조금」인 것이다. 행정이 공적 서비스의 제공자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대신에 서비스 수급자에게 서비스교환권을 급부하는 것에 따라 수급자가 자신이 원하는 서비스제공자를 선택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결국, 바우처(voucher)는 공적보조금에 「선택」과 「경쟁」의 요소를 부가하기보다 공적서비스의 시장화를 겨냥하는 것으로 다음 세 가지의 기본적 특성이 있다.

- ① 수급자에 의해 선택(선택권)
- ② 지정된 범위의 재화와 서비스와의 교환용도 제한)
- ③ 타인에게 권리를 양도할 수 없다(양도제한)

지역통화와 달리 바우처(voucher)는 보조금의 한 형태이기 때문에 교환미디어로서 유통시키는 것 자체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또 지역통화는 누구라도 발행주체가 될 수 있는 것에 반해, 바우처(voucher)는 공공정책(또는 분배에 의해 급부)의 일환으로서 행정 등 공적 기관이 발행하는 것이 보통이다.

사회시장형성에 효과라는 측면에서 보면 바우처(voucher)는 단지 보조금을 상품권화 한다는 것이 아니라, 대상이 되는 서비스에 대해서 수급자인 시민이 주체적으로 관여할 계기가 되는 것이다. 수급자가 단순히 고격에 머무르지 않고 자신들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스

스로 창출해가려고 하는 자세를 갖춘다면, 기존의 사업자 중에서 선택하는 것보다 사업운영에 참가하여 사업자의 변혁을 재촉하거나 자신들이 새로운 사업을 일구어 가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바우처(voucher)는 「시민이 지배하는 시민의 공동 가게(제 1장, 1-(3) 참조)가 될 수 있다.

그렇지만, 바우처(voucher)는 목적, 용도에 따라 다음 두 가지의 것을 생각할 수 있다

A. 원조, 구체책으로서 바우처 : 복지목적 등에서 대상자 개인에게 지급되는 특정 공공 서비스의 이용, 할인권(예: 보육바우처(voucher) 등)

B. 공적봉사활동 사례(활동 촉진책)로서의 바우처(voucher): 시장의 사업에 협력사례로서 지급된다. 시의 시설, 서비스 등의 이용권 등

이 중에서 B는 반드시 바우처(voucher)의 기본 특성의 ③ (양도제한)이 엄밀하게 적용되지 않아, 타인이 양도해도 무효가 안 된다⁶⁾. 그 점을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바우처(voucher)를 대상으로 하지 않는 재화나 서비스와 교환으로 양도하는 것보다 유통시키는 일이 가능하다. 결국, 「결과로서」 바우처(voucher)가 교환미디어의 기능을 가진 셈이다. 이러한 경우, 바우처(voucher)는 시장이 발행하는 「지역통화」라고 말할 수 있다.

A의 경우는 용도제한이 엄밀하여, 그 대로 유통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 그러나 사용이 끝난 바우처(voucher)권은 환금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 경우에 법정통화가 아닌 지역통화로 교환하는 것이 인정되면, 지역통화의 유통에 관련가능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바우처를 받는 서비스제공사업자에 있어서 지역통화가 이용가치 있는 것이라면 환금대상으로서 선택될 가능성이 나타난다.

현재 상황에서는 바우처(voucher)의 발행은 지극히 적지만, 바우처(voucher)의 대상이 될 수 있는 행정서비스는 교육과 복지 등의 분야에서 수많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지역통화와 관련을 포함해 사회시장형성수단으로서의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검토해갈 필요가 있다. 더욱, 사회시장형성의 전망을 갖지 않는 안이한 바우처(voucher)의 발행은 오히려 행정에 의존을 강하게 하여 예산의 편성에 엮매일 우려가 있어, 주의를 요한다.

2) 포인트, 쿠폰 등

상점회와 기업 등이 발행하는 포인트나 쿠폰권은 상품과 서비스와의 교환권 할인권이라는 점에서는 바우처(voucher)와 같다. 고객유치를 목적으로 한 일종의 할인제도이지만 상점회가 공동으로 발행하는 것을 소비자가 상점에서 통화와 같이 사용하는 경우는 지역통화와 닮은 형태를 볼 수 있다.

이것은 스탬프회의 등의 형태로 전국 지역 상점회와 슈퍼마켓 등에서 실시되어 왔지만 머지않아 각지로 진출한 대형 규모의 판매점을 중심으로 전자카드를 사용한 포인트 시스템이 널리 확대되어 주류가 되었다. 게다가 앞서 설명한 마일리지등의 기업통화와 IC카드를 사용한 각종 서비스와의 제휴 등으로 발전하고 있다.

66) 시장의 서비스 밖에서 이용할 수 없는 점에서는 ①에도 해당하지 않고, 엄밀하게는 급부정책으로서 바우처(voucher)의 범주에 넣지 않는다는 견해도 있을 수 있다.

대형가게에 고객을 빼앗긴 지역의 상점회에서도 이러한 방식을 흉내 내어 도입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그러나 스케일, 자본력, 기술력, 표준화된 노하우등의 점에서 전국기업과 경쟁하는 것은 지극히 곤란한 상황이다 그 와중에서 최근 몇 년 포인트와 쿠폰을 지역통화로 전용하여 지역사회와의 연결고리를 긴밀하게 하려고 하는 전략을 취하는 상점회의 사례도 볼 수 있다.

지역에 정착한 상점과 비즈니스는 사회자본의 주요한 담당자가 될 수 있는 존재이다 사회시장에 깊숙이 들어가, 지역, 이웃의 과제해결과 요구대응에 상업 활동을 통해서 적절하게 관여해가려는 것이 전국기업의 점포로서는 흉내 낼 수 없는 지역상점의 강점이 될 수 있다.

지역에 정착한 사업자는 글로벌한 거대시장시스템에만 의존하지 말고 지역의 복합적 시장시스템을 스스로 구축하여 활용해가려는 활동이 요구되며 지역통화는 그 유효한 수단이 될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지역통화를 도입하는 장점으로서 다음과 같은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어느 정도 유통하고 있는 지역통화를 상점회가 받아들이는 것에 따라 스스로 할인 포인트를 발행하지 않아도 구매객이 증가하는 것을 기대할 수 있다. 어느 정도 받아들이는 비율을 설정한다면, 지역통화와 함께 법정통화의 수입을 얻을 수 있다 게다가 받은 지역통화를 구입 등의 경비에 충당할 수 있다면, 지역통화를 받아들이는 것에 의한 손익은 발생하지 않는다

종래의 포인트 시스템을 지역통화에 전환하는 것에 의해 고객대점포의 일방통행의 관계가 아니라 점포를 하나의 중심으로 한 이웃의 다양한 상호거래와 지역 내의 점포상호의 거래관계를 구축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촉진한다고 기대된다

더욱 전국기업의 포인트 시스템에 대해서는 앞서 설명한 지역통화와 기업통화와의 교환과 같은 대응을 생각해 가야 한다.

(3) 지역통화전개의 방향성

1) 커뮤니티형의 지역통화

앞서 말한 대로 지역통화의 성질은 Community currency 와 Local money로 크게 구별할 수 있다. Community currency의 상태는 여러 가지 있지만 일본의 지역통화단체에는 서로에게 얼굴을 볼 수 있는 커뮤니티의 관계 만들기를 목적으로 한 100~200명 규모인 경우가 많을 것이다.

이 타입의 지역통화는 발족은 비교적 쉽지만 운영이 궤도에 올라 관계 만들기의 성과가 나타나기까지에는 상당한 시간을 필요로 해서 심호흡과 끈기 있는 대처가 필요하다 특히 중심이 되는 멤버의 열의와 창의력, 조정력 등의 역량이 성공의 열쇠를 쥐고 있는 경우가 많다. 그 때문에 이 타입의 지역통화를 침투시키기 위해서는 지역 통화단체 운영의 코디네이터가 되는 인재의 발굴, 육성, 확보가 중요하다.

성공사례를 보면, 커뮤니티의 경우 관계구축과 과제해결이 착실하게 진행되고 있다 커뮤니티 속에서 공조적인 생활과 역할이 증가하기 때문에 참가자는 편안하게 활동하면서

생활의 의의를 느끼며 건강하게 된다.

커뮤니티형의 지역통화단체는 그 성질 상 기본적으로는 외부에 대해서는 폐쇄한 같은 종류의 조직이다. 또 멤버가 그다지 많지 않으면 성립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상적인 것은 지역 내에 이러한 지역통화단체가 다수 존재하며 각각의 개성도 있어 개인은 그 중에 복수의 지역통화단체에 참가할 수 있는 것 그리고 각단체간에 자발적인 제휴와 협력의 네트워크가 생기는 것이 바람직하다.

행정에 요구되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지역통화단체가 생겨 활동하기 쉬운 환경조건을 정비하는 것이다. 활동에 필요한 정보제공과 활동의 견인역할을 하게 되는 사람들에 숙련된 기능의 향상을 돕기 위해 학습기회 만들기 등, 측면적인 지원을 검토할 수 있다. 행정이 지역통화의 틀을 만들어 그 틀에 적용하려는 직접적 관여는 자제해야 한다

2) 지역 내 자원순환형의 지역통화

일본에서는 해외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도시레벨의 지역에서 유통하는 지역사회의 활성화를 겨냥한 Local money의 사례는 적고, 성공예도 없다. 그러나 지역 내의 겨우 재화나 서비스의 순환을 만든 사람들의 네트워크를 확대하기에는 Local money가 유효하다고 본다. 이후 이 타입의 지역통화의 성공사례를 만들지 어떨지는 사회시장 형성에 있어서 매우 큰 포인트가 될 것이다.

이 타입의 지역통화는 법정통화와 병행이 전제가 되어 통상 시장의 경우는 거래에도 관여한다. 또 지역 내에 존재하는 복수의 지역통화를 상호간의 연결고리역할을 완수하는 것이라고 생각 한다.

Community currency보다 범용성이 높아 법정통화와 유사한 성격을 가지게 되므로 법정제도 상의 제약에 접촉할 가능성이 높다. 또 큰 구조를 만들게 되기 때문에 운영조직의 설립, 시스템의 기술적기반의 확립 등이 필요하다 그 때문에 지역의 주요한 관계자가 서로간에 제휴하여 협력관계를 구축하지 않으면, 실시가 곤란할 것이다.

행정에 요구되는 것은 우선, 어떠한 상태를 목표로 할 것인지, 명확한 비전을 제시하는 것이다. 그리고 사회시장의 주체가 되어야 할 시민과 단체가 합의를 형성하면서 큰 조직의 지역통화구상을 그려가는 토대 만들기가 필요하다

3) 사업 창출형의 지역통화

위와 같은 두 가지의 지역통화를 연결시키는 것으로서 사업 창출형의 지역통화를 생각할 수 있다. 커뮤니티의 관계 만들기뿐만 아니라 지역에 정착한 사회적사업의 창출이 필요하다. Community currency중에는 사업에 의해 결합된 커뮤니티가 사업을 유효하게 운영하기위해 사용될 수 있다. 이 타입은 외부에 대해서 닫힌 같은 종류 조직에는 반드시 아니나, 사업자운영상 효과가 있다면 법정통화와 지역통화와의 병용보완의 관계에서도 이용되기 때문에 사회시장의 경우 유연한 네트워크를 구축할 가능성을 갖고 있다

행정의 대응으로서는 기본적으로 커뮤니티형의 지역통화로 바뀌지 않는다

제3장 마치다의 경우 사회시장형성의 가능성

1 머리말

마치다(町田)라는 지역의 사회시장 형성의 가능성을 찾기 위해 관청 내에 「사회시장형성 워킹팀」(이하, 「WT」라고 한다)을 발족시켜 검토를 하였다. 본 장에서는 마치다(町田)의 WT 작업성과를 바탕으로 사회시장 형성의 방향을 살펴보기로 한다

WT에서는 우선, 형성하려고 하는 사회시장의 실정을 명확하게 해둘 필요가 있었다. 우선 사회시장형성에서 서비스(이하, 본 장 및 제2장에서는 「사회서비스」라고 한다.)를 두 가지 관점에서 접근하고 그것을 전개하여 이미지로 표현하였다. 두 가지 관점 중 하나는 행정적 입장에서 행정서비스의 외부화(위탁, 민영화), 민간주체와의 제휴, 민간 활동에 관여 등을 통하여 사회서비스를 연관시켰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인재, 조직, 시설, 문화, 자연, 자금 등 지역 자원을 시장기능을 통해 발굴 연결, 활동한다는 관점이다.

이 같은 관점으로 각 서비스를 성질과 제공 형태 등에 따라 분류하고 그것을 토대로 전개에 유효하게 생각할 수 있는 수단과 유의해야 할 과제로 검토 정리하여 이미지화하였다. 이때 재화나 서비스의 교환에 따른 지역 내 유통의 확대나 다양한 주체들의 유연한 제휴는 사회적 공동 과제의 해결로 보았으며 이를 통해 사회시장에 바라게 되는 기능 구축 관련성에도 유의하였다.

또 본 장에서 제시한 서비스 안(案)은 사회시장 형성 이미지를 표현하기 위한 것으로 사업화를 전제로 한 검토는 하지 않았으며, 따라서 각각의 서비스와 사업의 실시에는 실현성과 효과를 상세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것을 덧붙여 말해 둔다

2. 행정과 연계된 서비스 전개의 가능성

(1) WT작업의 개요

1) 작업의 목표

사회시장 형성을 위해 마치다(町田)시는 행정적인 입장에서 어떠한 관여가 가능할까? 현재 시(市)가 실시하고 있는 서비스의 현황을 토대로 삼아 서비스의 사회시장화 민간사업자와 제휴한 서비스 실시, 민간실시서비스에 대한 지원 등에 관여하는 모습을 생각하고 지역통화와 바우처(voucher)라는 시장형성 기법 활동을 회의에 부치면서 다양한 사회서비스 전개와 촉진의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작업은 단순히 행정조직을 간편하게 하려는 외부화⁶⁷⁾나 민영화가 아닌, 행정의 적절한 관여로 사람들의 요구도 만족시키고 과제도 해결할

67) 외부화(外部化): 위탁 등에 따라 행정조직외부의 주체에 업무를 실시하게 하는 일.

수 있는 새로운 서비스와 사업을 어떤 방법으로 지역에 만들어 낼 것인가 또 그 기반이 될 풍부한 네트워크를 지역 사회에서 어떻게 육성해나갈 것인가라는 관점에서 실시하였다

2) 작업의 순서

우선, 행정이 관여하여 사회서비스를 창출해가는 방향에서 대략 다음의 네 가지 분류로 회의에 상정하여 각각 어떠한 서비스를 생각할 수 있는지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하였다

- ◎ 행정서비스의 외부화, 민영화
- ◎ 민간사업주체에 대한 지원
- ◎ 바우처(voucher)의 지급
- ◎ 지역통화의 지급

다음으로 각 서비스의 실시가능성과 사회시장형성의 효과 지역통화와 같은 기법 유효성 등을 검토하였다. 다만, 앞서 말한 것처럼 서비스의 전개 이미지를 그리는 것이 주목적이기 때문에 세부적인 법제도적인 타당성 심사나 사회경제적 효과 예측은 실시하지 않았다.

그리고 몇 개의 서비스와 활동, 지역통화 등이 연관되어 발전하는 형태로도 생각해보았다. 이런 발상의 방법이 반드시 적합한 것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의 정리가 필요하므로 항목을 나눠 기술하는 것이다. 또 발상의 폭을 넓이기 위하여 이용 가능한 지역통화의 정의를 엄격히 하지 않고, 그저 각각의 재화나 서비스 교환에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2) 행정서비스의 외부화에 의한 서비스 전개의 가능성

1) 학교 급식 서비스

■ 현황과 과제인식

일부 중학교에선 2005년도부터 위탁을 통한 학교급식이 시행된다. 앞으로 예상되는 학생 수의 감소와 지역의 중요한 축으로서 위치를 고려한다면 지역과 학교의 교류 및 연계는 깊어질 것이고, 이웃 주민이나 부모에 의해 학교 급식이 운영되고, 또 지역 서비스로 확대할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다.

■ 전개 이미지

부모와 지역 사람들에 의한 커뮤니티 비즈니스로 학교 급식을 실시한다 운영조직을 가진 인적 네트워크와 학교 급식설비 및 민간설비와 연계하여 개개인의 어린이의 상태에 맞춘 메뉴를 제공하고, 어린이가 적절한 식습관과 식사 매너를 몸에 익히기 위해 부모의 조언 등을 실시한다. 그리고 커뮤니티 비즈니스⁶⁸⁾의 이점을 살려 지역에서 시식회나 요리 교실 실시하거나 학교 시설을 활용한 커뮤니티 레스토랑⁹⁾ 운영 그리고 지역의 고령자세대

68) 커뮤니티 비즈니스: 지역의 자원을 이용하여 시민이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다양한 요구를 만족시키는 소규모 비즈니스로 「지역성, 사회성」과 「자립성, 사업성」을 양립한 활동이라는 것이 특징

와 복지시설에 대한 급식배식 등의 서비스를 전개한다

■ 지역통화와 바우처(voucher)의 활용

요리교실과 커뮤니티 레스토랑에서 지역통화를 받아들여 지역의 농업자로부터 그 지방의 식재 구입에 지역통화를 사용하는 것을 상정할 수 있다

바우처(voucher)에 대해서는 부모 또는 학생에게 급식바우처(voucher)를 지급하고 몇 개의 사업자가 제공하는 메뉴에서 미리 메뉴를 선택하도록 할 수 있다.

■ 유의점

학교급식의 경우 영양관리는 행정에서 책임을 맡고 있으며 아동에 대한 개별대응을 포함하여 영양관리의 기준과 틀을 가지고 체크하는 체제를 만들 필요가 있다 학교 급식설비는 일반적인 식당과 다르기 때문에 안전위생을 포함하여 잘 사용하기 위해서는 시(市)의 급식조리원의 경험과 기술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2) 아동의 방과 후 대응 서비스

■ 현황과 과제인식

학생보육클럽은 현재도 일부 위탁업무로 민영화 지정관리자 제도로 실시되고 있다. 동경 지역에서는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하기 위하여 시나가와(品川)구에서는 일정 시간까지 학교에서 아동을 돌봐주는 계획을 준비하고 있는데 커뮤니티 비즈니스화의 가능성이 높은 서비스다.

■ 전개 이미지

아동이 다양한 방과 후 메뉴를 선택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전환하는 것으로 여기선 수업을 마친 후 아동의 안전 확보가 제일 중요하다. 일단 방과 후 서비스의 각 사업자가 다양한 개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총체적인 변화를 이끌어 내고 아동이 스스로 기호에 맞는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그런 곳 또한 증가하여야 한다 인기가 있는 곳은 다수 선택되므로 다른 서비스들과 경쟁하게 된다.

■ 바우처(voucher)의 지급

사회서비스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현재 학생 보육클럽에 지급되고 있는 보조금을 보호자에게 바우처로 바꾸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다

■ 지역통화의 활용

요금(육성비)을 일부 지역통화로 지급할 수 있게 한다 시는 서비스를 하는 NPO등에 지역통화로 시의 시설 등을 빌릴 수 있도록 한다

69) 커뮤니티 레스토랑: 지역 사람들의 교류촉진과 생활의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커뮤니티의 사업으로서 운영되는 레스토랑.

■ 유의점

많은 서비스 장소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공간 확보가 필요하고, 그로 인한 행정 지원 및 협력이 요구된다. 또 아동의 안전 확보가 중요한 문제이므로 서비스의 품질이 보장된 시의 바우처(voucher)의 이용 대상 결정 등이 요구될 것이다.

3) 애완용 동물 관련 서비스

■ 현황과 과제인식

애완용 동물을 기르는 시민이 증가함에 따라 애완용 동물 처리에 관한 다툼이 많아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문제 해결 방법이 요구된다. 애완용 동물(개, 고양이)의 「새로운 사육주 소개」를 시(市)에서 실시하고 있지만 애완용 동물 애호가의 요구에 따른 즉시성, 기동성, 창조성 있는 서비스를 실행하기에는 NPO 등 민간에 맡기는 방법이 유효하다고 본다.

■ 전개 이미지

애완용 동물 애호가들끼리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서로간에 정보와 서비스를 교환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든다. 시스템의 운영은 애호가 NPO 등의 조직을 설립하여 실시한다. 인터넷 사이트 운영은 물론 인터넷 없이도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애완용 동물에 관한 상담과 중개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애완용 동물 가게와 병원 등 비즈니스 서비스 광고도 일정 금액의 광고료를 받고 제공한다. 또 애완용 동물을 기르는 매너와 가이드도 개발하여 배포한다. Dog run⁷⁰⁾에 대해서도 시가 민간 사업자에게 장소를 임대하고 Dog run뿐 아니라 동물을 기르지 않는 사람도 자연스럽게 접촉하여 점차 확대될 수 있는 장소가 되도록 운영하도록 한다.

■ 지역통화의 활용

애완용 동물 애호가끼리의 서비스(애완용 동물의 일시적 보관, 산책 대행 등)를 지역통화로 지급한다.

■ 유의점

운영 조직과 애호가의 네트워크 만들기가 중요한 관건으로 발족 시 적절한 지원이 필요하다.

4) 관광·농업 관련 서비스

■ 현황과 과제인식

藥師池^{やくしいけ}공원의 일대는 마치다의 큰 관광자원이며, 리스공원, 에비네공원, 민중의 숲, 농업 도구관, ファーマーズ센터, 달리아동산 등의 시설이 있어 지역주변에는 연간 40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방문한다. 이후, 농업에 흥미를 가지고 있는 시민의 증가도 예상된다. 이러한

70) Dog run: 개를 묶는 끈을 벗기고 자유롭게 놀게 하는 광장 또는 공원.

자원을 충분히 활용하고 관광·농업에 관련 있는 다양한 서비스를 창출하는 가능성이 있다.

■ 전개 이미지

시는 지정관리자제도의 활용 등에 따라 藥師池^{やくしいけ}공원을 포함한 일대의 시설을 정리해서 NPO와 커뮤니티 비즈니스의 사업체에 관리를 맡겨 종합적인 지원활용에 따른 관광 진흥을 도모한다. 민간사업주체는 버스사업자와 공장의 스폰서기업과의 제휴에서 관광 경로와 사인물을 정비하고 휴식장소(차집 등)를 각 시설 내의 적소에 배치하여 고장의 특산물(명산품고 농가의 사람이 담근 밑반찬 등 화제성 있는 것을 공부)을 판매한다. 또 역사가이드와 자연관찰 가이드를 하는 자원봉사의 협력을 얻어 가이드 사업을 전개한다

또한 자원봉사의 협력을 얻어 시장의 구입녹지의 관리와 잡초 뽑는 업무도 맡아 잡초 뽑는 것과 더불어 녹지가 삼림욕과 유희, 자원학습 등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한다.

■ 지역통화와 바우처(voucher)의 활용

가이드와 녹지관리(손질)의 자원봉사 사례로 지역통화를 지급한다 지역통화는 관광용 버스의 운임, 손질된 녹지의 이용료, 토산품의 구입 대금 등에 사용하도록 한다. 또 지방특산품을 늘리기 위해 애쓰고 있는 농가를 지원하기 위하여 농지사용 바우처(voucher)를 발행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다.

■ 유의점

지역 자원 활용의 관점에서 지정관리자 제도의 유효성에 대해서 연구할 필요가 있다 또 많은 관계의 주체들이 연계하고 네트워크를 만들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5) 쓰레기 수거·처리서비스

■ 현황과 과제인식

쓰레기의 감량을 목적으로 쓰레기 수거 유료화가 진행되고 있지만 보다 철저한 쓰레기 분리수거와 지역 주민의 쓰레기 감량에 대한 의식 향상이 요구되고 있다 또 각 세대별로 수거 대상이 되지 않는 공동주택 등에서 공동 쓰레기장에 버리지 않는 세대에 대한 대응도 필요하다. 수거 업무만으로도 해결될 수 있으므로 그 지방 조직과 NPO에 위탁하는 것이 가능하다.

■ 전개 이미지

시내를 여러 개의 블록으로 나눈다. 블록 내에서의 쓰레기 수거업무, 즉 각 집에서 공동 쓰레기장으로 쓰레기가 수집되기 까지를 시에게 위탁한 지방조직과 NPO가 실시한다. 공동 쓰레기장에서 쓰레기 처리 시설까지의 운반은 시의 쓰레기 수집차가 하며 지역의 쓰레기 감량 활동과 더불어 주민에게 쓰레기 감량의 개발을 증진시키고 자원봉사자를 통해 개별 쓰레기 수거 지원 및 각 주민의 관련 요구에 세심하게 대응해 나간다

■ 지역통화의 활용

사업주체는 자원봉사에 대한 사례로 지역통화를 지급한다

■ 유의점

사업주체가 쓰레기 수거를 실시함에 따라 줄일 수 있는 비용의 일부를 해당 지역 커뮤니티 운영을 위한 재원으로 환원하는 구조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6) 자전거주차 서비스

■ 현황과 과제인식

시 운영의 자전거 주차장은 위탁관리로 운영된다. 주차장마다 이용율이 14%~100%까지 큰 차이가 난다. 또 위법 노상주차는 단속에 의해 감소하고 있지만 충분한 개선은 얻지 못하고 있다. 자전거 이용자 다수가 철도역까지 교통 수단으로 이용하는 형태이므로 주차 대책에 있어서 철도사업자의 참여도 요구된다.

■ 전개 이미지

중심시가지나 역 주변의 자전거 주차장 운영을 커뮤니티 비즈니스로 실시한다. 가능한 철도회사에서 주차장용 대지와 설비 자금의 제공을 요청한다. 임대 자전거 사업과 자전거의 수선, 주차장으로 자전거 배송 서비스(통근 시에 자전거를 주차장까지 가져 갈 여유가 없는 사람에 한해 역 앞의 포인트 지점에서 관계자가 자전거를 지정된 주차장까지 옮겨준다) 등 이용자의 편리함을 유용성을 높이는 부가 서비스를 실시하여 자전거 주차장의 가동률을 높인다. 가능하다면 민영 자전거 주차장도 하는 것이 좋으며, 시에서 실시하는 위법 주차의 공지 및 자전거 철거도 위탁받아 함께 실시하는 것이 좋다

■ 지역통화의 활용

서비스의 이용에 지역통화를 사용하도록 한다. 자원봉사자에게 사례로 지역통화를 지급한다.

■ 유의점

시는 시에서 운영하는 자전거 주차장의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계약 달성률에 비례하여 사업자에게 관리 위탁료를 지급하는 제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 자전거 이용자가 편리하게 사용하면서도 위법 주차도 막을 수 있는 효과적인 자전거 주차장 배치와 노상 공간을 활용한 주차 시설 설치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7) 학생의 학습 프로그램 서비스

■ 현황과 과제인식

마치다(町田)시에는 대학을 비롯한 많은 교육 시설이 있어, 시민들의 지적 수준이 높다. 이러한 자원을 살려서 시민의 학습기회를 넓혀가는 것이 요구된다. 「마치다 시민대학」은

시민들이 중심이 되어 대학과 행정이 연계되어 만들어진 것이지만 현재는 시의 강좌 사업으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 전개 이미지

시내와 이웃한 대학과 기업 등에서 출자를 받아 학생학습 추진조직을 만든다. 추진조직은 희망하는 시민에게 학습프로그램의 기획 및 운영과 전문적이고 실천적인 교육 실시 학습 자원봉사를 육성한다. 학습 자원봉사는 팀을 짜서 자원봉사자로 등록된 강사 및 대학, 기업, 행정기관 등에 있는 인재들을 활용해 다양한 학습 프로그램을 기획 시내 각지에서 강좌를 운영한다. 추진조직은 조사를 통해 시민의 학습요구를 파악하고 요구에 따라 학습 테마를 구성하고 추천하며, 자원봉사를 이끌어낸다. 시민에게 선택되는 것에 따라 강좌의 평가가 결정되며, 시의 수탁에 따라 환경 복지, 교육 등의 분야에서 서비스 담당자가 될 인재 육성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 지역통화와 바우처(voucher)의 활용

자원봉사 강사와 학습자원 봉사에 대한 사례로 지역통화를 지급한다 또, 수강료의 지급도 지역통화로 한다

지역 만들기와 관련된 학습의 경우, 시가 지정하는 강좌(사회적 과제에 관한 것)의 수강 희망자에게는 어느 정도 금액의 강좌수강 바우처를 지급한다 또, 고령자를 위한 삶의 보람 만들기 차원의 강좌는 쉽게 수강할 수 있도록 일정액의 바우처를 희망에 따라 지급한다.

■ 유의점

마치다(町田) 시민대학과 공민관의 일부 사업을 재검토하는 방향에서 추진하는 것이 적당하다.

(3) 민간사업주체에 대한 지원에 따른 신규서비스의 가능성

1) 자녀 건전육성지원 서비스

■ 필요성과 목표

집에만 있는 젊은 사람이나 니트족(NEET)⁷¹⁾의 증가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와 유사하게 현대 아이들에게서도 사람과의 접촉이 줄어들면서 혼자서 틀어박히는 경향이 많아지는 현상을 볼 수 있다. 이런 아이들에게 사회성은 물론 의사소통을 익히게 하기 위해서는 방과 후 머물 곳을 확보하고 이곳에서 어른과 아이가 적절하게 관계 맺는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 또 이를 통해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는 것이 이 서비스의 목표다.

71) NEET: Not in Employment, Education or Training의 약자로 「취직하지도 않고, 학교기관에 소속도 하지 않으며, 취업에 있어서 구체적인 움직임도 없다」는 젊은 사람을 이렇게 부른다. 현재, 일본에서는 NEET에 분류되어 있는 젊은이들의 수가 85만이에 이를 정도라고 한다.

■ 전개 이미지

<놀이>

거기에 가면 언제나 팽이놀이를 해주는 할아버지가 있다. 부르지 않아도 아이들이 몰려 든다. 이런 곳이 많아질 수 있도록 놀아주는 어른들의 확보와 등록 제도, 놀이 장소 확보를 위한 조직이 필요하다. 놀이장소로는 아동관, 학교, 지역회관과 절 등을 생각할 수 있다.

<책을 읽는다.>

민간조직이 학교도서관을 활용해 아이들이 독서에 친숙해질 수 있는 환경 만들기와 프로그램을 짜고 그것을 실시한다. 독서 자원봉사자를 학교에 파견하여 도서관에서 읽고 들려주는 서비스를 실시하고 아이들과 책에 대해서 부모에게 조언도 한다. 입학 전의 아이들에게는 지역의 도서관이나 유치원을 활용한다. 아이들이 그림연극 등을 보고 있는 사이에 부모끼리의 정보교환이 가능하다. 자원봉사자는 시간의 유통이 가능한 대학생이나 시간여유가 있는 숙련된 사람이 좋다.

<자원 봉사를 한다.>

아이 때부터 자원봉사에 친숙할 수 있도록 수업에 자원봉사체험 프로그램을 넣는다. 프로그램의 제안과 자원봉사활동 중개를 사업자가 행한다

■ 지역통화의 활용

주체하는 조직이나 시가 자원봉사(놀이, 독서)의 사례를 지역통화로 지급한다. 또 자원봉사 프로그램에 참가한 아이들에게 지역통화를 지급한다. 아이들이 예전의 그림연극에서 처럼 놀이를 가르쳐 주는 어른에게 지역통화를 지급한다. 놀이의 자원봉사자는 놀이의 재료를 지역통화로 구입한다.

■ 유의점

아이들과 자원봉사 체험의 기회가 되는 방법과 기관에 대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

2) 공공 지도 작성

■ 필요성과 목표

공적인 정보와 생활에 관계된 정보가 실려 있는 지도는 이용가치가 높다. 그러나 행정이 작성하는 경우, 공평성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실용성 면에서는 좋지 않은 경향이 있다. 민간에게 맡기는 경우 재미있으면서 실용적인 정보 지도가 될 가능성이 크다.

■ 전개 이미지

자녀교육 지도, 관광지도, 사적(史跡), 문예지도, 맛집 지도 등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다. 행정이 민간 사업자에게 맡기는 경우도 있지만 민간이 기획한 것을 행정이 보조하여 실시할 수도 있다. 민간이 만든 것은 서점에서도 취급하며, 이러한 것이 많이 생긴다면

■ 2006 일본 지역통화 연구보고서

시의 지명도가 올라간다 자녀교육에서 부모들이 「보육원ミシユラン」과 같은 것을 만들어 보는 등, 다양한 자원 봉사 성향의 지도 만들기 활동이 나타나게 되면 자비출판도 비교적 저렴한 가격으로 만들 수 있다.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 내고, 필요에 따라 시가 민간의 지도 작성 활동을 연계하거나 사회교육 강좌의 일환으로 각종 지도 제작 활동을 촉진한다

■ 지역통화의 활용

다양한 전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지역통화의 구체적인 활용안을 내기는 어렵지만 지도의 편집 과정에서의 노력의 대가 지급이나 판매대금 취재협력의 사례, 지역 내 가게와 사업자의 광고료 등에 지역통화를 일부 충당할 수 있다

■ 유의점

정보에도 유용할 수 있는 기한이 있기 때문에 정보 갱신이 쉬운 미디어를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3) 생활 간호 서비스

■ 필요성과 목표

고령사회를 맞아 생활 기반이 되는 지역에 함께 도울 수 있는 커뮤니티를 만드는 일이 중요해지고 있다. 특히, 간호보험과 지원비 제도 이외에 행정이 대응하지 않는 또는 할 수 없는 서비스를 실시할 수 있는 주체가 요구된다. 마치다(町田)시에는 모두 선진적인 사례가 있어, 그 실적을 확대,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 전개 이미지

지역주민에 의한 네트워크형 조직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과 요구하는 사람의 대면, 이웃의 경우 서로 도울 수 있는 구조와 방법을 만든다 연하장의 대필 등 간호보험 제도에서는 찾을 수 없는 일상생활에 대한 요청은 다양하다. 이러한 요구에 따라 가려운 곳까지 손이 닿는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이다. 또 지역사회에서 고령자 세대의 소재를 파악하고 하루하루 안부 확인이 가능하도록 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간다

■ 지역통화의 활용

「가능한 일」과 「받고 싶은 일」을 등록하여 서로 교환하는 식의 지역통화 구조를 활용한다. 지원을 받을 필요가 있는 고령자에 대해서는 행정이 바우처를 지급하고 서비스 제공자에게 지급하도록 한다.

4) 역 주변·중심시가지의 방범 미화 서비스

■ 필요성과 목표

마치다시에서는 범죄의 수가 급속하게 증가하여, 방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중심 시가지는 심야까지 영업하는 유흥 집포가 증가하여 치안과 이미지가 악화되고

있다. 그것에 대응하여 민간 경찰도 등장한 상태다. 누구나 안심하며 걸을 수 있는 아름다운 시가지를 형성하여야 한다.

■ 전개 이미지

실시 조직이 시와 상점회 등의 의뢰를 받아, 대형 테마파크의 클리닝 스텝과 같이 청소 스텝을 조직하여 제복을 착용하고, 중심시가지를 비롯하여 정해진 지역의 청소 활동을 실시한다. 또 민간에 의한 방법 순찰의 활동을 확대하고 자전거 주차 서비스와 연계하여 노상의 불법 점거물을 제거한다. 게다가 역의 개찰구 근처 보행자 전용도로(Pedestriandeck)에 방법대원(concierge)⁷²⁾을 배치하여, 친절하게 거리 안내를 하며 이미지 개선을 꾀한다.

■ 지역통화의 활용

클리닝 스텝과 방법 순찰에 자원봉사로 참여한 이에게 사례로 지역통화를 지급한다. 지역통화로 지정된 곳에서 물건 구입을 가능하게 한다.

(4) 바우처(voucher) 지급에 따른 효과가 기대할 수 있는 것

1) 단체·사업 보조의 하나로서 바우처(voucher)의 전환

■ 보육원 보조

보육원에 사업보조를 이용자에 대한 바우처로 전환하는 것은 가능하다. 지급대상의 인정을 받고, 소득 등 조건에 따른 바우처(voucher)를 지급한다. 바우처(voucher)로 전 금액을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부담분이 요구된다. 바우처(voucher)에 대한 전환에 따라 고객 획득을 위한 경쟁이 나타나고, 다양한 보육 서비스가 제공되는 상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2) 새로운 바우처(voucher)의 지급

■ 베이비씨터 서비스

육아 지원책의 일환으로 조건에 따라 베이비씨터 이용에 바우처(voucher)를 지급한다. 시가 새로운 행정서비스에서 행하기보다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조직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패밀리 서포트 센터⁷³⁾의 업무로 민간서비스의 소개 또는 아르바이트 등의 알선을 실시한다.

■ 배식 서비스

식사를 만드는 것이 곤란한 고령자 세대 등에게 배식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바우처(voucher)를 지급한다. 보다 다양한 배식 서비스 참여를 기대 할 수 있다. 배식 서비스는

72) 콘세르주: 호텔 등에 설치된 접객책임자. 고객에게 정보제공 등을 실시한다.

73) 패밀리 서포트 센터: 시의 육아지원사업의 일환으로서 일과 육아를 모두 지원하기 위해 육아를 도와주고 싶은 사람과 육아에 협력을 해주는 사람과의 상호간의 원조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고령자 세대를 보살피는 서비스도 된다.

(5) 지역통화 지급에 따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

1) 자원봉사를 중심으로 실시하고 싶은 행정 서비스

다음과 같은 서비스에 대해서 지역통화를 지급하는 것으로 자원봉사자의 참가와 협력이 기대될 수 있다.

■ 모래밭의 소독관리

학교 모래밭 소독은 현재 년 1회 실시하고 있지만, 지역에 위탁하는 것에 따라 횟수는 늘릴 수 있다. 또 부모들이 학교 교육에 관여할 기회도 된다.

■ 지역구 공원의 관리

이미 공원 관리는 자원봉사자 제도를 설치하여, 협력을 얻고 있지만 하나의 사례로 지역통화를 지급해도 좋다.

■ 도로용 토지 이외에 유휴지의 관리

도로용 토지 이외에 사용하지 않는 토지는 이웃한 자원봉사자에게 관리를 위탁한다. 이곳에 화단 만들기나 온난화 대책 마련, 꽃과 푸른 마을 만들기, 아이들에게 땅을 밟을 기회 만들기 등의 사업에 사용하게 한다. 토지의 조건에 따라 안전관리를 하고, 아이들의 놀이장소로 개방하는 것도 좋다. ファ"[マ]"[ズ센터에서 화단의 모종과 비료를 지역통화로 살 수 있도록 하면 좋다.

■ 공공시설인 커뮤니티센터 등의 관리

이미 주민 단체에 의해 무상으로 관리되고 있지만 사례로서 지역통화를 지급해도 좋다.

■ 부활동 지도자 사례

이미 자원봉사자의 협력을 얻고 있지만 하나의 사례로 지역통화를 받을 지에 대한 선택 조항을 추가해도 좋을 것이다.

■ 벽보·간판철거

이미 제도를 준비하고 협력을 얻고 있지만, 하나의 사례로 지역통화를 지급해도 좋다.

2) 지역통화 지급으로 활성화 하고 싶은 시민 활동

■ 환경배려 활동의 장려

환경배려 활동의 계발은 지역 내의 자원 순환을 목표로 하는 지역통화에 어울린다고 생각할 수 있다. 신변의 환경보전활동에 관심 끌기 위한 계기마련을 위해 쓰레기 감량화에 협력(쓰레기를 내놓지 않는다, 쓰레기 버리는 규칙을 지킨다, 쓰레기 처리기 구입 등)한 사람과 환경가계부를 만들어 에너지 소비량이 줄어든 사람에게 걸맞은 지역통화를 지급한다. 또, 주민에게 환경보전의 아이디어를 제공받아 채택된 자에게는 지역통화를 지급한다. 지역통화 매매 규약이나 지급은 지역에서 만든 주민들의 조직을 통해 실시한다. 게다가 독자적으로 쓰레기 감량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마치(町) 내의 모임, 자치회, 학교, 자원봉사자단체에서 실행하는 활동 비용으로 지역통화를 지급한다. 가령 운동회나 문화제와 같은

지역구 행사에서 한 종목을 운영하거나 발표를 하는 등의 활동이다

이상 1), 2)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지역통화의 용도의 확대가 필요하다

(6) 보조금의 지역통화에 대한 전환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

1) 이벤트에 대한 보조금

지역 센터 축제, 마을 만들기 와이와이 축제, 축제 마치다, 쓰레기 축제 등에 대한 보조금의 일부를 지역통화로 전환한다 이벤트 경비의 지급(물품의 구입 등)이 지역통화로 가능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 필요가 있다.

2) 단체에 대한 보조금

마치(町) 내의 모임, 자치회, 녹색클럽(고령자 단체), 사회교육 관계 단체, 스포츠 관계 단체 등에 보조금의 일부를 지역통화로 전환한다 운영 경비의 지급이 지역통화로 가능한 상황을 만들어 가야 할 것이다.

3 지역 내의 자원 관련에 의한 서비스 전개 가능성

(1) WT 작업의 개요

1) 작업의 목표

지역사회의 경우 사람과 사람간의 유대관계를 통해 사람들의 과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 가치를 창출하는 것은 지역의 장과 산물 그리고 활동을 통해서 만들어져야 하고 확대되어야 한다. 이러한 관계를 교환에 의해 처리하는 것이 사회시장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사람, 조직, 물건, 자연 등의 지역 내 자원을 상호간에 관련 지어 시민 생활의 과제를 해결하고 요구를 대응해가는 것을 어떻게 관계 구도로 그려갈 것인가를 검토하였다. 그리고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지역통화 등의 시장적 수단과 실현 가능한 과제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다.

2) 작업의 순서(지역 내의 자원관련도의 작성)

WT에서는 대략 마치다(町田)시 지역 내에 살고 있는 사람, 물건, 정보 등의 자원(이하, 「지역 내 자원」이라고 한다.)의 관련에 따라 사회적 과제 해결의 구도를 구체적으로 그려 보았다. 작성한 그림을 「지역 내의 자원관련도」라고 부르기로 하였다. 작성의 순서는 다음과 같다.

지역 내의 자원관련도 작성 작업 순서

작업1: 자원을 카드에 쓰기 시작한다.

카드를 준비하고, 지역 내 자원을 카드에 적는다.

자원은 ① 사람, ② 물건으로 나누어 생각한다. 각각 브레인스토밍(brainstorming) 방식에 따라 멤버 전원이 활용하고 싶은 자원으로 생각한 것을 모두 나눈 후, 카드에 기입해 간다. 1장의 카드에 1개씩의 자원만을 적는다.

① 사람

가치를 창출하는 인재. 행위의 주체가 되는 개인 또는 집단에서 다음과 같은 것

- 개인 [개인, 개인사업자...]
- 단체·조직 [행정, 기업, NPO, 교육기관, 클럽단체...]

활용하고 싶은 별도의 자질이 있는 경우는, 괄호쓰기를 한다.

자질의 예 : 기술·기능, 지식, 경험, 노하우, 신용

<기입 예 >

은퇴한 중·고령자
(사회경험과 기술)

② 물건

지역에 존재(잠재)하는, 가치를 가지고 있는 물자 중에서 다음과 같은 것

- 토지 [농지, 산림·수로, 빈 땅...]
- 시설 [공공시설, 민간시설, 공원·녹지, 학교, 유적·사적...]
- 산물 또는 소재 [제품, 농산물, 명산품, 미술·공예품...]
- 정보 [미디어, 데이터, 자료(문헌, 화상)...]

물건의 「가치로서의 표현」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괄호쓰기 한다.

- 교환물 (누군가에게 제공될 수 있는 것, 교환 가능한 것)
- 공유물 (사람들에게 공유되는 것과 환경에서 교환할 수 없는 것)
- 장 (물건 만들기과 교환이 행해지는 장소)
- 소재 (물건 만들기의 재료와 서비스에 이용되는 구재 등)

<기입 예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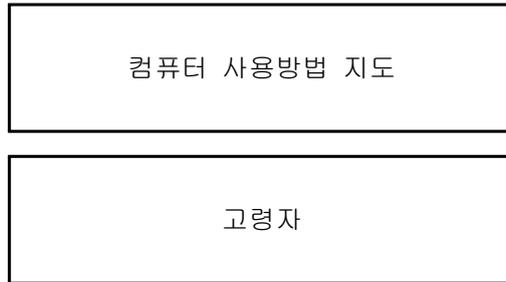
주택가에 있는 농지
(場)

작업2: 요구를 카드에 적는다.

‘지역에서 사람들이 요구하고 있는 것=사회적 요구’를 카드에 적는다. 작업 1과 같이 브레인스토밍 방식에 따라 1장의 카드에 한 개씩 적는다.

그리고 「필요로 하는 사람」(사회서비스의 대상자)은 누군가를 생각하여, 1장의 카드에 1개씩 적는다.

<기입 예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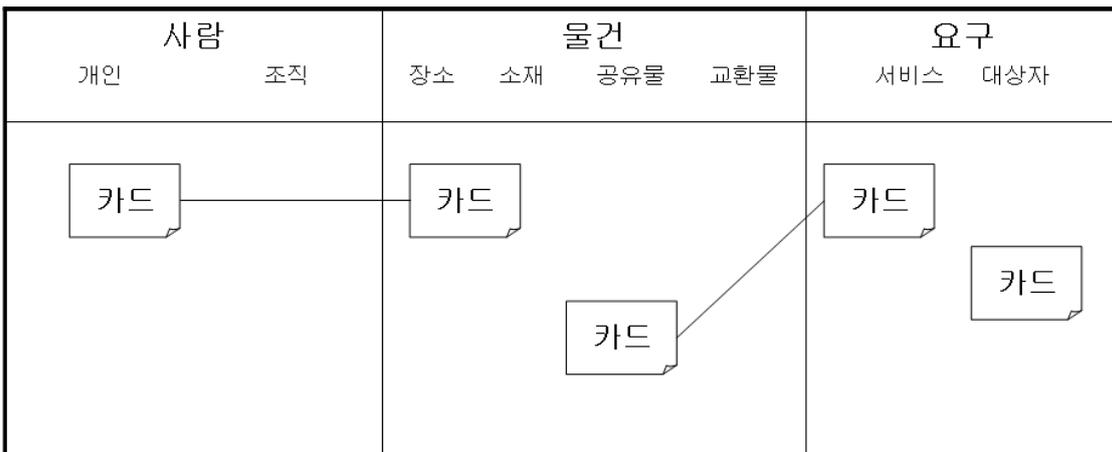


작업 3: 자원과 요구의 관계를 생각한다.

작성한 자원 및 요구의 카드를 짜 맞추면서 다음과 같은 관계를 생각한다

- 어느 요구에 응하기 위하여,
- 누가(사람 또는 조직),
- 어디(장소)에서,
- 무엇(소재)을 사용해서,
- 어떠한 서비스와 물건(교환물 또는 고유물)을,
- 누구에게 제공할 것인가?

카드를 다음과 같이 관련된 시트 위에 배치하고, 관련 있는 것을 선으로 연결해 간다.



관련된 시트는 기본적으로는 요구하는 것으로 작성한다. 관련된 것을 생각하는 중에 새로운 자원과 요구를 발견할 때는 카드를 추가한다. 어느 카드와도 결합되지 않는 카드는 시트에서 제외한다.

관련된 시트는 가능한 한 많이 작성한다. 같은 카드를 여러 번 사용해도 상관없다.

작업 4: 자원과 요구의 관련을 생각한다.

작성한 관련된 시트(지역 내의 자원관련도) 안에서 다음에 해당하는 것이 누군가를 생각하여 도장을 찍는다.

- ① 지역통화를 지급할 수 있는 사람 또는 조직
- ② 지역통화를 받아야 할 사람 또는 조직

해당자가 그림 안에서 발견되지 않을 경우는 기입한(예를 들면, 「마치다(町田) 시」가 지급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 경우에 그림 안에 「마치다 시」가 없으면, 관여방법을 알 수 있도록 기입한다.)

게다가 지역통화를 지급하는 사람은 어디에서 그 돈을 벌 수 있을지도 생각해 본다
다음으로 지도와 같은 자원의 관련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 ① 과제가 되는 것은 무엇인가, ② 누가 무엇을 하면 좋은가, ③ 행정의 역할은 무엇인가를 서로 논의하여 의견을 정리한다.

지역 내의 자원 순환구조를 구상하고, 구축해간다는 것은 사회시장의 형성에 불가결하다
지역 내의 자원과 요구의 관련성이 이미지화 될 수 있다면 자원순환을 창출하려면 어디에 손을 쓰면 좋을지를 알 수 있고, 사회시장의 경우 사업 전개의 구상을 그리기 쉬운 것이다.

지역 내의 자원 관련도는 그 때문에 소재가 될 수 있다 이 때 WT의 작업은 시간 같은 제약도 있어 충분한 검토가 가능하지 않았지만 더욱 많은 관련도가 만들어질 수 있고, 또 각 자원의 현황과 요구에 관한 수치 자료를 기입하고 복수의 관련도에 대해서 상호간의 결합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생각하거나, 관계를 어느 자원에 주목할 것인가와 같이 더욱 깊이 파고들어 검토할 필요가 있다.

위와 같은 방법은 새로운 사회서비스 사업의 실시와 지역통화의 도입을 생각하고 있는 단체 그룹이 활동을 전개하는 데 있어 관계성 자원의 유통경로를 구상 파악한 후라도 유효하다고 생각한다.

(2) 지역 내의 자원관련도

1) 그림 보는 방법

지역 내의 자원관련도 보는 방법은 아래와 같다

- 「사람」의 란에 있는 것은 행위의 주체가 되는 개인 또는 조직이다 조직·단체는 이중선으로 둘러싸였다.
- 「요구」의 란에 있는 것은 요구에 응하기 위한 행위로서의 서비스와 그 대상자이다

복수의 서비스가 어떤 경우는 그것들을 끝맺는 표현을 상부에 기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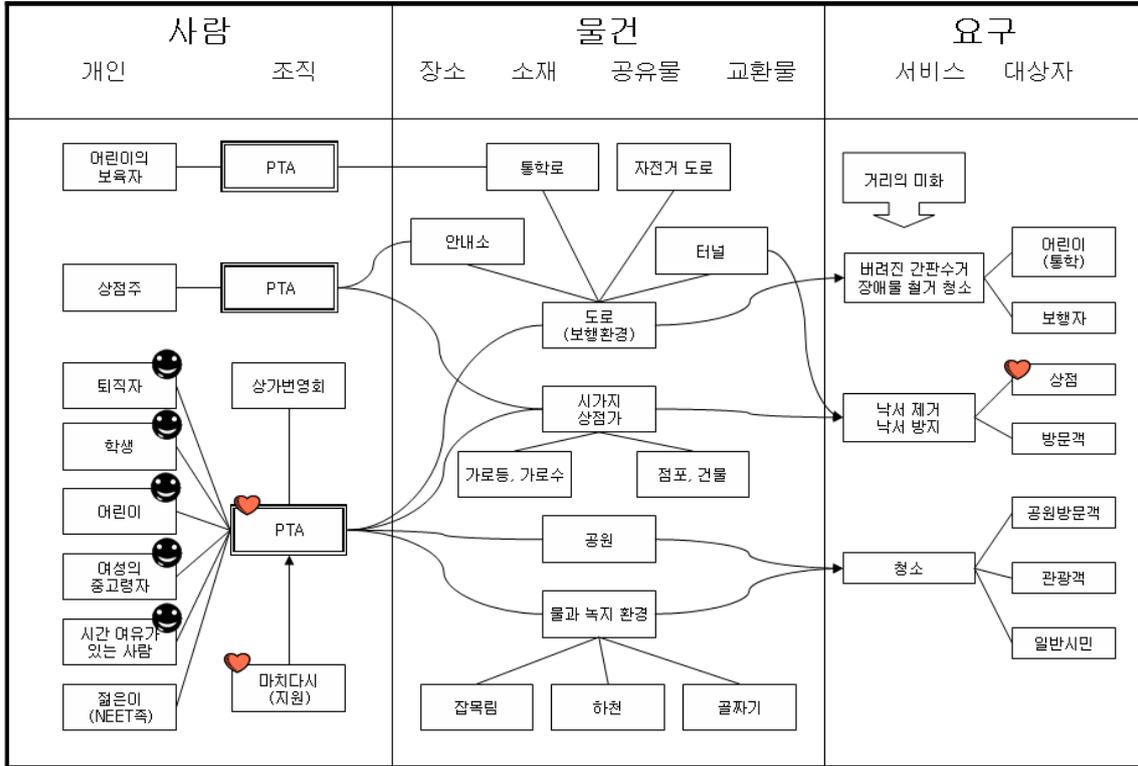
- 각 자원과 서비스 등에서 관련된 것을 행하는데 대해서는 선으로 연결하였다. 선이 화살표시가 되어 있는 것은 화살표시를 받는 것이 행위의 대상 또는 행위 그 자체가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 그림상의 마크로, 하트는 지역통화를 지급하는 사람(조직), 스마일은 지역통화를 받는 사람(조직)을 나타내고 있다.
- 그림의 설명으로 지역통화의 지급관계와 자원관계를 형상한 뒤에 과제 및 행정의 역할에 대해서 기술 하였다.
- 더욱, 「2. 행정의 관계에서 본 서비스 전개의 가능성의 경우 작업과 같이 여기에서는 이용되는 지역통화의 엄밀한 정의는 하지 않고 각각의 재화와 서비스의 교환에 편리 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상정하고 있다.

2) 그림의 설명

다음 테마는 지역 내의 자원 관련도를 작성하고, 다음 페이지 아래에 표시하였다. 각 그림에 「자원관련과 지역 내의 통화 지급과 「관련의 형성」에 대한 설명을 덧붙였다.

- 1. 거리의 미화
- 2. 방법순회 서비스
- 3. 골짜기의 자연 친화하는 서비스
- 4. 차에 의한 이송 서비스
- 5. 생활의 조언, 정보제공 서비스
- 6. 통역·번역서비스
- 7. 생활지원 서비스
- 8. 같은 모임 만들기 서비스
- 9. 아이의 놀이지원 서비스
- 10. 스포츠의 기회제공 서비스
- 11. 공부지도 서비스
- 12. 학습활동지원 서비스
- 13. 지역 데뷔강좌의 실시
- 14. 집회시설 등의 관리 서비스
- 15. 이벤트 「20살의 마치다(町田) 축제」의 실시

1. 거리의 미화



1. 관련자원과 지역통화의 지불

- 자원봉사 참가자 (건강한 고령자등)에게 총괄 조직인 NPO가 지불한다.
- 미화의 대상이 도로나 공원 등의 공공재이기 때문에 행정 (마치다(町田)시 등)이 NPO에 지불한다.
- 상점의 낙서를 지우는 것에 대해서는 서비스를 받은 상점이 실시하는 사람에게 지불한다.

2. 관련의 형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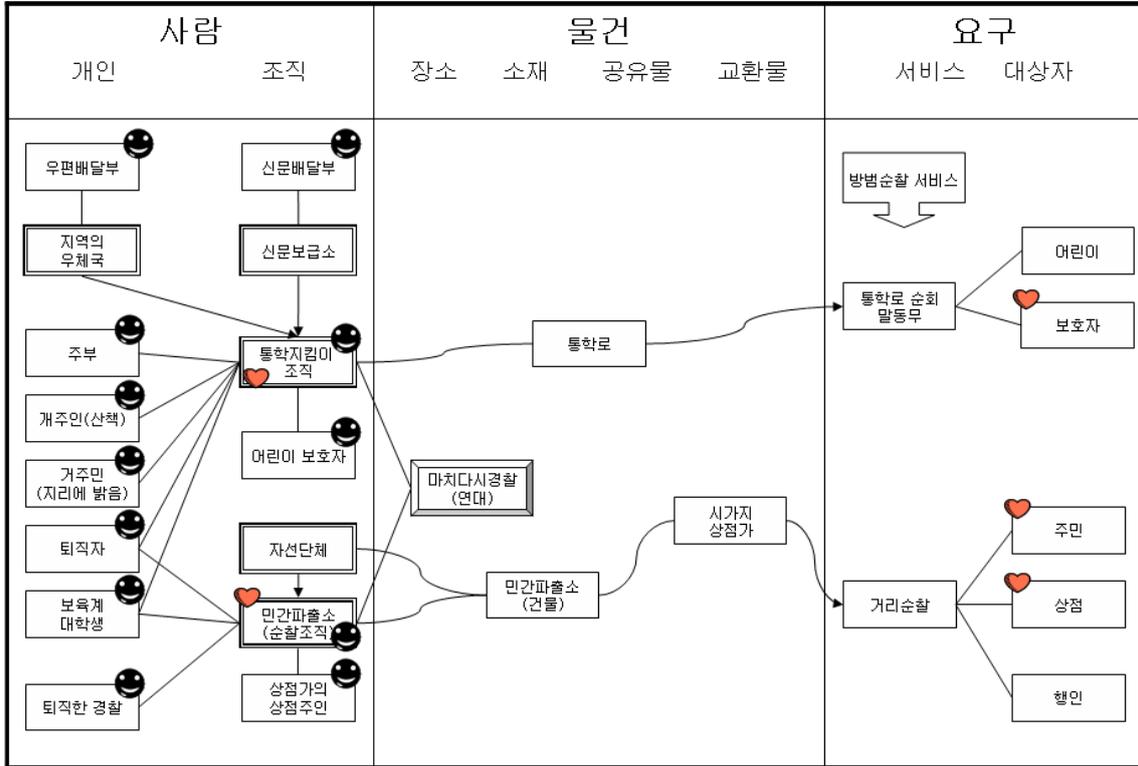
① 과제

- 일반시민이나 방문객이 감사의 마음을 나타낼 수 있는 구조 만들기 (지역통화를 지불한다)
- 총관된 조직의 자세. 조직마련 촉진.

② 행정의 역할

- 지역통화지불에 의한 활동지원
- 도로·공원 등의 미화활동에 참가하기 쉬운 제도마련

2. 방법 순회 서비스



1. 관련자원과 지역통화의 지불

- 자원봉사가 방법 순회를 한다. 받은 지역통화를 상점가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2. 관련의 형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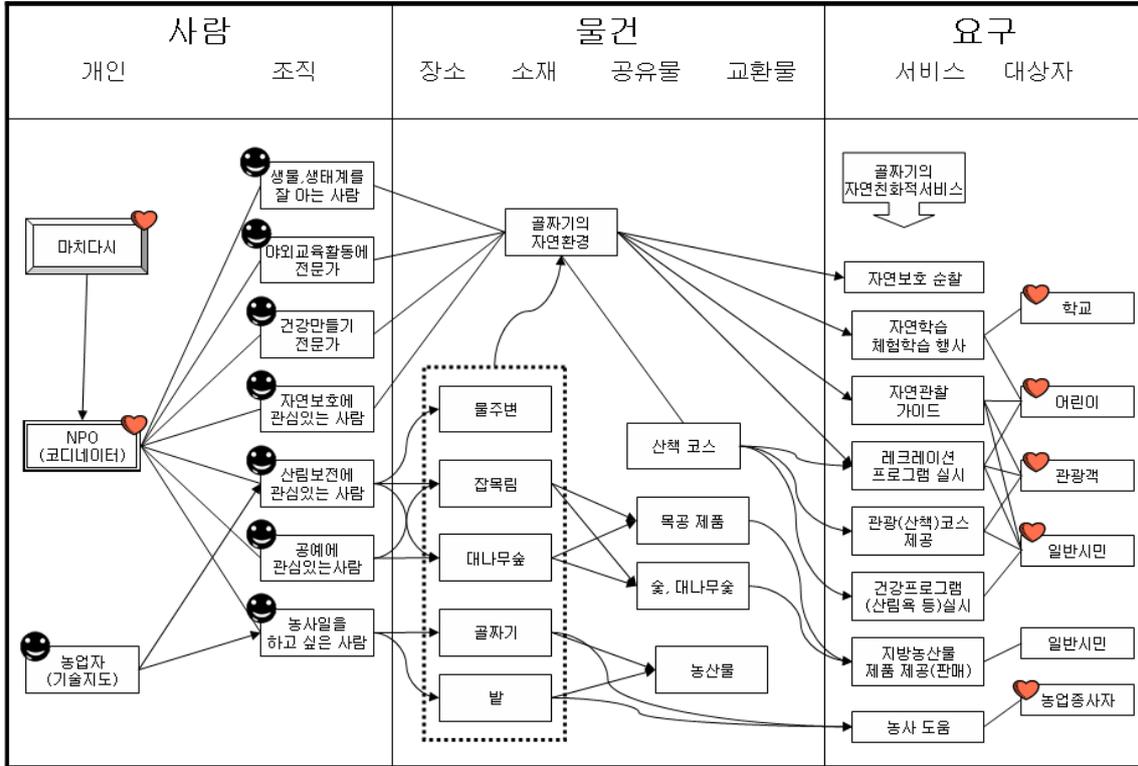
① 과제

- 시가 실시조직에 지역통화를 지불 지원하는 것도 고려하지만 오히려 자주성이 손실 될 것이 염려된다.
- 지역통화를 지불할 수 없거나 지불하지 않는 사람이 생기면 불공평을 낳을 우려가 있다. 관계자의 적극적인 관여를 이끌어낼 연구가 필요하다

② 행정의 역할

- 순찰조직과 경찰과의 연대관계를 구축

3. 골짜기를 자연친화적으로 만드는 서비스



1. 관련자원과 지역통화의 지분

- 여러 가지 자원봉사의 협력을 얻어 골짜기를 자연에 친화적으로 하기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한다. 자원봉사에는 코디네이터 조직을 통해서 지역통화를 지분한다
- 녹색환경 창출·보전에 관한 서비스(노무)에 대해서는, 시가 코디네이터 조직에게 지역통화를 부담한다. 농가를 도와주는 것은 농업종사자가 지역통화를 부담한다
- 가이드나 프로그램 등 개별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해서는, 수익자가 지역통화를 부담한다.
- 자원봉사를 통해 얻은 지역통화를 농작물이나 숯 등의 제품 구입대금의 일부에 해당할 수 있다.

2. 관련의 형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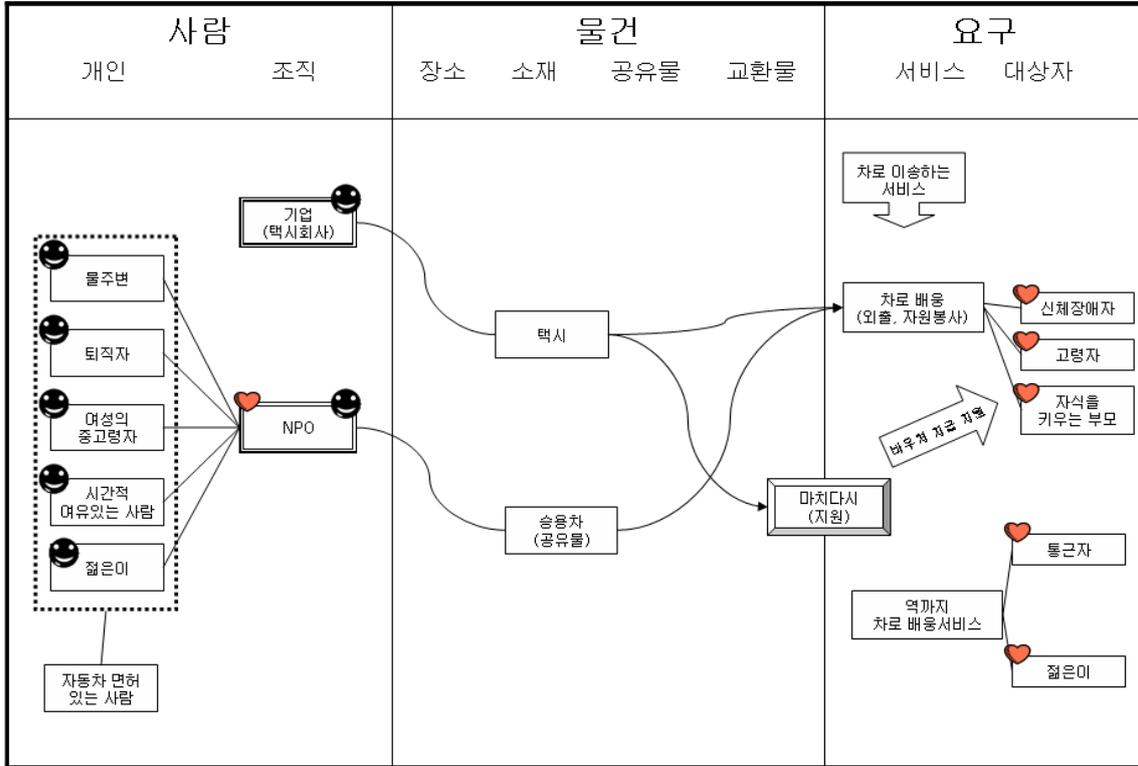
① 과제

- 코디네이터 조직의 설립
- 관계자간의 조정

② 행정의 역할

- 시의 북부구릉에 관한 시책과의 연대관계 구성 그 일환으로 행정의 지원·관여의 방법을 결정한다.

4. 차로 이송하는 서비스



1. 관련자원과 지역통화의 지불

- 신체장애자, 고령자에 대한 이송 서비스에 대해서는 시에서 수급자에게 바우처를 지급하는 방법이 고려된다. (서비스 제공조직인 NPO는 바우처)를 지역통화와 바꿔서 자원봉사자에게 사례비를 지불하도록 한다)
- 택시회사도 지역통화를 받아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2. 관련의 형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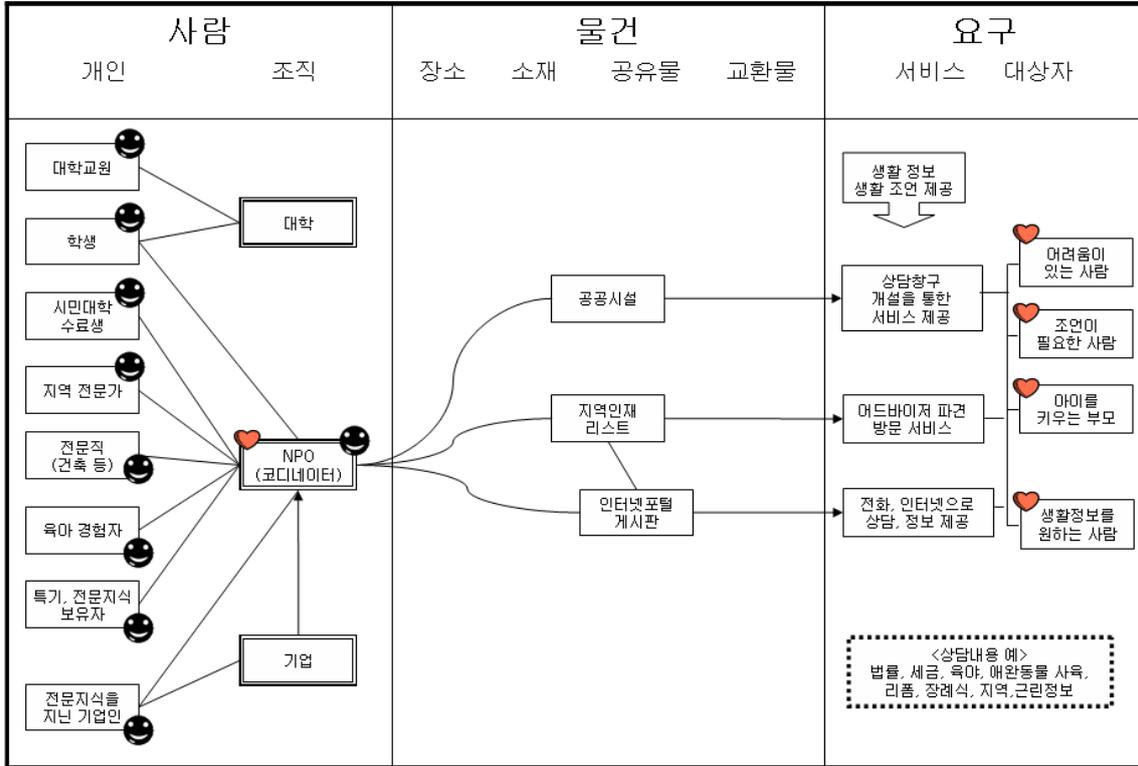
① 과제

- 택시회사가 지역통화를 받는 것은 그것을 업무로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 필요가 있다. (운전수가 개호강습을 받기 위한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등)
- NPO등이 실시할 경우, 안전 확보나 자격요건 등 많은 과제가 있을 것이라 생각되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② 행정의 역할

- 바우처를 돈으로 교환할 때에 지역통화로 바꿀 수 있는 구조를 만든다

5. 생활의 조언, 정보제공 서비스



1. 관련자원과 지역통화의 지불

- 일상생활에 관한 다양한 상담에 대응하는 서비스를 지역의 자원봉사 인재를 모아 유효하게 사용하도록 한다. 인재나 서비스를 코디네이트 해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조직의 역할이 크다.

2. 관련의 형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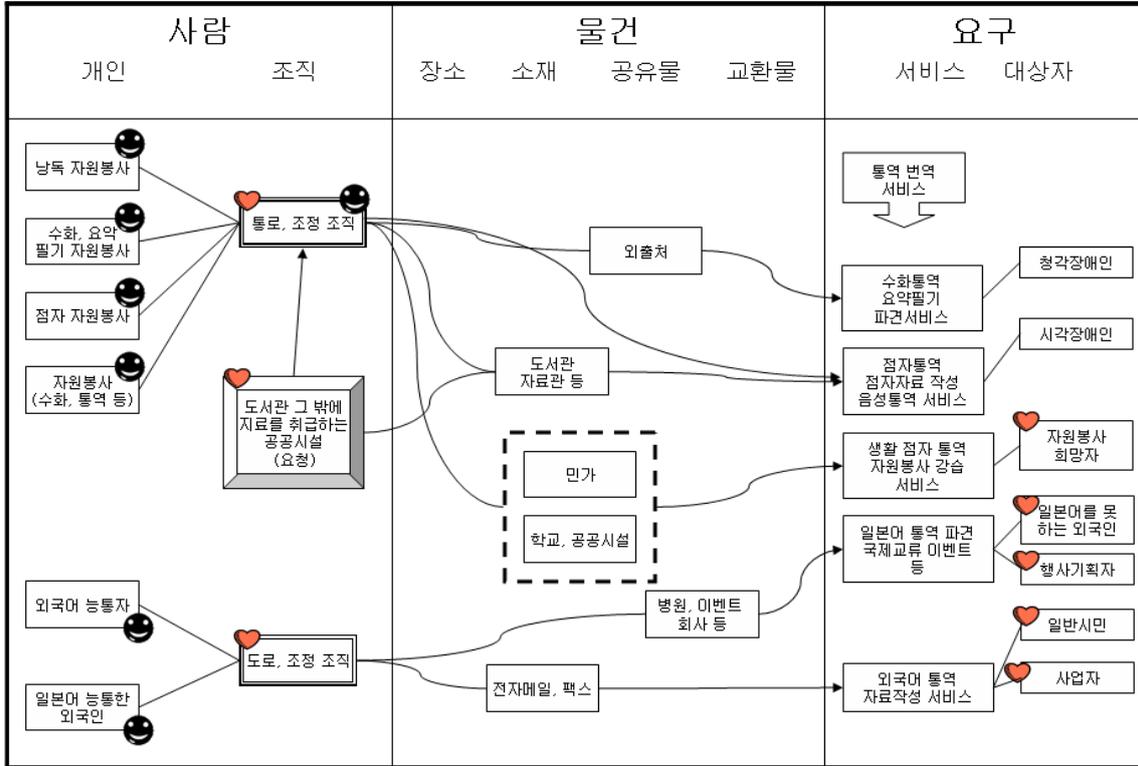
① 과제

- 코디네이터 조직을 만든 다음, 많은 사람이나 주체(조직)와의 관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고, 상당한 사업규모가 상정되어 사회 비즈니스로서 전개해 갈 수 있도록 상당의 조직의 역량이 요구된다.

② 행정의 역할

- 지역 인재 리스트의 작성에 대해서 공공적인 성질이 있고 자원봉사 등록을 촉진한 다음에도 행정의 관여가 필요할 것이다. 또한 공공시설의 사용이나 인터넷 사이트의 구축 등에서도 어느 정도 지원이 요구될 것이라 생각된다.

6. 통역·번역 서비스



1. 관련자원과 지역통화의 지불

- 도표의 상단은 복지적요소가 큰 서비스이다 공급하는 장애자에 대해서는 시가 바우처를 지급하는 방법을 고려하고 있다. 바우처를 수취한 연락조정조직은 바우처를 지역통화로 교환해서 자원봉사에게 사례로 지불한다 (이에 대한 타당성은 자원봉사현황을 파악해서 잘 검토할 필요가 있다)
- 서비스 제공체제를 충실하게 하기위해 이런 구조에 따라 자원봉사인재를 육성하는 것도 중요하다.
- 도서관 등 공공시설의 자료를 점자로 변환음성역(도표에는 없지만 소장 자료를 외국어로 번역하는 것도) 하는 경우는 도서관 등이 연락조정조직에 지역통화를 지불한다

2. 관련의 형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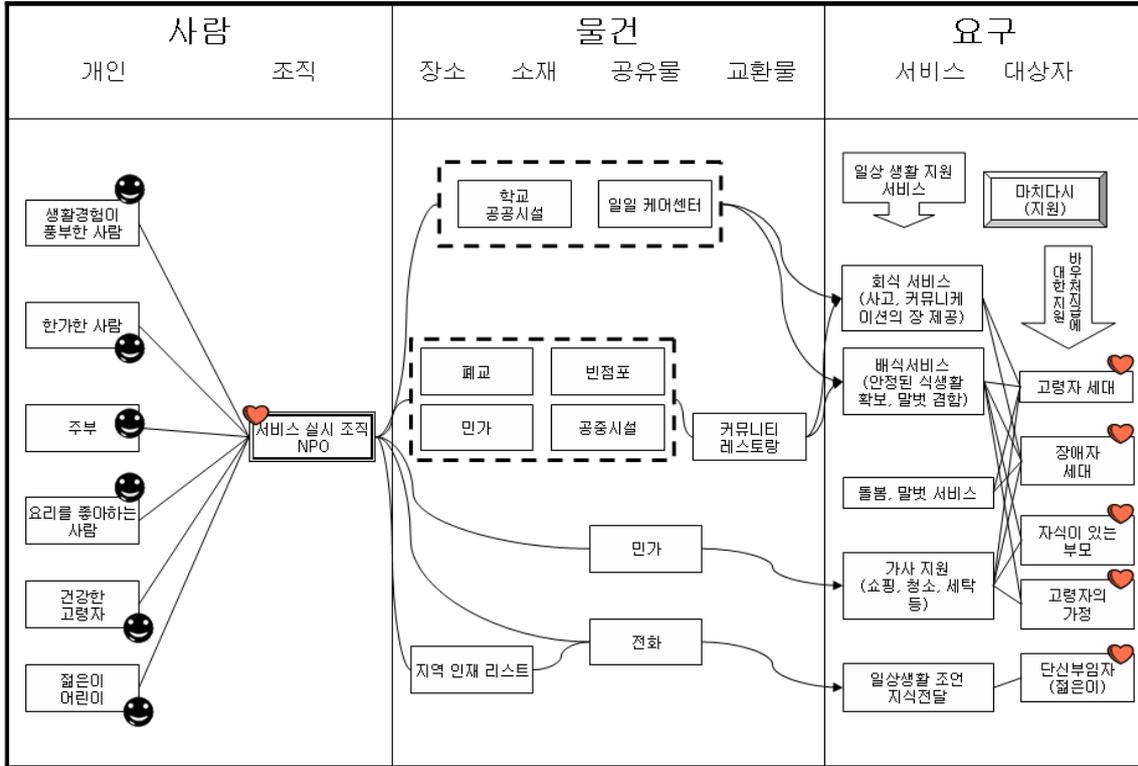
① 과제

- 연락·조정 조직의 구축

② 행정의 역할

- 공공시설에서 요구에 대응하는 가운데 관련 만들기를 지원해간다.

7. 생활지원 서비스



1. 관련자원과 지역통화의 지불

- 고령자의 친구 만들기의 촉진이나 식생활 지원을 자원봉사의 협력을 얻어 학교 등의 공공시설의 이용이나 민가 빈 점포 등을 사용한 커뮤니티 레스토랑 사업 등 통해서 행한다.
- 더욱이 자녀를 키우고 있는 세대나 장애자 세대의 식생활이나 가사 등의 지원을 한다.
- 서비스 수급자가 지역통화를 지불할 수 없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市(市)가 바우처를 지급하는 방책이 고려된다. 바우처를 받은 연락조정 조직은 바우처를 지역통화로 바꿔 자원봉사자 사례로 지불한다

2. 관련의 형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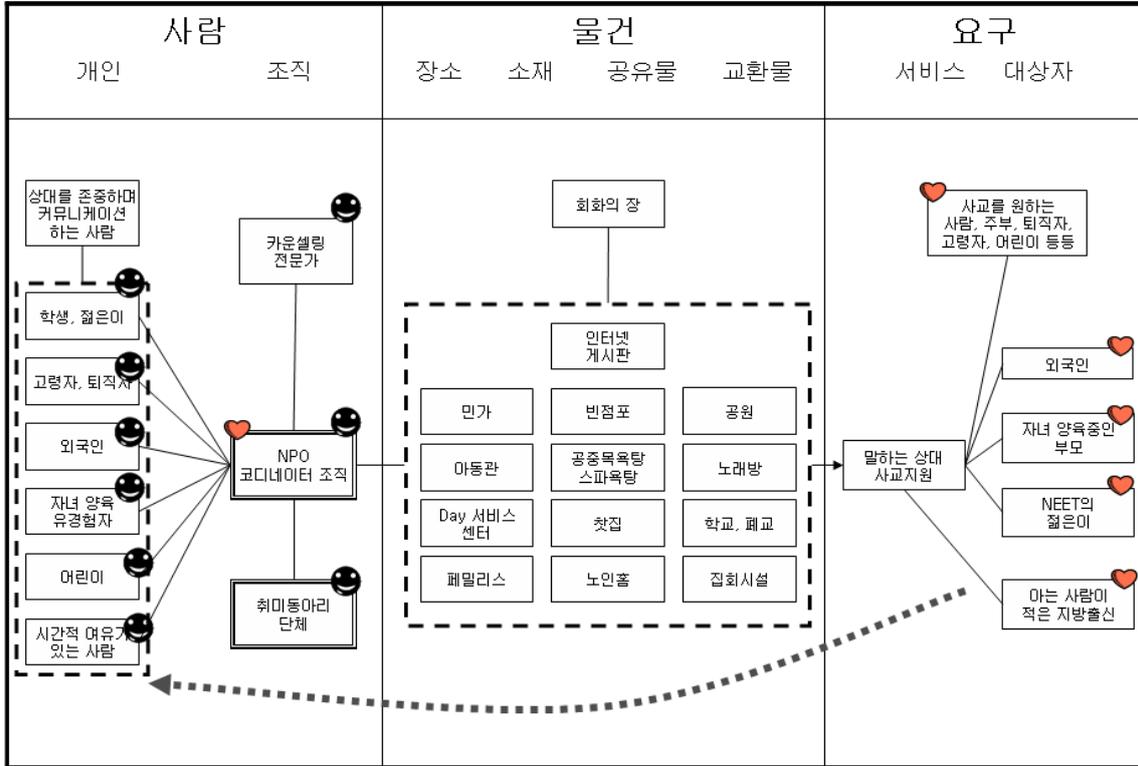
① 과제

- 서비스 제공의 장(場) 확보

② 행정의 역할

- 회식 등의 장(場)으로서 공공시설의 제공
- 바우처(식사권 등) 지급

8. 동료 만들기 지원 서비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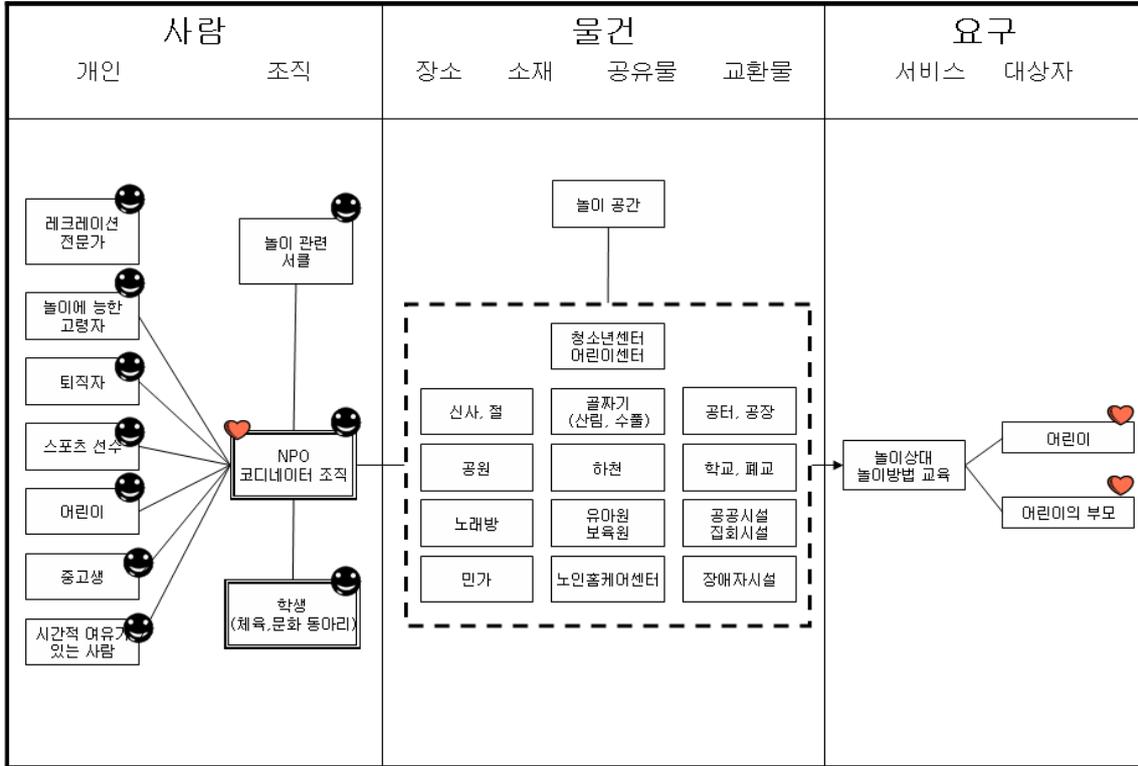
1. 관련자원과 지역통화의 지불

- 지역사회에 접점이 없는 은둔형 외톨이에게 커뮤니케이션의 기회를 제공한다
- 커뮤니케이션 기회가 적은 사람이 대상이기 때문에 서비스 수급자에게 처음부터 일정한 지역통화 포인트를 주는 것을 전제로 한다 또는 지역통화의 지불은 의무가 아니라 지불 할 수 있으면 지불하는 유연한 운용이 필요할 것이다 게다가 서비스를 받은 사람이 다음에는 제공자가 되는 형태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경우 지역통화는 커뮤니케이션 툴이고 최종적으로는 사용하지 않더라도 좋아지는 것이 이상이다

2. 관련의 형성

- 지역이나 테마에 의해 다양한 지역통화 단체가 존재하고 어느 지역통화 단체라도 누구나 부담 없이 참가 할 수 있도록 상황을 만드는 것
- ② 행정의 역할
 - 지역통화 커뮤니티가 활성화되는 환경을 정비

9. 어린이의 놀이 지원 서비스



1. 관련 자원과 지역통화의 지불

- 놀이 상대를 찾는 어린이를 대상으로 상대 찾거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 놀이를 통해 친구를 만들 수 있도록 응원한다. 또한 어른을 포함한 놀이 서클 만들거나 기존의 서클로의 참가를 촉진한다.
- 어른이나 고령자가 놀이 문화를 어린이에게 전달하는 것을 통해서 어린이의 창의성이나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높인다.

2. 관련 의 형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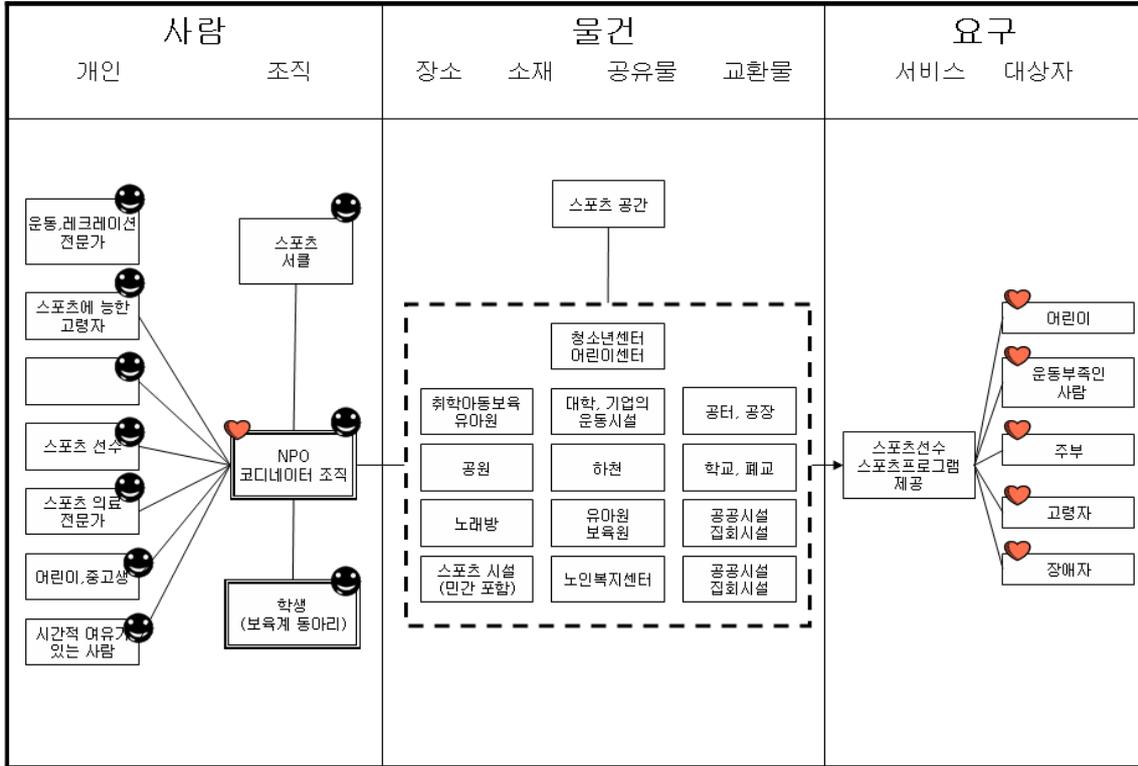
① 과제

- 장소 확보

② 행정의 역할

- 장소 확보 지원
- Junior leader를 활용해서 또래집단 형성을 촉진한다.

10. 스포츠 기회제공 서비스



1. 관련자원과 지역통화의 지불

- 운동부족이 되기 쉬운 사람, 부담 없이 스포츠를 즐기고 싶지만 상대가 없는 사람을 대상으로 스포츠 상대 찾거나 스포츠 프로그램의 제공을 통해서 운동을 통한 건강 만들 기, 친구 만들기를 지원한다.
- 목적은 계기를 만들 것이고 지속적으로 스포츠를 하고 싶은 사람에게는 스포츠 서클 을 알선한다.

2. 관련의 형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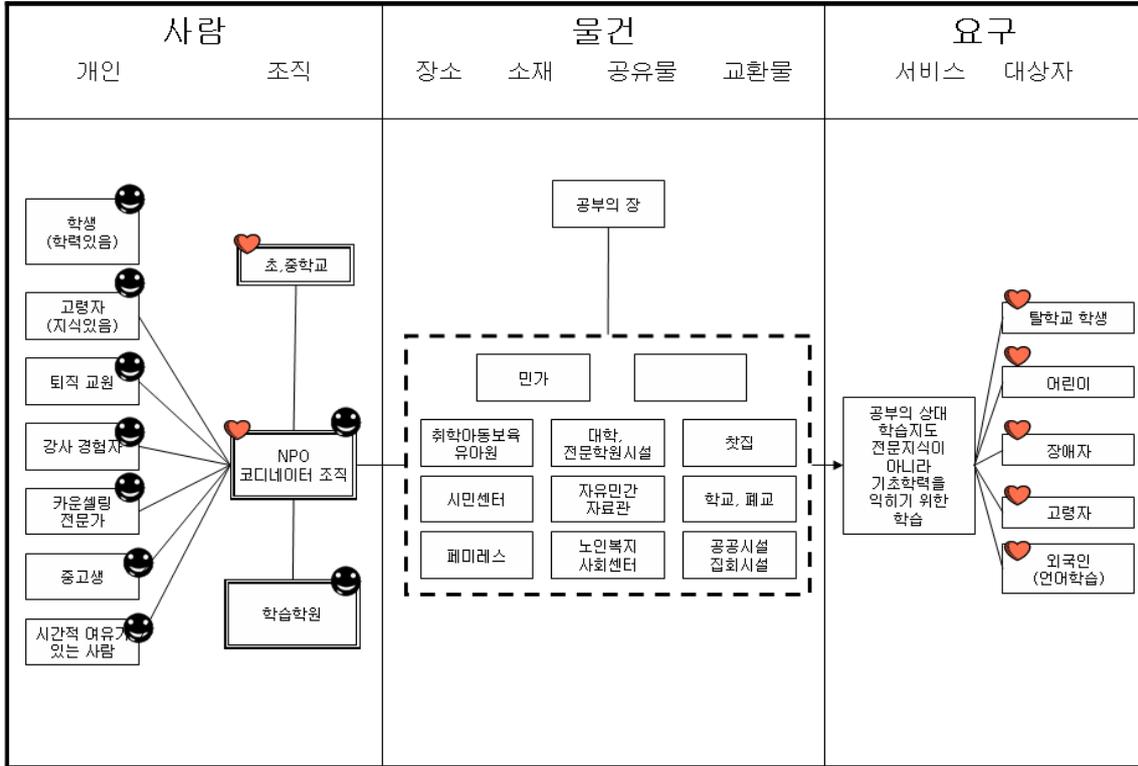
① 과제

- 민간 조직(NPO 등)이 실시하는 경우, 스포츠의 장(場)확보가 과제이다.
- 시(市)의 체육시설을 지정관리자 체도를 대상으로 한 경우, 이와 같은 서비스를 실시 할 수 있는가에 대한 검토가 필요

② 행정의 지원

- 장소확보 지원, 프로그램 만들기에 대한 조언 등.

1.1. 공부지도(튜토리얼)서비스



1. 관련자원과 지역통화의 지불

- 등교거부나 무언가의 이유로 공부가 뒤떨어지는 어린이에게 자원봉사자의 협력을 받아 공부를 돕는다.
- 고령자의 인지장애방지를 위한 공부나 외국인의 일본어 공부 등 개별 학습지도에도 대응한다.

2. 관련의 형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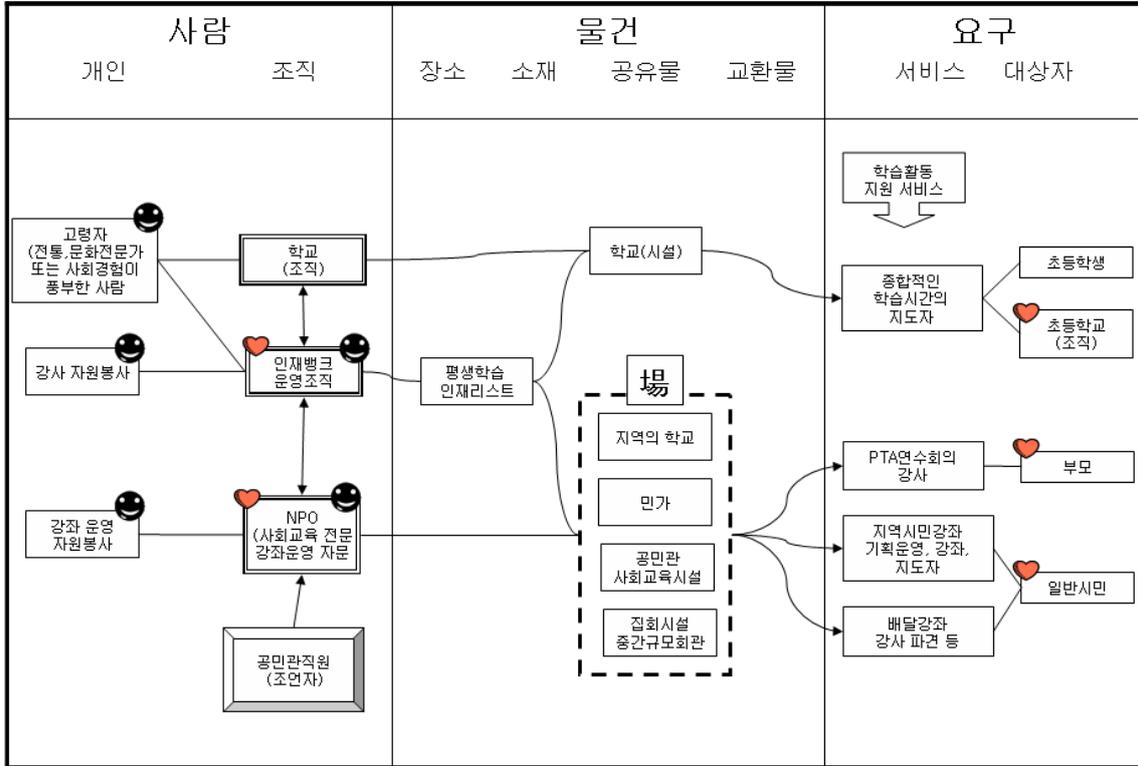
① 과제

- 수요와 공급의 매칭
- 대상에 따라서는 상당의 전문성이나 기능이 요구되고 스텝교육이 필요하다

② 행정의 역할

- 등교거부 아동대책, 행정의 대응이 필요한 것에 관여

1 2. 학습활동 지원 서비스



1. 관련 자원과 지역통화의 지불

- 평생학습 인재뱅크 운영조직과 강좌기획운영조직이 연대하고 다양한 학습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수강료나 자원봉사강사에 대한 사례는 지역통화로 지불하는 것을 장려한다.
- 인재뱅크 등록 강사에게 강사사례는 강좌 운영조직으로부터 인재뱅크 운영조직을 통해서 지불한다.

2. 관련형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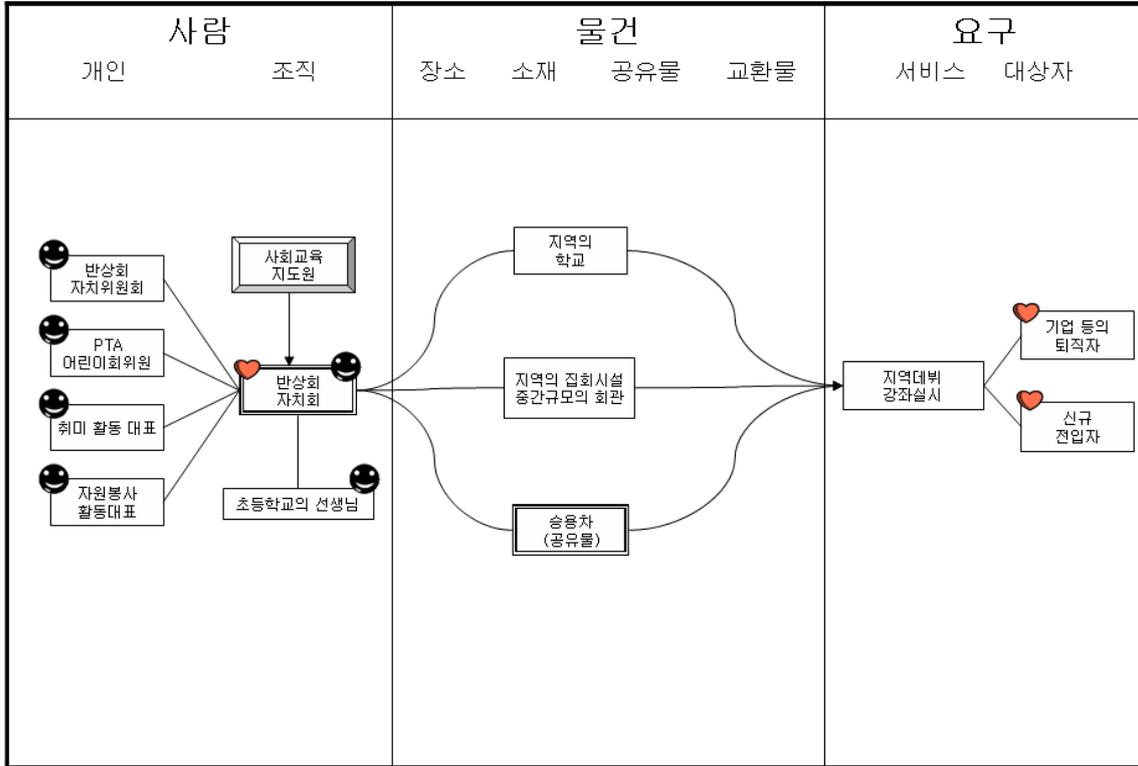
① 과제

- 평생학습 인재뱅크의 구축
- 운영조직의 설립

② 행정의 역할

- 평생학습 인재뱅크 시스템의 구축
- 인재뱅크 운영조직이나 강좌기획·운영조직의 설립지원 및 운영에 대한 조언

1 3. 지역데뷔 강좌 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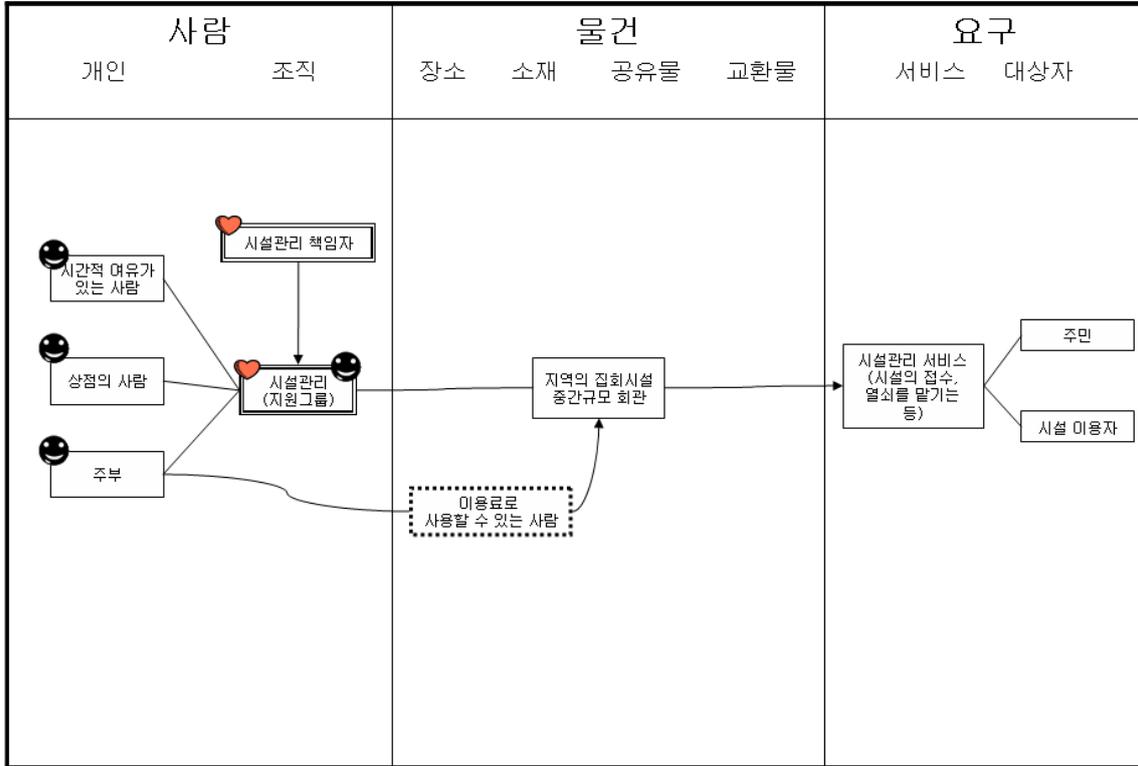
1. 관련자원과 지역통화의 지불

- 전입자나 퇴직으로 지역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어난 사람을 대상으로 지역 커뮤니티에 익숙해지게 하는 강습을 한다.
- 강좌를 하는 쪽에게도 인재 확보로 이어지기 때문에 지역통화를 받아야 하는가 어떤가 의견이 나뉘고 있지만 먼저 마이너스 포인트로 받고(장소 사용료정도)이후에 자원봉사 활동을 해서 돌려주는 것이 좋을 것이다.
- 커뮤니티 활동장려를 위해 일정기간 시가 지역통화로 지원하는 것도 검토 할 수 있다.

2. 관련의 형성

- ① 과제
 - 지역 커뮤니티에서 관계성 구축
- ② 행정의 역할
 - 실시체제 구축에 대한 조언

1 4 . 집회시설 관리 서비스



1. 관련자원과 지역통화의 지불

- 시설 이용자 가운데 시간적 여유가 있는 사람이 시설관리(접수나 열쇠대여 등 간단한 일)를 해준다.
- 시설관리자(조직)가 사례로 지역통화를 지불하고 그 지역통화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로써 시설을 이용률 향상이나 시설을 사용하는 활동의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다.
- 시설 관리자(조직)와 시설관리 지원조직이 동일한 경우도 있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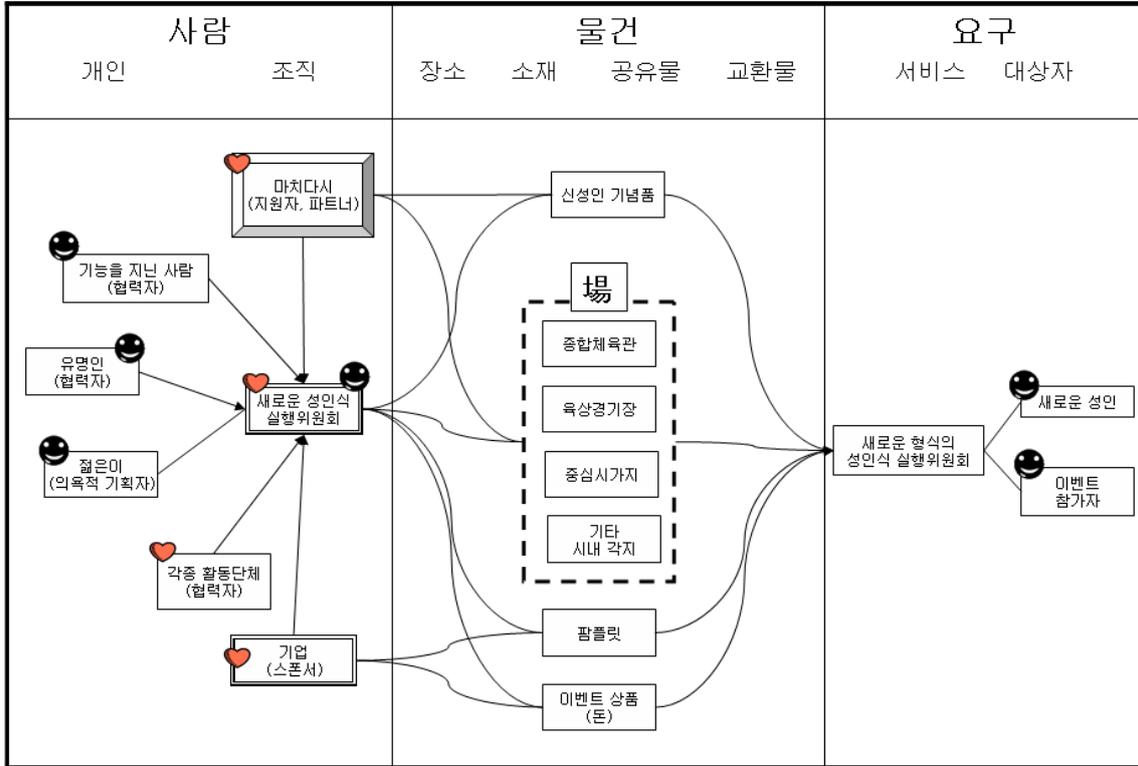
2. 관련의 형성

① 과제

- 단순한 구성이기 때문에 비교적 만들기 쉽다고 생각한다.

② 행정의 역할

1 5. 이벤트 「니쥬사이마치다 (새로운 형식의 성인식제도)」의 실시



1. 관련자원과 지역통화의 지불

- 실제 행해지는 사업을 모델로 고려해왔다.
- 시에서 일정액의 지역통화를 실행위원회에게 지불하는 것으로 지원한다 스폰서(상점 등)나 협력단체도 지역통화로 협력한다 성인식의 기념품대로 지역통화를 나누어주고, 각종 이벤트 참가자에게 참가상이나 현상(懸賞)으로서 지역통화를 사용한다 이 지역통화가 지방의 상점가 등에 소비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팸플릿도 지역통화로 지역 사업자가 작성하는 것이 좋다

2. 관련의 형성

① 과제

- 시내의 상업자 등에게 지역통화를 받는 체제가 생기는 것
- 지역통화에 대한 많은 관계자의 이해협력과 시민에게 인지를 촉진하는 유효한 PR이 필요.
- 이 사업을 통해서 특히, 젊은 세대의 인지 확대를 기대할 수 있다. 사회 실험으로서 실행한다는 의미도 크다.

② 행정의 역할

- 지역통화지원기획, PR 등에 대한 조언, 상점회와의 조달 등

4. 사회시장 형성의 과제와 구조의 방향성

(1) 서비스의 유형과 정리

1) 서비스의 유형화

WT의 2가지 관점으로부터의 작업 어프로치를 통해서 다양한 사회 서비스의 전개 이미지를 얻을 수 있다. 각 서비스의 전개나 활성화를 위해서는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지만, 사회시장형성을 효과적으로 진행해 가기 위해서는 다양한 모습을 보이는 서비스의 공통항목을 찾아내어 그에 맞는 과제정리와 전략적인 수단을 구축해야만 한다. 그리고 성질이나 제공방법 등의 항목에 의한 서비스의 유형화를 시도하고, 각각에 대응한 수단을 검토해 보았다.

먼저, 전항까지 제시했던 서비스에는 복합적인 것이나 다른 곳과 중복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서비스의 내용에 따라 다음 항목 「서비스일람」에 나타나는 59개의 서비스로 재정리했다. 다음으로 이러한 서비스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분류항목을 개설 분류작업을 했다.

분류항목 1: 서비스의 제공 방법

a. 행정직영	서비스의 내용-방법의 결정 실시 또한 행정이 한다.
b. 외부위탁	서비스의 내용-방법의 결정은 행정이 행하고 시설은 외부(기업이나 NPO 등의 민단업자)에 위탁한다. 지정 관리자제도를 포함한다.
c. 민관공동(公民公同)	서비스의 내용-방법의 결정 실시를 행정과 민간이 공동으로 행한다. 사업주체의 민관공동(公民公同)설치나 PFI를 포함한다.
d. 민관공존(公民共存)	행정이 행하는 서비스를 보완하는 형태로, 민간 사업자도 동종의 서비스를 행한다.
e. 민간시설 (공적지원 있음)	서비스의 내용-방법의 결정 실시 또한 민간사업자가 행하고 행정이 지원기준을 세워 지원한다. 서비스를 받는 쪽의 바우처 지급도 포함한다.
f. 민간시설 (공적지원 없음)	서비스의 내용-방법의 결정 실시 또한 민간사업자가 시행하고 행정의 지원은 받을 수 없다. 민영화해야하는 행정서비스도 포함한다.
g. 공조	커뮤니티내부에서 각 구성원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서로 제공한다.

※ 서비스제공의 현황이 아니라 「존재해야 하는 상태」를 검토했다.

※ 자원봉사가하는 서비스는 자원봉사 제도의 운영주체에서 판단했다

예를 들면, 행정이 운영하는 자원봉사라면 「a」, 민간사업자가 운영하는 자원봉사라면 「e」나 「f」가 된다.

서비스 일람

	서비스명	서비스의 내용		서비스명	서비스의 내용
1	급식서비스	학교 급식을 핵심으로 고령자세대나 복지시설에 대한 급식·배식도 행한다.	31	잡목림 관리	
2	초등학생의 방과 후 대응	방과 후 초등학생들이 모여 풍요로운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한다.	32	통학 로의 순회	아동의 통학 시 방법 순찰을 한다.
3	애완동물관련 서비스	애완동물에 관한 상담이나 정보제공, 양부모의 중개, 애원건을 위한 공간운영 등을 행한다.	33	자연보호 순찰	식목, 농지의 보전이나 불법 투기 방지를 위한 순찰 등
4	관광진흥	아쿠시 연못(薬師池)일대의 시설을 자원으로 활용하고 관광 사업을 전개한다.	34	자연체험 학습의 실시	아동이나 어른을 대상으로 구릉지의 자연을 체험하는 학습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5	농지·녹지 활용	농가와 농가를 지원하고 하는 사람을 중개, 시의 녹지를 입수하고 활용한다.	35	자연관찰 가이드	시민이나 관광객을 대상으로 마치다(町田)의 자연을 안내한다.
6	쓰레기 처리	일정 지역의 쓰레기를 가족별 수집한다. 필요에 따라서는 방문 수집도 한다.	36	레크리에이션 실시	공원이나 잡목림 등을 빌려 레크리에이션 프로그램을 한다.
7	자전거 주차 서비스		37	관광루트의 설치·관리	관광용 안내 표의 설치나 관리를 한다.
8	평생학습 프로그램의 제공	학습 자원봉사를 육성하고 대학, 기업, 행정의 연대를 통해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38	건강 만들기 프로그램	상림욕 등의 건강 만들기 프로그램을 한다.
9	어린이의 놀이지원	놀이를 통해 어린이 아이들에게 여러 가지 놀이를 가르친다.	39	지역농작물의 제공(판매)	지원농으로 취한 농작물을 지역의 사람들에게 안전하게 제공한다.
10	어린이의 독서지원	학교 도서관을 이용해서 책을 읽어주거나 독서방법에 대해서 부모에게 조언을 한다.	40	농촌 일손 돕기	고령자 등에게 지속 곤란한 농가의 농사일을 지원한다.
11	어린이의 자원봉사 체험	종합학교의 자원업무 등을 통해서 어린이의 자원봉사 체험의 기회를 제공한다.	41	이출·이동지원	이동·이출에 개호가 필요한 사람에게 이출을 자동차로 지원한다.
12	공공맵(map)만들기	공공적 정보나 생활에 관한 정보를 실은 지도를 작성·배포한다.	42	자동차에 의한 이송	자동차가 없는 사람들을 역까지 이송한다.
13	일상생활의 지원	고령자나 장애자를 대상으로 개호보험제도 등으로 할 수 없는 일상생활을 지원한다.	43	생활 어드바이스·정보제공	트러블이 있는 사람, 단신부임의 젊은이, 자녀를 키우고 있는 부모에게 조언을 하고 정보를 제공한다.
14	거리의 미화	시의 중심가 등 일정 구역 내에서의 미화·청소, 노상 불법 점거물의 철거를 한다.	44	수화·점자 지원	장애자의 요망에 따라 수화통역, 점자 통역, 음성통역, 낭독 등을 한다.
15	방범순찰-안내	중심시가지 등 일정한 지역 내에서 방범 순찰과 방문객에게 안내를 한다.	45	수화·점자 자원봉사 강습	자원봉사 희망자에게 수화·전시의 강습을 한다.
16	보육서비스	부모가 일을 할 때 아이를 맡아서 보육한다.	46	외국인에게 일본어 통역	외국인에게 일본어 통역을 한다.
17	베이비시터 서비스	부모가 이출할 때 아이를 맡아준다.	47	외국어 번역·문장작성	외국어문장의 일본어번역, 외국어문서의 작성을 한다.
18	회식·배식	이출이나 조리가 곤란한 고령자세대 등을 대상으로 배식이나 교류를 위한 회식을 한다.	48	고령자의 말벗·지킴이	고령자세대 등을 대상으로 말벗, 지킴이를 한다.
19	모래밭의 소독·관리	공원이나 학교의 모래밭의 모래를 일광에 소독, 청결하게 이용하도록 관리한다.	49	가사지원	지원이 필요한 사람에게 쇼핑, 청소, 세탁물 수합, 집 뱀주기 등을 한다.
20	지구공원의 관리서비스	지역 내의 공원의 청소나 간단한 식목 관리, 수선 등을 한다.	50	말벗	말할 상대가 필요한 사람에게 말벗이 되어준다.
21	도로용지 등의 관리	도로용지 등 이용하지 않는 토지를 화단 등으로 해서 유효활용 한다.	51	동료만들기 지원	고독한 사람에게 친구를 만들어주는 지원을 한다.
22	집회시설 등의 관리	지역의 집회 시설·중간 규모 회관의 접수나 열쇠를 맡기는 등의 일을 한다.	52	놀이상대	놀이 상대가 없는 사람에게 놀이 상대가 되어준다.
23	학교부서 활동의 지도	자원봉사자가 학교의 부서 활동을 지도한다.	53	스포츠의 기회제공	스포츠의 기회의 혜택이 없는 사람에게 스포츠에 익숙해 질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한다.
24	불법 벽지·간판 제거	노상공공물에 대한 불법 벽지 부착이나 간판을 철거한다.	54	공부 상태	등교거부아동, 공부가 뒤떨어지는 아이, 고령자(치매예방)의 공부를 도와준다.
25	환경배려 활동	쓰레기의 양을 줄이고 환경부하의 저減(低減)을 위한 활동을 한다.	55	외인에게 일본어 교수	외국인에게 일본어(일상회화)를 가르친다.
26	마을 만들기 이벤트 실시	지역의 활성화나 지역과제의 개발을 위한 이벤트를 한다.	56	학습지도·강좌의 강사	학교의 종합학습 지도자나 지역의 강습회 등의 강사를 해준다.
27	지역자원 회수	지역 내에서 자원을 재활용하고 쓰레기량을 줄인다.	57	지역시민강좌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강좌를 기획·실시한다.
28	낙서 제거	상점의 낙서를 지운다. 낙서 방지를 위한 조치를 행한다.	58	지역대부 지원	지역의 퇴직자나 전일자를 대상으로 지역에 친숙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대부강좌를 한다.
29	공원 청소	근린공원을 청소한다.	59	새로운 형태의 성인식 실시	성인을 대상으로 한 이벤트를 기획·실시한다.
30	하천 청소	하천의 쓰레기를 청소한다.			

WT에서 a~g 각 구분에 해당한다고 여겨지는 서비스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a. 행정직영 - 없음

- ◆ 대상서비스는 사회시장화를 전제로 검토해왔기 때문에 이 구분에 해당하는 것은 없었다. 「어린이의 자원봉사 체험」이나 「도로용지 등의 관리」를 드는 의견이 있었지만 많은 지지는 얻지 못했다.

b. 외부위탁

급식서비스, 모래밭 소독·관리, 쓰레기 수집, 관내 공원의 관리

- ◆ 행정서비스는 단순한 외부화를 전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에 해당하는 것은 적다. 시(市)에서 관리하는 시설이나 설비에 관한 것을 들 수 있다.

c. 민관공동(公民共同)

관광 진흥, 방법순찰안내, 평생학습 프로그램 제공, 하천의 청소

- ◆ 그다지 수는 많지 않지만 공공적 성격이 강한 것 공공시설의 활용에 관한 것, 행정의 조정능력이 기대되는 것 등을 들 수 있다.

d. 민관공존(公民共存) 없음

- ◆ 「공존」이라는 상태를 이미지로 나타내기 어렵기 때문에 해당사항이 없었다. 「보육」이나 「초등학생의 방과 후 대응」을 들 수 있지만 많은 호응을 얻지 못했다.

e. 민간시설(공적지원 있음)

외출·이동지원, 일상생활지원, 베이비시터, 회식·배식, 농지·녹지 활용, 수화·점자 지원, 학습지도·강좌의 강사, 새로운 성인식 문화, 가사지원, 아동의 놀이지원, 마을 만들기 이벤트 실시, 지역자원의 회수, 지역시민 강좌, 수화·점자 자원봉사 강습, 초등학생의 방과 후 대응, 거리의 미화, 보육서비스

- ◆ 사회 서비스의 담당자로서 민간의 사업주체를 상정해 왔기 때문에 다수의 서비스가 이에 해당했다. 생활을 서포터 하는 것이나 공공적 성격이 강한 것을 들 수 있다.

f. 민간시설 (공적지원 없음)

지방 농작물의 제공(판매), 애완동물 관련 서비스, 생활 어드바이스·정보제공·사교의 지원, 자연 체험학습의 실시, 자연관찰 가이드, 농촌봉사

- ◆ e와 같이 많은 서비스가 해당하지만 생활에 다양성을 주어 풍부하게 한다는 내용의 서비스를 들 수 있다.

g. 공조

대화상대, 자동자로 이동서비스 지원, 놀이상대, 고령자의 말벗·지킴이

- ◆ 사업으로서 하는 이미지가 많았기 때문에 e나f와 비교하면 해당 항목이 적다. 친구나 아는 사람이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행해질 수 있는 서비스를 들 수 있다.

※ 어느 구분에 해당시키면 좋을지 결론을 낼 수 없었던 서비스도 10개 항목 정도 있었다.

분류항목 1의 2 : 행정 지원의 필요성

분류항목 1에서 「d」 또는 「e」에 해당하는 민간 사업자에 의한 서비스에 대해 필요한 행정 지원(공적자원 투입)의 구분

자금	사업·활동자금의 지급·수여
인(人)적	전문적 조언, 교육·훈련, 노동력 제공 등
물(物)적	활동의 장을 제공, 자재의 제공 등

WT에서 각 구분에 해당한다고 여겨지는 서비스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a. 자금지원의 필요성이 높은 서비스

보육서비스, 초등학생의 방과 후 대응, 수화점자 지원, 베이비시터, 회식·배식, 환경배려 활동, 수화점자 자원봉사 강습, 새로운 형식의 성인식 실시, 일상생활 지원, 불법벽보·간판 철거

b. 인(人)적 지원의 필요성이 높은 서비스

일상생활의 지원, 베이비시터, 불법벽보·간판 철거

c. 물(物) 적 지원의 필요성이 높은 서비스

초등학생의 방과 후 대응, 일상생활 지원, 아동의 놀이 지원, 환경배려 활동, 농지·녹지 활용, 어린이의 자원봉사 체험, 베이비시터, 보육서비스, 불법벽보·간판 철거, 마을 만들기 이벤트 실시, 수화·점자 지원, 수화·점자 자원봉사 강습, 스포츠의 기회 제공, 지역주민 강좌, 새로운 형식의 성인식 실시

- ◆ 각 구분도 필요성이 높다고 생각되는 순서로 기재했다.
- ◆ 복수의 구분에 해당하는 것이 많다. 이것은 「자금에 의한」에 해당하는 서비스와 거의 일치한다. 육아지원 등 생활을 서포터 할 것이나 환경 등 공공적 성격이 강한 것이 있다.
- ◆ 지원이 필요한 서비스의 수는 「물적 지원」이 가장 많고, 다음으로 「자금」, 「인적 지원」 순이다.

분류항목 1 의 3 : 시민으로부터의 자금 조달 효과

분류항목 1에서 「c」 ~ 「f」에 해당하는 서비스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커뮤니티펀드 등 시민으로부터 자금을 조달 받는 구조를 이용하는 것의 유효성에 대해서

WT에서 유효성이 있다고 생각되는 서비스를 검토한 결과, 다음 서비스를 들 수 있다.

농지·녹지 활용, 보육 서비스, 관광 진흥, 거리의 미화, 회식·배식, 환경배려 활동, 방법 순찰·안내, 베이비시터, 자연보호 순찰

- ◆ 거리나 자연 등 지역의 환경을 향상시키기 위한 서비스나 생활 자원 서비스에서 사업적 성격이 강한 것을 들 수 있다.

분류항목 2 : 서비스 공급의 활성화에 효과적인 수단

각 서비스의 공급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효과가 있다고 생각되는 수단의 구분

a. 바우처	행정이 서비스 수급자에게 Voucher를 지급한다.
b.지역통화(공조형)	지역통화가 서비스 수급자로부터 서비스제공자 개인에게 직접 지불되어지는 것.
c.지역통화(사업형)	지역통화가 서비스 수급자로부터 사업운영조직(NPO등)에게 지불되어지는 것.
d.지역통화(행정지급)	행정이 자원봉사 등의 사례로서 지역통화를 지불하는 것

WT에서 a~d 각 구분에 해당한다고 여겨지는 서비스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a. 바우처지급이 효과적인 서비스

보육서비스, 베이비시터, 초등학생의 방과 후 대응, 회식·배식, 일상생활 지원

◆ 그밖에 「평생학습 프로그램 제공」 이나 「가사지원」 등을 들 수 있다.

b. 지역통화 (공조형) 가 효과적인 서비스

농지·녹지 활용, 베이비시터, 외출·이동 지원, 일상생활의 지원, 가사지원, 지방 농작물의 제공(판매), 생활 어드바이스정보제공, 고령자의 말벗·지킴이, 대화 상대, 스포츠의 기회 제공, 공부의 상대

◆ 상기 이외에도 많은 서비스를 들 수 있지만 지지가 많았던 것을 기입했다.

c. 지역통화 (사업형) 가 효과적인 서비스

주차서비스, 일상생활의 지원, 평생학습 프로그램 제공, 베이비시터, 불법벽차간관철거, 잡목림의 관리, 외출·이동지원, 외국어 번역·문장작성, 어린이 놀이 지원, 보육서비스, 회식·배식, 건강 만들기 프로그램

◆ 상기 이외에도 많은 서비스를 들 수 있지만 지지가 많은 것을 기입했다

d. 지역통화 (행정지급) 가 효과적인 서비스

하천 청소, 관내 공원의 관리, 도로용지의 관리, 방범순찰·안내, 모래밭의 소독·관리, 불법벽차·철거, 거리의 미화, 공원의 청소, 잡목림의 관리, 관광루트의 설치·관리, 학교부서 활동지도, 자연보고 순찰

◆ 그밖에 「환경 배려활동」 「새로운 형식의 성인식의 실시」 「집회실시 등의 관리」 등을 들 수 있다.

분류항목 3 : 서비스의 성질

a.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것	기본적으로 개인이 해결해야만 하는 과제에 관한 서비스
b.근린의 협력으로 할 수 있는 것	근린에서 해결해야하는 과제에 관한 서비스
c.지역의 협력으로 할 수 있는 것	근린만으로는 해결이 곤란하지만 많은 시민이 협력해서 해결해야하는 과제에 관한 서비스
d.행정과 협력해서 할 수 있는 것	시민의 협력만으로 해결이 곤란하지만 행정이 협력에 의해 해결해야하는 과제에 관한 서비스
e.행정이 없으면 할 수 없는 것	행정이 해결해야하는 과제에 관한 서비스

WT에서, a~e의 각 구분에 해당한다고 생각되는 서비스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a. 개인적으로 할 수 없는 것

◆ 사회나 커뮤니티의 과제에 관한 서비스로 어떤 것을 전제해 검토해왔기 때문에 이 구분에 해당하는 것은 없었다. 「애완동물 관련 서비스」 나 「환경 배려활동」 등이 있지만, 많은 지지를 얻지 못했다.

b. 근린의 협력으로 할 수 있는 것

일상 생활지원, 초등학생의 통학로 순시, 고령자의 말벗·지킴이, 어린이의 놀이지원, 외출·이동지원, 자동차로 이송, 가사지원, 말벗, 놀이 상대

c. 지역의 협력으로 할 수 있는 것

집회시설 등의 관리, 지방 농산물의 제공 (판매) , 농촌봉사, 조직 만들기 지원, 애완동물 관련 서비스, 마을 만들기 이벤트의 실시, 레크리에이션의 실시, 건강 만들기 프로그램, 어린이 독서지도 지원, 학교부서 활동지도, 낙서지우기, 잡목림의 관리, 자연보호 순찰, 자연 체험학습의 실시, 자연 관찰가이드, 생활어드바이스·정보제공, 외국인에게 일본어 교수, 학습지도·강좌의 강사, 지역시민강좌, 지역데뷔 지원

d. 행정과 협력해서 할 수 있는 것

초등학생 방과 후 대응, 관광 진흥, 쓰레기 수집, 급식서비스, 농지·녹지 활동, 보육서비스, 주차서비스, 새로운 형식의 성인식의 실시, 평생학습 프로그램 제공, 공공맵 (map) 만들기, 불법 벽보·간판의 철거, 관광루트 설치·관리, 수화·점자 자원봉사 강습, 방법 순찰·안내, 학교부서 활동지도

e. 행정이 없으면 할 수 없는 것 없음

◆ 행정 서비스의 외부화, 민간과의 협동, 민간 활동에의 지원, 지역인재의 활동 등을 기초로 검토해 왔기 때문에 이 구분에 해당하는 것은 없었다. 「도로용지 등의 관리」 나 「모래밭의 소독관리」 「하천의 청소」 등이 있지만 많은 호응을 얻지 못했다.

※ 어느 구분에 해당시키면 좋을지 결론을 낼 수 없었던 서비스도 있다

2) 유형에 기초한 정리

이상, 몇 개의 유형화를 시도해 봤지만 각 유형간의 관련성을 살펴보기 위해 서비스의 유형정리표(이하 「정리표」 라고 한다.)를 작성했다.

정리표는 분류항목1 「서비스의 제공 방법」 과 분류항목3 「서비스의 성질」 과의 크로스를 기본으로 해서, 기타 분류항목에 대해서는 범례에 따라서 표시하고 있다. 서비스 제공 주체(행정·민간)의 구성과 보완성의 원리⁷⁴⁾에 의한 서비스의 성질 분류와의 관계구도를 기본으로 놓고, 거기에 행정에 의한 지원=자원투입의 방법(분류항목1의2), 시민으로부터 자금을 조달 받은 효과(분류항목1의3), 마우처나 지역통화의 유효성분류항목2)의 검토 결과를 거듭 살펴본 것이다. 표의 표제어에서는 핵심이 없었던 구분(분류항목1)에서

74) 「보완성의 원리」 에 대해서는 제1장에서 언급했지만 여기서는 과제해결의 장(場)은 제일의 적에 근린사회이고 근린에서 해결 할 수 없다면 지역사회의 협력으로 해결 할 수 없다면 행정과 협력해서 그러한 근린←지역사회←행정과 보완해 가는 관계를 가리킨다.

는 「행정직영」과 「민관공동 (公民共同)」, 분류항목 3에서는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것」과 「행정이 없으면 할 수 없는 것」을 제외하고 「기타」란을 추가해, 어느 구분에도 해당하지 않았던 서비스를 기입했다.

구분의 시작은 분류항목1(예)은 왼쪽으로 가는 만큼, 분류항목3(행)에서는 위로 가는 만큼, 행정의 관여가 크고 동시에 직접적으로 되도록 배려되어 있다. 각 서비스는 (「기타」에 들어가는 것을 제외하고) 표 위에서 오른쪽 위에서 왼쪽 아래를 이어지는 선에 따라 나열한 형태로 되어있다. 또한 표 중앙부분에 많은 서비스가 모여 있다. 이것으로부터 다음과 같이 파악된다.

① 「서비스의 성질」 과 「서비스 제공방법」 에는 확실한 관련이 있다.

「서비스의 성질」 과 「서비스 제공방법」 과의 사이에는 명확한 관련이 보인다. 근린의 협력으로 할 수 있는 서비스는 「공조」에 의한 제공, 지역이 협력 할 수 있는 서비스는 「공적 지원 없는 민간시설」에 의한 제공, 행정과의 협력으로 할 수 있는 서비스는 「행정서비스의 외부위탁」이나 「민관공동(公民共同)」에 의한 제공에 각각 대응하고 있다. 서비스의 제공방법으로부터 보면 「민간시설(공공지원 있음)」을 제외하고, 그것이외 대응관계는 찾아볼 수 없다.

② 지역의 협력으로 할 수 있는 민간 시설의 서비스가 많다.

서비스의 제공방법에서는 「민간시설」에 많은 서비스가 집중하고 있다. 특히 (공공지원 있음)으로 분류된 서비스가 많다. 서비스의 성질에서는 「지역의 협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가장 많고, 이것과 「민간시설」이 크로스한 곳에 다수의 서비스를 볼 수 있다.

③ 공적지원을 받을 수 있는 민간시설 서비스가 대폭 확대되었다.

서비스의 제공방법으로 「공적지원을 받은 민간시설」에 의한 제공만은 서비스의 성질 3가지의 구분인 「근린의 협력」, 「지역의 협력」, 「행정과의 협력」의 어느 것보다도 대응 관계가 보여 진다. 공적지원은 공공적 성격이 강한 것이 배경이라고 생각되지만 공공성을 지닌 민간서비스에는 행정과 긴밀하게 협력하는 것, 민간 실시자가 주체성을 가지고 행하는 것, 커뮤니티 활동으로서 행하는 것 등, 폭넓게 실시하는 것을 엿볼 수 있다.

④ 전시(全市)적 사업 서비스에는 민간으로부터 자금 조달이 요구된다.

시민에게 자금을 조달 받는 것이 효과적인 서비스의 대부분과 공적인 자금 지원이 효과적인 서비스가 많지만 「행정과 협력할 수 있는 것」에 해당한다. 이런 것은 공공성이 강하고 전시적(全市)적으로 몰두하는 사업적 서비스의 성격을 지닌 것이라 생각한다

이상으로부터 사회서비스 모형 이미지를 그려보면 다음과 같지 않을까.

사회서비스의 중핵을 담당하고 있는 것은 지역의 협력에 의해 행해지는 민간시설 서비스라는 유형, 즉, 지역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시민의 자주적인 협력에 의해 결성된 사업주체가 행하는 서비스이다. 그러나 다양하고 광범위한 사회적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근린의 협력으로 행하는 타입부터 민간과 행정과의 협력에 의해 행해지는 타입까지 서비스 실시 형태는 폭넓다.

근린협력으로 행해지는 서비스는 공조 또는 공적지원을 받은 민간사업 지역협력으로 행하는 서비스는 민간사업, 행정과의 협력으로 행하는 서비스는 공적지원을 받은 민간사업 이외, 행정의 민간 위탁사업이나 민관공동(公民共同)사업에 의해 제공되고 있다. 또한, 사

회서비스 가운데 공공성이 강한 것은 공적지원을 받지만 공조나 자원봉사자가 주체인 것은 「장(場)」의 지원이 중심이다. 한편, 전시(全市)적으로 몰두하는 사업적 서비스는, 행정 이외 민간에서도 자금적인 지원을 받아 행해지고 있다.

3) 서비스 공급 활성화의 수단

사회 서비스 유형에 대응한 공급 활성화의 수단은 어떠한가 하는가 서비스의 유형을 성질과 제공주체의 대응관계로 확인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서비스의 제공방법에 의한 구분과 서비스 공급 활성화의 수단과의 관계(표 2)에서 보도록 하자. (표 2)에서는, 정리표의 분류항목 1 「서비스 제공 방법」은 그대로, 행의 시작을 분류항목 2 「서비스 공급 활성화 수단」으로 하고, 서비스의 제공주체(행정·민간)의 구성과 바우처나 지역통화의 유효성과의 관련성을 나타낸다. 또한 바우처와 지역통화의 일반적인 성질과 효과에 대해서는 전장(前場)에서 서술한대로 이다.

바우처지원에 효과가 있다고 여겨지는 서비스는 모든 민간시설(공적자원 있음)의 구분에 해당하는 것이었다. 육아나 고령자장애자에게의 생활지원에 관한 것이고 복지적 성격이 강한 서비스로 되어 있다. 이러한 서비스는 누구라도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고 반드시 시장에 의한 give and take의 공급시스템을 전면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나 서비스에 요구되는 내용은 다양할 수 있기 때문에 수급자에게 선택의 권한을 가지게 해서 공급자에게 고객에 대한 섬세한 배려를 촉구할 것이 요구된다.

지역통화에 대해서는 행정지급 사업형, 공조형 3개의 구분을 설정해 정리했지만 각각 제공 방법에 의한 구분과의 대응관계를 알 수 있다 행정지급이 효과적인 서비스는 주로 「외부위탁」이나 「민관공동(公民共同)」으로, 사업형이 효과적인 서비스는 주로 「민간시설」로, 공조형이 효과적인 서비스는 주로 「민간시설」이나 「공조」가 해당한다.

행정지급의 지역통화는 대략 공공재나 공공 공간의 관리보존에 관한 서비스가 주가 된다. 행정의 관리 책임에 관한 노무에 대해서, 자원봉사자 등의 형태로 협력하는 시민에게 사례로 지불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는 것이다.

사업형 또는 공조형의 구분에 대해서는 각각 대응하는 서비스에 약간의 특징이 있지만 정확한 차이가 있다고는 말하기 어렵다. 사업형 지역통화가 효과적인 것은 서비스의 공급·수급관계에 정상성(定常性)이 적고 누구라도 가끔 상황에 응해서 관여할 수 있는 타입의 서비스이고 또한, 사업주체에 의한 계획적인 사업관리와 전개 많은 관계자(노무제공자나 서비스 수급자 등)의 조정이 필요한 서비스이다. 한편, 공조형 지역통화가 효과적인 것은 서비스의 공급·수급 관계에 정상성이나 상호성이 있고 근린이나 공통의 과제를 지닌 사람들이 그룹을 만들어 상호 협력·서로 돕는 서비스이다. 일단은 이상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그러나 전자의 경우에도 사업주체가 서비스의 공급수단으로서 공조형을 이용하는 것도 있을 수 있다. 즉, 민간시설 서비스는 실시에 있어 구체적 현황이나 전개에 의해 어느 쪽 형태의 지역통화도 적용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2) 사회시장 형성에 대한 행정의 관여

1) 관여에 대한 기본적인 생각

공공부문의 재정악화와 공적 서비스의 수요 증대를 배경으로 행정에 대해 서비스의 외부화나 서비스 제공 과정에 대한 시장원리 도입 서비스의 시민에게 개방하고 민간과의 협력을 실시하자는 요청이 증대되고 있다. 사업자의 영리가 주목적이 되어 지역 사회가 수단이 되는 상황이 아니라, 풍요로움을 실감할 수 있는 시민생활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에 건전한 서비스 개방의 주관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행정의 관여는 앞서서도 서술했던 것처럼 사람들의 요구에 부응해 과제를 해결하는 새로운 서비스를 탄생시키는 토양이 된다. 「풍부한 관계성」을 지역사회에서 키워가는 이라는 관점으로부터 시행해야 한다.

관여를 생각하는 전제는 지역에서 「공공의 형태」는 행정이 독단적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시민, 기업, NPO 등이 주체와 연대하고, 지역의 모든 자원을 활용해서 만드는 것 즉, 지역 공공경영의 파트너십이 불가결하다. 파트너십 구축을 위해 주로 행정 측의 제도적 대응으로서 두 개의 기본적 방법을 지적해 둔다. 하나는 「시민이나 관계주체와의 지역경영의 목표과제 인식의 공유」이다. 구조는 정책결정과정의 투명화, 과제인식의 공유를 위한 공동작업의 실시, 과제에 관한 공동의 광고·계발, 시책에 대한 각주체의 책임 있는 관여체제의 구축 등이 고려된다. 또 하나는 「보완성의 원리에 의한 과제해결을 가능하게 하는 시스템의 구축」이다. 구조는 지역 커뮤니티의 주체형성 지역과 행정과의 접점이 되는 창구 기능이나 지역 커뮤니케이션 재정정도 구축 등이 고려된다. 서비스에 관한 행정과 민간과의 협동이나 역할분담의 내용도 지역의 관계주체의 현황과 역량에 의해 당연히 바뀌어 간다.

그러면 전항(前項)을 정리하고, 사회시장 형성을 위한 행정의 관여 방법에 대해서 과제와 방향성을 생각해 보고자 한다. 원리 항목으로서 ①민간주체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 ②바우처(Voucher)에 의한 지원 ③지역통화의 활용, ④사회서비스 공동사업의 창업촉진 ⑤공조 그룹의 결성 촉진, ⑥사회시장 형성의 핵이 되는 구조의 구축을 들고 이하에 서술해 간다. 그사이에 ③의 지역통화와 지역 공공경영의 파트너십에 관한④~⑥에 대해서는 별도 항목으로 한다.

2) 사회서비스의 민간주체에 대한 지원

사회서비스를 하는 민간주체에 대해 행정이 직접적으로 행하는 지원 방식에 대해서는 WT에서의 의견교환의 결과에 근거해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① 자원의 지원

기본적으로 금전 지원은 민간 활동의 자립을 촉구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 활동할 때의 자금지원이나 운전자금의 융자 등이 상정된다.

지원을 하는 경우는 이유나 목적뿐만 아니라 지원에 의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정확

하게 하고, 효과의 사전사후 평가, 지급시한의 설정 용도의 상세한 지정 등이 필요하다.

자금지원은 행정이 단독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서비스의 의의나 유효성 등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시민이나 민간에서 자금을 요구해 활용하는 방식을 구축해 가는 것이 중요하다.

② 장(場)의 지원

민간의 사회서비스 사업활동(특히 커뮤니티레벨의 사업)에 대한 지원으로서 장(場)의 제공은 중요하고 폭넓게 무언가의 형태로 행할 수 있는 가능성도 크다. 그러나 행정이 관리하는 시설에는 한계가 있다. 사회서비스를 위한 장기작정례적(定例的)으로 장(場)의 제공을 받는 경우에는 공개 프레젠테이션 등에 의한 대상자의 선정이 필요할 것이라 생각된다. 또한 시설의 설치 목적에 의한 용도제한이나 관리 책임상의 문제 등으로 사회서비스 활동을 위한 사용이 곤란한 경우도 있다. 시설 등의 사용에 대해서 행정으로서 어느 정도 규제완화를 해갈 수 있는가가 사회시장 형성에 큰 요인이 될 것이다.

③ 기타 지원

민간만으로 활동 자원 조달이 가능한 경우라도 활동에 대한 행정의 신뢰 보장적인 자원이 필요 한 것도 있을 수 있다. 예를 들면, 방법 순찰을 위해 시(市)의 마크가 들어간 완장을 대여하는 등이다. 행정 관여를 어필하는 것이 서비스의 신뢰성으로 이어지는 케이스가 많다고 생각된다.

또한 행정이 아니고는 지원이 안 되는 사람, 재물, 돈이라는 테두리뿐만 아니라 정보의 제공, 관계자에 대한 호소(주지·계발)등이 중요하다.

3) 바우처 (Voucher) 제도 도입에 관한 과제

바우처제도 도입의 효과에 대해서는 제2장에서 서술한바 있지만 행정이 도입하고자 하는 동기나 경우로서 다음과 같은 것이 고려된다.

- ① 행정이 사업자에게 보조함으로서 무료 혹은 싼 값에 제공되고 있는 공공적 서비스에 대해서 사업자가 고객의 요구에 적합한 대응이나 고객 만족을 높이려는 노력을 촉구하기 위해 수급자에게 바우처 (Voucher) 를 지급하는 것으로 사업자간에 경쟁이 있을 거라 생각되는 경우.
- ② 공공적인 성격을 지닌 서비스가 민간 사업자에 의해 공급된 것을 촉진하기 위해 요구를 지닌 사람에게 새로운 바우처 (Voucher) 를 지급하는 것에 의해 서비스 수요를 환기하고자 하는 경우.
- ③ 공공적인 필요성이 있어서 행정이 하는 서비스를 효율성이나 고객 만족도 높은 서비스를 목표로 해서 민간시설로 바뀌 서비스 시설을 위해 행정이 담당하고 있던 비용의 일

부)을 서비스 수급자에게 바우처 (Voucher) 자금에 해당하도록 하는 경우.

- ④ 시민 간에 행정서비스의 수급과 부담의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해 행정이 무료로 행하는 서비스를 유료화하고 일정액을 서비스 이용권으로 전 시민에게 나누어주어 그것 이상으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자기부담이 되게 하려고 하는 경우

이 가운데 ①과②는 보조와 지급의 테두리 안에 들어가지만 ③과④는 민영화나 공금 부담이 있기 때문에 소멸로 이어진다는 성격이 강하다. WT의 검토에서도 바우처 (Voucher) 지급이 효과적인 서비스로 보육서비스, 베이비시터, 초등학생의 방과 후 대응, 회식·배식, 일상생활의 지원, 평생학습 프로그램의 제공, 가사지원 등을 들고 있다. ①또는②의 경우 주로 상정하고 있고 ③이나④에 대해서는 별로 검토가 없었다.

바우처지급에 관한 과제나 유의점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을 들 수 있다

- 서비스에 의한 바우처의 지급여부가 불공평을 낳지 않도록 하기 위해 대상이 되는 서비스의 기준을 명확하게 해둘 필요가 있다
- 바우처의 대상 서비스나 지급액(대가에 접하는 비율)은 수급자로 놓여진 상황이나 대상 서비스의 생활에서 일반적인 필요 정도에 의해 결정될 필요가 있다
- 기존의 보조금을 바우처로 바뀌어 가는 경우, 지급 총액이 현행의 보조 총액을 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
- 바우처를 신규로 도입하는 경우는 도입 목적을 명확하게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효과의 사전·사후 평가, 지급 시한 설정, 용도를 상세하게 밝히는 등이 필요하다.

바우처의 도입에 대해서는 공재정의 소득 재분배 기능의 효과를 높여 최적화한다는 관점에서 상기의③,④항목도 포함하고, 이후 구체적인 도입을 검토해 갈 필요가 있다. ④에 대해서는 서비스의 공공성이라는 점에서 다음과 같은 명령의 타당성을 생각해 보면 어떨까

【모든 시민에게 마치다 (町田) 시 서비스 종합 이용권】 과 같은 바우처를 일률적으로 지급한다. 대상이 되는 것은 구체적 서비스가 아니라 누구나 이용하는 사회교육, 스포츠, 문화·후생 등의 서비스로, 민간이 제공하는 것도 포함한다. 종래의 행정이 무료로 제공하고 있는 사회교육 등의 서비스에도 이용권을 정한다 개인이 자신에게 지급된 바우처보다 더 서비스를 받을 경우는 요금을 부담한다 또는 요금부담을 부담하지 않기 위해 타 시민과 바우처를 소개하는 거래를 하고 바우처를 얻는다 이런 방식에 의해 시민에 공공적 서비스에 대해 부담의식이 생기고 시민 간 서비스 수급현황의 격차를 시정 할 수 있다

또한 제2장에서 서술한대로 바우처 본래 의미에서 역할을 더 부여하기 위해 바우처 자체를 지역통화로 이용하거나 지역통화와의 교환으로 지역통화 교류를촉진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 구체적인 방법은 지역통화의 활용 방법에 맞춰 검토해야 할 것이다

(3) 지역통화의 활용

1) 지역통화 활용을 위한 환경조성과 방향성

행정이 지역통화에 대해 관여하는 방법 중 하나는 지역통화의 활용 환경을 정비 주체자로서 하는 것, 또 하나는 지역통화의 이용자로서 역할을 하는 것이라 생각된다. 먼저 지역통화의 활용환경 조성의 방향성에 대해 이야기 하고자 한다

커뮤니티나 지역경제의 활성화 방법으로 지역통화가 화제가 되었다

그러나 만능 수단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지역통화 활용시스템이 사회서비스가 스스로 활성화 시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먼저 지역사회의 비전으로서 사회서비스가 활성화되고 있는 현황을 구체적으로 그리고 실현수단으로서 지역통화 활동을 검토해야 한다. 「최초로 지역통화 있었음」의 발상, 예를 들면 주민 기본 대장카드를 활용한 지역통화 시스템이라는 구조를 만들고 그것을 전제로 지역 활성화를 고려하는 것은 본말전도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지역통화에는 여러 유형이 있고 각각 지니고 있는 독자적인 과제나 현황에 따라 다양한 전개나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 독자성이나 다양성은 지역과제의 해결을 위해 사람들이 지식을 짜내고 시행착오를 겪어온 것이다. 전항(前項)에서 살펴본 것처럼, 서비스 성질에 따라 요구되는 지역통화의 방법도 달라진다. 마치다(町田)시는 다양한 지역 특성이나 과제를 포함한 지역이다. 기준화된 단일 지역통화의 구조를 도입하는 것이 아니라 제II장에서 정리한 것처럼 지역 통화의 특성이나 제도적 제약 조건 등을 검토해보고 다양한 지역통화 구조를 선택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환경을 구축해 가는 것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인간이나 조직 상호 관계성이나 네트워크를 만드는 것이 사회서비스 활성화의 기본이다. 지역통화를 활용해서 사람과 사람과의 연결을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채널이 다양하게 존재하고, 복수의 지역통화의 구조가 공존하고 이것이 자연스럽게 관계를 맺는 형태로만 들어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지역통화는 크게 구분하면 소규모로 긴밀한 공조에 의해 형성하는 커뮤니티 구조와 지역 내에서 재물이나 서비스의 큰 순환을 시작하는 조직이 있다. 풍요로운 사회시장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두 가지 성질을 융합시켜 새로운 구조를 구성하는 것이 요구된다. 이처럼 조금은 대대적인 지역통화의 활용구조를 만들게 될 것 같지만 일괄적으로 전체 조직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각 관계주체가 완성된 이미지를 공유하면서 할 수 있는 부분부터 만들어가는 것이 현실적일 것이다. 그 구조는(4)의 3) 「핵심이 되는 조직 만들기」에서 다시 언급할 것이다.

2) 시(市)가 지역통화를 이용하는 경우의 과제

지역통화의 활용을 촉진시키기 위해 시(市)가 자발적으로 지역통화의 이용자가 될 수 있다. 시(市)가 직접 지역통화의 이용자에 관련된 경우에 어떤 과제가 생길까 지역통화를

지불하는 경우와 지역통화를 받는 경우로 나누어 고찰해 보고자 한다

먼저, 시(市)가 지역통화를 지불하는 경우이다 일반적으로 시(市)가 해야 하는 서비스나 노무에 대해서 시민이 자원봉사로 협력한 경우에 그 사례로 지불하는 경우를 상정할 수 있다. 이른바 유상 자원봉사로써 사례로서 법제화폐를 지불하는 것이 통상적인 형태이지만 지역통화의 촉진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지역통화를 지불하는 것이다

이 경우에는 시(市)가 지역통화의 발행자가 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고려된다 먼저, 시가 발행자가 되는 경우를 생각해보도록 하자. 제2장에서 정의한 「상호 발행형태」의 지역통화라면 지불하는 것은 그대로 발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경우 시(市)가 지역통화 단체에 행정조직에 참가하는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지역통화 단체의 규모나 설치의 배경, 교환되는 서비스의 성격 등을 통해서 타당성이 판단되어야만 할 것이다.

제2장에서 「특정인 발행」으로 정의한 지역통화는 시(市)가 발행자가 되는 경우, 제2장에서 제시한 것처럼 극히 한정적이고 제약적인 취급을 하지 않으면 위법이 될 가능성이 있고 많은 귀속조건이나 운영상 리스크를 꺼안을 수 있는 문제가 생긴다

시(市)가 발행자가 아니면 안 되는 경우는 타 주체가 발행한 지역통화를 사용하게 된다. 이때, 행정의 중립성이 문제가 된다. 특정사업주체가 발행하는 것이 아니라 공적으로 인지도 중립적인 기관이 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어찌됐든, 시(市)가 지역통화를 지불하는 것은 사업의 일환이고 공조는 아니다 따라서 시가 지불하는 지역통화는 지역경영의 각 주체가 공동으로 설치하는 기관이 발행하는 것이 가장 타당할 것이다.

다음으로 시(市)가 지역통화를 받아들이는 경우를 생각해보자 시(市)가 지역통화를 받아들이는 것은 통화의 교류에 신뢰를 부여하는 의미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여기서는 시(市)의 서비스를 지역통화와 교환에 제공할 수 있는가 어떤가의 문제가 생긴다 이에 대해서 WT에서 충분히 검토할 시간이 없지만 의견교환의 결과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는 지역통화를 받아서 제공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 공공시설의 사용료, 입관료

시민센터, 집회시설, 커뮤니티시설, 사회교육시설, 시영 주차장, 자전거 주차장 등의 이용료, 국제 판화 미술관의 입관료 등, 시설의 상태에 따라 지역통화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를 결정한다.

● 시의 간행물 대금

시장정보에서 판매하는 간행물의 대금, 국제 판화미술관, 박물관, 자유 민권 자료관에서 판매하는 자료·서적·잡화의 대금

● 시민버스, 커뮤니티버스의 운임

운임의 일정 비율을 지역통화로 지불하는 것이 가능하다 특히, 이후 운행이 상정된 지역 커뮤니티버스에 대해서는 지역통화로 받는 것이 더 의미가 크다고 생각한다

● 사립학교의 교사(校舍), 구교사(校舍)의 시설 사용료

● 시민농원의 사용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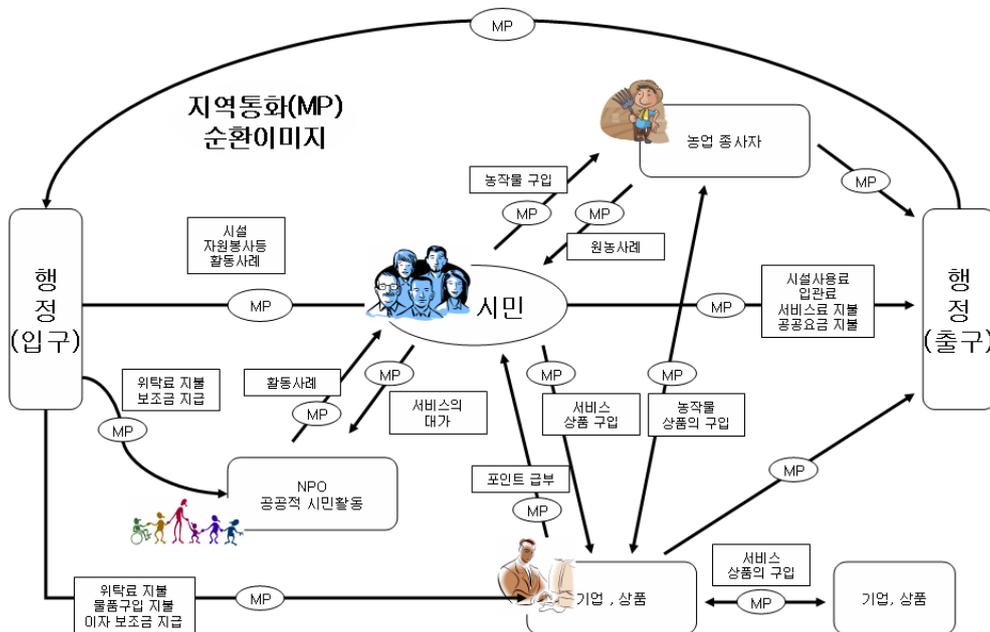
● 시(市)의 직원이 출강하는 강좌료

직원 출강 강좌의 제도를 조성, 시민활동 단체 등의 요청을 받아 지역통화를 받아서 실시한다. 단, 지역통화의 활동 계발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지역통화 지불은 절대조건이 아니라 지역통화 취득에 노력하도록 유도한다

대략 시민의 활동이나 커뮤니티 활성화에 관련된 것을 들 수 있다 이것을 지역통화나 교환에 제공하는 것에 대해 특단의 제약은 없다고 생각되지만, 시설 사용료에 대해서는 시설 조례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조례개정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회의를 통해서 이해와 승인을 얻어야한다.

전국적으로 보더라도 지역통화를 받아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례는 미흡하고 각종 서비스에 대해서 이후 여러 가지 각도에서 타당성 적법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수취한 지역통화의 취급에 대해서는 파기로 할 것인가 수입으로 할 것인가의 선택의 문제가 있다. 전자는 시(市)에 의한 지역통화의 지불이 통화의 사회시장의 입구이고 시(市)에 의한 받는 것이 출구(즉, 통화의 역할을 끝내는 곳)가 된다. 라고 하는 사고에 근거한 것이다, 단, 제3자 기관이 발행하는 것을 시(市)에서 폐기해도 좋을지 어떻지는 문제가 되고, 발행방법에 의해 취급하는 것이 달라질 것이다 후자의 경우, 환급해 시(市)의 회계로 돌아온다.(지역통화 발행기관에 의한 환급제도가 있다면 지역통화로 보관하고 다시 사용하게 된다. 라고 하는 선택지가 있다. 후자의 경우는 시(市)의 「지역통화 회계」를 만들어야 한다.



3) 사업자에 의한 지역통화의 인수

지역통화를 유통시킨 다음에 지방의 상점 등의 사업자가 지역통화를 받아들이는 것은

매우 큰 힘이 된다. 상점 등에서 직접 사회 서비스에 관련되지 않더라도 지역통화를 받는 것에 의해 사회 서비스의 활성화와 재물서비스의 지역유통 촉진에 공헌하고, 사회시장 형성의 주요한 담당자가 될 수 있다

기본적으로, 사업자가 지역통화를 받을 의사가 있다면 어떤 상품이나 서비스라도 구입할 수 있을 것이다. 지역통화를 받는 조건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고려되며 이러한 것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방안을 이후 검토해 가야할 것이다

- ① 사업자에게 지역통화에 의한 매입이나 재물서비스의 구입의 대상이 있다.
- ② 지역통화를 입수하는 것에 의해 고객이 늘어나는 등의 메리트를 기대할 수 있다
- ③ 사업자가 지역통화 발행 목적이나 이념에 찬성동의하고 협력하고자 생각하고 있다.

영리 사업자에게 상품을 구입하는 경우, 법제화폐와 병용(일부만 지역통화)기본이 된다.

또한, 기업이나 상점회 등이 실시(또는 검토)하고 있는 포인트 시스템은 기업통화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고, 어떤 종류의 지역통화와 같은 구조이다. 상점회의 포인트가 발전한 형태의 지역통화의 사례도 많다. 지역에서 행해지고 있는 민간 포인트 시스템과 지역통화 활동의 구조를 연대융합시키는 것에 대한 기능성은 충분히 검토할 의미가 있다고 생각된다. 특히, 상점회와의 연대를 관점으로 지역통화의 활용 방안을 강구해 가는 것이 중요하다.

(4) 민관협동에 의한 구조의 방향성

1) 지역자원 순환구조와 구축

사회서비스의 활성화는 지역자원의 활용에 의해 이루어져야만 한다. 거기에는 서비스의 거래를 통해 인적(노동력), 물적, 자금 등의 자원이 지역에서 순환하는 구조를 만들 필요가 있다. 지역자원의 순환구조는 본장의 3에서 검토했던 것처럼 서비스와 자원의 관련지운 Unit를 많이 창출하게 되어, 지역통화 등의 거래수단을 활용해서 그런 Unit를 상호 관련지어 가는 구조에 의해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본장 2에서 검토한 것처럼 행정에 의한 서비스에 대한 관여가 불가결하다. 게다가, 그 순환구조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법제 화폐 시장에 의한 통상의 상거래도 그 속에 통합해 엮어서 사회서비스 활동과 일반 경제활동이 서로 지탱하는 형태가 되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지역자원의 순환구조는 단일한 원형순환 형태가 아니다. 전항(前項)의 서비스 형태의 고찰에 조명하면 자원순환도 작은 그룹 내에서 단혀 있는 경우나 많은 사업을 통해서 순환하는 경우가 있다고 생각된다. 즉, 큰 순환과 작은 순환이 공존하고 거대한 형태이다. 자원순환을 시작하는 활동의 상호 연결에 대해서도 강약 성질, 유통의 방향 등 가지각색이고, 그 구조는 원형 순환이라기보다 두께가 다른 그물형태로 그려질 것이다.

이후, 사회시장형성을 위한 서비스의 창출과 활성화를 위해서는 먼저 NPO, 기업, 행정

등 사회 서비스의 관계주체가 지역 자원순환 구조의 구체적인 이미지를 그리고 공유해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다음에 각 주체가 연대하고 전략적으로 조직을 전개해 가야한다 그 방향이 어떨지 WT에서 검토한 결과의 개요는 이하에 서술한다

2) 네트워크화의 추진

사회서비스의 활성화나 지역자원 순환의 촉진을 지탱하는 것은 지역에 있는 사람이나 조직의 네트워크이다. 그래서 네트워크화 추진의 관점에서 「창업」 과 「공조」 에 대해서 구조의 방향을 검토해왔다

① 사회서비스 사업의 창업 추진(창업을 통한 네트워크화)

복수의 주체가 연대해서 사회서비스를 실시하는 것에 의해 사업의 상승효과를 내고 지역에 자원순환과 새로운 사회적 관계를 형성해 간다고 하는 사업 스타일은 사회시장 형성에 큰 영향을 준다고 생각한다 이와 같은 사업을 구상하고 창업을 촉진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때문에 사회서비스의 관계 주체에 의한 공동의 추진 기구를 설립했다 그것은 공적자금이나 민간자금을 의한 사회창업 지원펀드의 기능도 지닌다 설립에 있어서 시(市)가 중심적 역할을 담당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조직이 위치를 확보하는 것은 다음 항목에서 서술하는 플랫폼(Platform)의 운영조직의 일부라고 할 수 있다 거기에는 서비스 사업의 전개 이미지를 명확하게 하고, 사업 계획을 작성한다. 계획에는 사업 목표 외에, 사업운영의 민주성, 합리성, 효율성, 사업을 통한 상승효과, 지역의 자원 순환, 관계형성 등에 대한 평가항목과 기준을 세워둘 필요가 있다.

더불어서 네트워크형의 활동 모체를 구축한다. 그것은 관계주체의 협동에 의한 사무국 기능을 지니고 실시단체그룹개인의 네트워크에 의한 사업전개의 핵심이 되는 것이다 사업전개에 있어서 각 관계자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하게 해줘야 한다

먼저 모델 사업을 실시하고 그 평가를 검토해 구체적인 전개방향을 정하는 동시에 평가결과를 공개하는 것을 통해 사업에 대해 인지시키고 신뢰를 높여 참가자를 늘려 네트워크를 넓히면서 사업을 전개해 나가야 한다 그리고 외부감사검증을 해서 서비스의 질을 확보하는 체제를 만들어 사업 확대를 꾀한다.

② 공조 그룹의 결성·운영지원(공조를 통한 네트워크화)

서로 얼굴이 보이는 공조적인 관계에 근거한 네트워크는 공동체계적인 그룹의 구성원 상호간에 형성된다. 이와 같은 네트워크는 확대가 어렵지만 긴밀성이 강하고 생활에 밀착해 진심을 담아 섬세한 서비스의 상호제공이 될 것이라 기대할 수 있다.

그리고 네트워크화를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그룹의 규모를 확대하기보다 여러 가지 공조그룹이 총생(叢生) 하고 있는 상태를 만드는 것이 요구된다. 게다가, 그룹 상호의 연대나 거래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때 중요한 것은 공조그룹의 결성운영이 자발적주체적으로 행해지는 것이다. 지원 방

향에 대해서는 그룹의 결성이나 운영에 관한 조언이나 기술정보의 제공 등 측면적인 것을 중심으로 해야 할 것이다. 그룹의 지역비율을 정하거나 활동의 윤곽을 만들어 결부시키려고 하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룹상호 네트워크의 형성에 대해서도, 자주적으로 하는 것이 기본이고, 지원책으로서 상호연대를 하기 쉽도록 플랫폼(Platform) 등의 구조를 제작을 생각하고 있다.

3) 핵이 되는 구조 만들기

사회서비스에 관한 거래와 관계를 짓는 장(場)이 사회시장이라면, 양질의 사회시장의 조건이라는 것은 「참가하기 쉽고 안심할 수 있다」라는 것이다. 즉, 시장을 통한 서비스의 공급과 수급방법이 명확해서 이해하기 쉽고 바로 용이하고, 한편 서비스 제공이나 수취를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요구된다. 게다가 시장을 통해서 양호한 사회적 관계 만들기를 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이와 같은 조건을 갖춰, 사회시장 형성의 핵이 되는 구조의 구축이 요구된다. 그것은 사회서비스에 의욕적인 사람의 활동을 유발촉진하고, 상호 관련을 지어야만 한다. 구체적으로는 사회서비스의 다양한 관계자의 접점이 되는 플랫폼(Platform)이라는 형태일 것이다. 그 개요는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① 기능

IT를 활용하고 단순하게 사용하기 쉽고, 또한 고성능 기능을 지닌 플랫폼(Platform)을 구축한다. 다음과 같은 기능이 고려된다.

<정보거점>

- ☐ 사회서비스에 관한 시내에서의 여러 가지 활동이나 현황을 파악할 수 있고 활동에 참가하거나 활동 상호 네트워크 만들기가 촉진된다.
- ☐ 서비스를 제공하는 측이 그 내용정보를 상세하게 제공 할 수 있고, 수급하는 측에서 받고 싶은 서비스의 조건을 상세하게 검색 할 수 있다.
- ☐ 행정 서비스나 지역 내에서 제공되는 생활 관련 민간 서비스의 내용 정보도 볼 수 있다.
- ☐ 과제해결을 위한 구조 사례 지식, 인재 등의 데이터베이스(정보축적)와 그것을 유효하게 활용하기 위한 컨설턴트 기능을 지닌다.

<수요와 공급의 조정>

- ☐ 공급자 측, 수요자 측 쌍방의 희망조건이 이루어지도록 조정이나 합의가 행해진다.
- ☐ 서비스의 수요에 대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창업 촉진을 포함한 공급자 측에 자극할 수 있다.

<가격의 결정과 결제>

- ☐ 법제 화폐와 지역통화의 취급이나 서비스의 가격 기준이 명확하게 되어있다
- ☐ 이용하기 쉽게 IT에 의한 결제시스템을 통해서 거래를 할 수 있다

<안전 보증>

- ☒ 등록정보가 악용되지 않도록 SSL (Secure Sockets Layer)대책이 되어있다.
- ☒ 서비스의 내용·조건이 명확하고 안심하고 공급·수급할 수 있다.
- ☒ 지식, 기술, 숙련이 필요한 서비스에 대해서는 제공자의 자격, 능력, 실적 등의 확인이 가능하다.
- ☒ 사고나 트러블이 있을 경우에 대한 대응이나 보상이 명확하게 되어있다.

② 조직 및 운영

플랫폼(Platform)의 운영은 NPO, 기업, 행정 등 사회서비스 관계주체에 의한 「민관공동(公民共同)」의 조직에서 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집권적인 관리 기구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관계주체의 협력에 의해 리더, 코디네이터를 중심으로 여러 가지 역할을 담당하는 시스템의 네트워크를 구축하면서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운영을 하는 것이 사회시장의 활성화와 발전을 위해서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본장에서 검토한 플랫폼(Platform) 모델에 대해서 다음 장에서 서술하고자 한다.

제4장 사회시장의 공통기반을 생각한다

1. 공통기반의 기본적인 사항

(1) 지역 내 공통기반의 정의와 역할

1) 플랫폼(Platform- 공통기반)이란

본장에서는 앞 장에서 필요성과 기능의 개요를 설명했던 사회시장 형성에 대한 핵심이 되는 플랫폼(Platform- 공통기반) 모델을 제시한다.

플랫폼(Platform-공통기반)이란 사회 경제적인 의미에서는 표준화되어 공유된 시스템이라는 것이다. 세계화에 의해 여러 가지 제도나 시스템에서 세계표준화 확립이 진행되어 이에 대응 할 수 없는 기업은 국제경쟁력을 갖지 못한다는 오늘날의 현실을 배경으로 기업이 경쟁력 있는 부분을 특화시키기 위해 표준화해야하는 부분을 개별적으로 보유하기보다 통합해 각사에서 공유하는 편이 좋은 기능이나 자원을 집약시킨 것을 말하는 것이다. 이것에 의해 가격구조를 대폭 바꿔 오퍼레이션을 강화해 각 기업은 「개성」을 닦는 것에 집중 할 수 있다. 즉 「공유화(이른바 표준화)와 개성화(혹은 개별화)의 동시진행을 목표로 한다.⁷⁵⁾」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은 복수의 주체가 기능을 집약시켜 공유하는 시스템 구축을 가능하게 할 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주체가 자발적으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각각 지니고 있는 독자 기술이나 자원을 추렴한다. 협동관계를 구축하면서 새로운 가치를 창조해서 공유하는 플랫폼(Platform-공통기반) 형태를 낳았다. open source⁷⁶⁾라는 개발 방식을 이용한 Linux⁷⁷⁾가 대표적인 스타일이다. 새로운 시장형성의 핵심이 되는 조직으로서 플랫폼(Platform-공통기반)은 열린 공유의 장이지만 다양한 참가자가 자신이 지닌 가치를 추가하고 그 댓가로 자신에게 필요한 성과를 그곳에서 받는다고 하는 상호작용을 쌓은 결과로서 플랫폼(Platform-공통기반)의 가치는 점점 높아져 가고 반드시 시장적인 기능을 가져야만 하지 않을까

우리들이 목표로 하는 플랫폼(Platform-공통기반)은 사회시장 각 플레이어에게 공통의 편리한 기능을 제공하는 조직인 동시에 네트워크를 형성하기 위한 공통의 토양이어야 한다. 누구나 그 편리성을 공유하고 공통의 기준이나 룰을 주체적으로 만들어 지켜가는 「공공(公共)」의 장(場)이고, 사회시장이라는 새로운 시장에 편성하는 제도를 공유화해가는 구도라고 파악하고자 한다.

75) 西浦裕二 『經營の構想力』 (東洋經濟, 2004年) p.118

76) open source : 소프트웨어의 소스코드 (프로그램 언어에서 기술된 텍스트) 를 무상으로 공개하고 소프트웨어의 개량이나 배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누구에게나 공개되어 개발에 참가함으로써 보다 좋은 소프트웨어가 된다는 이점이 있다.

77) Linux : 1991년 핀란드의 리누스 토르발스(Linus Torvalds)에 의해 개발되어 OS (operating system) . 사용자의 구미에 맞춰 폭 넓은 지지를 받고 있다.

따라서 플랫폼(Platform-공통기반)은 지역의 사회시장의 각 관계주체가 네트워크를 활용해 협조하면서 만들어가는 것이 본래의 취지라고 생각되지만 여기서는 플랫폼(Platform-공통기반)만들기의 의의나 방향성에 대해 각 주체의 인식을 공유해가기 위한 시도로서 모델을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본장에서는 「지역 내」라는 것은 대체로 마치다(町田)시와 같은 市町村域 정도의 규모인 권역을 상정하고 있다

2) 지역 내 공통기반의 역할

지금까지 확인해왔던 것과 같이 지역의 사회시장 형성을 위해서는 지역사회에서 관계성을 구축한 다음에 자원의 지역 내 순환을 구조화해 가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것을 짚어보면 정보통신 기술상에서 성립한 조직인 플랫폼(Platform-공통기반)(이하 「공통기반」이라 한다)의 역할은 대략 다음 3가지이고 이것들은 서로 상관관계가 있다고 생각한다.

① 정보의 공유화

정보는 모든 활동에 계기를 주는 것이다. 지역사회의 활동이 활발하기 위해서는 지역에 관한 질·양과 함께 풍부한 정보자원이 없어서는 안 된다.

일반적인 시장경제에 있어서도 정확한 시장 정보의 획득은 가장 중요한 과제이다 사회 서비스의 형태는 굉장히 다양하고 그 영역도 명확한 것이 아니다 그중에서 각 사업주체가 스스로 가치평가를 확인하고 사업 전개의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시장에 관한 정보를 입수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사회 서비스는 사람들의 관계성에 의거해서 성립된 성질이 강하고 관계를 만들기 위한 정보의 공유화가 매우 중요하다. 더욱이 미개척 영역이 많은 사회 시장에서는 특히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고자 하는 사업주체에게 있어 지역 사회에서 사람들이 요구하고 있는 것, 인재나 자원의 소재 등의 정보는 불가결하다

이와 같은 정보를 공통기반에는 자연이나 전통 문화, 지역과제 해결의 사례 등은 데이터 베이스로 축적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긴급 요구사항에 대응하거나 새로운 토픽 등 즉시적인 가치가 있는 것을 계속 갱신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자발적인 운영에 의해 제공하고 공유해 가는 역할이 요구된다.

② 커뮤니케이션의 활성화

지역사회의 관계성을 구축하는 토대는 사람들의 활발한 커뮤니케이션이다 사람들은 처음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과제나 필요성을 명확하게 하고 공유할 수 있다 또한 상대를 이해하고 서로 돕기도 하고 공통의 과제해결을 위해 연대할 수도 있다 커뮤니티 재생도 새로운 사회서비스의 창출도 사회시장을 지탱하는 제도나 규칙을 만들어 공유화해가는 것도 커뮤니케이션이 기본이 된다.

따라서, 공통기반은 커뮤니케이션의 장으로서 역할을 충분히 달성해 갈 필요가 있다. 공통기반에 참가하는 주체 상호간의 커뮤니케이션에 의해 새로운 대처, 서비스, 사업의 아이디어가 계속 생기고 이것을 실현추진하는 조직이나 연대가 생기고 또한 그러한 것을 통해서 공통기반 자체의 운영 규칙의 공유화와 성숙화를 도모해 가는 방식이 요구된다

③ 교환의 활성화

시장은 교환에 의해 성립되는 것이기 때문에 시장의 실체는 그곳에서 행해지는 교환의 제도, 대상, 양 등에 의해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특히 시장의 활성도를 측정하는 교환·거래의 양을 늘리는 것이 사회시장 형성에서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대상이 되는 재물이나 서비스(및 그 제공자)에 대한 신뢰가 불가결하고 신뢰를 확립하기 위한 제도가 없어서는 안 된다. 이 경우 사회시장의 거래 대상은 커뮤니티에서 호수적(互惠的)교환부터 상업 베이스의 거래까지 수준에 차이가 있다는 것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 또한 시장에 요구되는 거래 대상이 시장에 충분하게 공급되어 수요가 환기되기 위해서는 수요와 공급의 거래가 하루빨리 간편화되고 거래나 결제가 완만하게 이행될 필요가 있다.

공통기반은 이와 같은 요청에 부응하기 위해 제II장에서 지역통화를 검토해 사회시장을 위한 적절한 교환 수단과 그 운용제도를 지닐 필요가 있고 그것은 다양한 이용자의 인수에 대응할 수 있도록(법제화폐, 행정의 바우처, 기업의 포인트 시스템 등의 사용활용도 포함한다.) 광범위해야 한다. 또한 거래에서 수요와 공급의 매칭과 결제가 용이하고 안전하게 행해져야만 한다.

(2) 공통기반의 기본적인 윤곽

1) 3개의 레벨과 접점

공통기반은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한 구조를 중심으로 운영된다 그 조직은 다음 세 개의 레벨에 의해 구성되며 참가자의 공통기반에 의한 인터페이스(접점)도 각각 레벨에 대응한 3가지 종류가 있다. 그 개요는 다음과 같다.

① 실제 공간 레벨

정보통신 수단에 따르지 않고 실제 공간에서 공통기반의 제도에 기초해 보통 사람과 사람이 직접 대면해 정보교환이나 거래(통화의 지불이나 서비스의 전달)를 한다. 기본적인 커뮤니케이션이나 시장 활동의 모습이다. 이용자의 노무나 생활의 무대이며 실제로 자원 순환이 행해지고 공통기반의 성과가 현실로 나타나는 장(場)이다.

② 온라인 레벨

IT의 통신수단에 의한 인터페이스(인간과 기계의 접점)를 통해서 실제 공간에 있는 것과 동시에 가상공간에서 있을지 모를 이용자가 정보를 열람하고 공통기반상의 기능을 이용해서 서비스의 선정, 교섭, 결제 등을 행한다. 공통기반의 주요한 기능이 전개되는 장(場)이다.

③ 시스템 레벨

온라인 레벨에서 기능을 하는 시스템이 전개되는 장이고 시스템간의 네트워크의 접점(접속)이 존재한다. 공통기반은 각종 시스템과 연대하면서 기능하고 또한 공통기반 시스

템 자체가 네트워크에 의해 구축될 가능성을 지닌다. 공통기반의 구조는 각 레벨의 상호작용에 의해 전체로서 기능하고 각각 레벨에 따라 검토할 필요가 있다.

2) 두개의 가설

사회시장 형성을 위한 공통기반의 기능은 교환 수단의 성질에 의해 좌우된다. 본장에서 제시하는 공통기반 모델은 제III장에서 서술한 「커뮤니티형」 과 「자원 순환형」 이라는 지역통화의 다른 두 개의 전개 가능성에 근거를 두고 다음과 같은 두 종류의 접근이 가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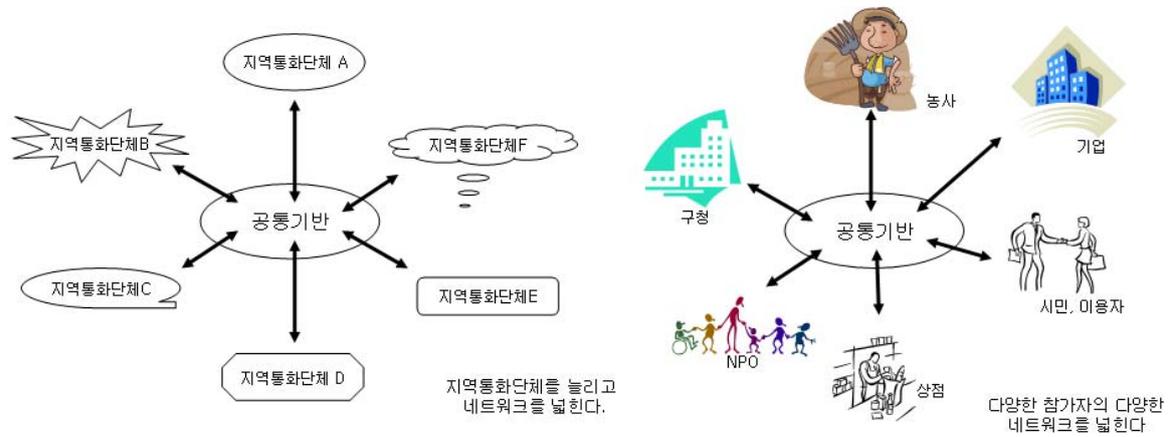
① 커뮤니티 주도형 모델(모델 1)

지역사회에서 사람간의 관계를 재구축하고 커뮤니티를 확립해 가는 점진적인 접근이다. 시민의 커뮤니티 활동에 근거한 자발적인 지역통화의 총생(叢生)과 시민네트워크 만들기 를 주된 목표로 한다. 이 모델에 근거한 자발적인 지역통화의 공통기반 형성을 위한 환경 만들기나 압력가하기, 공통기반의 시스템 운영에 대한 지원이 요청되지만 어디까지나 소극적인 지원자의 입장이다.

② 유통 확대형 모델(모델 2)

거래의 기준이 되는 통일적인 통화기능을 공통기반이 제공하는 것으로 시민 행정, NPO, 기업 등 많은 관계자에 의한 거래나 연대 네트워크를 만들어 지역 내의 유통확대와 자원 순환의 큰 흐름을 제시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 모델은 상기 모델과 비교해서 보다 개방된 구조이지만 구축운영에 대해서 행정의 보다 큰 관여가 요구될 것이다.

두 개의 모델은 상반되는 것이 아니라 기능상 서로 보완하는 관계이다. 또한 이러한 순수모델로서의 가설이기 때문에 실현을 위한 검토에서는 양자의 요소의 혼합되거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요소가 혼합될 것이다. 두 모델의 이미지는 대략 도표와 같이 나타난다. 각 상세는 다음 항목에서 서술한다.



2 공통기반 모델의 제안

(1) 커뮤니티 주도형 모델

1) 모델의 개요와 특징

이 모델은 사회시장의 기준이 되는 교환 수단(통일 통화)을 가지지 않고 지역 내에 복수의 지역통화나 결제시스템이 분산병존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이러한 것이 공통기반 상에서 기능을 공유하는 것이다. 지역통화단체가 활동하기 쉬운 환경 만들기 장기적인 관점에서 각 지역 통화의 발전과 협조에 의한 지역 내 유통을 활성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대략 지역통화는 운영단체의 회원 간에서 수급(需給)매칭이 행해지는 닫힌 구조이지만 각종 지역통화 내의 수급이 지역통화 단체 사이에서도 행해지도록 공통기반의 기능을 확장하게 된다. 이후 지역 내에서 자발적인 지역통화 단체 등의 발족이 예상되지만 통화에 의한 교환이 단체 안에서 그치면 수급매뉴의 빈곤에 의해 단체의 발전성·계속성을 저해하게 된다.

각 단체의 공통기반에 참가하는 수급매뉴의 풍부화나 다른 단체와의 교류촉진에 의한 공조적 네트워크의 구축·확대로 이어진다. 그것에 의해 각각의 지역통화의 신뢰성 향상과 발전을 꾀할 수 있다.

- 지역의 자발적인 지역통화 활동을 지탱하는 구조이다 따라서 공통기반 자체가 법적 규제 대상이 되는 개념은 적고 행정에 의한 관여조절을 받는 정도도 적다. 행정도 관여에 수반하는 손실 등의 리스크가 낮다.
- 지역의 상황에 맞는 운용이 가능한 반면 지역 내의 활동이 저조하다면 공통기반의 움직임도 저조할 수 밖에 없다. 시장효과를 얻을 때까지는 각 지역 통화의 발전을 기대하지 않고 상당 기간 시간을 요한다고 생각한다
- 지역 통화 단체는 각각 테마나 목적을 가지고 또는 커뮤니케이션의 부활을 기조로 하고 있다. 공통기반에 참가한 단체부터 커뮤니케이션을 지역사회에 열어 풀뿌리 수준의 교류나 사람과 사람과의 연결을 확대할 수 있다 지역사회 만들기를 오래 노력하는 구조가 될 수 있다.
- 일반적으로 지역통화에서는 회원내의 거래가 우선되기 때문에 재물이나 서비스의 거래가 각 통화의 유통 범위를 넘어서 확대하는 힘이 약하고 지역 전체의 재물이나 서비스의 순환구조를 제시하는 점에서 어려움이 있다. 이 모델은 사회시장 형성의 토대가 되는 시민의 적극적인 사회 참가와 공조에 기초한 커뮤니티상의 현실에 기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2) 기본적 기능

공통기반은 각 참가 단체의 서버 온라인 레벨 시스템레벨에서 연결된 인터넷상의 서버를 주체로 한 구조이고, 실제공간레벨을 포함하고 다음과 같은 기본적인 기능을 지닌다

① 정보 제공과 공유

참가 각 단체는 단체의 목적, 운영규칙, 활동내용, 수급정보 등을 공통기반 사이트를 통

해서 공개하고 지역 공동기반 상에서 서로 정보를 공유한다 생활자 개인도 지역 내의 지역통화 단체의 활동을 알고 사이트를 통해서 가입 수속을 할 수 있다

② 공동구조 시스템

참가단체의 회원이 원한다면 복수의 지역통화에 대응한 공통의 구조를 개설 할 수 있다. 선택(참가)한 복수의 지역통화에 대해서 온라인을 통해서 구조로부터 송금 입금과 구조의 잔고확인이 가능하게 된다.

③ 단체 간 공급과 수요의 매칭 시스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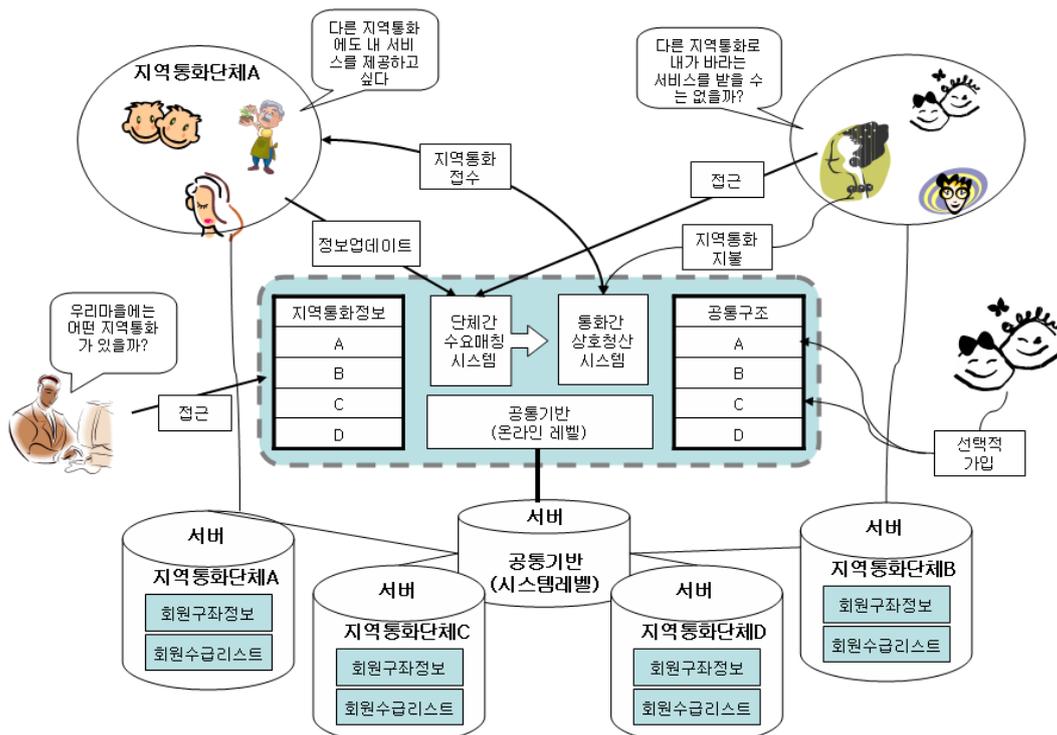
지역통화 단체를 넘어 재물이나 서비스의 매칭에 의한 거래가 가능하게 된다 공동기반이 종합적인 수급리스트를 관리하고 편리하게 제공한다

④ 구조 간 상호 청산 서비스

각 참가 단체 간에서 단체를 넘은 거래를 한 경우의 통화간의 상호 청산 처리가 가능하게 된다.(시스템 레벨)

⑤ 지역통화 운영의 서포터

지역 내 그룹이 지역통화의 시스템을 만들 때의 상담이나 운영지원을 한다또한 공동기반에 참가하기 위한 기술적 지원을 한다. 또한 지역통화 단체가 공유하고 싶은 운영상의 노하우를 축적하고 각 단체에 정보를 제공하거나 연수 등을 한다 (실제 공간 레벨, 온라인 레벨)



공동기반의 시스템 구조

3) 통화 간 결제의 구조

이 모델의 기능의 중심이 되는 것이 통화 간 결제이다 이것은 단체 내에서 단혀있는 지역통화 시스템을 무너뜨리지 않고 단체간에 상호 거래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즉, 공통기반 상에 참가단체의 수만큼 통화가 존재하고 거래 참가자가 임의의 한 개를 결제통화로써 자유롭게 선택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다.

이를 통한 거래 순서는 조금 복잡하기 때문에 사례를 제시해서 설명한다

전제로서 공통기반에 다음의 통화단체가 참가하고 공통기반에서 결제시스템을 공유하고 있다고 하자. 사례를 간단하게 하기 위해 ABC는 모두 Lets형(구좌변동 처리형 지역통화 결제시스템)으로 한다.

- 지역통화단체 A 사용하는 지역통화는 ㉠
- 지역통화단체 B 사용하는 지역통화는 ㉡
- 지역통화단체 C 사용하는 지역통화는 ㉢

각 단체는 각각 독자적 서버를 가지고 서버 내에 회원 수급(需給)리스트와 각각의 통화를 이용하는 회원의 구좌정보가 존재한다. 각각의 서버 시스템은 통화 기반의 시스템과 인터페이스(접속)가 떨어져 있다.

각 단체는 모든 참가단체의 통화에 대한 구좌를 개설한다 예를 들면, 단체A의 서버에는 단체A, 단체B, 단체C 각각의 통화㉠의 구좌가 존재한다. 단체B, 단체C의 서버도 마찬가지로 이다.

<상정 사례>

단체A의 회원인 갑은 서비스의 제공을 생각하고 자치단체 내 뿐만 아니라 공통기반을 이용해서 많은 지역 내의 혹은 동일 거주지역내의 단체 회원에게도 공급항목을 주지하고자 한다.

갑은 휴대전화나 컴퓨터를 이용해서 지자체의 메뉴동록화면을 접하고 공통기반의 정보 제공여부의 선택지를 「可」로 다음 정보를 입력하고 공급등록을 한다.

- 제공 내용
- 제공 장소
- 조건 (결제통화 희망...ABC부터 순위지정, 기타 조건)
- 지자체내만 공개할 정보

제공자명, 연락처, 단체 내 필요정보

※ 등록정보의 기입내용은 갑이 판단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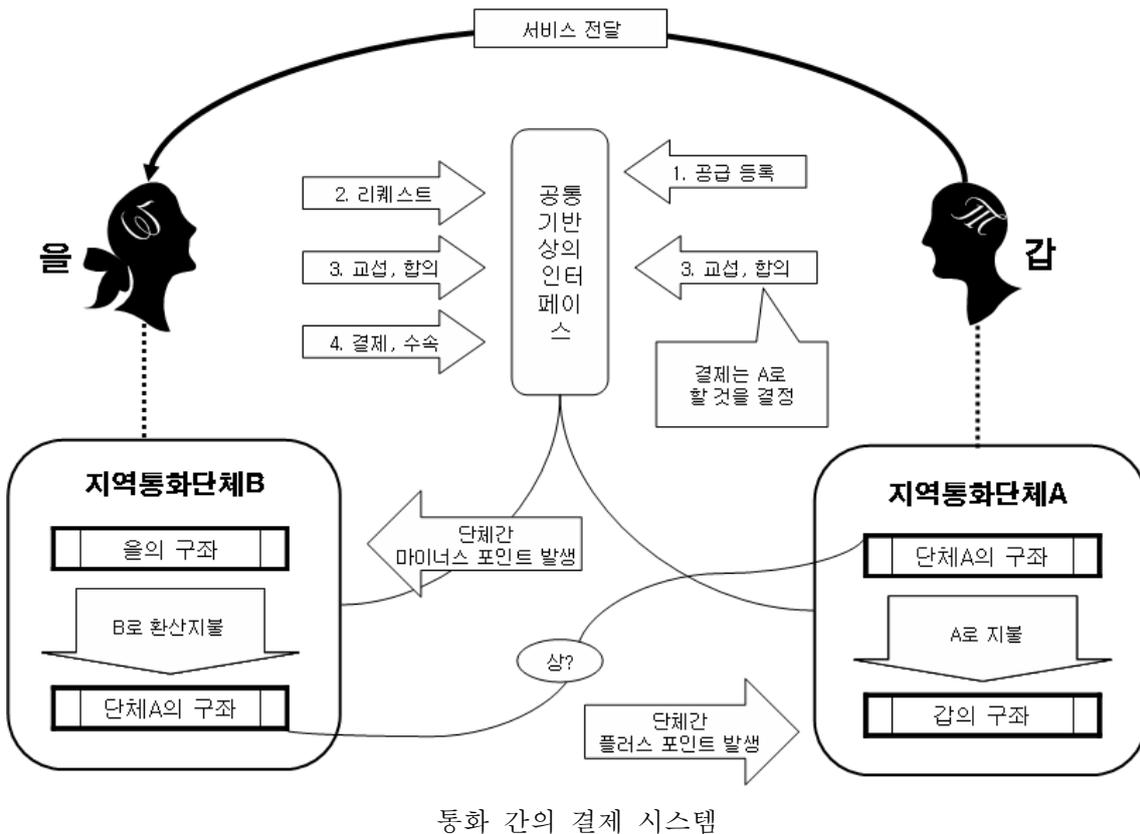
단체B의 회원 을은 지자체의 온라인의 인터페이스(조작화면)를 사용해서 공통기반에 포함된 공급리스트를 검색한 결과 을이 입력한 희망하는 제공 내용, 제공 장소, 결제통화에 매치하는 정보로서 갑의 입력정보가 해당한다.

공통기반의 서버는 을이 당사자인 것을 확인(인증)하고 갑에게는 단체B의 회원으로부터

요구가 있었다는 것만 전달한다. 갑의 회답(이 경우 「교섭 가능」)을 받고, 서버는 갑이 당사자인 것을 확인하고 그 요지를 을에게 전달한다 을이 인수를 표명하고 쌍방은 공통기반 서버에서 운영하는 교섭 사이트에 들어간다. 결제가 사전이행이나 사후이행인가를 합의하고 교섭은 합의, 서비스 전달이 종료된다.

갑과 을은 통화②를 통해 결제하기로 했다. 을은 단체B의 서버에 접속해 지불 수속을 한다. 통화②로 지불액을 입력하면 소정의 환산율로 통화①로 금액이 표시되어 「OK」 된다. 단체B의 서버는 을의 구좌에서 지정액을 공제하고 같은 서버 내에서 단체A의 구좌로 같은 액수가 들어간다. 이 통지를 받은 단체A는 회원 갑의 구좌에 통화②로 환산해 바꿔 단체A의 단체 구좌에서 그분만큼 공제된다. 마이너스된 단체구좌의 통화②를 상쇄한 금액은 단체B의 서버 내의 단체A의 구좌에 존재하고 있다.

이 시스템은 모두 현재 소장하고 있는 지역통화가 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불가능하지 않다. 사례는 지역통화 결제를 설명한 것이지만 실제로는 법화(円)비용 결제의 경우도 있다. 그 경우, 엔화(円)에 의한 결제부분은 공통기반 참가 각 단체가 가진 결제 시스템이 이용된다.



<시스템 개발상의 과제>

상기 시스템의 개발에 있어서 몇 개의 기술적인 문제가 있다고 여겨지지만 여기서는 상세하게 나열하지 않고 항목만을 제시해 둔다.

- 각 단체의 시스템과 공통기반과의 사이에 접속 방식
- 공통기반 프로그램 본체의 개발
- 공통기반과의 인터페이스 방식 공개
- 공통기반과의 인터페이스에 접속할 라이브러리 공개
- 공통기반을 이용하기 위한 클라이언트 소프트웨어의 개발(휴대전화용·컴퓨터용)

4) 관리조직 및 행정지원의 필요성

공통기반의 실체를 이루는 관리조직은 참가 각 단체가 공동 운영하는 조직(NPO법인)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통화 간 결제 시스템의 운영은 지역 내 금융업자에게 위탁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

단, 이 모델은 IT기술을 활용한 시스템의 개발 등 누군가가 선두에 서지 않으면 시작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시작에 있어 행정의 관여가 불가결 할 것이다.

특히 하기 사항에 대해서 행정의 지원관여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 추진 역할을 담당하는 복수의 지역통화 단체의 발족 지원육성
- 공통기반에 대응하기 위한 지역통화 단체의 기술지원
- 공통기반의 본체가 되는 서버 프로그램의 개발의 체제 마련과 금전적 지원
- 유통확대형의 공통기반과의 접점이나 관계의 정비

이상의 대처는 행정이 독자적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가능한 지역 사업자나 인적자원을 등용해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다음 유통 확대형 모델에서 서술하는 것처럼 지역통화 활용에 의한 사회적 사업으로 실시하는 방향도 생각해 본다.

(2) 유통 확대형 모델

1) 모델의 개요와 목적

사업자나 생활자의 폭 넓은 참가를 얻어 활발한 거래가 행해지는 것에 의해 재물이나 서비스의 공급과 유통을 늘리고 지역 내의 사회서비스를 충실하게 해 가기 위한 모델이다. 지역 내 레벨의 경제권역을 상정한 시장형성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마치다(町田) 시권역 사회시장 공통기반」이라는 구조이다.

공통기반은 사회시장에 관한 정보 플랫폼(Platform-공통기반)의 기능(구체적으로는 78)

78) 포털사이트 (portal site) : 인터넷의 현관이 되는 웹사이트, 사용자가 이용하고 싶은 웹페이지를 소개하는 서비스. 호텔의 현관 입구에서 숙박객을 맞는 porter에서 이름 지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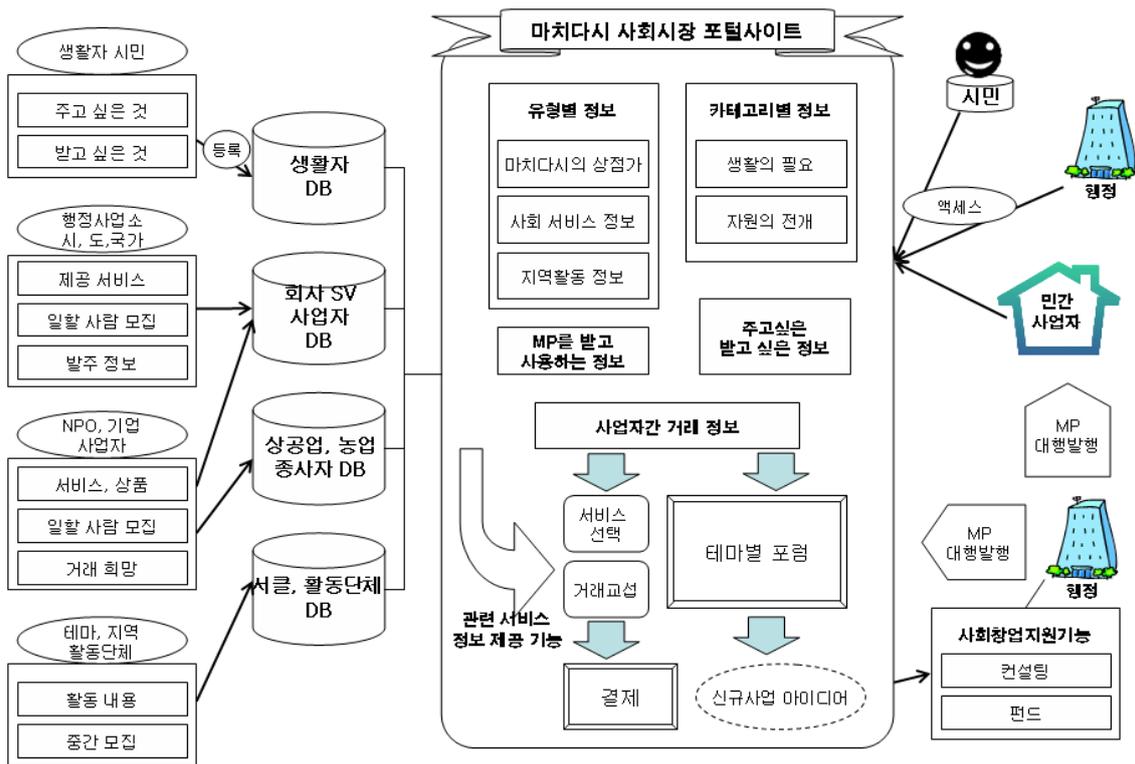
포털사이트)을 기본으로 하고 공통기반 상에서 거래를 가능하게 하는 수요 매칭 및 결제 시스템을 가진다. 많은 사업자나 개인이 참가하기 쉽도록 법제화폐에 의한 거래도 가능하지만, 사회 시장에 관련한 지역 내 거래를 촉진하기 위해서 공통기반에서 교환수단으로서 독자 통화(이후에 설명. 이하 「MP」 라고 한다)를 발행·운영하고 MP거래를 장려한다. 또한 통화기반 상에서 커뮤니케이션 촉진을 위해서 테마별 포럼을 개설한다

보다 더 사회서비스 사업을 육상활성화하기 위한 사회서비스의 사업자의 창업 사업경영, 거래 등에 관한 컨설턴트나 사회서비스 사업자의 설비투자에 대한 자금적 지원을, 공통기반에 부가하는 사업으로서 한다.

이에 의해 다음과 같은 참가자의 행동 흐름을 마련해서 사회 서비스에 관한 지역 내의 거래나 사업을 늘려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공통기반에 참가 → 정보수집·제공 → 정보교환·커뮤니케이션 → 교환·거래 실시 → 사회사업 전개 → 사회적 네트워크 형성

모델 개념도



2) 참가자 등록과 정보 등록

공통기반의 기능을 이용하고 공통기반에서 거래를 하기 위한 신용을 확보하기 위해서 참가자의 등록이 필요하다. 등록에 있어서는 공통기반의 운영규정(결제방법 등)에 동의가

필요하다. 등록자는 MP를 발행하고 포털사이트 내에서 거래를 하고 포럼에 참가할 수 있다. 참가등록을 하지 않아도 사이트 내에서 정보 열람은 할 수 있다.

등록자로서 상정되는 것은 마치다(町田)시 권역 내에 거주하는 생활자 개인이나 마치다(町田)시 권역에서 영업을 하는 사업자 조직(당연히 구청 등 행정 사업조직도 포함한다.) 및 그 종업원 등이다. 전국적, 세계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기업의 등록을 인정할지 어떨지에 대해서는 사회시장 형성에 촉진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상황에 맞추어 판단해야 할 것이다.

공통기반의 운영경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등록자에게 일정 금액의 서비스료를 법적 통화로 징수한다. 사업자, 활동단체, 생활자 개인에서 이용하는 기능이나 이용 방법은 약간 다르기 때문에 서비스 요금은 각각 다르지만 개인 요금은 가능한 한 싸게 설정하는 것이 좋다.

공통기반의 룰을 지키지 않는 등록자나 제공하는 서비스를 신뢰하지 않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등록 취소나 재등록 금지 등의 조치를 한다.

사회시장은 참가자의 상호 신뢰가 기본이기 때문에 등록에 있어서 다음 항목에 대한 배려가 특히 요구된다.

- 안전한 참가자 인증(이용자 보호, 부적절 이용의 배제)
- 참가자 정보의 노출 방지
- 철저한 자기 책임(책임 있는 거래 활동과 리스크 회피에 대한 주체적 판단)

공통기반은 인터넷상의 포털사이트로 나타나지만 이것을 지탱하는 데이터베이스가 존재한다. 공통기반의 참가 등록자는 어느 쪽인가 혹은 복수의 데이터베이스에 정보를 등록한다(A~C는 활동의 기반이 지역에 있는 것이 조건). 등록정보는 적당히 갱신한다.

A. 「사회 서비스 사업자」 데이터베이스

대상 : 사회 서비스를 하는 사업자. NPO, 사회복지법인, 학교·교육기관 외,
개인사업자나 마치다(町田)시, 동경, 국가 등 행정기관의 사업소도 포함

B. 「상공업·농업 종사자」 데이터베이스

대상 : 상품이나 제품을 제공하는 사업자. 통상 서비스업도 여기에 포함한다.
※사회서비스와의 구분은 엄밀하게 하지 않고 기본적으로는 등록자의 판단에 맡긴다

C. 「서클·활동 단체」 데이터베이스

대상 : 문화·스포츠·사회봉사 등의 활동을 하는 단체
※사업자인가 활동단체인가를 구별은 기본적으로 등록자의 판단에 맡긴다

D. 「개인사용자」 데이터베이스

대상 : 공통기반을 이용하려고 하는 생활자 개인
※ 거주지 등의 조건은 설정하지 않지만 공통기반의 기능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자기 자신으로 한정한다. 안전관리를 위한 참가할 때 개인 인증은 필요

데이터베이스에는 다음과 같은 정보가 등록된다.

A와B

- 생활자에 제공하는 서비스, 상품 등의 종류와 내용
-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거래, 구입 등의 희망이나 조건

C

- 활동 종류, 목적과 활동 상황

D

- 주고 싶은 것 (제공 할 수 있는 재물이나 서비스 등)
- 받고 싶은 것 (제공을 받고 싶은 재물이나 서비스 등)

A~C에 공통

- 스텝, 일손 모집정보
- 거래나 사례로서 MP의 사용 유무와 대상조건

A~D에 공통

- 등록자의 사이트 정보 (사이트가 있는 경우, 그 링크)
- MP의 발행·거래·잔고의 현황 (등록자의 구좌)

3) 포털사이트의 내용과 기능

공통기반의 포털사이트의 콘텐츠는 「생활자 대상」, 「사업자 대상」, 「공통」으로 구분된다. 각각 내용은 대략 다음과 같다.

<생활자 대상 항목>

● 종류별 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기초로 각각 정보를 제공한다. MP의 취급 유무나 발행수취조건도 확인할 수 있다. 사이트상에서 발주 구입, 가입 신청 등을 할 수 있다. 또한 정보등록자의 사이트 링크한다.

- ◇ 사회 서비스정보: NPO, 행정 기타 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내용, 조건 등
- ◇ e상점가: 개개의 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 서비스 등의 정보를 전자 상점가의 형태로 제공
- ◇ 지역 활동정보: 지역 내에서 단채서클 등의 활동 정보를 테마별로 제공

● 카테고리별 정보

사이트 이용자의 편리성에 따라 정보검색이 용이하도록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카테고리로 정리해서 정보를 제공한다. 요구에 부응해서 사이트에 등록된 관련 서비스 정보도 차례로 연락 할 수 있고 등록자가 있다면 교섭신청 등도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한다

- ◇ 생활 요구(항목: 생활에 필요 한 것)
항목: 살림, 라이프 이벤트 건강, 취미, 학습, 스포츠 일... 등

◇ 자원의 전개(항목 예 : 사업 등의 생활 내용에 따른 것)

항목 : 서비스, 상품, 교환재활용, 일손 모집, 생활의 동료... 등

● 멤버 간 거래 정보(주고 싶은 것, 받고 싶은 것에 대한 정보)

생활자 개인의 멤버(등록자)가 MP로 거래하기 위해 각 멤버가 등록한 「제공할 수 있는 재물이나 서비스」와 「제공을 받고 싶은 재물과 서비스」의 정보를 제공한다. 키워드로 검색하고 사이트 상에서 교섭·거래를 할 수 있다. 이 때, MP 사용 유무나 조건은 멤버의 의사에 맡긴다.

<사업자·생활단체 대상 항목>

● 사업자 간 거래 정보

재물이나 서비스 등에 대해서 매입하고 싶은 것, 제공 할 수 있는 것의 정보를 교환하고 교섭·거래를 할 수 있다. 이 때, MP의 사용 유무나 조건은 멤버의 의사에 맡긴다

<공통항목>

● 테마별 포럼

사회적 공동과제나 사회 서비스에 관한 테마를 설정 각각의 테마에 대해서 정보나 의견을 교환한다. 새로운 사업이나 활동으로 이어지는 건설적인 커뮤니케이션이 되도록 멤버 이름을 밝히고 참가한다.

● MP정보

MP 거래의 규약활용방법에 대해 해설한다. MP를 벌 수 있는 기회, 사용할 수 있는 기회에 대해서 사이트 내에 조건 검색을 할 수 있다.

또한 통화기반은 포털사이트에 부수사항으로 다음과 같은 기능을 지닌다

① 공급과 수요의 매칭 기능

사이트 이용자가 등록정보를 검색하고 수요에 대응하는 공급정보에 정확하게 접근할 수 있다. 온라인 레벨 이외 실제 공간 레벨에서도 개개의 등록자의 요망이나 상담에 대응하고 조언, 조정, 중재 등을 통해서 거래 기회 확대로 이어지는 서비스를 한다 또한 거래의 동향을 조사하고 공통기반 이용자가 요구하는 재물이나 서비스의 방향성을 찾아내어 그것들을 시장에 제공한다.

② 거래 결제 시스템

공통기반은 법제 통화(円)와 MP의 양방에 대응하고 병용 결제(상품 가격에 대한 MP의 수입률에 따라 법제 통화와 MP의 양쪽을 맞춰서 지불한다.)도 가능한 사이트 상에서 거래 결제 시스템을 지닌다 등록자의 MP의 발행·거래·잔고의 현황은 공통기반 내 데이터

베이스)의 구조를 통해 관리되고 부적절화 MP거래에 대해서는 시스템이 감시한다

③ 시장정보 제공 기능

수급 매칭이나 신규 사업 제언 등, 이용자에게 도움이 되고 사회시장 활성화로 이뤄지는 공통기반에 관련된 정보를 정기적 혹은 적당히 이용자에게 제공하기 위해 희망자에 대해 메일 매거진이나 정보지를 발행한다.

4) 교환수단으로서 MP

공통기반에서 독자 교섭 수단으로서 MP를 발행한다. MP는 「마치다 포인트」와 「Matching Point」의 첫 글자를 따온 명칭이다. 「매치」등 이미 서술한대로 유통시키고자 한다. 가치의 참조기준(제3장에서 설명)은 법제 화폐로 하고 1円=1매치로 한다.

MP의 발행은 대행 발행방식(제3장에서 설명)으로 한다. 공통기반은 MP의 대행 발행 기능을 가지게 하기 위해 그 기능이 되는 조직(이하 가치으로 「MP협회」 또는 「협회」라고 한다)을 확립한다.

MP를 발행할 수 있는 것은 공통 기반에 등록된 개인이나 법인이다 등록자로부터 신청이 있을 경우, MP협회는 MP의 발행 기준에 근거해서 등록자에게 MP를 대행 발행 한다. 발행의 근거는 등록자가 제공할 수 있는 것 상품, 서비스로 하고 법제 화폐(円)를 근거로 한 발행은 원칙적으로 할 수 없다. 따라서 법제 화폐와 교환도 할 수 없다 협회는 등록자의 근거 능력과 MP에 의한 거래를 예측하고 일정한 한도액 이내에서 MP를 대행 발행한다. 한도액을 넘는 발효를 인정한 경우는 등록자의 MP거래의 수치 보고를 정기적으로 요구한다.

MP의 교류를 확대시키기 위해 공통 기반에 참가 등록을 할 때 MP를 가지지 않는 등록자는 MP협회에서 일정액의 MP를 대행 발행 받도록 하고, 등록자는 일정기간 동안 그것을 사용하고 스스로 재물이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동액(同額)이상의 MP를 버는 것을 「약속」 하는 것으로 한다.

공통기반에서 탈퇴 할 때는 등록자는 대행 발행을 받은 MP를 협회에 반환해야만 한다. MP에 의한 거래는 법제 화폐와 병용이 가능하지만 사업자인 등록자는 MP의 수치를 보고 상품 등의 가치에 대한 MP 수입률을 결정할 수 있다.

MP는 전자화폐 혹은 지폐로 발행된다. 전자화폐는 공통기반의 사이트(온라인 레벨)에서 전자 결제에 이용된다. 지폐는 대면을 통한 거래(실제 공간 레벨)에 사용되도록 유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MP 협회는 일정액의 수수료를 징수 하고 전자 화폐와 지폐와 교환한다. 단, 공통기반 참가자 등록 전에 지폐 MP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등록할 때 전자화폐 구조를 개설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MP를 유통시키기 위한 방책으로서 다음과 같이 고려하고 있다

- MP 발행 사업을 개시하기 전에 MP를 사용하는 지역 내의 재화의 유통순환 구조를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상정해 둔다.

- α 핵심이 되는 복수의 사업자를 미리 상정하고 거래관계나 MP의 발행 매수를 예측해 둔다.
- MP 발행 시에 등록자가 어떻게 MP를 벌고 어떻게 MP를 사용하는지를 조언하고 동기를 부여한다. 특히 MP을 벌기 위한 아이디어 등을 제공한다
- 등록자에게 MP가 없으면 입수 할 수 없는 중심이 되는 상품과 서비스의 제공을 독려한다.
- 시장에 많은 MP를 유통시키기 위해서는 사회시장에 관련성을 지닌 규모가 큰 사업주체 (특히 마치다(町田) 시)가 출선해서 많은 액수의 MP를 지불하고 인수한다
- 공통기반 발족 후 일정기간(1년 이내)이 지나면 MP에 의한 거래를 독려하기 위해 등록자(멤버 간 거래정보에 수요·공급의 내용을 쓰는 조건)에게 마치다(町田)시가 일정한 MP를 지급한다.
- α 재물이나 서비스를 창출하는 구조로 MP를 도입하기 때문에 등록하는 것만으로 MP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취급은 바람직하지 않고 제도 확립 시 일시적인 방침에 머물러야만 한다.

5) 사회 창업지원 기능

지역 내에 사회서비스를 깊어지는 사업주체를 육성하기 위해 공통기반에 사회 창업 지원을 하는 다음 기능을 부가한다.

① 사회 창업컨설팅

공통기반에서 거래나 정보교환의 현황에서 시장에 요구되어지는 사회 서비스의 동향을 파악하고 등록자에게 시장형성에 주도적 역할을 다하는 사업주체를 육성해 간다. 특히 포럼의 운영에 경영에 관한 전문성을 지닌 코디네이터를 할당하고 테마나 과제에 대한 커뮤니케이션에서 새로운 사업 창출이나 네트워크형성 가능성을 키워간다. 또한 사업이 구체적으로 타겟으로 한 자금 조직 만들기, 고용획득, 사업운영방식 등에 대해서 실천적인 조언 등을 한다.

② 사회 창업펀드

사회 서비스의 사업자가 시장에 요구되어지고 있는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때 MP로는 조달할 수 없는 설비투자 등의 자금을 원조하기 위한 기금을 운영한다. 기금의 운영자에게는 MP협회를 상정한다. 기금에 넣는 자금은 다음 3가지 방법으로 모아진다.

● 시민으로부터의 자금제공

공통기금의 등록자나 일반 시민에게 법적 화폐에 의한 자금제공을 요구하고 협회는 제안에 응한 자금 제공자에게 보답으로서 MP를 지불한다.

● 시가 발행하는 바우처와 교환

미치다(町田)시가 서비스 수급자에게 지급하는 바우처를 서비스제공 대가로서 받은 사업자가 시에 환금을 요구하는 대신 협회에서 MP와 교환바우처를 근거로 MP를 발행

한다. 협회는 시에 바우처의 환금을 요구 법적 화폐를 얻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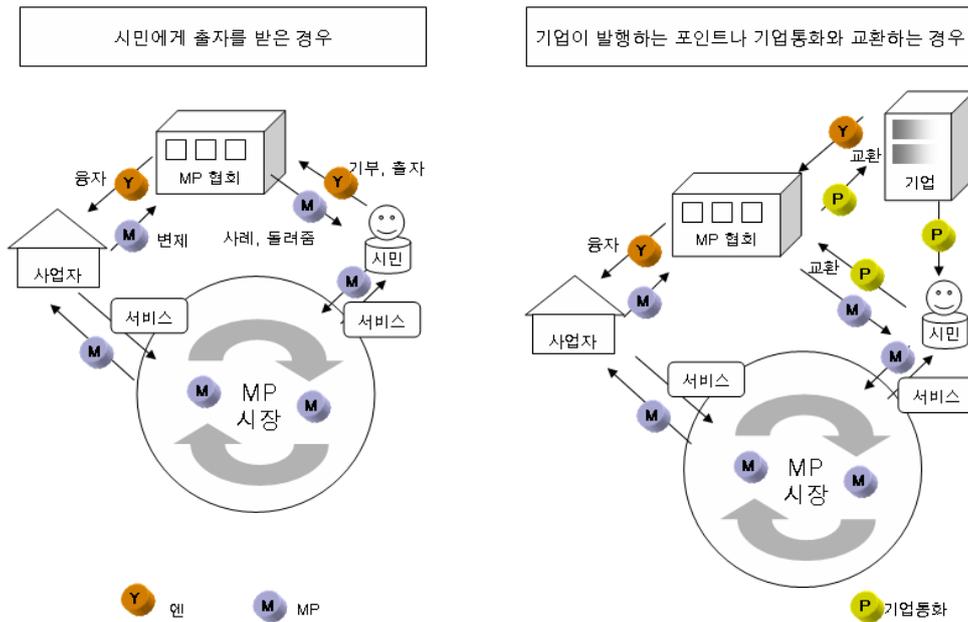
● 기업이 발행하는 포인트와의 교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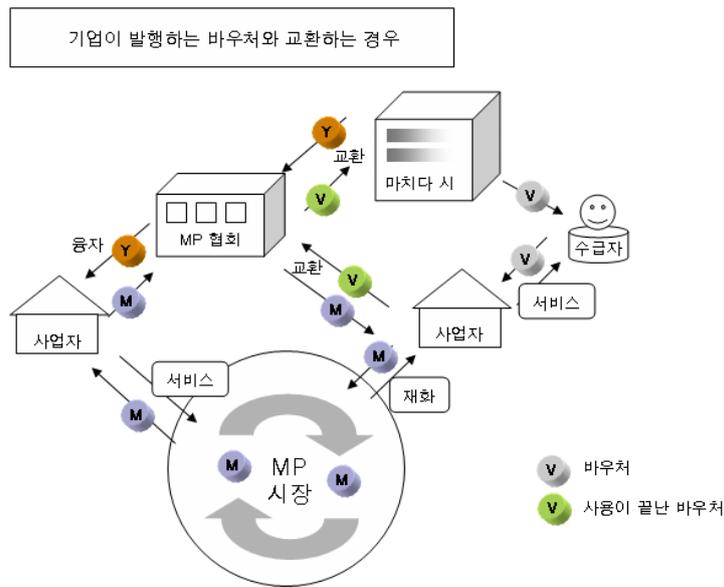
기업이 발행하는 포인트 혹은 기업통화를 받은 소비자가 협회에서 그것을 MP와 교환 (포인트 혹은 기업통화를 근거로 한 MP의 발행)한다. 협회는 포인트 혹은 기업화폐의 발행자인 기업에게 환금을 요구, 법적 화폐를 얻는다.

MP협회는 이상의 방법으로 모아진 자금을 기초로 출자상당액을 MP로 반제하는 것을 조건으로 사회서비스 사업자에게 무이자로 자금을 제공한다 사업자는 설비투자를 해서 신규사업을 시작하고 사업을 해서MP를 벌여 협회에 반제한다.

또한 MP 유통을 회전시키기 위해서는 법적 통화의 자금을 축적하지 않고 조기의 투자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계획적인 펀드 운영을 해야 한다

<사회 창업 지원 기능>





6) 운영주체

이 모델은 시장형성에 관한 기능이나 조직을 표준화하고 종합적인 운영을 피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집약적인 통제가 작용하는 구조가 되어가는 요소가 있다. 그러나 사회시장의 공유지인 공통기반의 성격에서 그 운영은 관계되는 각각의 주체가 대등공평하게 참가하고 협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 지역 내의 관계자 연대모습이 공통기반의 신용을 높이고 운영에 플러스로 작용함에 틀림없다.

또한 공통기반의 형성에는 그 제반 기능을 충분하게 달성하기 위해서도 다양한 전문성이나 직능이 요구된다. 이 때문에 지역에 존재하는 영라비영리를 불문하고 각종 단체의 협력이 불가결하다. 다행히 마치다시에는 대학, 연구기관, 다양한 기업이 입지하고 인적 자원의 축적도 다른 지역과 비교해서 풍부하다.

그래서 공통기반의 운영주체는 독자 운영 조직에 모두를 위임하지 않고 포털사이트 등이 매듭이 되어 기능을 담당하는 주체를 분산적으로 설치해 가고 순차적으로 네트워크를 형성하면서 전체로서 공통기반을 운영하는 형태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지역 내의 다양한 단체기업 등의 협력, 협동이 이루어진다면 공통기반의 운영자체가 지역 활성화의 원동력이 될 것이다.

또한 공통기반에 필요한 전문성과 그것에 대응한 조직구성으로서 다음과 같은 것이 고려된다.

- 컴퓨터 시스템 관리: 시스템 관리업무 부문
- 금융기관 유형의 업무: MP의 발행·회수의 관리 부문
- 투자평가, 경영평가 업무, 컨설팅: 기금의 관리운영 부문
- 사회시장조사, 지역사회 조사 분석: 시스템이용자, 참가자개발 부문

7) 운영사의 과제와 행정의 관여

이 모델은 전체로서는 대규모 구조이기 때문에 시작이나 운영에 관해서 많은 과제가 생길 것이라 생각되지만 여기서는 기본적인 유의사항으로 다음을 들 수 있다

- MP는 범용(汎用)성을 목표로 한 통화이기 때문에 법적규제에 걸리지 않도록 제도 설계가 요구된다. 또한 과세에 대한 대응이나 마치다시 등 행정에 의한 인수의 제도화를 잘 검토할 필요가 있다.
- MP가 상업 진흥 등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도입되고 있는 포인트 시스템(프리미엄 포인트)나 쿠폰 등의 활용을 못하게 할 가능성이 있는 것에 주의해 둘 필요가 있다. MP의 유통이 지역 내의 산업 활동의 진흥으로 이어지도록 관계자와 충분히 조정해야한다.

이 모델에 대한 행정의 관여에 대해서 전자 모델과 같이 시스템 개발이나 운영주체 설립 지원 등이 요구된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개별 이용자를 넘어 지역 경영주체와 조정하면서 공통기반의 육성에 관계해 가는 것일 것이다.

(3) 모델을 실현하기 위한 제언

1) 2개 모델의 관계

앞서 서술한 것처럼 「커뮤니티주도형 모델」과 「유통확대 모델」은 목표나 접근방식이 다르고 교환수단으로 상정하는 지역통화의 자리매김이나 수비범위도 다르다. 커뮤니티 주도형 모델의 통화 간 결제 시스템은 규모를 통한 단체상호에 유효한 것이라 생각되기에문에 유통확대의 모체를 목표로 하는 MP의 적용은 상정되어 있지 않다. 2개의 모델은 제공정보의 링크이외에 결부되는 기능적인 요소는 별로 없다.

오히려 양자는 보완 관계이다. 한쪽의 활성화가 다른 쪽에 마이너스로 작용하지 않고 오히려 다른 쪽의 활성화를 촉진시킬 것이다. 어느 쪽인지를 선택한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느 쪽인지 한쪽은 성립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도 아니다. 또한 어느 쪽을 우선으로 해야만 하는 것도 아니다. 굳이 말하면 「지역의 힘」을 키워간다는 점이다. 커뮤니티주도형 모델은 유통 확대형 모델의 토대가 될 것이다. 단, 어느 쪽부터 착수 할까는 마치다의 현황이나 장래의 과제를 잘 검토한 다음 결정하고 가능한 것부터 조금씩 시작해 가는 것이 현실적일 것이다.

2) 실현을 위한 과제

모델 안은 공통기반의 가능성을 이미 한 것을 우선했기 때문에 현실적인 과제에 대한 대응에는 검토하지 않았다. 그러나 실제 공통기반의 구체적인 시작을 계획하는 단계에서는 다음과 같은 과제에 대한 대응을 충분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

① 법령·제도상 과제

제3장, 제4장에서 서술했던 것처럼 지역통화를 제도화 하는 것에는 많은 과제가 존재한다. 통화거래나 통화수입에 대한 과세 취급의 문제 행정조직에 의한 통화 지불 및 입수과제 제도 구축에 있어 제반 법령에 대한 대응문제 등이다. 관계기관의 교섭도 필요하게 될 것이다.

② 통화 운영상의 문제

제3장에서 서술한 것처럼 지역통화의 특질을 지역의 현황에 대해 어떻게 활용해 가면 좋을까에 문제가 있다.

- 통화의 감가: 지역통화를 유통시키는 방책으로서의 통화의 가치 절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 통화 위조에 대한 대응: 지역통화를 지폐로 발행할 경우, 유통 가치를 지닐 정도로 위조 될 우려가 늘어난다.
- IC 카드에 대한 대응: 이후 IC카드(칩)로 운반하는 전자화폐의 보급이 예상되지만 공통기반에 시스템을 도입할까 어떨까에 대한 문제총무성이 추진하는 주기카드를 활용하는 시스템과 같이 먼저 IC카드가 있어야만 하는 발상은 논의할 가치가 없고 많은 금액의 투자에 걸 맞는 투자가 있을까 어떨까가 판단기준이 된다.)
- 통화의 발상 방법: 유통확대 대형모델로서 대행 발행방식으로 MP를 제안했지만 특정한 발행박식(제Ⅲ장에서 설명)의 가능성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③ IT시스템상의 과제

모델안의 설명에 기재한 것처럼 과제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을 검토 할 필요가 있다

④ 관계구축의 과제

공통기반은 많은 주체의 관계구축으로 만들어지고 상정하고 있고, 공통기반에 앞서 관계 만들기를 어떻게 진행할까가 중요하다. 또한, 공통기반이 기능하는 데는 공통기반의 구조 뿐만 아니라, 지역 내 자원 순환구조와 그것을 지탱하는 당사자 간의 관계를 어떻게 구축하는가를 동시에 검토할 필요가 있다.

3) 실현을 위한 첫걸음

이 모델 안은 시안이다. 이와 같은 사회시장의 공통기반을 구축해간 다음 지역의 기업 개인 사업자, NPO, 커뮤니티나 테마에 의한 활동의 리더, 그리고 행정 등 사회시장의 주체와 가능한 많은 관계자가 폭넓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 먼저, 그 논의의 장을 만드는 것이 그 첫걸음이다.

공통기반 만들기의 주역은 행정이 아니라 사회시장에서 활약하는 여러 지역 활동가들이다. 그러나 새로운 사회 시스템을 만들어 간 다음에는 행정에 대한 요구가 있는 한 조정 역할을 담당하고 공적인 투입이 필요한 경우에는 책임을 다할 필요가 있다 단, 공적 재

물의 투입은 필요 최소한으로 한정해야 한다 왜냐하면 지역 소재의 자원에서 새로운 가치를 낳는 것이 사회시장의 역할이기 때문이다

공통기반 구축에 있어서는, 지역 내 조달이 어려운 설비나 지적 재산을 확보하기 위해 초기투자로서 어느 정도 공적자금의 투입이 필요할 것이다. 특히 시스템개발이나 IT관련 설비의 정비 등에 있어서이다. 그러나 지역 외의 특정 시스템 개발회사나 컨설턴트 회사에 완전히 위탁하는 방법은 잘못된 것이다. 시스템의 기본이나 open source의 방식을 기본으로 개발해 가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공통기반이라는 지역의 자산(시스템)이 외부의 주체에 장악당해 외적요인에 영향을 받게 되고 지역이 주체적으로 운영하는 지속 가능성 있는 구조가 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회시장을 구상한 근본과제를 해결하지 못한다 이러한 점에서도 공통기반은 지역 만들기 관계자에 의해 실질적인 논의를 통해서 거듭한 다음에 구상해야만 갑작스러운 문제에 봉착했을 때를 피할 수 있다

다시 반복하지만 2가지 모델 모두 공통기반은 독단 기관이 집권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복수의 조직에 기능을 분산시켜 각각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면서 연합해서 전체의 구조를 만들어가는 그러한 방법이 open source에 적합할 것이다. 연합의 핵심이 되는 플랫폼(Platform- 공통기반)자체는 할 수 있는 만큼 간단한 조직 형태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일괄적으로 전체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먼저 기본적으로 정보 플랫폼(Platform-공통기반)을 만들고 각종 기능의 주체적인 담당자에 의해 사회시장 형성에 맞춰서 가능한 것 부터 착실하게 구축해 나아가는 것이 좋을 것이다.



연수단장 정기영(성남시의회 사회복지위원회 위원)
정용한(성남시의회 사회복지위원회 위원)
이순철(성남시청 문화예술과 담당)
류진형(성남예총 사무국장)
김정진(성남문화원 사업부장)
황정주(성남민예총 지부장)
조은주(성남시자원봉사센터 연구개발팀장)
노재천(성남문화재단 문화사업국 국장)
박승현(성남문화재단 문화기획부 부장)
정석준(성남문화재단 문화기획부 과장)

성남문화재단 자료집 Seongnam Cultural Foundation Report

성남문화통화 도입을 위한 일본 지역통화 연수집

발행일 : 2006년 11월 7일

발행인 : 이대엽

발행처 : 성남문화재단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757번지 성남아트센터

전화 031-783-8103(문화기획부) 팩스 031-783-5298

www.sncf.or.kr

© 성남문화재단

